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학위논문

한국어 화제의 속성과 실현
기제에 대한 연구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김민선

한국어 화제의 속성과 실현 기제에 대한 연구

김민선

본고의 목적은 화제는 인지상태와 언어형식 간의 대응 문제이고 담화 실체인 동시에 문장성분이라는 인식을 분석에 반영하여, 한국어 화제의 특성을 구명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어 화제의 기능과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본고는 화제의 속성을 주의 내 기존성으로, 실현 기제를 문두와 조사로 각각 파악하였다. 이는 한국어의 자유로운 어순과 다양한 표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의의 현저성은 문두 배치를 통한 문장의 분절로, 주의의 전환·승계 속성은 구문의 선택과 조사의 통합을 통해 각각 실현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어 화제는 전환 화제와 승계 화제로 구분되고 전환 화제는 다시 대조화제와 비대조화제로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기존성을 청자의 인지상태 내에 해당 명제·실체가 이미 존재한다고 간주하고자 하는 화자의 가정과 관련된 속성으로 규정하고, 출처가 되는 인지상태에 따라 지시적 기존성과 관계적 기존성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지식·의식과 관련되고 후자는 의식 내 주의와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대상이 되는 명제·실체와의 조합에 따라 지시적 기존성은 각각 전제·한정성으로 실현되고, 관계적 기존성은 각각 배경·화제로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화제를 제외한 세 유형의 기존성은 화제의 필요조건으로 간주되었다. 배경-초점 분절은 명제의 분절과 직결되고 화제-평언 분절은 문장의 분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구별하였다.

문두 구문에 전치, 좌측전위, 중주어, 자유화제를 포함시키고 이들 구문의 화제는 대개 전환 화제이며 대조화제·비대조화제 여부는 조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화제 전환은 담화 단위 경계에서 실현될 때도 있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실현될 때도 있는데 전치 구문은 특히 담화 간보다 문장 간의 화제 전환에 더 적합한 것으로 구명되었다. 문장 간 전환 화제는 초점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배경·초점 여부는 대조·비대조 여부와 마찬가지로 조사를 통해 표시되는 것으로 이

해하였다. 구문별로 상이한 화제와 후속 성분 간의 관계도 전환 단위와 전환·승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조사 구문에 ‘는’, ‘가’, 무조사, 성분생략을 포함시키고 이들 구문의 화제는 조사에 따라 대조·비대조 여부는 물론이고 전환·승계 여부도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화제 승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만 실현되는데 성분생략은 특히 화제 승계만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는’과 ‘가’는 각각 연결 대조와 이접 대조를 형성하며 이접 대조의 ‘가’는 초점에 더 밀접하여 문장 간 전환 화제로 기능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무조사는 대조와 관련되지도 않고 비한정성과 관련되지도 않아 ‘는’과 ‘가’ 모두와 구분되는 특성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화제는 인지상태의 측면에서는 ‘주의 실체’, 언어형식의 측면에서는 ‘정언문의 문두 성분’, 정보 배열의 관점에서는 ‘후속 부분의 정보가 첨가되도록 한정된 영역’으로 각각 수립되었다. 화제의 일종인 제시어는 화제와 후속 성분 간 경계가 상대적으로 더 분명한 화제로 취급되었다. 실제 담화에서도 문두와 조사를 통한 화제의 실현이 비교적 잘 관찰되었다. 다만 분석을 위해 암시적 설명의문문을 남발하거나 생략된 성분을 억지로 복원하고 화제-평언으로 분절되지 않는 문장들의 존재를 무시한 점은 극복되거나 반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주요어: 화제, 기존성, 문두 구문, 조사 구문, 담화, 분절, 지식, 의식, 주의, 한정성, 전제, 배경, 초점, 전환 화제, 승계 화제, 대조화제, 비대조화제

학 번: 2005-30896

목차

1. 서론.....	1
1.1. 연구 대상과 목적.....	1
1.2. 기존 연구 검토.....	4
1.3. 논의의 구성.....	9
2. 기본적 논의.....	13
2.1. 화제의 범위.....	14
2.2. 화제의 특성.....	20
2.2.1. 화제의 속성.....	21
2.2.2. 화제의 실현 기제.....	25
2.3. 화제의 분석.....	32
2.3.1. 담화의 조직과 관련되는 영역.....	32
2.3.1.1. 실체를 통한 조직.....	35
2.3.1.2. 문답을 통한 조직.....	42
2.3.2. 문장의 분절과 관련되는 영역.....	49
2.3.2.1. 통합 분절.....	50
2.3.2.2. 계열 분절.....	55
3. 화제의 의미화용적 속성: 기존성.....	59
3.1. 기존성의 개념.....	59
3.1.1. 대상성과 기존성.....	59
3.1.2. 인지상태와 기존성.....	61
3.2. 기존성의 대상.....	62
3.2.1. 명제.....	63
3.2.2. 실체.....	73
3.3. 기존성의 유형.....	88

3.3.1. 지시적 기준성	88
3.3.1.1. 지시적 기준성의 기준	88
3.3.1.1.1. 지식과 의식	89
3.3.1.1.2. 추론	94
3.3.1.2. 지시적 기준성의 실현	98
3.3.1.2.1. 전제	99
3.3.1.2.2. 한정성	104
3.3.2. 관계적 기준성	109
3.3.2.1. 관계적 기준성의 기준: 주의	110
3.3.2.2. 관계적 기준성의 실현	111
3.3.2.2.1. 배경	111
3.3.2.2.2. 화제	125
3.4. 기준성 유형 간의 상호관계	133
4. 화제의 통사적 실현 기제: 문두	137
4.1. 전치	137
4.1.1. 전치 문두 성분의 조건	138
4.1.1.1. 지시성	138
4.1.1.2. 특정성과 한정성	143
4.1.2. 전치 구문의 기능	151
4.1.2.1. 담화의 조직과 관련되는 기능	151
4.1.2.2. 문장의 분절과 관련되는 기능	154
4.2. 좌측전위	155
4.2.1. 좌측전위 문두 성분의 조건	156
4.2.2. 좌측전위 구문의 기능	157
4.2.2.1. 담화의 조직과 관련되는 기능	157
4.2.2.2. 문장의 분절과 관련되는 기능	163
4.3. 중주어	163

4.3.1. 중주어 문두 성분의 조건	164
4.3.2. 중주어 구문의 기능	166
4.3.2.1. 담화의 조직과 관련되는 기능	166
4.3.2.2. 문장의 분절과 관련되는 기능	168
4.4. 자유화제	169
4.4.1. 자유화제 문두 성분의 조건	169
4.4.2. 자유화제 구문의 기능	172
4.4.2.1. 담화의 조직과 관련되는 기능	172
4.4.2.2. 문장의 분절과 관련되는 기능	173
5. 화제의 형태적 실현 기제: 조사	174
5.1. '는'	175
5.1.1. '는'의 의미와 문두 '는' 성분의 조건	175
5.1.2. 문두 '는' 구문의 기능	180
5.1.2.1. 담화의 조직과 관련되는 기능	180
5.1.2.2. 문장의 분절과 관련되는 기능	181
5.2. '가'	182
5.2.1. '가'의 의미와 문두 '가' 성분의 조건	182
5.2.2. 문두 '가' 구문의 기능	187
5.2.2.1. 담화의 조직과 관련되는 기능	187
5.2.2.2. 문장의 분절과 관련되는 기능	188
5.3. 무조사	188
5.3.1. 무조사의 의미와 문두 무조사 성분의 조건	188
5.3.2. 문두 무조사 성분의 기능	190
5.3.2.1. 담화의 조직과 관련되는 기능	190
5.3.2.2. 문장의 분절과 관련되는 기능	190
5.4. 성분생략	192
5.4.1. 문두 성분생략의 조건	192

5.4.2. 문두 성분생략 구문의 기능·····	193
5.4.2.1. 담화의 조직과 관련되는 기능·····	193
5.4.2.2. 문장의 분절과 관련되는 기능·····	194
6. 분석의 실제·····	195
6.1. 전환 화제·····	195
6.1.1. 담화 단위 간·····	195
6.1.1.1. 대조화제·····	196
6.1.1.2. 비대조화제·····	198
6.1.2. 담화 단위 내 문장 간·····	200
6.1.2.1. 대조화제·····	200
6.1.2.1.1. 배경·····	200
6.1.2.1.2. 초점·····	201
6.1.2.2. 비대조화제·····	202
6.1.2.2.1. 배경·····	202
6.1.2.2.2. 초점·····	203
6.2. 승계 화제·····	204
7. 결론·····	207
참고문헌·····	210
부록·····	231
ABSTRACT·····	246

1. 서론

1.1. 연구 대상과 목적

본고의 목적은 다양한 화제 구문들을 망라할 수 있는 관점을 구축하고 화제의 속성과 실현 기제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어 화제의 기능과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언어학과 그 인접학문에서 화제는 ‘무엇에 대한 것’으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이해돼 왔다. 언어학의 기존 논의에서도 (1), (2)의 밑줄친 성분들은 모두 한국어의 화제로 논의돼 왔으나 통합된 관점에서 취급되지는 못했다. 본고는 (1)을 어순과 관련된 ‘문두 구문’, (2)를 표지와 관련된 ‘조사 구문’으로 각각 구분한 후 이들을 단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한국어 화제의 정체를 구명하고자 한다.

(1) 문두 구문

가. 영희는 철수를 만났다.

나. 영희는 동생이 철수를 만났다.

다. 철수를/는 영희가/는 만났다.

라. 철수 (있잖아/말이야), 영희는 그/개를 만났다.

마. (그런데) 철수에 대해 말하자면/는, 영희가/는 동생을 만났다.

(2) 조사 구문

가. 그/개는 민호도 만났다.

나. 그/개가 민호도 만났다.

다. 영희∅ 민호도 만났다.

라. 그/개∅ 민호도 만났다.

마. ∅ 민호도 만났다.

언어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 연구하는 인문학의 하위분야로, 인간의 정신과 사회에 대해 언어자료 즉 표현 결과물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때 언어는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체계의 측면, 규칙의 측면, 소통의 측면 모두에서 연구가 가능하다. 이 중 소통의 측면 위주로 언어를 연구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화제이다.

화제는, 언어가 인간 소통의 핵심이고 화제가 언어 소통의 핵심인 만큼, 인간 자

체에 견줄 정도로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성은 언어 연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개념 및 표현과 연결되어 논의되면서 많은 문제가 구명되기도 하였지만, 그에 비례하여 혼란 역시 가중돼 온 것이 사실이다. 기존 논의에서 제시된 관련 개념을 정밀하게 검토하면서 관련 문제들을 세밀하게 구분하고자 할 때 언어학의 화제도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다.

(1)의 문두 구문과 (2)의 조사 구문을 통합된 관점에서 논의하고 궁극적으로 화제의 정체를 확립하기 위해 본고가 취할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제는 언어형식(linguistic form)의 문제이면서 인지상태(cognitive status)의 문제이다. 둘째, 화제는 문장의 문제이면서 담화의 문제이다. 셋째, 배경-초점(background-focus)과 화제-평언(topic-comment) 분절의 분리가 필요하다. 넷째, 대조는 문장을 담화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이 양상이 화제와 관련된다.

첫 번째 관점은 화제의 특성과 관련된다. 기존 논의에서 화제의 특성은 대개 대상성(aboutness)·기존성(givenness)의 의미화용적 속성과 강세 및 휴지·어순·표지 등의 음운·통사·형태적 각 기제들이 서로 혼합된 채 파악돼 왔다. 본고는 속성과 실현 기제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지상태 내 기존성이 대상성을 포함하는 화제의 충분조건은 물론 필요조건들까지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기존성이 화제 구문으로 대응되어 실현되는 양상에 집중하고자 한다. 화제는 속성인 인지상태 내 기존성과 실현 기제인 언어형식 모두의 문제이다.

두 번째 관점은 담화 내 화제의 분석과 관련된다. 기존 논의에서 화제의 분석은 대개 문두와 성분성을 중시하면 담화 조직이나 문답을 무시하고 담화 조직이나 문답을 중시하면 문두와 성분성을 무시하는 양단의 태도를 보여 왔다. 본고는 두 태도를 모두 중시하고자 한다. 담화는 문장들로 구성되는 응집성의 단위이자 문답의 연속이며 이러한 성격이 화제의 기능과 밀접하다고 판단한다. 문두와 성분성은 실체로 대변되고, 담화 조직은 문답을 기반으로 한다. 문답을 통해 담화 단위 간·담화 단위 내 문장 간에서 실체가 문장화제로 전환·승계되는 양상과 문장이 분절되는 양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화제는 담화 간·문장 간 연결을 포함하는 '담화'와 문장 내 '분절' 모두의 문제이다.

세 번째 관점은 문장 내 화제의 분석 중 통합 분절(syntagmatic articulation)과 관련된다. 기존 논의에서 화제가 문장을 통합 분절하는 양상은 대개 배경-초점 분절에 포함되거나 병합되는 것으로 취급돼 왔다. 이때 배경은 화제를 포함하거나 그

와 유사하면서도 구분되는 단위로, 초점은 화제와 동등하면서 배타적인 단위로 각각 간주돼 왔다. 본고는 배경-초점과 화제-평언 분절이 택하는 관점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화제-평언을 중심으로 두 분절을 분리하는 태도를 취하고자 한다. 각 분절의 기능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초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명제와 실체 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등이 근거가 될 것으로 본다. 자유로운 어순과 다양한 표지의 존재도 두 분절을 분리하는 근거 중 하나로 간주된다.

네 번째 관점은 문장의 계열 분절(paradigmatic articulation)과 담화 모두와 관련된다. 계열 분절은 대안집합(alternative set)의 생성과 관련된 대조를 의미하며 연결 대조(conjunctive contrast)와 이접 대조(disjunctive contrast)를 모두 포함한다. 기존 논의에서 화제가 문장을 분절하는 양상은 대개 통합 분절의 경우만 중시돼 왔다. 계열 분절의 경우는 배경-초점과의 관계만 역설되거나 연결 대조의 양상만 강조되기도 했다. 본고는 연결 대조는 물론이고 이접 대조도 화제와 관련된다고 판단하고, 각 대조가 담화 간·문장 간·문장 분절의 각 단위에서 화제의 실현에 기여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대조화제와 비대조화제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관점을 정리해 보면 (3), (4)와 같다. (3)은 첫 번째 관점을 정리한 것이고, (4)는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머지 관점 모두를 정리한 것이다.

(3) 특성 관련 문제의 세분

- | | | |
|------------|----------------|---------|
| 가. [속성] | - (인지상태 내) 기존성 | : 의미화용론 |
| 나. [실현 기제] | - 강세 및 휴지 | : 음운론 |
| | - 어순 | : 통사론 |
| | - 표지 | : 형태론 |

(4) 분석 관련 문제의 세분

- | | | |
|---------|------|-------------------|
| 가. [담화] | - 실체 | - 담화 간·문장 간 전환 |
| | | - 문장 간 승계 |
| | - 문답 | - 담화 간·문장 간 전환 |
| | | - 문장 간 승계·문장 내 분절 |
| 나. [분절] | - 통합 | - 배경-초점 |
| | | - 화제-평언 |
| | - 계열 | - 연결 |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여 (3가)의 기존성에 대해 개념, 대상 등을 정리하고 유형화한 후 유형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존성이 (3나) 중 어순, 표지로 실현되는 양상을 (1)의 문두 구문, (2)의 조사 구문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 구문에서 주로 (4가)와 관련된 담화상 기능, (4나)와 관련된 분절상 기능이 각각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고찰해 본다.

1.2. 기존 연구 검토

화제는 한국어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논의돼 온 문제 중 하나이다. 화제와 관련된 논의들은 압도적으로 관련 문제의 범위가 넓고 논저의 수효도 많다. 본절에서는 주로 한국어 관련 논의¹⁾만을 대상으로 '화제' 개념과 '정보구조' 분절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기존 논의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²⁾ 본고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문제들은 해당 절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화제'라는 술어 혹은 범주의 개념상·술어상 복합적 성질에 주목한 논의들은 대개 두 부류로 나뉜다. 그 중 한 부류는 화제 관련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한정하여 한국어의 전형적인 화제를 구명하고자 하는 논의들이다. 채완(1976), 최수영(1984), 성기철(1985), 박승윤(1986) 등이 여기에 속한다. 채완(1976)은 한정성, 총칭성, 문두 비강세 '는'을 한국어 화제의 특성으로 제시하였고, 최수영(1984)에서도 이들을 한국어의 '무표적' 화제가 가지는 특성이라고 판단하였다.³⁾ 성기철(1985)는 대상성과 문두성을 중시하는 대신 한정성과 '는'은 배제하였으며, 박승윤(1986)은 문두 '는'을 한국어 화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취급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비판은 임홍빈(2007)에서 이루어졌다. 이 논의는 담화 중심 논의들이나 특정 성분 중심 논의들을 상세하게 검토하면서, 한국어의 화제는 담화

1) 대상언어가 외국어이지만 기술언어(메타언어)가 한국어이면서 한국어 예문이 포함돼 있는 논문들, 기술언어가 외국어지만 대상언어가 한국어이거나 한국어 예문이 포함돼 있는 논문들을 모두 포괄한다.

2) 기존 논의들에 사용된 술어들은 가능한 한 본고에서 사용할 술어들과 통일시키고자 한다.

3) 채완(1976)은 Dahl(1970) 등 프라하 학파의 연구를 수용한 논의이고, 최수영(1984)는 Li & Thompson(1976) 등 유형론적 연구를 수용한 논의이다. 후자의 경우 유표적 화제의 존재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비강세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아, 전자와 입장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층위에 속하는 것만도 아니고 특정 성분에 국한되는 것만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전형적인 화제에 집중하느라 그에 합치하지 않는 특성은 최종적으로 배제하는 모습들을 비판하기도 한다(임흥빈 2007: 92). 화제는 담화 층위가 아닌 통사 층위에서 분석해야 하며 문두 성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분이 화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개념상·술어상의 복합적 성질에 주목한 다른 한 부류는 관련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화제 개념을 세분하거나 ‘화제’ 술어 사용의 혼란상을 지적하고자 하는 논의들이다. Yang(1974), 채완(1979), 이인영(1996), 조은영(2000) 등이 여기에 속한다. Yang(1974)는 ‘화제’라는 술어가 문두 비강세 및 총칭성의 ‘topic’, 대조의 ‘focus’, 구정보의 ‘theme’을 지시하는 데 모두 사용돼 왔음을 지적하면서 이 세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완(1979)는 프라하 학파와 미국학계의 기존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언어별로 다양하게 실현되는 화제 범주의 특성이 혼란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인영(1996)은 ‘topic’과 ‘theme’을 구분하고자 한다. ‘topic’은 발화의 심리적 기점이자 선형적 출발점으로서 화자가 의식 내에서 활성화시키는 실체-파일이다. 이와 달리 ‘theme’은 담화 내 발화 간의 의미적 연결성을 담당하는 명제이나, 해당 명제를 구성하는 핵심적 실체를 지시할 수도 있다. 즉 전자는 문두와, 후자는 담화 화제와 각각 관련되기 때문에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담화에 대한 고려도 후자의 경우에만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은영(2000)도 ‘topic’을 문두와 대상성에, ‘theme’을 구정보와 기존성에 각각 귀속시키고 두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정보구조 분절 혹은 체계 내에서의 화제 문제도 지속적으로 고찰돼 왔다. 화제가 분절 혹은 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초점 및 대조와 형성하는 관계가 주된 대상이었다.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란 ‘담화 내의 한 명제에 대한 화용론적 구조화의 형식적 표현’으로 정의되며, 문장 문법(sentence grammar)의 한 부분을 이룬다(Lambrecht 1994: 5).⁴⁾ 이때 정보구조는 ‘담화 맥락 내에서 해당 구조를 정보 단위로서 사용하고 해석하는 화청자의 심적상태에 따라, 사태의 개념표상인 명제가 어휘문법론적 구조와 대응되는 양상’을 취급한다. ‘의사소통에서 화자가 발화를 통해 전달하려는 정보가 청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화자

4) ‘정보구조’라는 술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Halliday(1967: 200)이다. Chafe(1976)에서는 ‘정보포장(information packaging)’이라는 술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의 가정을 반영하는 언어적 양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최윤지 2016: 1).

어떤 경우든 정보구조는 화청자, 인지상태, 언어형식 등의 개념을 포함하며 화제를 그 중 한 단위나 부분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한 부류는 분절을 중시하는 경우이고 다른 한 부류는 체계를 중시하는 경우이다. 분절을 중시하는 논의들은 한국어 문장을 분절할 때 화제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가에 집중하고 체계를 중시하는 논의들은 한국어의 화제가 초점 및 대조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집중한다.

첫 번째 부류의 논의로는 박철우(2003, 2015), 최윤지(2016), 함병호(2016, 2018)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한국어 문장을 나름의 관점으로 분절하며, 그 안에서 화제의 역할을 부여하고 화제와 다른 단위와의 관계를 설정한다. 박철우(2003, 2015)는 화제(topic), 주제(theme), 초점⁵⁾ 혹은 화제, 평언(comment)⁶⁾으로 문장을 분절하고 이중 화제는 문두에서 '는'과 통합하여 담화상에서 논의대상의 영역을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최윤지(2016)은 화제, 전제, 초점을 설정하고 이중 화제는 대개 '는'⁷⁾과 통합하여 문두 배치되는 '정언판단의 대상'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함병호(2016, 2018)은 화제, 배경, 초점으로 문장을 분절하고 화제는 주로 문두에서 '는'⁸⁾과 통합된 성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세 논의 모두 화제와 초점을 배타적이거나 상보적이지는 않으며 상호 동등한 단위로 설정한다. 주제, 전제, 배경은 화제를 포함하거나 그와 유사하면서도 구분되는 부분이 된다. (5)는 박철우(2015), (6)은 최윤지(2016), (7)은 함병호(2018)의 분절 양상이다.

(5) 박철우(2015)의 분절 (박철우 2015: 286)
가. 화제-주제-초점 (박철우 2015: 293)

Q: 네 친구들은 합격했니?

A: 내 친구들이 합격했는지는_[화제] 철수도 합격하지_[주제] 못했고_[초점] 영희도

5) 박철우(2003)에서는 Vallduví(1992)를 수용하여 '주제(theme)' 대신 '바탕(ground)'이라는 술어를 사용한 바 있다.

6) 박철우(2015)에서는 '평언'이라는 술어를 'rheme'과 'comment' 모두에 적용하는데, 화제-평언의 '평언'은 '주제+초점'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박철우 2015: 286).

7) 최윤지(2016)은 '는' 외에 '이란', '이야'도 화제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본다.

8) 함병호(2018)은 '는' 외에 '이란', '이야', '이야말로', '일랑'도 화제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본다.

합격하지_[주제] 못했어_[초점].

나. 화제-평언 (박철우 2015: 288)

Q: 철수는 어땠니?

A: 철수는_[화제] 모자를 쓰고 있었어_[평언].

(6) 최윤지(2016)의 분절 (최윤지 2016: 235)

가. 화제-초점

Q: 너는 뭐 했어?

A: 나는_[화제] 방에서 자고 있었어_[초점].

나. [[화제] 전제]-초점

Q: 너는 방에서 뭐 했어?

A: [[나는_[화제] 방에서_[전제]] 자고 있었어_[초점].

다. 전제-초점

Q: 누가 방에서 자고 있었지?

A: 내가_[초점] 방에서 자고 있었어_[전제].

라. 초점

Q: 학교에 왜 사람이 없지?

A: 오늘부터 방학이거든_[초점].

마. 화제

(국회에서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였다는 뉴스를 듣고 나서)

A: 정치인들이란_[화제].

(7) 함병호(2018)의 분절 (함병호 2018: 47)

가. 화제-초점-배경

Q: 초롱이는 아침에 뭐 먹었니?

A: 초롱이는_[화제] 아침에_[배경] 빵_[초점] 먹었어_[배경].

나. 화제-초점

Q: 초롱이는 뭐 해?

A: 초롱이는_[화제] 빵 먹고 있어_[초점].

다. 초점-배경

Q: 누가 빵 먹었니?

A: 초롱이가_[초점] 빵 먹었어_[배경].

라. 초점

Q: 왜 이렇게 조용해?

A: 초롱이가 화났어_[초점].

마. 배경-화제

(대학원에서 선배가 후배를 폭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A: 대학원에서_[배경] 선배들이란_[화제].

차이점은 (5)의 경우 화제를 상위에 두면서도 생략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나 (6)과 (7)은 화제를 상위에 두지 않고 부재할 수 있으면서 단독으로 출현할 수도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5) 역시 (6다, 라)나 (7다, 라)와 같은 구조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때 화제는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에서 생략된 것으로 상정된다. (6)과 (7)은 두 가지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6)에서는 (6나)처럼 전제가 화제를 포함하나 (7)에서는 (7가)처럼 화제와 배경이 별개이다. (7마)에서 보듯 (7)은 (6마)와 같은 화제 단독 구성에 배경도 함께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한다.

두 번째 부류의 논의로는 Han(1998), Wee(1998), Choi(1999), Lee(1999, 2003), 전영철(2005, 2006)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대조화제를 중심으로 화제와 초점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집중한다. Han(1998)은 ‘는’이 대조를 표시한다고 보고 [-총망라성]이면서 동사구 외부에 위치하면 대조화제, [+총망라성]이면서 동사구 내부에 위치하면 대조초점인 것으로 보았다. ‘는’이 화제, 대조화제, 대조초점 모두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전영철(2005, 2006) 역시 ‘는’이 화제와 대조화제, 대조초점을 모두 담당한다고 보지만 이때 화제의 ‘는’과 대조의 ‘는’은 별개인 것으로 간주한다. Lee(1999, 2003)도 대조화제와 대조초점을 모두 설정하나, 대조화제는 ‘는’이 담당하고 대조초점은 ‘가’가 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모든 논의가 대조화제와 대조초점을 동시에 설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Wee(1998)은 ‘는’이 화제⁹⁾와 대조화제를 표시하며 대조화제인 경우 B강세를 동반한다고 보았고, 대조초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Choi(1999)는 ‘현저성(prominence)’을 중심으로 배경이 [+현저성]이면 화제이고 [-현저성]이면 ‘후미부(tail)’이며, 초점이 [+현저성]이면 대조초점이고 [-현저성]이면 ‘완성초점(completive focus)’이라고 하였다. 대조화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 화제에 대한 연구는 개념, 술어, 분절, 체

9) 정확히는 ‘주제 제시(theme representation)’이다.

계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전히 개념상으로 복잡하고 술어상으로 정돈돼 있지 못하다. 문장 분절의 양상에 대해 더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화제와 관련된 체계도 더 정교하고 상세하게 수립될 여지가 있다. 한국어에서 ‘화제’라는 술어를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고 어떤 분절의 일부로 삼을지, 그 유형을 어떻게 분류할지 이후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3. 논의의 구성

본고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어 화제의 기능과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2장에서 화제 구문의 범위를 한정하고 해당 구문들을 망라할 수 있는 관점을 구축한다. ‘화제’라는 술어가 사용돼 온 양상과 적용돼 온 표현들을 검토하여 본고의 논의대상이 되는 화제 구문들을 도출하는 작업이 범위의 한정에 해당한다. 문장화제가 실현된 문장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구문들이 화제 구문으로 망라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다양한 화제 구문들을 아우를 통합된 관점은, 속성과 실현 기제로 구분하여 화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담화와 분절로 구분하여 각 단위에 적합한 분석을 선별하고 적용하는 작업을 통해 수립된다. 화제의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언어보편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상성과 기존성이 화제의 의미화용적 속성으로 논의돼 왔고 이러한 속성이 음운적 기제인 강세와 휴지, 통사적 기제인 어순, 형태적 기제인 표지 등을 통해 실현돼 왔음을 범언어적으로 확인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의 논의대상이 되는 화제 구문들을 어순 관련 ‘문두 구문’과 표지 관련 ‘조사 구문’으로 각각 명명한다.

화제의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언어보편성과 언어특수성을 모두 고려하여 한국어의 문두 구문과 조사 구문을 일관되게 분석할 수 있는 방식을 탐색해 본다. 담화의 경우 담화 조직과 문답의 문제 모두를 감안한다. 두 문제가 동등한 것은 아니어서, 담화 조직은 담화화제·문장화제 실체의 ‘전환·승계’와 관련될 수도 있고 대개 ‘대조’를 기반으로 하는 문답과 관련될 수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두 구문이 주로 대조를 통한 담화 간·문장 간 화제 전환에 이용되고, 조사 구문 중 성분생략이 주로 문장 간 화제 승계에 이용됨을 확인한다. 다만 문답의 궁극적인 역할은 담화를 구성하고 진행시킬 문장들을 도출하는 데 있다고 보고, 문장 간 문답은 문장 내 분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용된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문장 내 분절의 경우 통합 분절과 계열 분절의 문제 모두를 감안해야 함을 역설

한다. 통합 분절의 본질은 정언문(categorical sentence)이며, 이는 문답을 통해 판단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대표적인 통합 분절로 배경-초점과 화제-평언이 있음을 확인하고 기존 논의들을 바탕으로 각 분절의 성격과 개념을 정립한 후, 화제의 분석에 두 분절이 모두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편 계열 분절의 본질은 대안집합 생성과 관련되는 대조이며, 이는 통합 분절도 담보함을 강조한다. 기존 논의들을 바탕으로 대조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해 보고 대조 중 연결 대조는 보조사를 통해, 이접 대조는 일부 격조사를 통해 각각 실현된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두 대조 모두 화제의 분석에 관련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화제의 의미화용적 속성을 인지상태 내 기존성으로 확인한 후 이 기존성이 통사적 기제인 문두와 형태적 기제인 조사로 실현되는 양상을 고찰한다. 3장에서 기존성에 대해 상세히 논의한다. 대상성 및 인지상태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화제의 의미화용적 속성으로 기존성을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고 본고에서 사용할 기존성의 명확한 개념을 수립하고자 한다. 인지상태가 반영된 술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도 언급한다. 기존성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실체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명제의 기존성과 실체의 기존성에 대해 대략적으로 검토해 보는 작업도 행한다. 두 대상의 지위가 동등하지 않다는 점이 강조될 것이다.

본고는 기존성에 대한 기존의 '지시적 기존성(referential givenness)'과 '관계적 기존성(relational givenness)' 구분을 확대 수용하고자 한다. 술어도 그대로 사용한다. 전자는 화자가 소통하고자 하는 명제나 실체가 화청자 공유 혹은 청자의 인지상태 중 '지식·의식(consciousness)'에 기존하는 것으로 화자가 의도할 때, 해당 명제나 실체가 가지는 속성이다. 어휘나 구문의 표현으로 실현된다. 후자는 화자가 소통하고자 하는 명제나 실체가 화청자 공유 혹은 청자의 인지상태 중 '주의(attention)'에 기존하는 것으로 화자가 의도할 때, 해당 명제나 실체가 가지는 속성이다. 명제나 문장의 분절을 야기한다. 관계적 기존성은 지시적 기존성과 달리 일정한 표현과 대응되지 않으며, 이때 '주의'는 가장 현저한 의식 상태 혹은 의식의 중심을 의미한다.

기존성의 대상에 따른 유형화도 행한다. 지시적 기존성의 명제는 '전제'로, 지시적 기존성의 실체는 '한정성' 실체로 각각 파악될 것이다. 관계적 기존성의 개방명제는 '배경'으로 이해되고, 관계적 기존성의 문두 실체는 '화제'로 정립될 것이다. 각 기존성 유형에 해당하는 언어형식을 검토하고 상호관계를 고찰하여, 배경-초점과 화제-평언 분절의 분리가 정당화되고 '화제' 개념이 더 강화되도록 한다. 이때 화제는

‘주의 실체’로 확립되어, 자신을 중심으로 정보를 배열하고 매 순간 전환·승계되면서 이동하는 ‘주의’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동일한 속성이 인지상태, 언어형식, 정보 배열의 각 관점에서 상이한 언어로 정의될 수는 있다고 본다.¹⁰⁾ 전제, 한정성, 배경은 모두 화제의 필요조건으로 간주된다.

관계적 기존성 혹은 주의 실체로서 화제는 주의 내 기존함으로써 문장의 분절을 야기하고, 이동함으로써 전환되거나 승계된다. 이러한 속성이 통사적 기제인 문두로 실현되는 양상과 구문에서 담당하는 기능은 4장에서, 형태적 기제인 조사로 실현되는 양상과 구문에서 담당하는 기능은 5장에서 각각 살펴본다. 4장에서는 목적어 전치, 좌측전위, 중주어, 자유화제의 문두 구문을 대상으로 문두가 주의의 실현이며, 한정성이 문두 성분의 조건이라는 점을 피력한다. 담화 간·문장 간 화제의 전환을 문두 구문의 담화상 기능으로, 문두 성분 중심의 정보 배열을 분절상 기능으로 각각 파악한다. 구문에 따라 문두 성분은 배경일 수도 있고 초점일 수도 있으며, 대조될 수도 있고 대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5장에서는 문두의 보조사 ‘는’, 격조사 ‘가’, 무조사, 성분생략을 대상으로 역시 문두는 주의의 실현이며, 각 조사는 대조와 관련하여 상이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논의한다. 문두 성분의 한정성 역시 당연시될 것이다. 담화 간·문장 간 화제의 전환·승계를 조사 구문의 담화상 기능으로, 문두 성분 중심의 정보 배열과 배경·초점 표시를 분절상 기능으로 각각 이해한다. 역시 구문에 따라 문두 성분의 기능은 상이하다고 본다. 대조·비대조 및 연결 대조·이접 대조 여부도 검토된다. 이때 대조는 전환을 담보한다는 점도 강조될 것이다.

1장에서 제시한 작례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6장에서는 실례들을 통해 2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사용할 자료는 2013년에 공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¹¹⁾이다. 구어체와 문어체가 공존하고 다양한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화제 관련 논의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어야 하는 훌륭한 연구 자료라고 생각한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담화 간·문장 간에서 화제의 전환·승계가 대조·비대조, 배경·초점과 어떤 체계를 이루며 문두 구문·조사 구문을 통해 실현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예문을 발췌할 때에는 원문 그

10) 인지상태의 측면에서는 ‘주의 실체’, 언어표현의 측면에서는 ‘정언문의 문두 성분’, 정보 배열의 측면에서는 ‘후속 부분의 정보가 첨가되도록 한정된 영역’으로 각각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11) 이후 ‘대화록’으로 약칭한다.

대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약간의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기재하기로 한다.

2. 기본적 논의

화제의 정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관점을 수립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화제’는 개념으로서나 술어로서나 다양한 양상을 띠고 사용돼 왔다. 언어학뿐만 아니라 언어학의 인접학문에서도 ‘화제’라는 개념과 술어는 빈번히 사용된다. 동일한 대상을 상이한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언어학 내에서도 다양한 대상을 가리키며 망라하는 표현의 범위가 넓다. 2.1절에서 이러한 사용 양상을 검토하고 본고에서 논의대상으로 삼을 표현의 범위를 한정해 본다. 표현들 사이에는 분명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공통점 역시 확실하다는 태도를 견지한다.

망라된 표현들을 설명하기 위한 관점의 수립은, 화제의 특성을 속성과 실현 기제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 속성에는 대상성과 기존성이 해당되고, 기제로는 음운적 기제인 강세와 휴지, 통사적 기제인 어순, 형태적 기제인 표지 등을 들 수 있다. 2.2절에서 ‘화제’ 사용의 복잡상은 해석의 층위가 혼합돼 있는 데서 기인함을 확인하고, 화제에 대한 설명은 속성이 기제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관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¹²⁾

2.3절에서는 담화 단위 간·담화 단위 내 문장 간¹³⁾·문장 내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화제의 실현을 검토하고자 한다. 담화 간·문장 간의 양상을 담화에 포함시키고, 문장 내의 양상을 분절로 구분한다. 본고는 담화에 대해 문장들로 구성되는 응집성의 단위이자 문답의 연속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담화 단위 간에서는 실체를 통한 담화 조직의 측면에서 화제의 전환이 문장화제로 실현되는 양상에 주목한다. 문장 간에서는 실체뿐만 아니라 문답을 통한 담화 조직의 측면도 고려하여, 화제의 전환·승계가 실현되는 양상과 해당 문장이 도출되는 양상 모두를 고찰한다. 후자는 설명의문문을 이용하며, 명시적 질문이 없으면 암시적 질문을 상정하고 명시적 질문이 있어도 설명의문문이 아니면 설명의문문으로 환언하고자 한다.

질문은 문장 내 분절을 파악하는 데도 이용된다. 문장의 분절은 통합 분절과 계열 분절 모두를 포함한다. 각 분절에 대표적인 경우들을 검토하고 그 본질에 대해

12) 물론 속성과 실현 기제가 일대일로 정확하게 대응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Féry 2007). 그러나 대체의 경향과 일대다 혹은 다대다 대응은 살펴볼 수 있다.

13) 이후 대체로 ‘담화 단위 간’은 ‘담화 간’으로, ‘담화 단위 내 문장 간’은 ‘문장 간’으로 각각 약칭되고 병용될 것이다.

제시한 후, 기존 논의들을 바탕으로 각 분절의 성격과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통합 분절을 배경-초점과 화제-평언으로 분리하고 계열 분절을 연결 대조와 이접 대조로 구분하고자 하며, 이들 모두 화제의 분석에 관련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2.1. 화제의 범위

‘화제’라는 술어 혹은 범주를 사용하는 분야는 협의의 언어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광의의 언어학으로서 담화분석, 대화분석, 작문론, 화법론 등은 물론이고 문헌정보학, 언론정보학 등의 정보과학(information science)에서도 ‘화제’라는 술어는 중요하게 사용된다. 언어철학(philosophy of language)에서도 논의대상이 된다. 보통 ‘화제’는 ‘언급대상’¹⁴⁾ 혹은 ‘중심생각’으로 정의되고 ‘무엇에 대한 것인지’의 문제로 환원된다. 발신자와 수신자의 소통을 고려하여 언어 전반을 연구하는 경우 ‘화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문헌정보학에서는 문헌 분류를 위해 해당 문헌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결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언론정보학에서는 해당 매체의 의도 파악을 위해 궁극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작문론이나 화법론에서는 텍스트¹⁵⁾에 대한 효과적인 표현과 이해를 위하여 해당 텍스트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결정하고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광의의 언어학인 담화분석이나 대화분석에서도 전체 담화는 물론이고 하위 담화 단위들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판별하여 하위 담화 단위들 간의 관계나 담화 내 문장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주지하듯 협의의 언어학에서는 해당 문장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그 성분을 판별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논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해 왔음은 물론이다.

이렇듯 언어와 관련된 제 분야에서 해당 언어단위의 언급대상이나 중심생각으로 간주되어 온 그 ‘무엇’은, 관련된 분야들의 넓은 범위와 출판된 논저들의 많은 수효

14) ‘aboutness’의 번역술어 중 하나인 ‘언급대상성’(임흥빈 2007)을 수용하여 ‘언급대상’이라는 술어를 광범위한 화제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aboutness’에 대한 번역술어로는 ‘대상성’을 사용하기로 한다. ‘대하여성’도 널리 사용되는 번역술어 중 하나이나, 조어상 어색한 점이 있으므로(이선웅 2012) 선택하지 않는다.

15) 담화(discourse)는 결속성, 응집성, 의미성을 가지고 텍스트(text)는 결속성, 응집성, 의미성에 완결성, 정체성을 더 가진다는 박영순(2004)의 견해를 수용하여, ‘텍스트’를 완결성을 가진 언어단위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 ‘담화’는 완결성이 없는 문장 이상의 언어단위를 가리키는 데 사용한다.

만큼이나 다양한 명칭으로 명명돼 왔다. ‘화제’라는 술어는 대개 영어의 ‘topic’이나 ‘theme’에 대응된다. 이와 달리 정보과학에서는 ‘subject’라는 술어를 사용하기도 하고(Hutchins 1977, 1978), ‘subject matter’라는 술어도 언어철학에서 사용되고 있다(Yablo 2014).

‘topic’이나 ‘theme’에 대한 대응 양상도 확실하게 통일돼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작문론이나 화법론의 경우 전체의 논의대상은 ‘theme(제제)’, 전체의 중심생각은 ‘topic(주제)’, 단락의 중심생각은 ‘topic(화제)’로 각각 지칭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제제는 명사(구)의 형태, 주제와 화제는 문장의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담화분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여서 제제와 주제는 담화의 ‘언급대상’과 담화의 ‘중심생각’으로 각각 환원 가능하며, 상술했듯 이 두 개념은 ‘화제’의 본질이다.

이때 ‘화제’는 그 언어단위가 전체 담화라는 점에서 대부분 ‘담화화제(discourse topic)’로 불린다. van Dijk(1976)에 의하면 담화화제인 언급대상은 ‘지시체에 대한 반복 지시 표현(repeated reference to a given referent)¹⁶⁾으로, 중심생각은 ‘이야기에 대한 요약 문장(summary of story fragment)’으로 각각 규정될 수 있다. 이 역시 작문론이나 화법론의 제제, 주제와 각각 일치하는 부분이다. 다만 담화분석이나 대화분석의 경우에는 전체 담화가 다시 하위 담화들로 분석될 수 있기에 각 담화에서 해당 화제가 어떻게 전환되고 승계되는지에 대해 따로 취급하기도 한다. 이 역시 담화화제로 불리고 있다.¹⁷⁾

협의의 언어학에서 논의되는 ‘화제’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더 복잡하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대개 Reinhart(1981)에서 담화화제와 구별하여 논의하는 ‘문장화제(sentence topic)’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문두에서 ‘는’을 통합한 성분이 보통 전형적인 문장화제로 판단된다. 사정이 복잡해지는 계기는 이러한 문장화제가 문장에 대한 분절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문장화제는 주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중판단(double judgement)’ 개념 중 ‘심리주어(psychological subject)’에 대응되며 ‘심리술어(psychological predicate)’와 상보관계

16) 본고는 ‘지시체(referent)’와 ‘실체(entity)’를 구분하여 전자는 언어내적·언어학적 개념으로, 후자는 언어외적·존재론적 개념으로 각각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외국어 원문을 인용할 경우 원문의 술어 사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7) 동일한 담화화제라도 전체 담화를 대상으로 할 경우 ‘제제연속성을 기반으로 분석되는 전체 담화의 언급대상 혹은 중심생각’으로, 하위 담화를 대상으로 할 경우 ‘전환·승계의 속성이 전형적인 문장화제의 기제를 통해 실현된 담화화제’로 각각 구분해 볼 수 있다. 2.3.1절에서 후술한다.

에 놓이는 것으로 논의돼 왔기 때문이다.¹⁸⁾ 어떠한 관점으로 해당 문장을 분절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문장의 분절구조는 매우 다양한 술어로 명명돼 왔다.¹⁹⁾ 가장 대표적인 술어로는 ‘테마-레마(theme-rheme)’(Mathesius 1928, Firbas 1974, Roberts 2011), ‘화제-평언(topic-comment)’(Hockett 1958, Gundel 1974), ‘화제-초점(topic-focus)’(Gundel & Fretheim 2004)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분절구조가 ‘topic’이나 ‘theme’에 해당하는 전통적인 술어로 명명되거나 ‘화제’ 성분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바탕(연결부-후미부)-초점(ground(link-tail)-focus)’(Vallduví 1992)의 ‘연결부(link)’처럼 ‘화제’ 성분을 새로운 술어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전제-초점(presupposition-focus)’(Chomsky 1971, Jackendoff 1972)을 사용하는 경우 ‘비화제’ 혹은 ‘초점’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기도 한다.

이때 ‘전제-초점’의 ‘전제’는 ‘배경(background)’으로 환언될 수 있다(Hole 2004: 3-4). ‘전제’ 개념을 이용하여 문장을 양분하는 경우에는 ‘전제-단언(assertion)’의 술어를 이용하여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다(Lambrecht 1994, Abbott 2000). 또한 논리판단의 관점에서 문장을 ‘정언판단(categorical judgement)’과 ‘제언판단(thetic judgement)’으로 구분하는 경우(Kuroda 1972)도 분절구조의 일례가 된다.

더욱이 모든 문장화제 논의가 분절구조에 방점을 두는 것도 아니다. 이 경우 ‘화제’라는 술어는 ‘화제 현저(topic-prominent) 언어’(Li & Thompson 1976)에서처럼 ‘주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화제화(topicalization)’에서와 같이 ‘전치(preposing)’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²⁰⁾ Givón(1983, 1988)의 ‘화제연속성(topic continuity)’에서 볼 수 있듯 ‘담화화제 실체에 대한 문장성분의 조응 혹은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²¹⁾

18) 고대그리스철학에서는 인간판단을 개체에 대한 명명(인간판단의 주어)과 그 개체에 대한 서술(인간판단의 술어)로 이해했다. 이러한 인식이 형태통사적으로 반영된 것이 주어/서술어 구분이고 화용적으로 반영된 것이 이하 분절구조들이다(Gómez-González 2001: 5). 이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독일언어학자인 von der Gabelentz(1868), Paul(1880)에 의해서이다(Gundel & Fretheim 2004: 175).

19) Gómez-González(2001)은 ‘화제’가 분절의 중심인 경우 ‘양극(bipolar) 술어’로, 그와 상보 관계에 놓이는 ‘초점’과의 대립을 중시할 경우 ‘양기(bifunctional) 술어’로 분류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차이는 중시하지 않았다.

20) 물론 화제화·전치는 분절구조와 매우 밀접하다.

21) Chafe(2001)에 의하면 화제 현저 언어, 화제화, 화제연속성의 ‘화제’는 모두 ‘담화화제’와 대립되는 ‘문장화제’로 분류된다.

Reinhart(1981)의 문장화제를 취급하면서도, '후향중심(Cb, backward-looking center)'이라는 술어를 사용하는 '중심화 이론(centering theory)'의 경우도 있다 (Walker, Joshi & Prince 1998).²²⁾ 직전 문장의 '선호중심(Cp, preferred center)' 즉 화자의 의식 내에서 가장 활성화 정도가 높은 실체가 후속 문장의 후향중심이자 문장화제가 되는 셈이다.

요컨대 '화제'라는 범주는 언어와 소통을 대상으로 하는 제 분야에서 '무엇에 대한 것인지'와 관련되어 '언급대상'이나 '중심생각'이라는 의미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분야와 관점에 따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다양한 개념과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협의의 언어학의 경우에는 그 사정이 더욱 복잡하였다. 언급대상이나 중심생각뿐 아니라 특정 실체, 성분, 위치, 형식 등을 가리키는 데도 '화제'라는 술어가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화제' 사용의 혼란상

- | | |
|---------|--|
| 가. [분야] | - 언어학
- 담화분석, 대화분석, 작문론, 화법론
- 문헌정보학, 언론정보학
- 언어철학 |
| 나. [술어] | - topic, theme
- subject
- subject matter |
| 다. [단위] | - 담화화제
- 문장화제 |
| 라. [분절] | - 테마-레마
- 화제-평언
- 바탕(연결부-후미부)-초점
- 전제-초점
- 정언판단/제언판단 |
| 마. [구문] | - 화제 현저 언어
- 화제화 |
| 바. [조응] | - 화제연속성 |

22) 중심화 이론에 대해서는 2.3.1절에서 좀 더 상술한다.

(1)의 모든 대상이 단일한 '화제' 범주로 논의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언어학의 '화제'는 담화화제이든 문장화제이든 문장 내에 실현돼 있는 것이어야 한다 (Reinhart 1981: 53). 분절구조에 방점을 두든 두지 않든 문장을 단위로 해야 한다. 단순한 언급대상이나 중심생각은 협의의 언어학의 논의대상이 될 수 없고, 문장의 분절구조나 표현의 형식은 이후의 고려사항이다.

(2)와 (3)의 밑줄친 성분들은 그간 한국어의 화제로 논의돼 온 대표적 경우들이다. 모두 문장을 단위로 문장 내 실현돼 있는 표현들임은 물론이다. 문제는 이들 표현들이 '화제'라는 술어를 공유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점이다. 만약 합당하다면 이들을 망라하여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3)의 표현들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2) 가. 영희는 철수를 만났다.
- 나. 영희는 동생이 철수를 만났다.
- 다. 철수를/는 영희가/는 만났다.
- 라. 철수 (있잖아/말이야), 영희는 그/개를 만났다.
- 마. (그런데) 철수에 대해 말하자면/는, 영희가/는 동생을 만났다.
- (3) 가. 그/개는 민호도 만났다.
- 나. 그/개가 민호도 만났다.
- 다. 영희∅ 민호도 만났다.
- 라. 그/개∅ 민호도 만났다.
- 마. ∅ 민호도 만났다.

(2가)는 주지하듯 밑줄친 문두 성분이 '는'과 통합돼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전형적인 화제로 인정되는 구문이다. '영희는'은 화제, 테마이자 연결부이며 (Vallduví 1992), 전체 문장은 Kuroda(1972), 임흥빈(1972)에서 논의된 '정언판단' 혹은 '정언문 (categorical sentence)'이다. (2나)는 한국어를 '화제 현저 언어'로 분류되게 하여 (Li & Thompson 1976) 한국어 연구에 '화제'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한 소위 '중주어 구문'이다. (3가)와 동일하게 문두 성분이 '는'과 통합돼 있다. (2가)와 (2나) 모

두 ‘영희는’과 그 후속 부분으로 분절되고 이로 인해 각 문장이 ‘영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공통점도 가진다.

(2다)는 (2가)의 목적어 ‘철수를’이 문두 배치된 ‘화제화’ 혹은 전치 구문이다. 문두의 목적어 ‘철수’는 맥락에 따라 ‘를’과도 통합가능하고 ‘는’과도 통합가능하지만 ‘는’과 통합하지 않았다고 해서 ‘철수를’을 화제화되지 않았다고 하지는 않는다.²³⁾ ‘는’과 통합되지 않은 화제로 볼 수 있는 셈이다. (2라)는 문두 성분의 공지시 대명사가 문두 성분의 후속 부분에 실현돼 있는 ‘좌측전위(left-dislocation)’ 구문이다.²⁴⁾ ‘철수’와 ‘그’²⁵⁾가 공지시돼 있음이 확인된다. 역시 후속 부분이 ‘철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문두 성분 ‘철수’는 ‘는’은 물론 어떤 조사와도 통합돼 있지 않다.

(2마)는 영어의 ‘as for’ 구문에 대응되는 소위 자유화제 구문이다.²⁶⁾ 후속 부분이 완전히 독립적인 문장을 형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문두 성분 ‘철수’가 꼭 ‘는’과 통합돼 있는 것도 아니고 후속 부분과 의존적인 통사론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2가-라)와 마찬가지로 후속 부분이 문두 성분 ‘철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2가-마) 각각은 문두 성분과 후속 부분이 구성하는 통사론적 관계도 상이하고 문두의 목적어 ‘철수’가 일률적으로 ‘는’과 통합된 것도 아니지만, 모두 ‘철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⁷⁾

(3)의 성격은 조금 다르다. (2나-마)는 (2가) 자체에 대한 변주이고 (3)은 (2가)의 후속 문장에 대한 변주이다. 이는 Givón(1983, 1988)의 ‘화제연속성’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2가)의 ‘영희는’에 대해, (3가)에서는 ‘영희’만 대명사로 조응되었고 (3나)에서는 조사가 ‘가’로 실현되었다. (3다)에서는 조사가 생략 혹은 비실현²⁸⁾되었

23) ‘영희는’도 맥락에 따라 ‘는’과도 통합가능하고 ‘가’와도 통합가능하다.

24) 괄호 속의 ‘있잖아’는 임동훈(2012)에서 영어의 좌측전위 구문을 한국어로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것이고 ‘말이야’는 Oh(2007, 2008)에서 비인가 화제(unratified topic)의 표지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최윤지(2016), 함병호(2018)에서도 한국어 화제 표현의 일종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좌측전위 구문을 비롯한 특정 구문에만 ‘있잖아’나 ‘말이야’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5) 아직 대명사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완전한 문어체임을 고려하여 더 자연스러운 ‘개’도 병기하였다.

26) 괄호 속의 ‘그런데’는 임동훈(2012)에서 영어의 자유화제 구문을 한국어로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것이다.

27) 최윤지(2016)에서는 (2나-마)의 밀출된 성분이 넓은 의미에서 ‘제시어’ 범주 즉 문두 배치되어 후속 성분과 독립적인 억양구를 이루는 화제의 일종으로 구분된다.

28) 생략과 비실현의 관점 차이를 무시하고 ‘생략’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다. (3라)에서는 ‘영희’도 대명사로 조음되고²⁹⁾ 조사 ‘는’도 생략되었으며, (3마)에서는 ‘영희는’ 전체 성분이 생략되었다. 직전 문장의 화제였던 ‘영희’가 대명사 조음, 조사 승계 및 전환, 전체 성분 생략³⁰⁾ 등의 다양한 형식을 통해 후속 문장으로 승계됐으므로 ‘화제연속성’이 존재한다. 역시 모두 (2가)처럼 ‘영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동일한 관점에서 (3가-마)의 ‘그는, 그가, 영희 \emptyset , 그 \emptyset , \emptyset ’는 각각 (2가)의 ‘영희는’을 승계한 중심화 이론(Walker, Joshi & Prince 1998)의 ‘후향중심’과도 연결될 수 있다. 화제연속성 논의는 승계하는 표현 자체의 형식을 중시하는 데 반해 중심화 이론은 표현의 문장 내 위치와 역할을 더 중시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어떤 관점에서든 (3)의 화제들은 (2)와 달리 단일 문장이 아닌 문장 간 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며, 해당 문장의 화제는 기존 화제 성분을 승계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모두 ‘영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요컨대 언어학에서 논의돼 온 (2)-(3)의 ‘화제’ 범주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본질적인 공통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당 술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화제’는 전형적인 정언문, 중주어, 전치, 좌측전위, 자유화제 구문 모두에 적용돼 왔다. 이들은 다양한 통사적 관계를 형성한다. ‘는’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적 표지들과 통합돼 있기도 하다. 단일 문장은 물론이고 문장 간 관계도 고려되고 있다. ‘화제’ 논의에 담화에 대한 다양한 고려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화제’는 대개 문두 배치돼 있고 후속 성분이 그 문두 성분 ‘화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고는 (2)-(3)의 표현들 모두를 논의대상으로 삼는다.

2.2. 화제의 특성

2.1절에서 살펴보았듯 ‘화제’라는 범주는 매우 다양한 표현들을 망라할 수 있었다. 공통점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화제’는 어순, 분절, 표지, 실체 각각의 특성 모두를 포함하고 있었다. 차이점에 방점을 둔다면 그러하다. 이처럼 ‘화제’가 지칭하는 개념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은 Yang(1974), 채완(1979), 이인영(1996), 조은영(2000) 등에서도 정당하게 제기돼 왔다. 단일해 보이지 않는 ‘화제’라는 개념은

29) 조음 형식이 논의에 중심적인 부분인 것은 아니다.

30) 이후 조사 생략은 임흥빈(2007)을 따라 ‘무조사’로, 전체 성분 생략은 ‘성분생략’으로 각각 칭하기로 한다.

과연 어떻게 해석되고 파악되어야 하는가? 왜 상호 이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2)-(3)의 표현들에 ‘화제’라는 술어를 단일하게 적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복잡상의 기원은, 프라하학파의 시조인(임홍빈 2007: 89) Mathesius(1928)에서 발견된다(Gómez-González 2001). Mathesius(1928)가 논의한 문장 층위에서의 ‘화제’는 (4)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다.³¹⁾ 제 특성이 혼합돼 있다.

(4) Mathesius(1928)의 화제(theme)

가. 화제는 문장이 그것에 관한 것이다.

나. 화제는 알려진 혹은 주어진 정보이다.

다. 화제는 문장의 출발점이다.

환언해 보면, (4가)는 ‘대상성(aboutness)³²⁾에 대한 것이다. (2)와 (3)에서 보았듯 화제 구문은 문장의 언급대상과 그에 대한 이야기로 분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4나)는 ‘기존성(givenness)³³⁾에 대한 것이다. (3)에서 일부 보았듯 언급대상이 되려면 해당 존재가 알려져 있거나 주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다)는 문두에 대한 것이다. (2)와 (3)의 모든 경우에서 보았듯 언급대상 즉 문두 성분은 후속 부분보다 먼저 발화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Mathesius(1928)은 화자는 청자가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발화한 후 그것에 정보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발화를 전개해 간다고 보았다(채완 1979: 1 각주 2, 조은영 2000: 1).

그런데 (2)-(3)에서 검토했듯 한국어의 경우에는 화제 논의 시, 반드시 ‘는’이나 다른 표지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채완 1976, 박승윤 1986). 언어의 원형이 구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강세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화제는 본질적으로 무강세여야 한다고 보기도 하지만(Lambrecht 1994), B강세가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Jackendoff 1972, Büring 1997). 휴지(pause)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한다(Chafe 1994, 최윤지 2016). 화제가 가진 다양한 특성들을 정리하여 제시해 보면 (5)와 같다.

31) Gómez-González(2001: 9)과 임홍빈(2007: 122)의 표현을 혼합하여 인용하였다.

32) ‘대하여성’, ‘대상성’ 등의 번역술어가 사용돼 왔으나 본고에서는 인접학문에서도 동일 술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전술했듯 ‘대상성’이라는 술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33) ‘주어집성’, ‘기존성’ 등의 번역술어가 사용돼 왔으나 본고에서는 성기철(1985)를 따라 ‘기존성’이라는 술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5) 화제의 제 특성

- 가. 대상성
- 나. 기존성
- 다. 문두
- 라. '는'
- 마. 무강세
- 바. B강세
- 사. 휴지

이 중 (5다)는 어순과 관련된 통사적 기제에 해당하고, (5라)는 표지와 관련된 형태적 기제에 해당한다. (5마-사)는 음운적 기제를 나타낸다. 반면 (5가)의 대상성과 (5나)의 기존성은 화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 언어의 모든 현상은 개념 혹은 속성과, 그에 대한 실현을 담당하는 표현 혹은 기제의 두 층위를 포함하고 있다. 속성은 인간의 사고와 관련되는 부분으로서 언어 보편적인 특성을 가진다. 반면 기제는 해당 언어의 문법적 특성들이 조합되는 언어 특수적인 성격을 보인다. 화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언어별, 상황별로 다양한 실현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화제 논의에는 속성에 대한 것과 실현 기제에 대한 것이 혼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화제에 대한 논의는 대상성, 기존성의 속성과 각 기제 모두를 포괄하는 시에, 그들의 상호관계도 포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화제'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화제'라는 술어가 왜 이질적인 현상들에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만 강구할 수 있다. 속성과 실현 기제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상성과 기존성이 어떠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그 속성이 음운·통사·형태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한국어의 화제를 논의하는 데 기반이 될 것이다.

2.2.1. 화제의 속성

화제는 (4가), (4나)에서 보았듯 그 속성으로 대상성과 기존성을 가지는 것으로 논의돼 왔다. 대상성과 기존성의 본질은 무엇이며, 두 속성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2)와 (3)에서 검토했듯 화제라고 논의돼 온 표현들, 성분들은 모두 후속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바

로 그간 논의돼 온 ‘대상성’의 본질이다. 본고는 화제의 속성을 인지상태와 관련된 기존성으로 간주하며 대상성을 기존성의 일종으로 취급할 것이다.³⁴⁾

언어학의 대상성은 Mathesius(1928)에서 ‘about’과 관련된 (4가)의 개념이 제시되고, Hockett(1958)에서 ‘topic’이라는 술어가 도입된 이래로 화제 논의의 중심에 서왔다.³⁵⁾ 이러한 대상성 개념은, 진술이 논리·문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about’ 및 ‘topic’과 관련된 의미에서 ‘주제(subject)’를 가진다고 본 Strawson(1964: 114-115)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게 되었다. Strawson(1964)는 진술 혹은 진술 행위는 현재 문제(a matter of standing)나 현재 관심사(current interest or concern)에 대해 정보를 첨가하는 형태를 띤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후속 논의로는 Reinhart(1981)과 Lambrecht(1994)를 들 수 있다. 전자는 문장화제를 ‘화용적 대상성(pragmatic aboutness)’을 소유한 대상으로 파악하고, 판별하는 데 ‘as for’의 통합 여부를 적용하였다. 후자는 더 상세한 정의를 시도하여, ‘화제’를 ‘명제가 청자의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관련 정보를 표현할 때의 대상 지시체(referent)’로 정의한 바 있다(Lambrecht 1994: 127, 131).

특히 Reinhart(1981)은 대상성 개념이 ‘화용적 단언(pragmatic assertion)’³⁶⁾이 맥락집합(context set)에 미치는 효과와 해당 맥락집합 내에서 정보가 조직되는 양상을 통해 정의된다고도 보았는데, 이는 ‘주소지(address)’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이때 문장화제는 맥락집합을 구조화하는 양상 혹은 신명제를 분류해 저장할 항목을 신호해 주는 수단으로 파악된다. 실체를 명제가 저장될 주소지로 파악하는 태도는, 친숙성의 관점에서 한정성 표현을 ‘기존 파일(old file)’로 은유한 Heim(1983)의 견해와 동일하다. Vallduví(1992)³⁷⁾, Portner & Yabushita(1998)³⁸⁾ 등이 화제의 대상성을 주소지로 치환한 논의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화제 논의가 상술한 대상성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개념의 본유적인 모호성으로 인해 그 정체가 명시적으로 구명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Brown & Yule 1983: 70, Carlson 1983: 242, Gómez-González 2001: 16). 대상성은

34) 이에 대해서는 3.1.1절에서 다시 상술하기로 한다.

35) Hockett(1958: 201)은 “화자는 화제에 대해 단언한(announce) 후 그에 대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고 보았다.

36) ‘화용적 단언’은 동일 명제가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된다.

37) Vallduví(1992)는 ‘연결부’라는 술어를 사용한다.

38) Portner & Yabushita(1998)은 Heim(1983)과 Vallduví(1992)를 통합하고자 한 논의이다.

평언의 속성이지 화제의 속성은 아니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정희자 1994). 혹은 대상성만으로는 화제를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보기도 한다. 독일어를 대상으로 하는 Jacobs(2001)과 Krifka(2006, 2007, 2008) 일련의 논의들은 주소지로서의 대상성을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한다. 전자는 ‘화제’ 범주의 성격은 단일하지 않으며 ‘서술대상’, ‘주소지’, ‘분리정보’, ‘배경’의 네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후자는 대상성 화제 외에 배경 설정(frame setting) 화제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상성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들은 이 밖에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첫째로, 문장의 모든 성분에 대해 대상성을 부여하는 논의들이 있다. Jespersen(1924)가 대표적이라고 한다(Carlson 1983: 242-243, 임홍빈 2007: 92-95). 둘째로, 담화 조직이나 질문을 기반으로 대상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있다(Brown & Yule 1983, Carlson 1983). 셋째로, 기존성과의 관계에서 대상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있다. 본고는 세 번째 관점을 일부 수정하여 수용할 것이다.

Gómez-González(2001: 16-25)이 그러한 관점을 취하는 논의 중 하나이다. 대상성은 의미적 해석의 층위로, 기존성은 정보적(informational) 해석의 층위로 각각 구분된다.³⁹⁾ 전언(message)을 중심으로 관계-의미적(relational-semantic) 해석이 적용될 때 ‘절 대상성(clausal aboutness)’을 가지는 문장화제가 분석된다고 본다. 맥락을 중심으로 지시적(referential) 해석이나 상호적(interactive) 해석이 적용되면 ‘담화 대상성(discourse aboutness)’을 가지는 담화 층위의 화제가 분석된다.

담화 층위의 화제 중 지시적으로 해석되는 화제가 담화화제, 상호적으로 해석되는 화제가 ‘화자화제(speaker’s topic)’이다. 이때 담화화제는 Givón(1983, 1988)의 ‘화제연속성’과 관련되고, 화자화제는 대화 시 화청자 간에 공유되고 협상되는 논의 대상(Brown & Yule 1983) 및 화제 전환(topic shift)과 관련된다.⁴⁰⁾ 한편 기존성은 지시적 해석과 관계적 해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취급되는데, 이는 Gundel(1988, 1999)의 구분과 일치한다. 즉 대상성과 기존성을 중첩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정리해 보면 (6)과 같다.

39) 이때 문장화제, 담화화제, 화자화제의 대상성이 어떤 특성을 가졌기에 의미적 층위로 분류되고 그때의 의미론이 어떤 개념의 것인지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정보 혹은 화용적 층위로 분류되는 기존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시적 기존성과 관계적 기존성의 어떤 특성이 이를 화용적 층위로 분류될 수 있게 하는지, 그때의 화용론은 어떤 개념인지 불분명하다. 의미론과 화용론의 구분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기로 한다.

40) 화제의 전환에 대해서는 2.3.1절에서 후술한다.

(6) Gómez-González(2001)의 대상성과 기존성

가. [문장화제] 관계적 대상성=관계적 기존성

나. [담화화제] 지시적 대상성=지시적 기존성

다. [화자화제] 상호적 대상성

기존성은 ‘한정성’, ‘특정성’, ‘총칭성’, ‘회복가능성’, ‘예측가능성’, ‘친숙성’, ‘현재성’, ‘의식’, ‘확인가능성’, ‘활성화’, ‘접근가능성’, ‘공유배경’, ‘공유지식’, ‘전제’, ‘청자구·담화구 정보’ 등의 개념을 통해 논의돼 왔다. 상술했듯 (6가, 나)의 ‘관계적·지시적 기존성’도 Gundel(1988, 1999) 이래로 기존성의 영역에서 논의돼 왔다. (6)에서는 (6다)가 기존성과 대응되지 않고 있지만, (3)에서 살펴본 ‘화제연속성’과 ‘중심’이 활성화와 연결됐던 것을 고려해 보면 이 역시 기존성의 영역에 속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기존성의 본질은 화자의 청자에 대한 고려, 맥락에 대한 인식 즉 청자의 인지상태에 대한 고려에 있다. 화제 논의에서 기존성은 ‘청자의 인지상태에 이미 존재한다고 간주하는 화자의 가정과 관련된 속성’으로 파악된다.⁴¹⁾

요컨대 대상성이 파악하기 힘들거나 충분치 못한 개념이면서 기존성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반해 기존성은 광범위하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모습으로 파악돼 왔다면, 기존성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인지상태와 관련된 기존성의 단일한 틀 안에서, 대상성을 기존성의 일종으로 간주하면서 화제의 특성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고는 화제의 속성을 기존성으로 파악하고자 한다.⁴²⁾

2.2.2. 화제의 실현 기제

본고는 ‘화제’ 범주의 해석이 속성의 층위와 기제의 층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이때 속성에는 기존성이 해당된다고 보았다. 대상성은 기존성의 일종으로 처리하고자 하였다. 한편 실현 기제에는 언어특수적인 문제들인 어순, 표지, 강세, 휴지 등이 포함된다. 구어에는 늘 강세와 휴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음운적 기제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표지의 발달 여부는 언어마다 천

41) 기존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3.1절에서 재논의한다.

42) 전술했듯 3.1.1절에서 다시 상술한다.

차만별이라는 점에서 형태적 기제를 가장 특수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어순과 관련된 통사적 기제는 중간적인 성격을 띤다. 본고는 한국어 화제의 기제 중 음운적 기제는 제외하고 통사적 어순, 형태적 표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자 하며 전자로 문두를, 후자로 조사를 각각 논의할 것이다.

음운적 기제는 구어 자료를 통해서만 분석할 수 있어 본고의 범위와 능력을 벗어나, 범언어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기제이므로 기존 논의들을 통해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화제와 관련된 강세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것은 B강세이다. B강세는 Bolinger(1958)이 최초로 A강세, C강세⁴³⁾와 함께 도입한 것으로 Jackendoff(1972)를 통해 ‘화제’와 연결되어 논의되었다. (7)과 같이 하강상승조의 B(background)강세는 배경 혹은 화제에 적용되고, 하강조의 A(answer)강세는 초점에 적용된다(Jackendoff 1972: 261).

(7) A: Well, what about FRED? What did HE eat?

음, 프레드는? 프레드는 뭘 먹었어?

B: FRED_[B강세] ate the BEANS_[A강세].

B': 프레드는_[B강세] 콩을 먹었어.

질문 (7A)에 대한 대답 (7B)에서 ‘HE’에 상응하는 ‘FRED’는 ‘화제’ 혹은 ‘배경’으로서 B강세를 받고 있고, 초점 즉 의문사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BEANS’는 A강세를 받고 있다. 이때 ‘화제’라는 술어는 ‘비초점’인 ‘배경’의 의미로 사용되는 동시에 ‘대조’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B')에서 확인되듯 배경인 ‘프레드는’은 B강세를 받음으로써 ‘프레드’와 다른 사람들을 대조하는 의미도 표시하게 된다.

대조(contrast)의 B강세가 실현되는 문두 성분만을 ‘화제’로 인정하며 강세 중심으로 화제를 구분하는 논의도 있다. Büring(1997)은 B강세에 대해 ‘B(bridge)’강세라고 명명하고, 독일어에서 나타나는 B강세의 실현 양상을 ‘화제’라는 범주로 망라하였다. 이는 Jackendoff(1972)의 B강세와 동일하며 L*H로 표기되고, A강세는 H*L로 표기된다고 하였다.⁴⁴⁾

43) C강세는 형식상으로나 의미상으로나 A강세와 반대되는 형태를 띤다(Bolinger 1958: 143).

44) H는 고조, L는 저조, *는 강세음절을 각각 가리킨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Pierrehumbert & Hirschberg(1990)에 집대성되어 있다. 이 논의에서 B강세는 L+H*LH%로 표기된다. +는

(8) A: What did you buy on 59th street?

59번가에서 넌 뭘 샀어?

B: On the 59th_[B강세] street I bought the SHOES_[A강세].⁴⁵⁾

B': 59번가에서는_[B강세] 나 신발을 샀어.

Büring(1997)에서는 '화제'라는 범주 혹은 술어가 (8B')의 'on the 59th street'처럼 B강세를 띤 문두 전치사구에 적용되어, '문장 내부 화제(sentence-internal topic)' 혹은 'S화제'로 명명된다.⁴⁶⁾ 이러한 S화제는 '대조화제(contrastive topic)', '부분화제(partial topic)', '순수함의화제(purely implicational topic)'로 하위구분되기도 한다. 배경과 관련되든 대조와 관련되든 A강세와 대비되는 B강세가 '화제' 사용에 연관되어 있음이 분명히 확인된다.⁴⁷⁾

Lambrecht(1994)는 B강세에 대해서는 유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무강세로 표현되는 성분, 그 중에서도 '무강세 대명사(unaccented pronominal)'를 가장 선호되는 '화제' 표현으로 간주한다. (3)에서처럼 이전 문장과 연결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처리를 통해 무강세 대명사가 비로소 어휘 논항과는 물론이고 강세 대명사와도 대립되는 자연부류(natural class)로 설정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Lambrecht 1994: 172).

한국어 '화제'의 강세는 주로 '는'을 중심으로 Lee(2000), 황손문(2002), 김용범(2004), 오미라(2008), 임동훈(2012), 김민국·하영우(2016) 등에서 논의되었다. 접근과 전개, 결론은 다소 상이하나 대체로 '는'에 대조가 강하게 작용하면 상승조가 실현되고, 그렇지 않으면 강세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B강세와 무강세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Chafe(1994, 2001)은 휴지에 주목하였다. 휴지는 억양구(intonational phrase) 단위

복합 강세, %는 경계를 각각 가리킨다.

45) 논의상의 편의를 위하여 영어 예문을 가져왔다.

46) S화제와 대비되는 것은 담화화제인 D화제이다.

47) 주목해 보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7B), (8B)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은 각각 (7B'), (8B')과 같다는 점이다. B강세가 실현된 영어 혹은 독일어에 상응하는 한국어 표현에 '는'과 B강세 모두가 실현돼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B강세와 '는'이 모두 '대조'와 관련돼 있으며, 이러한 '대조'는 한국어 초점과 비초점 모두에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전영철(2006)에 잘 기술돼 있다.

로 실현되고 억양구는 단일한 의식을 표현하므로, 휴지를 통해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임홍빈(2007), 최윤지(2016) 등에서 화제의 일종으로 제시어에 대해 설명하면서 휴지를 필수적으로 취급한 것과 평행하다. 이전 부분과 후속 부분 사이에 휴지가 형성되면서 분절이 표시되고, 이를 통해 ‘화제’가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화제 논의에서 강세와 휴지는 음운적 기제 그 중에서도 운율적, 초분절적 기제로서 대조·비대조나 분절 표시를 통해 ‘화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간주돼 왔다.

어순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강세나 휴지보다는 일부 제약적일 수 있으나, 여전히 언어보편적이다. 각 문장의 양단 즉 문두와 문미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SOV, SVO, VSO 어순의 언어들⁴⁸⁾ 모두 문두나 문미를 활용한다. 기본어순이 동일하더라도 자유어순 언어와 고정어순 언어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3)에서 확인했듯 문두는 전치와 좌측전위, 중주어 및 자유화제 등에 활용된다(Gundel 1988).

- (9) 가. Mi a'e heirsch. (Fife & King 1991: 84)
 me her seek
 그녀를 찾는 것은 나이다.
- 나. Den Hans, den kenne ich seit langem. (Nolda 2004: 423)
 Hans(목적격) him know I for a long time
 한스, 나는 개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 다. Xiang bi xiong bizi chang.⁴⁹⁾ (Shi 2000: 402)
 elephant compared.to bear nose long
 코끼리는 곰보다 코가 길다.
- 라. Wujia Niuyue zui gui. (Shi 2000: 397)
 price New York most expensive
 물가는 뉴욕이 제일 비싸다.

(9가)는 VSO 언어인 웨일스어의 전치 구문이다. 이때 문두 성분은 분열문의 분열

48) Comrie(1989)에 의하면 주어, 목적어, 동사의 절 내 상대적 순서에 따라 기본어순을 설정할 때 SOV, SVO, VSO, VOS, OVS, OSV 여섯 가지 유형의 어순이 존재한다. 종류는 SOV 어순의 언어가 가장 많고, 사용자는 SVO 어순의 언어가 가장 많다. OV 어순의 언어는 드물다. 본고에서는 주로 앞의 세 어순의 언어에 대해서만 언급할 것이다.

49) 중국어 표기 시 성조와 한자는 생략하기로 한다.

요소이다.⁵⁰⁾ (9나)는 SVO 언어인 독일어⁵¹⁾의 좌측전위 구문이다.⁵²⁾ 문두 성분과 공지시 성분인 복귀대명사(resumptive pronoun)가 후속 부분에 실현돼 있다. (9다, 라)는 SVO 언어로도 논의되고 SOV 언어로도 논의되는 중국어⁵³⁾의 중주어 구문과 자유화제 구문이다. Shi(2000)에서는 (9라)의 ‘물가는’이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기본어순을 갖든 구문의 성격이 어떻든 모두 문두를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⁵⁴⁾

문미를 활용하는 경우로는 후치(postposing)와 우측전위(right dislocation)가 있다. 전치, 좌측전위와 마찬가지로 후치 구문에는 공지시 표현이 선행 부분 내에 실현돼 있지 않고 우측전위 구문에는 실현돼 있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10가)는 후치의 경우이고, (10나)는 우측전위의 경우이다.

- (10) 가. 기술자야, 우리 사위가. (이기갑 1996: 1)
 나. 그 사람들이 산으로 다 도망을 갔잖아, 토포군들이. (강소영 2006: 295-296)

그러나 한국어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후치와 우측전위를 구분하지 않으며,⁵⁵⁾ ‘우분리(right detachment)’, ‘후보충(afterthought)’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Lambrecht(1994)에서는 ‘반화제(anti-topic)’로 명명된 바 있다. SOV 언어인 소말리아어에 대해 논의한 Svolacchia, Mereu & Puglielli(1995)에서는 ‘후보충 화제’, ‘후

50) Fife & King(1991)는 이처럼 분열요소가 전치된 구문을 혼합문(MS, mixed sentence)으로 명명하고, 이러한 구문은 웨일스어 역사 전체에 걸쳐 발견된다고 하였다. (9가)는 중세 웨일스어의 예라고 한다.

51) 독일어의 경우 종속절에서는 SOV의 어순을 가진다(Comrie 1989).

52) Nolda(2004)에는 (9나)의 좌측전위 구문 외에 독일어의 복합 좌측전위, 부착화제, 자유화제 구문도 제시돼 있다. 복합 좌측전위 구문은 문두 성분이 주격으로 표시되고 후속 부분 내 공지시 성분과 일치할 보이지 않는 구문이고, 부착화제 구문은 문두 성분은 주격으로 표시되는 데 반해 공지시 성분은 (9나)처럼 대격으로 표시되는 구문이다. 자유화제 구문은 문두 성분이 주격이나 대격으로 표시되면서 공지시 성분과 일치할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문두 성분이 독립적인 억양도 가지는 구문이다.

53) 중국어는 SVO 어순의 언어로 논의되지만 김종호(2006), 박정구(2006)처럼 SOV 어순을 기본어순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들도 있다.

54) Rizzi(1997)은 생성문법의 관점에서 최초로 문두의 위계를 나눈 바 있다. 이때 화제 위치는 복수로 설정된다.

(i) [ForceP [TopP [FocP [TopP [FinP TP]]]]]

55) 최윤지(2016: 76-78)에 의하면 한국어에는 우측전위보다 후치가 더 빈번하다고 한다.

화제(aftertopic)'로 불리기도 하였다. 독립적인 운율을 이루는 것으로 본다.

이기갑(1996)은 후치에 대해 '첨가' 구문이라고 명명하고, 이들의 기능은 강조와 보완이라고 보았다. 강소영(2006)에서는 주어의 후치 혹은 우측전위는 마찰 및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화자의 전략인 것으로 설명되었고, 강소영(2008)에서는 정확한 정보전달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박철우(2007)은 우측전위가 상기와 보완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기갑(1996), 최윤지(2016) 등에서는 해당 실체가 한정적이거나 활성화 정도가 높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후치에 대해서만 다른 Birner & Ward(1996)에서는 영어의 'there' 구문을 주어 후치 구문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우측전위의 경우와 달리 활성화되지 않은 실체만 문미 성분으로 실현될 수 있다(Ward & Birner 2001, 2011). Gundel(1988)은 영어에는 후치 구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이와 달리 우측전위의 문미 성분은 화제의 전형이라고 보았다. 어떤 경우든 문미 성분이 분절상, 담화상으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문두 성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표지는 화제를 실현하는 데 가장 제약적이다. 언어별로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자유어순인 언어들이 대체로 표지가 발달해 있는 편이다. (11가)는 SVO 언어이면서 굴절어로서 자유어순인 폴란드어의 경우이고, (11나)는 동일한 유형인 러시아어의 경우이다.⁵⁶⁾ 폴란드어는 'to'를, 러시아어는 'eto'를 각각 사용한다.

(11) 가. Jan to kupił samochód. (Gebert 2009: 313)

Jan as.for has-bought a car

얀으로 말하자면 차를 샀다.

나. Marija eto (była) żena moego brata. (Gebert 2009: 312)

Marija as.for (was) wife my brother(여격)

마리아는 내 동생의 아내였다.

그러나 화제 표지를 보유한 것은 대부분 SOV 언어이고, 그 중에서도 일본어의

56) VSO 언어 중에서는 타갈로그어의 'ang'이 화제 표지로 취급된 적이 있다고 하나 Gundel(1988)에서도 'ang'을 화제 표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Law(2007)에서도 한정성 표지로 취급되고 있다.

(i) ang babae hihiram ng laruan sa bata. (Law 2007: 130)

woman borrow(빌림) toy child
그 여성, 그는 아이한테서 장난감을 빌렸다.

‘wa’와 한국어의 ‘는’이 가장 대표적인 표지인 것으로 논의돼 왔다. 한국어에서는 ‘는’ 이외의 다른 보조사들도 함께 논의된 바 있다. 최윤지(2016)에서는 ‘이란’과 ‘이야’가 화제 표지로 인정되었고, 함병호(2018)에서는 두 보조사뿐 아니라 ‘이야말로’와 ‘일랑’도 화제 표지로 분류되었다. 반면 ‘가’와 ‘만’, ‘도’는 화제 표지에서 제외되었다(함병호 2018).

요컨대 화제 범주는 기존성을 속성으로 가지며 그 속성은 범언어적으로 강세 및 휴지, 어순, 표지 등을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화제 범주는 (12)와 같은 체계를 가지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2) 화제 범주의 특성

- | | | |
|------------|---------------------|-------------|
| 가. [속성] | - 기존성 | |
| 나. [실현 기제] | - 강세(무강세, B강세) 및 휴지 | [음운론/제1 보편] |
| | - 어순(문두, 문미) | [통사론/제2 보편] |
| | - 표지(조사) | [형태론/제3 보편] |

그러나 기존성이 정확히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명확하게 구명되지 못했다. 기존성의 정체는 3장에서 상세하게 고찰해 볼 것이다. 또한 상술했듯 본고는 음운적 기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 어순도 문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본고는 (1), (2)를 각각 (13)의 문두 구문과 (14)의 조사 구문으로 명명하고 각각에 대해 4장, 5장에서 상세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화제에 대한 논의는 속성인 기존성이 기제인 문두와 조사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13) 문두 구문

- 가. 영희는 철수를 만났다.
- 나. 영희는 동생이 철수를 만났다.
- 다. 철수를/는 영희가/는 만났다.
- 라. 철수 (있잖아/말이야), 영희는 그/개를 만났다.
- 마. (그런데) 철수에 대해 말하자면/는, 영희가/는 동생을 만났다.

(14) 조사 구문

- 가. 그/개는 민호도 만났다.

- 나. 그/개가 민호도 만났다.
- 다. 영희∅ 민호도 만났다.
- 라. 그/개∅ 민호도 만났다.
- 마. ∅ 민호도 만났다.

2.3. 화제의 분석

2.1절에서는 본고에서 논의할 범위를 기존성과 문두 구문 및 조사 구문으로 한정하였다. 기존성이 문두와 조사를 통해 어떻게 실현되는지 고찰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그 전에 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화제가 담화 내에서 실현되는 것이고 문장 내에서 분절되는 것이라면, 본고에서 취할 담화와 분절에 대한 관점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 분절에서는 문장화제와 담화화제가 합치될 수 있는 부분에 주목하고, 문장이 분절되는 양상을 세분하여 이후 논의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

2.3.1. 담화의 조직과 관련되는 영역

문장뿐 아니라 담화⁵⁷⁾ 역시 ‘화제’ 분석의 대상 및 층위가 되어 왔다. 그러나 언어학의 화제는 문장화제를 일컫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장화제와 담화화제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Reinhart(1981: 54-55)에서는 Grice(1975)에서 인용한 (15)를 통해 문장화제와 담화화제의 차이를 논의한 바 있다.

- (15) 가. 모건은 섬세한 연구자이고 총명한 썬어학자이지만 독창성이 좀 더 요구된다.
- 나. 모건은 글씨가 예뻐서 시간을 잘 지킨다.

(15가)는 ‘모건’에 대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모건의 연구 능력’에 대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건의 연구 능력’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상위적인 개념일 뿐, 그 표현이 문장에 실현돼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모건’은 (15가)의 문장화제이지만 ‘모건의 연구 능력’은 문장화제가 아니다. 이것은 담화화제⁵⁸⁾이다.

57) Stubbs(1983: 1)에 따르면 담화분석은 ‘자연발생된 구어 및 문어 연결담화에 대한 분석’으로 정의된다. Schiffrin, Tannen & Hamilton(2001: 1)에 따르면 담화는 ‘문장 이상의 단위, 언어사용, 비언어적 언어표현을 포함하는 더 넓은 영역의 사회실천’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담화화제 개념은 (15나)와의 비교를 통해서 더 분명해진다. (15가)와 (15나)의 연쇄가 ‘모건의 연구 능력’이라는 담화화제를 표현하는 데 사용됐다고 본다면, (15나)는 해당 담화화제와 관련성이 없다. 두 문장의 담화화제는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15가, 나) 모두에 ‘모건’이 실현돼 있으므로 두 문장의 문장화제는 ‘모건’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이유로 문장화제와 담화화제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논의돼 왔다.

그러나 담화는 문장으로 구성되고 문장은 담화를 형성한다. 언어학의 화제를 명확히 구명하기 위해서는 문장화제와 담화화제를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다. 담화화제라고 하면 흔히 담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전체(global) 담화화제’로 명명된다. 파악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담화를 논의대상 중심으로 파악하여 ‘담화 전체의 논의대상’을 전체 담화화제로 간주하는 것⁵⁹⁾이다. Reinhart(1981)의 관점이 그러하다. 다른 하나는 담화를 문장들에 대한 대응 질문으로 파악하여 ‘상위 질문’을 전체 담화화제로 간주하는 것이다.⁶⁰⁾⁶¹⁾ 대표적인 논의로는 van Kuppevelt(1995)가 있다.

그런데 전체 담화는 평면적인 구조를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층위적인 구조(hierarchical structure)를 가진다.⁶²⁾ 하위 담화들이 층위를 형성하면서 전체 담화를 구성한다. 전체 담화화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적용해 보면, 하위 담화는 논의대상 실체가 전환되는 담화 단위나 ‘하위 질문’(van Kuppevelt 1995)에 대한 대답에 해당하는 부분이 된다. 각 하위 담화들은 ‘하위 담화화제’를 가질 것이고, 이는 전환되는 해당 논의대상 실체나 해당 하위 질문을 가리키게 될 것이다.

이때 하위 담화는 다시 문장들로 구성되므로, 문장화제와 관련하여 담화가 기여

58) Zeevat(2004: 204)처럼 담화화제라는 것이 만약 있다고 해도 그것은 담화가 종료된 후에나 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체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보는 논의들도 있다.

59) van Dijk(1976)에서 담화화제로 논의한 ‘지시체에 대한 반복 지시 표현’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60) van Dijk(1976)에서 담화화제로 논의한 ‘이야기에 대한 요약 문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61) 상위 질문이라는 것은 누가 어디서 생성해 내는지, 서사 담화가 아닌 담화의 담화화제도 동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어 볼 수 있다. Asher(2004)는 그러한 상위질문을 추출해 줄 수 있는 기제는 사실상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며(Asher 2004: 167),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서사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담화의 ‘요약된 중심생각’이자 부분을 망라하는 ‘상위 질문’이라는 담화화제의 정의를 전면 부인한 것은 아니다.

62) 담화화제를 질문으로 파악하는 논의들은 대개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

하는 영역 역시 분명해진다. 실체의 관점에서는 하위 담화화제 실체가 해당 담화 단위의 시작 부분에서 문장화제의 형태로 도입되는지, 만약 도입된다면 어떤 기제를 통해 실현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담화 단위 간의 문제이다. 이후 담화 단위 내 문장 간에서 문장화제가 제 기제를 통해 승계·전환되는 양상 역시 살펴볼 수 있다. 문답의 관점에서는 하위 질문 즉 담화 단위별 대응 질문이 문장화제를 통해 전환되는지, 만약 전환된다면 어떤 기제로 실현되는지 고찰해 볼 수 있다. 개별 질문을 통해서서는 문장 간 문장화제의 전환·승계 여부와 더불어 문장 내 문장화제의 존재 여부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관점을 정리해 보면 (16)과 같다.

(16) 문장화제 분석에 관련되는 담화 조직의 영역과 그 양상

방식	범위	성격	기능
실체	담화 간	하위 담화의 논의대상	전환
	문장 간	개별 문장의 논의대상	전환·승계
문답	담화 간	하위 질문과 그 대답	전환
	문장 간	개별 질문과 그 대답	전환·승계
	문장 내		존재

본고는 (16)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후의 논의대상으로 삼고, 이들이 문장화제로 실현되는 부분이 화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문장화제 역시 담화의 일부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2.3.1.1절에서는 (16)의 ‘실체’에 집중한다. 하위 담화화제⁶³⁾ 실체가 문장화제로서 담화 단위 간에 전환되는 양상과 화제 실체⁶⁴⁾가 문장화제로서 담화 단위 내 문장 간에 전환되고 승계되는 양상에 주목할 것이다. 2.3.1.2절에서는 ‘문답’에 집중한다. 하위 질문이 담화 단위 간과 담화 단위 내 문장 간에서 전환되는 양상과 개별 질문이 문장화제 실현에 개입하는 양상에 주목할 것이다. 여기에는 분절과 관련된 양상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능과 관련한 질문의 필수성에 집중한다. 실체의 전환·승계도 문답을 통해서만 판별될 수 있다.

63) 이후 ‘하위’를 생략하고 ‘담화화제’로만 표기하기로 한다.

64) 이때 화제 실체는 담화화제인 문장화제를 가리킬 수도 있고 담화화제가 되지 못하는 문장화제를 가리킬 수도 있다.

2.3.1.1. 실체를 통한 조직

담화화제가 항상 문장화제의 형태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문장화제로서 담화 간 전환되거나 문장 간 전환·승계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시될 필요가 있다. Brown & Yule(1983)의 '공유화제(shared topic)', Levinson(1983)의 '화제 조직(topical organization)', Chafe(2001)의 '화제 탐색(topic navigation)'과 Givón(1983, 1988)의 '화제연속성' 등이 이 중 담화 간 화제 전환과 관련된다. 이때 전환은 도입과 복귀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분석되는 '화제'는 문장화제 논의가 집중해 온 문두, 강세 및 휴지, 표지 등의 기제들과 많은 부분 중첩된다. 언어학의 화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논의들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담화화제 실체는 문장화제의 형태를 띠고 담화와 담화 사이에서 전환될 수 있다.

2.2.1절에서 기존성에 대해 언급할 때 살펴보았듯, Brown & Yule(1983)에서 논의하는 '공유화제'는 Gómez-González(2001)의 '화자화제' 개념과 동일하다. 화자화제는 기존성과 중첩되는 관계적 대상성, 지시적 대상성과 달리 기존성과 대응되지 않는 상호적 대상성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화제'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협상되는 것이며 '대화의 현 부분에서 화자가 화청자 간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언급대상'(Brown & Yule 1983: 90) 정도로 파악된다.

이러한 이유로 Brown & Yule(1983)은 '화제'를 소유하는 것은 문장이 아니라 화자이며 '화제'는 문장 층위에서 분석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문두 배치되는 시간부사어를 '화제 전환' 표지로서 중요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인다(Brown & Yule 1983: 94-100). Halliday(1967)을 좇아 각 문장의 문두 성분을 '주제(theme)'로 칭하면서 문두 성분 간의 연결을 '주제 구조(thematic structure)'로 망라하기도 한다. 이때 '화자화제 실체'가 대부분 '주제'로 실현된다고 본다(Brown & Yule: 137). 이처럼 화자화제 혹은 공유화제의 개념으로 화제를 파악하더라도 문장 층위에서의 실현 양상은 반드시 고려된다.

Levinson(1983)의 화제 조직 논의도 이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대화는 인사-인사, 질문-대답 등의 인접쌍(adjacent pair)을 통해 시작되고 종료되며, 화청자 간 순서교대(turn-taking)를 통해 진행된다. 이때 '화제'는 '화청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일 사건, 동일 지시체, 동일 개념' 등으로 정의된다. 화청자 간에 이러한 '공유화제'가 개시되고 종료되는 양상이 화제 조직의 한 국면이 되고, 화제 조직은 전체 대화 혹은 담화의 한 부분이 된다.

특히 Levinson(1983: 366)은 ‘화제’ 개념이 문장화제와 구분되는 담화화제임이 자명하다고 할지라도, 많은 통사구조들이 대화상의 화제 조직에 의해 동기화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보았다.⁶⁵⁾ ‘좌측전위’의 문두 성분은 영어에서 화제 조정 즉 전환을 시도할 때 사용하는 문장화제이다. 이처럼 Brown & Yule(1983)과 Levinson(1983)은 담화 간에 ‘화제’가 전환되는 양상을 중시하고 그것을 표시하는 표현들에 주목하였다. 대부분 문장의 문두 성분으로 실현되는 경향을 보였다.

Chafe(2001)도 화제에 대해 이들과 유사한 관점을 취한다. 실제 대화를 분석하면서 ‘화제’를 ‘화청자가 이야기하는 동일한 대상’으로 정의한다. 다만 그 ‘화제’가 실현되는 양상을 문두가 아닌 강세 및 휴지와 관련시킨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논의에서 중시되는 개념은 Chafe(1976)에서부터 논의해 왔던 ‘활성 의식(active consciousness)’과 Chafe(1994)에서 망라한 ‘음성 신호(phonetic cue)’들이다.

인간의 활성 의식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생각을 담을 수 없다. 화제 전체는 준활성 지위로만 존재하다가 도입과 동시에 활성 의식 내에 진입하게 된다. 활성 의식은 그 화제가 충분히 연속되고 적절하게 종료될 때까지, 관련된 하위 문제들을 차례차례 활성화시키면서 탐색해 간다. Chafe(2001)는 이러한 양상이 주로 강세와 휴지를 통해 실현된다고 본다. 특히 휴지가 주어질 때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2.2.2절에서 언급했던 제시어의 경우와 직결된다. 담화 간에 ‘화제’가 전환되는 양상이 휴지를 통해 문장화제와 중첩된다.

Givón(1983, 1988)은 앞의 논의들처럼 적극적인 대화분석을 다루지는 않지만 담화화제의 실현 양상, 담화화제와 문장화제의 관련성 등에 대한 상세한 고찰을 담고 있다. Givón(1983: 7)에서 담화연속성(discourse continuity)은 ‘제제연속성(thematic continuity)’, ‘행위연속성(action continuity)’, ‘화제연속성’의 세 가지로 대별된다. 제제연속성은 전체 담화화제를 규정하는 개념이고, 행위연속성은 행위가 시간과 관련하여 가지는 순차성(sequentiality)과 인접성(adjacency)을 동시에 가리킨다. 시간적으로 연속성을 가질 때 단일한 행위로 간주된다.

65) Levinson(1983: 366)은 화제 도입 및 복귀에 다수의 담화표지(discourse marker)가 사용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한국어 논의로는 강소영(2014)가 있다. 이 논의는 오락프로그램에서 추출한 각 ‘화제 구조’를 시작-전개-종결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각 부분에서 상용되는 담화표지를 목록화하고 계량화하였다. 이때 ‘시작’은 시작·재시작의 두 부분을, ‘전개’는 심화·일탈·복귀의 세 부분을 각각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시작에는 ‘자’, ‘아’ 등이, 화제종결에는 ‘네’ 등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탈 및 복귀에는 ‘아니’가 월등히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었다.

화제연속성은 담화화제가 반복되면서 실현되는 양상이다. 즉 ‘화제’는 ‘담화화제 지시체에 대한 조용 혹은 활성화 정도’로 파악된다. ‘화제’를 ‘공유화제’ 개념으로 파악한 앞의 논의들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Gómez-González(2001)에서 화제연속성은 지시적 대상성의 담화화제로, 공유화제는 상호적 대상성의 화자화제로 분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담화 간의 화제 전환이 문장화제로 실현되는 양상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함께 취급할 만하다.

이 과정에서 Givón(1983, 1988)은 문장 간의 화제 전환과 승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한다. 화제성(topicality)은 이전 맥락과의 지시 거리(referential distance)와 후속 맥락에서의 등장 횟수를 통해 측정된다. 가까울수록 이미 활성화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잦을수록 활성화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⁶⁶⁾ Chafe(2001)이 휴지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동일 화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했던 것처럼, 활성화 개념을 기반으로 해당 화제가 문장에서 실현되는 양상을 다룬다. Givón(1983: 9)은 담화 내 문장들의 연쇄를 삼분할 수 있으며 이때 각 문장화제(primary topic)가 (17)-(19)와 같은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17가-나), (18가), (19가)는 이전 맥락과 관련되고 (17다), (18나), (19나)는 후속 맥락과 관련된다.

- (17) 연쇄 초 화제
 - 가. 신도입, 신전환, 신복귀
 - 나. 이전 맥락 대비 비승계
 - 다. 후속 맥락 대비 잠재적 유지
- (18) 연쇄 중 화제
 - 가. 이전 맥락 대비 승계
 - 나. 후속 맥락 대비 유지 가능
- (19) 연쇄 말 화제
 - 가. 이전 맥락 대비 승계
 - 나. 후속 맥락 대비 비유지

담화화제가 문장화제로 실현되고 그와 중첩되는 양상은 이전 맥락을 고려한다.

66) 지시거리와 음운론적 길이의 관계도 논의되는데, 담화화제 지시체와 지시거리가 짧을수록 생략 형태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지시거리가 길수록 더 긴 표현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장화제로 실현된 담화화제는 다시 문장 간에 전환되거나 승계된다. (17)의 경우라면 관련 실체가 활성화돼 있다고 보기 힘들고 활성화돼 있더라도 가깝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화제 표현은 충분히 실현되어야 하고 생략될 수 없을 것이다. 검토한 바와 같이 문두 구문을 통해 문장화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18)과 (19)의 경우에는 실체들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전환된 담화화제를 승계할 때 해당 표현이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⁶⁷⁾

한국어에서 ‘는’이 ‘화제’로 실현되는 양상에 대해 논의한 임동훈(2012: 230-234)에도 동일한 관찰이 나타나 있다. 전환 시에는 문두 구문으로 실현되고, 승계 시에는 생략된다. (20)은 모두 문두 구문으로, 담화 간이든 문장 간이든 화제 전환의 기능을 보인다.⁶⁸⁾

- (20) 가. 그럼 과거 10년간에 걸친 일본의 수요 구조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순내수에 대해서는 건설 수요가 중심이 됩니다만 공공 수요 감축에 따라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 107동 경비 아저씨 있잖아, 그분이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고향이 어디냐고 묻
 지 않겠어?
 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누가 될 거 같으세요?

(20가)는 가능화제를 도입하는 전치, (20나)는 신화제를 도입하는 좌측전위, (20다)는 기존화제로 복귀하는 자유화제에 각각 해당한다. (20)은 모두 ‘는’으로 대체될 수도 있어(임동훈 2012: 230), 문장화제와 담화화제의 밀접한 관련성을 증명한다.⁶⁹⁾ 이에 반해 문장화제가 이전 문장과 동일한 경우에는 대부분 ‘는’으로 표시되지 않고 생략된다(임동훈 2012: 230). 승계된 문장화제는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

중심화 이론의 관점에서도 문장 간에 문장화제가 전환되고 승계되는 양상을 취급한다(Walker, Joshi & Prince 1998: 1). ‘중심화(centering)’란 ‘주의 상태(attentional state), 추론복합성(inferential complexity), 지시 표현 형식과 관련된 담화 내 화청자의 주의 중심(center of attention) 모형’을 가리킨다. 하위 담화 내 각 문장⁷⁰⁾에 존

67) 생략이 가능한 언어일 경우에 그러하다. 한국어는 생략이 가능한 언어이다.
 68) 화제 논의에 담화와 문장을 모두 고려하는 관점은 Daneš(1974), Kroeger(2004) 등에 일찍이 드러나 있고, 임동훈(2012)에도 이들 논의가 반영돼 있다.
 69) 그러나 (20나)를 두 개의 문장으로 취급하여, ‘있잖아’는 담화화제의 표지일 뿐 문장화제의 표지는 아니라고 보는 최윤지(2016: 87)과 같은 논의도 있다.

재하는 의미론적 실체가 바로 ‘중심’이다. ‘주의’는 이 중 가장 현저한 의식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향중심(Cf, forward-looking center)’은 문장 내 실현된 담화 실체들을 가리킨다. 전향중심 중 담화현저성(discourse saliency)이 가장 높은 실체를 ‘선호중심’이라고 한다. 담화현저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문법관계, 어순, 정보지위 등이 있고, 언어별로 상이하지만 대개 주어나 화제의 담화현저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전향중심 중 특별히 주의 중심에 놓이는 담화 실체가 ‘후향중심’이다. Reinhart(1981)의 문장화제와 동일한 개념이며, 이전 문장의 선호중심이 후속 문장의 후향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Gundel(1998)에서는 전향중심은 활성화와 관련되고 후향중심은 정초점(in focus) 혹은 주의초점(attentional focus)과 관련된다고 보기도 한다.

‘중심 전이 상태(center transition state)’는 문장 간 후향중심의 동일성 여부와 후향중심과 선호중심 간 동일성 여부에 따라 (21)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21) 중심 전이 상태

	문장 간 후향중심 일치	문장 간 후향중심 불일치
후향중심-선호중심 실체 일치	승계	약전환
후향중심-선호중심 실체 불일치	유지	강전환

이전 문장의 후향중심이 여전히 후속 문장의 후향중심이고 그 후향중심이 선호중심이기도 하면 ‘승계(continue)’이다. 이전 문장과 현재 문장의 후향중심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후향중심이 선호중심은 아니면 ‘유지(retain)’이다. 반대로 후속 문장의 후향중심이 이전 문장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그 후향중심이 선호중심이기도 하면 ‘약전환(smooth-shift)’이다. 후속 문장의 후향중심이 이전 문장과 동일하지도 않으면서 선호중심도 아니면 ‘강전환(rough-shift)’이다.

그러나 이 분류를 화제 논의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전향중심 중 담화현저성이 가장 높은 실체가 선호중심이고 주의 중심에 놓이는 실체가 후향중심이라고 하여 분리하고 있으나, 둘 다 일반적으로 문장화제에 해당하므로 개념이 중복된다. 실제로 선호중심은 후속 문장의 후향중심을 ‘예측’하기 위한 개념이므로⁷⁰⁾ 예측이

70) Walker, Joshi & Prince(1998)에서는 ‘발화’이다. 술어의 통일을 위해 ‘문장’을 사용하였다.

핵심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화제 논의에서는 이전 문장의 문장화제가 후속 문장에서도 문장화제로 승계되는지 여부만 중요하다. 즉 ‘유지’와 ‘강전환’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유지’로 설명된 경우 후향중심을 문장화제가 아니라 성분생략과 동일시한다(Lida 1998).⁷²⁾ ‘강전환’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보고도 있다 (Di Eugenio 1998). 본고에서는 ‘승계’와 ‘(약)전환’⁷³⁾만을 수용하고자 한다.

김미경(2003)은 중심화 이론을 한국어의 성분생략에 적용하였다. 화제가 아닌 주어의 생략을 다루지만, 중심화 이론은 지시 표현 형식의 선택을 화자의 의식 상태 및 문장 간 응집성과 관련시킨다(김미경 2003: 29). 이때 화자의 의식 상태는 활성화화를 의미하고, 문장 간 응집성은 화제연속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김미경(2003)에 따르면, 주어의 생략은 화자가 해당 지시체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겠다는 ‘승계’를 표현하고자 할 때 발생한다. Givón(1983, 1988)에서 논의한 연쇄 중의 (18가), 연쇄 말의 (19가)와 직결된다.

화제가 담화 간, 문장 간에 전환되기도 하고 문장 간에 승계되기도 한다는 관찰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전환될 때에는 문두 구문이 주로 활용되고 승계될 때에는 해당 성분이 생략될 수 있다는 관찰 역시 그러하다. Thurgood(1978)은 SOV 언어인 미얀마어의 화제 표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승계 시에는 성분생략이나 ‘ha’가 사용되고 전환 시에는 ‘ka’, ‘kui’, ‘tau?’ 등이 사용된다고 하였다.⁷⁴⁾ Gundel(1988)에서는 한국어의 ‘는’과 일본어의 ‘wa’를 화제 표지로 논의하면서, 이 표지들이 주어나 시공 표현을 통한 전환이나 대조에 사용된다고 보았다. 역시 SOV 언어인 소말리아어의

71) Givón(1983, 1988)에서도 후속 문장의 화제에 대해 예측하고자 한다. 연쇄 초의 (17다), 연쇄 중의 (18나), 연쇄 말의 (19나)가 그러한 경우이다.

72) Iida(1998)에서 ‘유지’로 제시된 경우는 (ic)이다. (ic)의 후향중심은 (간접)목적어인 ‘Ø’ 즉 ‘하나코’이지만 선호중심은 문두 성분인 ‘미치코’이기 때문에 중심은 ‘유지’되었다.

(i) a. Hanako wa siken o oete, kyooshitsu ni modorimashita.

Hanako 화제 exam 목적격 finish classroom to returned.
하나코는 시험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b. Ø hon o lokka ni shimaimashita.

(Hanako) book 목적격 locker in put
Ø 책을 락커에 넣었습니다.

c. Itsumo no yooni Michiko wa Ø deki o tazunemashita.

as usual Michiko 화제 (Hanako) result 목적격 asked
언제나처럼 미치코는 Ø 결과를 물었습니다.

73) ‘약’은 생략하고 ‘전환’만 사용한다.

74) ‘ka?’는 주어 명사구에, ‘kui’는 목적어 명사구에, ‘tau?’는 동사에 사용된다고 한다.

화제에 대해 연구한 Frascarelli & Puglielli(2009)에서도 전환 기능과 승계 기능을 구분하였다.

Lambrecht(1994), Lambrecht & Michaelis(1998)도 유사한 관점을 보이며, 활성화 되어 있던 화제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화제를 구분한다. Lambrecht(1994)에서는 활성화 화제를 ‘기확립 화제(established topic)’로 명명한 바 있다. 이전 문장의 화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보인다. 이후 이 명칭은 Lambrecht & Michaelis(1998)에서 ‘인가 화제(ratified topic)’로 변경되었다. 이와 대립되는 비활성화 화제는 ‘비인가 화제(unratified topic)’로 명명되었다.⁷⁵⁾

(22) A: Remember that guy Moe?

B: Yeah. His wife was a nut.

B': Moe was a nut.

(22A)에 대해 (22B)와 (22B')의 대답이 모두 가능하다고 할 때, Lambrecht & Michaelis(1998: 500)의 관점에서 (22B, B')의 ‘his wife’와 ‘Moe’ 모두 인가 화제가 되지 못한다.⁷⁶⁾ 전자는 언급돼 있지 않기 때문이고, 후자는 언급이 되었더라도 (22A)에서 화제로 실현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⁷⁷⁾ 이전 문장의 화제가 그대로 실현될 때 화제가 ‘승계’된다고 본 본고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Oh(2007, 2008, 2009) 일련의 논의는 이 관점을 수용하여 한국어의 인가 화제는 성분생략과 무조사로 실현되고 비인가 화제는 ‘는’과 ‘말이야’로 실현된다고 보기도 하였다.

박진호(2015)와 함병호(2018)에서도 이 구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다만 ‘활성화’를 ‘지시적 기존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 인가 화제만 지시

75) 이 개념을 한국어에 최초로 도입한 것은 Oh(2007)이다. 이에 대한 번역술어는 박진호(2015)에서 가져왔다.

76) 한국어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ia)의 ‘모라는 애’가 비인가 화제로 취급되고, 그로 인해 (ic)의 ‘개’가 인가 화제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i) A: 모라는 애 (너) 기억해?

B: 그럼, 개 부인 제정신이 아니었잖아.

B': 개 제정신이 아니었잖아.

77) 이전 문장에 문두 성분의 화제로서 실현된 것이 아니고 기등장한 것만으로도 해당 실체를 ‘화제’로 취급하는 논의로 Timm(1991)도 있다.

적 기존성을 가지는 것으로 논의한다. 본고에서 ‘활성화’는 지시적 기존성의 일부이다.78) 활성화가 ‘기언급’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해도, 승계 화제는 활성화 화제 전체 보다는 이전 문장을 대상으로 하는 좁은 개념이다. 승계 화제와 인가 화제의 개념은 크게 보면 일치하지만 술어의 세부적인 사용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 본고는 중심화 이론의 일부 관점과 술어를 수용하여 ‘전환 화제’와 ‘승계 화제’라는 술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요컨대 언어학에서 화제를 연구할 때 담화화제가 문장화제로 실현되는 양상은 전환과 승계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화제는 담화와 담화 사이에서 전환될 수 있다. 담화 내에서도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전환될 수 있다. ‘전환 화제’의 경우이다. 화제는 이전 문장과 후속 문장 사이에서 승계될 수 있다. ‘승계 화제’의 경우이다. 전환 화제는 문두 구문이나 휴지 등으로 실현되고 승계 화제는 성분생략으로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정리해 보면 (23)과 같다.

(23) 문장화제 분석에 관련되는 실체를 통한 담화 조직에서 관찰되는 경향

범위	기능	실현 경향
담화 간	전환 화제	문두, 휴지
문장 간	전환 화제	문두, 휴지
	승계 화제	성분생략

2.3.1.2. 문답을 통한 조직

화제는 맥락 즉 질문에 독립적인 것으로 논의되기도 하고 의존적인 것으로 논의되기도 해 왔다. 보통 문장화제는 맥락 독립적이고 담화화제는 맥락 의존적인 것으로 논의된다. Roberts(2011)은 전자를 문두 성분의 ‘발화화제(utterance topic)’로, 후자를 질문의 ‘논의 중 문제(QUD, question under discussion)’로 각각 명명하고 구분한 바 있다. 담화화제를 질문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는 태도를 취한다.

화제를 질문과 관련되지 않는, 맥락 독립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논의들은 대부분

78) Gundel(1988, 1999), Gundel & Fretheim(2004) 일련의 논의에서는 지시 표현 전체를 지시적 기존성의 범위에서 다루고 있다. Gundel, Hedberg & Zacharski(1993)에서 논의한 지시 표현의 ‘기존성 위계’에도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비한정성 표현이 포함돼 있다. 적어도 기언급의 의미를 가지는 활성화와 지시적 기존성이 동일한 개념인 것은 아니다.

생성문법의 배경을 가진다. 이들은 주로 본고에서 '전치'로 구분한 (24)와 같은 예문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구성에 대해 '화제화'라고 명명한다.

(24) 철수를 영희가 만났다.

생성문법에서는 (24)의 '철수를'과 같은 문두 성분이 기저생성되었는지 이동되었는지 판별하는 것을 주된 논제로 삼기 때문에, 해당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⁷⁹⁾

화제에 대해 맥락 독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또 다른 통사론 관련 논의로는 임홍빈(2007)이 있다. 이 논의에서는 성분분석에서 분석되지 않는 나머지를 '통사적 주제'로 구분한다.

(25) 영희는 동생이 철수를 만났다.

(25)에서 '떡다'는 서술어이며 '동생이'는 주어, '사과를'은 목적어이다. 그러나 '철수는'은 어떤 문장성분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즉 '떡다'의 논항구조 내에 '동생'과 '사과'는 있지만 '철수'는 없으므로, 잉여성분인 '철수는'은 통사적 주제로 분석된다. 이때에도 맥락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Reinhart(2004: 276)에서 제시된 (26가)와 같은 '정의문', (26나)와 같은 '동어반복문', (26다)와 같은 '모순문' 등도 맥락 독립적인 화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보편양화사의 전제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제시되었지만 화제와의 관계도 강조된다.

(26) 가. (모든) 유니콘은 한 개의 뿔을 가진다.

나. (모든) 유니콘은 유니콘이다.

다. (모든) 유니콘은 유니콘이 아니다.

(26)은 모두 질문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모든) 유니콘'을 화제로 분석하는 데 문제가 없다. '모든'의 생략 여부와 크게 관계없이 '장면층위 술어'가 아닌 '개체층위 술

79) 이론 내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술하지 않기로 한다.

어'가 사용돼 '유니콘'에 대한 보편적 속성이 표현되며, 한국어의 경우 '유니콘'에 화제 표시 '는'이 통합돼 있기 때문이다.

대응되는 질문을 상정하지는 않지만 문장 자체보다 그에 대한 변주를 통해 문장 화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논의들도 있다. Reinhart(1981: 67)은 문장화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as for'나 'of', 'about' 같은 '대상성' 표시를 추가했을 때 해당 문장이 여전히 자연스럽게 성립하는지를 판단한다.

(27) 가. Rosa is standing near Felix.

로사는 펠릭스 가까이에서 서 있다.

나. As for Felix, Rosa is standing near him.

펠릭스로 말하자면, 로사가 개 가까이에서 서 있다.

(28) 가. Rosa is taller than Felix.

로사는 펠릭스보다 키가 크다.

나. They say of Felix that Rosa is taller than Felix.

사람들은 펠릭스에 대해 로사가 펠릭스보다 키가 크다고 말한다.

(27가)를 (27나)로 환언하거나 (28가)를 (28나)로 환언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27나)와 (28나)가 자연스럽게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Felix'를 화제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반대로 자연스럽게 화제로 인정된다. Roberts(2011)도 동일한 태도를 취한다.

임홍빈(2007)에서도 유사한 태도가 관찰된다. 전술한 '통사적 주제'와 구별되는 '담화화용적 주제'를 설정할 때 (30가-라)와 같은 조작을 가해 그 여부를 판별한다. 담화화용적 주제는 문장에 실현된 모든 주요 대상을 가리킨다. 주요 대상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임홍빈 2007: 159-160).

(29) 철수는 동생이 사과를 먹었다.

(30) 가. 뭐 '철수'한테 그런 일이 생겼어?

나. 뭐 '(철수) 동생'이 그랬어?

다. '사과'가 아니라 '배'야.

라. '먹은 것'이 아니라 '한 입 문 거'야.

(30가-라)에서는 (29)의 모든 성분들에 대해 ‘반문’ 혹은 ‘상위언어적 부정’이라는 조작을 가하고 있다. 확인이나 반론에 무리가 없으므로 이들은 모두 화제 즉 ‘담화화용적 주제’로 분석된다.

이상의 경우들은 이론적 배경은 상이하지만 해당 문장에 대응되는 질문을 상정하지 않고 문장화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다른 관점도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담화는 문장으로 이루어지고 문장은 담화의 일부를 구성한다. 담화는 질문들로 조직될 수 있다. 해당 문장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고려하는 일은 담화의 조직과 관련해서나 문장화제의 분석과 관련해서나 모두 중요하다.

담화의 조직과 관련된 질문의 역할은 van Kuppevelt(1995)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질문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전체 담화화제와 대응되는 ‘상위 질문’, 그 부분들을 형성하는 ‘하위 질문’, 상위 질문에서 ‘화제이탈(topic digression)’되는 ‘부차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상위 질문과 하위 질문은 ‘주요 구조(main structure)’를 형성하고, 부차 질문은 ‘부차 구조(side structure)’를 형성한다.⁸⁰⁾ 하위 질문은 주요 구조 내에서 ‘하위 구조(substructure)’를 이뤄 부차 구조와 구별된다. 관련성을 잃지 않는 한 하위 구조에 대한 하위 구조는 계속해서 성립될 수 있다. 반면 부차 구조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⁸¹⁾

van Kuppevelt(1995)는 질문에 대해 다음 두 가지 태도를 취한다. 하나는 질문이 화제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역동적, 맥락 의존적, 질문 기반 개념의 화제-평언이 담화를 조직한다고 본다.⁸²⁾ 이때 ‘화제’는 ‘질문되는 것’이고 ‘평언’은 ‘대답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화제의 집합이 전체 담화화제가 된다고 본다(van Kuppevelt 1995: 814). 다른 하나는 질문은 필수적인 동시에 암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독백뿐 아니라 대화에서도 질문은 암시적일 수 있다(van Kuppevelt 1995: 813-814). 이러한 명시적 혹은 암시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주요 구조를 구성하는 문장들이

80) 화자화제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던 Chafe(2001)도 이와 유사하게 ‘기본층위 화제(basic-level topic)’과 이 화제들이 모여 구성하는 ‘상위화제(supertopic)’를 상정한다. 질문을 상정하지는 않는다.

81) 이미 살펴보았던 (15)의 (15나)가 부차 구조의 예가 될 수 있다. 담화화제가 ‘모건의 연구 능력’이라고 할 때 (15나)는 여기에서 이탈돼 있다.

(15) 가. 모건은 섬세한 연구자이고 총명한 셈어학자이지만 독창성이 좀 더 요구된다.
나. 모건은 글씨가 예뻐며 시간을 잘 지킨다.

82) 김정선·이필영(2008)도 질문에 ‘화제’ 전개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다(van Kuppevelt 1995: 812).

질문을 담화의 조직과 관련시키는 관점은 문장화제 중 대개 ‘대조화제’와 연관된다. Carlson(1983), Biring(1997, 2003), Asher(2004) 등이 대표적이다. 이 논의들은 대조화제를 van Kuppevelt(1995)에서 증시한 상위 질문과 연결시킴으로써 담화화제의 대답된 부분 혹은 대답되지 않은 부분이 대조화제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때 대조화제는 하위 질문과 개별 질문 모두에 대응되어, 2.3.1.1절에서 논의한 담화 간 화제 전환뿐 아니라 문장 간 화제 전환에도 이용된다. 대조화제 성분은 문두 성분으로 실현되는 것이 보통이다. Carlson(1983)은 (31)과 같은 예를 제시한다.

(31) Where did I find which examples?
나는 이 예문들을 어디에서 찾았나?

where did I find these examples?
이 질문들을 어디에서 찾았나?

Where did I find the others?
다른 질문들을 어디에서 찾았나?

These examples I found in Gundel.
이 질문들은 내가 건넬에서 찾았다.

문장 간 개별 질문은 van Kuppevelt(1995)에서 화제-평언을 질문과 대답으로 분석한 것처럼 문장의 분절과 관련된다는 점에서도 문장화제의 분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다만 경우에 따라 Halliday(1985)처럼 대답에 더 비중을 둘 수도 있고, Roberts(2011)처럼 질문에 더 비중을 둘 수도 있다. 대답은 초점과 대응되고 질문은 배경 혹은 논의 중 문제(QUD)와 대응된다.⁸³⁾ 주목할 점은 (32)에서와 같이 문장화제의 존재 여부가 질문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32) A: 무슨 일이야?⁸⁴⁾

83) 유사한 관점을 지닌 논의로 Karagjosova(2013)도 있다. 이 논의는 문장화제와 관련된 화제 구조, 제제와 관련된 제제 구조, 배경 혹은 논의 중 문제와 관련된 질문 구조, 종속·대등관계와 관련된 담화 위계 구조의 네 가지 구조를 망라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호관계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제 구조와 질문 구조는 사실상 동일한 것이며, 이 둘은 종속·대등관계와는 일치될 수 없으나 문장화제로부터는 독립적일 수 없다고 보았다.

84) 이때 ‘무슨 일이야?’는 ‘왜 그래?’의 의미가 아닌 ‘어떤 일이 일어났어?’의 의미를 가진다.

B: 영희가 책을 샀어.

B': *영희는 책을 샀어.

(33) A: 영희는 어떻게 됐어?

B: 영희는 책을 샀어.

(32)를 보면 '가'가 사용된 (32B)만이 (32A)에 대해 적절한 대답이 되고, '는'이 사용된 (32B')은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없다. (32A)의 '무슨 일이야?'와 같은 질문은 문장의 분절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이미 '영희'를 화제로 삼고 있는 (33A)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답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32B)의 '영희가'는 비화제로, (33B)의 '영희는'은 화제로 각각 분석된다. 질문에 따라 문장의 분절 여부가 결정되고 분절된 문장만이 화제를 가질 수 있다.

(32A)에 대응되는 (32B)는 문장초점 혹은 제언문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처럼 질문을 이용해 해당 문장의 화제와 비화제 혹은 초점과 비초점을 판별하는 대표적 논의로는 Lambrecht(1994: 223)를 들 수 있다.

(34) A: 차는 어떻게 됐어?

B: 차는 고장났어.

(35) A: 무슨 일이야?

B: 차가 고장났어.

(34)와 (35)는 각각 술어초점과 문장초점의 예시로 제시된 것들이다. (34B)의 '차는'은 (34A)의 '차는'을 화제로서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어떻게 됐어?'에 대한 대답인 '고장났어'는 '고장나다'가 술어이고 대답이므로 술어초점으로 이해된다. (35A)는 문장의 분절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대답 (35B) 역시 분절되지 않는다. 문장화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석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담화가 질문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문장화제를 분석하는 데 질문은 필수적이지만 질문이 명시적으로 실현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질문이 부재하는 경우 대답을 기반으로 암시적 질문을 상정해야 한다(van Kuppevelt 1995).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본고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채택하여 대답에 대응되는 설명의문문을 암시적 질문으로 상정하기로 한다.

문제점은 또 있다. 명시적 질문이라고 해도 모두 설명의문문의 형식을 취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그것이다. 박종갑(1987)에 의하면 의문문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으로 나뉘지만, 의문사가 부재하되 ‘초점’이 존재하는 의문문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전제’가 동일한 경우에 그러하다.

- (36) 가. 영호는 어디에 임대했니?
나. 영호는 육군에 임대했니?
다. 영호는 육군에 임대했니, 공군에 임대했니?
(37) 가. 영호는 X에 임대했다.
나. 영호는 공군에 임대했다.

(36가)는 설명의문문, (36나)는 판정의문문, (36다)는 이접의문문으로 서로 형태는 상이하지만 전제와 기능이 동일하다. (37가)는 (36)의 전제이고 (36)의 기능은 (37가)의 X에 해당하는 초점 즉 (37나)의 ‘공군’을 유도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명시적 질문이 단순한 판정의문문이 아닌 경우 해당 질문을 설명의문문으로 치환하여 이해하기로 한다.

요컨대 언어학에서 화제를 연구할 때 질문은 담화 조직과 문장 분절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명시적 질문이 실현돼 있든 실현돼 있지 않든 담화는 질문에 대한 대담으로 간주된다. 의문사가 없는 명시적 질문이라면 단순한 판정의문문이 아닌 경우 설명의문문으로 치환해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위 질문에 대한 하위 질문들을 통해 담화 간 전환이 이루어진다. 특히 문두의 대조화제를 통해 담화 간이나 문장 간 화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⁸⁵⁾ 실제의 전환과 승계 역시 문답을 통해 판별된다. 해당 문장에 화제가 존재하는지는 대응되는 개별 질문들의 문장 분절 여부를 통해 결정된다. 질문에 분절이 없으면 화제도 분석될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을 정리해 보면 (38)과 같다.

- (38) 문장화제 분석에 관련되는 문답을 통한 담화 조직에서 관찰되는 경향

85) 전환 화제가 모두 대조화제인 것인 아니다. 비대조화제도 가능하다. (비)대조화제와 전환 화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4장 이후에서 논의한다.

범위	기능 경향
담화 간	대조화제
문장 간	대조화제
문장 내	무화제

2.3.2. 문장의 분절과 관련되는 영역

문장화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화제와 비화제, 혹은 초점과 비초점으로 분절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2.3.1.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응 질문을 상정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문장의 분절에 대한 일반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반화를 위해, 문장의 분절 양상은 다양하게 지칭돼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배경-초점과 화제-평언이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동일한 문장으로 대답한 (39)와 (40)이지만, 문장의 분절은 상이하게 표시될 수 있다. (39)는 배경-초점으로 분절되었고 (40)은 화제-평언으로 분절되었다.

- (39) A: 영화는 뭐를 샀어?
 B: 영화는_[배경] 책을_[초점] 샀어_[배경].
- (40) A: 영화는 뭐를 샀어?
 B: 영화는_[화제] 책을 샀어_[평언].

(39)에서는 질문 (39A)의 의문사에 대한 대답인 (39B)의 ‘책을’을 중심으로 분절이 이루어진다. 초점 중심의 관점이다. 배경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 ‘영화는 X을 샀다’와 같은 개방명제이다. 반면 (40)에서는 질문 (40A)에서나 대답 (40B)에서나 ‘영화는’을 중심으로 분절이 이루어진다. 화제 중심의 관점이다. 문두 성분이 중시된다. 두 분절은 구분되는 것인가? 구분되어야 하는가?

한편 한국어에서는 의문사에 대한 대답이 다양한 조사로 실현될 수 있다. 의문사 ‘누가’에 대한 대답이 (41B)에서는 ‘는’으로 실현돼 있지만 (42B)에서는 ‘가’로 실현돼 있고, 두 경우 모두 수용될 수 있다.

- (41) A: 누가 왔어?

B: 영희는 왔어.

(42) A: 누가 왔어?

B: 영희가 왔어.

(41B)에는 ‘영희’ 위치에 ‘영희, 철수, 민호’ 등의 ‘대안집합’이 형성되는데 ‘철수, 민호’에 대해서는 사정을 잘 알지 못하겠거나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반면 (42B)에는 ‘영희’ 위치에 ‘영희, 철수, 민호’ 등의 ‘대안집합’이 형성될 수도 있고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형성됐을 경우 ‘철수, 민호’는 오지 않은 것으로 부정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조사를 중심으로 대안집합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 문장이 분절된다. 두 분절은 구분되는 것인가? 구분되어야 하는가?

본고는 네 가지 분절이 문장화제를 분석하는 데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본절에서 문장의 분절 양상을 통합과 계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는 양분된 문장의 두 부분이 배타적 혹은 상보적으로 구분되는 경우를 가리키고, 후자는 문장 내 성분이 자신의 대안집합과 광의의 대조를 형성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39)와 (40)에서 살펴본 배경-초점과 화제-평언이 전자에, (41)과 (42)에서 살펴본 대안집합 관련 개념들이 후자에 각각 포함된다.⁸⁶⁾

2.3.2.1. 통합 분절

화제는 대응되는 질문에 따라 해당 문장 내에 존재할 수도 있고 부재할 수도 있었다. 배경-초점 구조는 질문의 분절을 그대로 반영하는 분절이다. 의문사에 해당하는 대답은 대부분 강세를 받으며(Halliday 1967), 이러한 성분을 ‘초점’이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분절에 가장 특화되었다고 논의돼 온 것은 (43)과 같은 분열문이다 (Gundel 1974: 38-43).⁸⁷⁾

(43) A: What did Archie reject?

아치는 뭘 거절했어?

B: It was the proposal that Archie rejected.

86) ‘는’의 기능을 ‘가로초점’과 ‘세로초점’으로 나누어 고찰한 임동훈(2012)의 관점을 수용한 것이다. ‘가로·통합·수평’과 ‘세로·계열·수직’은 각각 동일한 개념을 가리킨다.

87) 본고는 분열문이 배경-초점 분절에 특화된 것은 사실이나 관계절이 항상 배경이고 분열 요소가 항상 초점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후술한다.

아치가 거절한 건 그 제안이야.

(43B)의 'the proposal'은 (43A)의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초점이며, 관계절 부분은 전제로 볼 수 있다(Chomsky 1971). 이때 어순은 중요치 않으며 구어라면 오직 강세만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뿐이다.

(44) A: What did Archie reject?

아치는 뭘 거절했어?

B: What Archie rejected was the proposal.

아치가 거절한 건 그 제안이야.

질문 (44A)에 대해 관계절 부분이 문두를 유지하는 (44B)로 대답하는 경우는 의사분열문으로 인정된다.

(45), (46)은 비분열문으로서 배경-초점 분절을 보여준다. (45B)는 배경이 없으며, 문장 전체가 초점인 '문장초점'이다. 반면 (46B)는 '영희가'와 '책을 샀어'가 각각 초점과 배경으로 분석된다.

(45) A: 무슨 일이야?

B: 영희가 책을 샀어.

(46) A: 누가 책을 샀어?

B: 영희가 책을 샀어.

(45A)처럼 질문이 분절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와 (46A)처럼 의문사 '누가'를 중심으로 분절을 요구하는 경우는 상이한 배경-초점 분절 양상을 보인다. 분절이 부재하는 문장은 '제언문', 분절이 존재하는 문장은 '정언문'으로 각각 볼 수 있다(전영철 2013).⁸⁸⁾

문장화제 분석에서 배경-초점 구조의 역할은 문장의 분절 여부를 판별해 주고 질문의 분절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데 있다. 화제-평언 분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질문이 분절을 요구하지 않는 제언문 (45B)에는 화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88) 정언문과 제언문에 대해서는 3.3.2.2절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46B)이다. 정언문 (46B)의 문두 성분이자 초점인 '영희가'는 화제인가, 아닌가?

(47) A: 누가 책을 샀어?

B: 영희는 책을 샀어.

(47B)의 '영희는' 역시 의문사 '누가'에 대한 대답이므로 초점이다. '가'가 아닌 '는'이 실현돼 있다. 이때 '영희는'은 화제인가, 아닌가? 본고는 (46B)의 '영희가'와 (47B)의 '영희는' 모두를 화제로 처리하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즉 배경-초점과 화제-평언을 분리하는 입장을 택한다.

화제-평언과 배경-초점 간 관계에 대한 관점은 두 분절을 분리하는 입장을 제외하고 세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⁸⁹⁾ 첫째는 두 분절을 동일한 개념의 양면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상보적인 '화제-초점' 분절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화제를 배경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배경-초점'의 배경 안에 화제와 비화제가 공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화제, 배경, 초점을 모두 대등한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전형적으로는 '화제-초점-배경' 분절이 이에 포함된다.

첫 번째 관점은 Gundel(1999), Gundel & Fretheim(2004), 전영철(2006, 2013) 등에서 채택되었다.⁹⁰⁾ 이러한 관점에서는 화제를 문두 성분에 국한하지 않고 화제의 특성으로 논의돼 온 문두와 성분성을 포기한다. 개방명제가 충분히 대상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화제는 언제나 비초점이다. 두 번째 관점은 Vallduví(1992), 박철우(2003) 등에서 채택되었다. 화제의 특성으로 문두와 성분성은 물론이고 비초점성까지 유지하고자 한다. 화제가 배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화제와 초점이 대등적인 개념으로 취급되지 못하는 것이다. 세 번째 관점은 Büring(1997), Erteschik-Shir(2007), 최윤지(2016), 함병호(2016, 2018) 등에서 논의되었다. 화제의 문두와 성분성, 비초점성을 모두 유지하면서 화제와 초점을 대등적인 개념으로 취급하고자 한다.

본고의 태도는 Halliday(1967), Roberts(2011)에서 초점 중심 분절과 화제 중심 분절을 분리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두 논의는 '화제'는 맥락 독립적이고 질문과 무관하다고 본다는 점이 본고와 다르다. 기존의 논의들에서 분리를 거부하는 이유

89) Büring(1997: 54)에 의하면 화제-평언 분절의 하위 구조로 배경-초점 분절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90) Gundel(1974, 1988) 등에서는 화제-평언 분절을 채택한 바 있다.

는 대개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화제-평언과 배경-초점이 완벽히 중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Vallduví & Engdahl 1996, 함병호 2016). 둘째, 화제와 초점은 배타적이거나 대등해야 한다. 셋째, 문두와 성분성이 본질이 아니다.

이에 대한 본고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⁹¹⁾ 두 분절이 완벽히 중첩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그런 이유로 상황별로 분절을 달리 선택하는 논의들도 있다(Lambrecht 1994, 임동훈 2015). 더욱이 화제는 문두와 성분성 기반의 개념이고 초점은 의문사 기반의 개념이므로,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대등한 개념으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이유는 없다. 배타적이어서 할 이유도 없다. 화제를 주소지 개념으로 보는 경우 초점은 주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두 배치되어도 화제가 될 수 없다고 보나, 주소지 개념의 본질은 한정성이다. 만약 주어 초점이 한정성 성분이 아니라면 화제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어와 같이 어순이 자유롭고 표지가 발달한 언어에서 문두 성분은 중요한 기제가 된다. 배경-초점 분절은 모든 언어에 예외가 없는 보편적인 분절이지만 언어는 선조성을 가지고 있다. 화자는 동시에 여러 음성을 발화할 수 없고 발화된 음성기호는 계기적으로 배열된다. 인간의 주의, 기억 능력은 한정적이다. 그렇기에 인간 언어 소통에서 문두라는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발화의 출발점이자 주의 집중을 위한 신호가 되기 때문이다. 상황별, 언어별로 화제-평언 분절을 사용할 환경이 조성된다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⁹²⁾

이러한 이유로 언어보편적, 범언어적으로 (48)과 같은 예문들은 대표적인 화제-평언으로 간주돼 왔다. 모두 문두 성분이 통사적으로 특수하게 형성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Gundel 1988).

(48) 가. 철수를 영희가 때렸다.

나. 철수는 동생이 영희를 때렸다.

91) 배경-초점과 화제-평언의 분리에 대해서도 3.3.2절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92) Krifka(2006)에서는 화제-평언과 배경-초점 분절에 대해 진화론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화제는 '기확립 실체'이고 평언은 '화제 표의에 대한 정보 추가'이다. 이러한 화제-평언 구조는 인간 언어의 고유한 특성이며 인간의 양수 병용과 비견될 만한 도구이다. 화제가 왼손 역할을 하고 평언이 오른손 역할을 한다. 반면 초점은 '피확인 부분'이고 배경은 '확인의 틀'이다. 역시 배경이 왼손, 초점이 오른손이다. 범언어적으로 화제-평언보다는 배경-초점이 기본이 된다고 본다. 한국어처럼 어순이 자유롭고 표지가 발달한 언어들이 취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다. 철수, 영희가 개를 때렸다.

(48가)는 전치 혹은 화제화, (48나)는 중주어 구문이다. (48다)는 문두 성분과 공지시 되는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좌측전위이다. 'as for'라는 '대상성' 표지가 문두에 실현된 (49) 같은 문장도 '자유화제'로서 어렵지 않게 화제-평언에 포함된다. 문두 성분은 화제의 본질이다.

(49) As for Felix, Rosa is standing near him.
펠리스로 말하자면, 로사가 개 가까이에서 있다.

그러나 모든 문두 성분이 특수하게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문두 성분들이 모두 화제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0)의 문두 성분 '(모든) 유니콘은'은 특수하게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화제로 분석되는 데 이의가 없다. '는'과 개체층위 술어를 가졌기 때문이다.

(50) (모든) 유니콘은 한 개의 뿔을 가진다.

이는 Kuroda(1972), 임흥빈(1972), 전영철(2013) 등에서 '단일판단'의 '제언문'과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는 '이중판단'의 '정언문'에 해당된다. 'wa'와 '는'을 각각 가지는 일본어와 한국어뿐만 아니라, 독일어를 대상으로 하는 Jacobs(2001)과 같은 논의들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화제-평언 구조로 구분할 만큼 보편적이다.

반면 앞서 살펴본 (51B)의 문두 성분은 문두 배치돼 있으나 화제로 분석되지 않는다. (51A)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돼, 해당 문장 전체에 분절이 없는 문장초점이나 제언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존재문인 (52)에 실현된 장소부사어 '책상 위에'도 마찬가지이다. 문두 배치되어 있으나 화제로 분석되지 않는다.

(51) A: 무슨 일이야?
B: 영희가 책을 샀어.
(52) 책상 위에 책이 있다.

이제 앞서 살펴본 (53)과 (54)의 경우로 돌아가 볼 때이다. (53B)와 (54B) 모두 초

점이다. 그러나 (53A), (54A)의 질문을 통해 정언문의 조건을 갖추었고 해당 성분은 한정성 표현으로서 문두 배치되어 있다. 더욱이 (54B)의 ‘는’은 화제 표지로 논의돼 왔다. (54B)를 화제로 간주한다면 (53B)도 화제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

- (53) A: 누가 책을 샀어?
B: 영희가 책을 샀어.
- (54) A: 누가 책을 샀어?
B: 영희는 책을 샀어.
- (55) 책상 위에는 책이 있다.

더불어 (52)와 대비되는 (55)의 문두 성분 ‘책상 위에는’도 (52)의 ‘책상 위에’에 ‘는’이 첨가된 형태이다. (52)와는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 화제로 간주된다.⁹³⁾

(54), (55)는 ‘는’과 화제의 속성을 구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일부로 임동훈(2012)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는’이 가지고 있는 통합, 계열 두 층위에서의 기능이다. 화제 판별을 위한 문장의 분절은 배경-초점, 화제-평언과 별개로 계열 층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후절에서 다룰 문제이다.

2.3.2.2. 계열 분절

‘초점’이라는 술어는 ‘배경-초점’의 통합 분절뿐 아니라 ‘대안집합(alternative set)’의 존재 및 선택과 관련된 계열 분절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Rooth 1992).⁹⁴⁾ 즉

93) Jacobs(2001)은 다음과 같은 경우 역시 화제-평언으로 구분한다. 이 논의는 화제-평언 구조에 대해 ‘서술대상’, ‘주소지’, ‘분리정보’, ‘배경’의 네 가지가 복합돼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i) Physically, Peter is well.
- (ii) a. 신체적으로, 피터는 건강하다.
b. 신체적으로, 피터가 건강하다.
c. 신체적으로는, 피터가 건강하다.

(i)이 화제-평언이라면, (i)은 (iia-c) 중 무엇과 대응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 ‘physically’는 이의 없이 화제로 분석될 수 있을지, ‘건강하다’와 같은 개체층위 술어가 아닌 장면층위 술어가 사용됐더라도 분절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본고의 관점에서는 ‘는’이 실현돼 있는 (iia)와 (iic)는 모두 화제-평언이다. 후술할 바와 같이 ‘는’은 계열 분절을 필수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이다.

‘대조(contrast)’와 관련되어 사용된다. ‘대조’의 개념 역시 다양하여, (56)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Molnár 2002, 2006).⁹⁵⁾

- (56) 가. 강조(highlighting)
- 나. 영역 대조(domain contrast)
- 다. 집합 구성원으로서의 속성(membership in a set)
- 라. 제한된 후보자 집합(limited set of candidates)
- 마. 대안에 대한 명시적 언급(explicit mentioning of alternatives)

(56가)는 Lambrecht(1994)의 관점으로 대표된다. 모든 초점은 대조적이며, 대조는 언어학적 개념이 아닌 추론적 개념이라고 본다. (56나)에는 Rochemont(1986)의 관점이 해당된다. 배경-초점의 분절을 대조와 관련시켜, 대조초점(contrastive focus)은 정언문을 이루고 제시초점(presentational focus)은 제언문을 이룬다고 보았다. (56다)는 Rooth(1992) 이래로 흔히 논의돼 온 대안집합을 가리키고, (56라)는 좀 더 제약적인 ‘폐쇄집합(closed set)’을 가리킨다. (56마)는 아예 명시적으로 언급된 대안집합만을 포함한다. 초점은 보통 ‘개방집합(open set)’에서 원소를 선택하기 때문에 대안집합의 폐쇄집합 여부는 일반적인 초점과 대조 개념을 구분하는 데 중요하다(Chafe 1976).

또한 ‘대안집합’의 성격은 집합 내 다른 원소들의 존재와 속성을 암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을 아예 무시하는 것, 즉 상위언어적 부정(metalinguistic negation)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전자를 ‘연접 대조(conjunctive contrast)’로, 후자를 ‘이접 대조(disjunctive contrast)’로 각각 지칭할 수 있다(전영철 2006). 특히 전영철(2006: 182-183)은 연접 질문과 이접 질문을 구별하여 전자를 선택된 원소와 나머지를 대조하는 질문으로, 후자를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각각 규정하였다.

요컨대 대안집합은 문장을 계열로 분절하며, 폐쇄집합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다.

94) Gundel(1999)에서는 ‘초점’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배경-초점의 초점은 의미초점(semantic focus)으로, 대안집합의 초점은 대조초점(contrastive focus)으로 구분한다. 본고에서 ‘주의(attention)’로 명명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심리초점(psychological focus)’로 구분한다.

95) Molnár(2002, 2006)에서도 ‘초점’을 통합·수평적 강조와 계열·수직적 강조로 구분한다. 전자가 배경-초점의 초점이고 후자가 대안집합의 초점이다. Hetland(2002) 역시 초점에 대해 동일한 구분을 한다.

이것이 대조이다. 대안집합 내 원소 간의 대조는 연결적일 수도 있고 이접적일 수도 있다. 전자가 보조사 ‘는’으로 대표된다면, 후자는 격조사 ‘가’로 대표된다.⁹⁶⁾ ‘는’은 ‘대조’의 기능을 가지며 해당 성분이 초점이든 비초점이든 모두 통합될 수 있다 (전영철 2005, 2006).⁹⁷⁾ ‘가’ 역시 폐쇄집합이 형성될 경우 ‘대조’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⁹⁸⁾

현재 주어진 집합에 ‘영희, 철수, 민호’ 세 명의 원소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57A)의 질문은 (58A)와 같이 재조정될 수 있다.

(57) A: 누가 책을 샀어?

B: 영희는 책을 샀어.

(58) A: 영희가 책을 샀어? 그리고 철수가 책을 샀어? 그리고 민호가 책을 샀어?

B: 영희는 책을 샀어.

(57A)를 (58A)와 같이 재구성해 보면 (57B), (58B)가 내포하는 바는 ‘영희, 철수, 민호 중에 확실히 책을 산 것은 영희이고, 철수랑 민호는 안 샀다’ 혹은 ‘철수랑 민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정도가 될 것이다. 연결 질문은 해당 질문 모두에 대해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는’의 ‘대안집합’에 대한 긍정 및 인정은 다른 보조사들에게까지도 확장된다. 즉 대안집합 문제는 보조사 부류 전체의 문제이다. 임동훈(2012, 2015)은 대안집합과 관련된 보조사의 특성을 ‘세로초점’이라 명명하고, 척도 기능을 논의하였다. 주어가 대안집합을 형성하는 경우와 서술어가 대안집합을 형성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임동훈(2015)에서 보조사는 ‘첨가, 배제(소극적, 적극적)·피배제, 비교(차등, 동등), 범위’의 네 부류로 나뉘며, ‘는’은 ‘소극적 배제’의 보조사로 분류된다. 즉 ‘약배타성(weak exclusiveness)’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⁹⁹⁾

96) Lee(1999, 2003, 2017) 일련의 논의들은 이러한 구분을 수용하여 ‘는’을 연결의 대조화제 표지로, ‘가’를 이접의 대조초점 표지로 간주하기도 한다.

97) Vermeulen(2009)는 일본어의 ‘wa’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찰을 하였다.

98) 김민국(2016)에서는 이러한 ‘가’의 의미를 화용적 함축으로 간주한다.

99) Kim(2000)에서는 초점과 관련하여 세 가지 화용적 개념 ‘배타성(exclusiveness)’ ‘대조성(contrastiveness)’, ‘총망라성(exhaustivity)’을 구분한다. 배타성은 환기된 실체의 폐쇄집합과 관련된다. 본고의 이접으로 볼 수 있다. 대조성 역시 폐쇄집합과 관련되지만 부정적 배타성을 포함한다. 본고의 연결으로 볼 수 있다. 총망라성은 집합에서 여타 원소를 배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만’과 관련된다.

동일한 집합 ‘영희, 철수, 민호’가 주어져 있어도 (59), (60)과 같이 격조사가 관련된다면 경우는 달라진다(전영철 2006: 182-183).

(59) A: 누가 책을 샀어?

B: 영희가 책을 샀어.

(60) A: 영희가 책을 샀어? 혹은 철수가 책을 샀어? 혹은 민호가 책을 샀어?

B: 영희가 책을 샀어.

(59B), (60B)의 대답을 하는 경우, 대응되는 질문은 ‘그리고’로 연결되는 (58A)의 연결 질문이 아니라 ‘혹은’으로 연결되는 (60A)의 이접 질문이다. (59B), (60B)가 내포하는 바는 ‘영희, 철수, 민호 중에 철수랑 민호가 아니라 영희가 책을 샀다’ 정도 상위언어적 부정성이 될 것이다. 나머지 원소에 대해서는 무시하게 되므로 격조사의 실현이 보조사의 실현보다 훨씬 자연스럽다. 이렇게 상위언어적 부정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Lambrecht(1994)의 ‘논항초점’, Kiss(1998)의 ‘확인초점’, 임흥빈(2007)의 ‘담화화용적 주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김미형(2011)도 ‘는’과 ‘가’의 대조와 관련하여 유사한 관찰을 한다. ‘가’는 ‘주어 자매항·서술어 고정’의 전제를, ‘는’은 ‘주어 고정·서술어 자매항’의 전제를 각각 가진다고 보았다. 초점과 비초점 모두에 통합된 문두의 ‘는’에 대해서는, 서술어 자매항 중 하나가 선택되면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서술어가 자신만의 고유한 주어를 다시 선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때의 ‘자매항’과 ‘대안집합’은 다르지 않다.

격조사의 경우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이접집합의 성격 때문에 본유적으로 ‘총망라성’을 가지며, 그 집합이 ‘영희, 철수, 민호’처럼 폐쇄집합이면 Kiss(1998)의 ‘확인초점’이 되고 개방집합이면 ‘정보초점’이 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전영철(2013)에서 정언문 및 ‘가1’이 확인초점에, 제언문 및 ‘가2’가 정보초점에 각각 대응된다고 본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3. 화제의 의미화용적 속성: 기존성

화제의 속성인 기존성은 여러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돼 왔다. ‘화제’만큼이나 ‘기존성(givenness)’이라는 개념과 술어의 사용 역시 혼란스럽고 복잡한 모습을 띤다. 화제 논의에서 사용돼 온 기존성 개념은 명제와 실체 각각에 대해 적용돼 왔고, 다양한 문제와 연관돼 논의되었다. 3.1절에서 대상성, 인지상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고에서 논의하는 기존성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3.2절에서는 명제와 실체의 개념을 각각 검토한다. 기존성의 대상으로서 명제와 실체가 관련해 온 문제들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3.3절에서는 명제와 실체의 기존성을 지시적 기존성과 관계적 기존성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해 보고, 이들 기존성이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해 검토한다. 지시적 기존성은 지식 및 의식, 추론과 연관된다. 그 실현인 전제와 한정성이 이들 기준과 관련하여 어떻게 실현되는지 검토해 본다. 한편 관계적 기존성은 주의와 연관되어 통합 분절을 생성한다. 그 실현인 배경과 화제를 분리, 구분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각 분절에서 명제 분절의 기본 구문인 분열문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비분열문은 또 어떻게 실현되는지 점검한다. 3.4절에서는 화제를 중심으로 네 유형 간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본고의 화제 개념을 강화해 보고자 한다.

3.1. 기존성의 개념

화제 논의에서 기존성은 ‘청자의 인지상태에 이미 존재한다고 간주하고자 하는 화자의 가정과 관련된 속성’을 가리킨다. 본고는 기존성을 화제의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기존성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행할 것이다. 대상성을 기존성에서 파생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인지상태를 화제 논의에 필수적인 개념으로 취급하고자 한다. 본절에서는 화제 논의에서 기존성이 대상성을 포괄하고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와 기존성을 파악할 때 인지상태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기존성의 개념을 공고히 해 본다.

3.1.1. 대상성과 기존성

화제는 대상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돼 왔다. 일반적으로 대상성은 화제가 후속

부분에 대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는 화제에 대한 보편적인 직관과도 부합한다. 이러한 개념 자체는 화제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는 2.2.1절에서 살펴보았듯 ‘무엇에 관한 것’이라는 속성을 포착하거나 구체화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화제 논의에서 ‘대상성’은 ‘주소지’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협소하게 사용된다. 이 관점에서 화제는 발화되는 정보 즉 평언이 저장되는 주소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inhart 1981, Heim 1983, Jacobs 2001, Krifka 2008).

주소지 개념의 대상성은 본고의 화제 논의에서 다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 주소지는 ‘한정성 표현’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한정성 실체’ 모두가 한정성 표현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비한정성 표현으로 실현되는 한정성 실체도 존재하고 이 경우 화제로 기능할 수 있다.¹⁰⁰⁾ 둘째, 주소지는 정보의 저장에 특화된 개념이다. 그러나 정보의 저장이 화제의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다.¹⁰¹⁾ 화제는 정보의 분절이나 배열과 더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¹⁰²⁾ 화제에 ‘대상성·주소지 화제’ 외에 후속 성분의 내용이 적용되는 영역으로서 ‘배경 설정(frame setting) 화제’¹⁰³⁾가 있다고 보는 관점(Chafe 1976, Jacobs 2001, Krifka 2008)과도 상통한다. 일반적인 직관과 달리 언어학의 대상성은 주소지에 국한되어 협소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편 화제는 기존성을 가지는 것으로도 논의돼 왔고, 기존성은 화제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상성과 별개 개념인 것으로 취급되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2.2.1절에서 살펴보았듯 대상성은 이미 기존성과의 관계를 통해 파악되고 있다(Gómez-González 2001). 문장

100) 이에 대해서는 3.3.1.2.2절에서 후술한다.

101) 본고는 정보의 저장은 후술할 ‘지시적 기존성’과 더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파악한다.

102) 이에 대해서는 4장과 5장에서 후술한다.

103) 배경 설정 화제의 예는 (i)의 밑줄친 부분과 같다(Jacobs 2001, Krifka 2008). 부사어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ib)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는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다.

- (i) a. Physically, Peter is well.
- b. In my dream, you were a crocodile.
 내 꿈에서 너는 악어였다.
 내 꿈에서는 네가 악어였다.
- c. As for his health, he had a bypass operation recently.
 건강으로 말하자면, 그는 최근에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았다.

화제 역시 이미 ‘관계적 기존성(relational givenness)’(Gundel 1988, 1999) 개념을 통해 파악된 바 있다.¹⁰⁴⁾ 해당 실체나 문장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속성 즉 화제의 필요조건도 각각 ‘지시적 기존성(referential givenness)’과 ‘관계적 기존성’에 대응될 수 있다.

문제는 ‘주어져 있는 것’이라는 개념이 무엇에 관한 것이라는 개념만큼이나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대체 무엇이 어디에 주어져 있다고 보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한 기존성 개념은 제대로 사용될 수 없다. 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기존성 개념은 화제 논의의 핵심적인 속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 본고는 기존성의 대상은 ‘명제’나 ‘실체’이며 그 위치 혹은 출처는 ‘인지상태’라고 본다. 화제는 어떤 명제가 어떤 인지상태에 주어져 있거나, 어떤 실체가 어떤 인지상태에 주어져 있을 때 실현된다. 이때 주어져 있는 양상은 지시적일 수도 있고 관계적일 수도 있다. 이 관점에서 대상성은 관계적 기존성에 의해 파생되는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요컨대 대상성 개념은 화제의 핵심이나, 파악하고 취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 때문에 주소지 개념으로만 협소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이미 화제는 관계적 기존성 개념을 통해서 설명돼 오고 있다. 본고는 기존성 개념을 정제하고 세분하고자 하는 것이 화제의 속성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더 필요하고 유용한 태도라는 입장을 취한다. 기존성의 대상과 출처를 구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후술할 바와 같이 ‘인지상태’의 세 유형이 기존성의 출처가 된다.¹⁰⁵⁾

3.1.2. 인지상태와 기존성

화제는 소통의 문제이고 소통은 화청자의 인지상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언어 소통은 화청자 간에 공유된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화청자 간에 공유된 것이란 화청자의 인지상태 내에 공히 존재하는 것 혹은 공히 존재한다고 화자가 가정·의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인지언어학¹⁰⁶⁾의 관점으로, 언어 연구

104) 대상성과 대응되는 관계적 기존성은 Gundel(1999)의 개념보다는 Gundel(1988)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Gundel(1999) 이래의 관계적 기존성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3.2.1절과 3.3.2절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105)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3.2절에서 상술한다.

106) 공히 ‘인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인지언어학’과 ‘인지과학’은 구분되는 면이 있다. 인지과학에는 생성문법도 포함되는데, 생성문법은 인지언어학과 달리 언어에 특화된 지식이나 능력을 상정하기 때문이다(임지룡·요시모토 하지메·이은미·오카 도모유키 역 2004: 117).

에는 의식, 지식, 기억, 추론, 주의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이기동 1981).¹⁰⁷⁾ ‘기존’ 자체의 의미는 표상의 소유와 관련되고 해당 표상의 존재 위치 혹은 출처가 인지상태와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존 논의들도 이러한 경향을 띠어 왔다. Chafe(1976, 1987, 1994, 2001) 이래로 화제는 인지상태 중 ‘의식’에 주어지 있는 것으로 논의돼 왔다. 인지상태 중 ‘지식’이 주어지 있는 위치로 선택된 경우도 있다(Clark & Haviland 1977). ‘의식’과 ‘지식’ 모두를 기존성과 관련된 인지상태로 논의하기도 한다(Prince 1985). 인지상태 중 ‘주의’를 기존성 위계 중 가장 상위에 위치시키는 논의도 있다(Gundel, Hedberg & Zacharski 1993). Lambrecht(1994), Lambrecht & Michaelis(1998) 일련의 논의 역시 ‘의식’, ‘지식’ 등의 인지상태를 고려한다. 정보구조 자체를 ‘인지상태’와 관련시켜 정의하기도 한다(최윤지 2016).

요컨대 화제는 화청자의 인지상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소통의 영역에 포함되며, 화제에 대한 파악은 이러한 본질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성은 인지상태 내에 주어진 속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후술할 바와 같이 ‘명제’와 ‘실체’가 기존성의 대상이 된다. 결국 기존성은 ‘명제나 실체가 화청자 공유 혹은 청자의 인지상태에 이미 존재한다고 간주하고자 하는 화자의 가정과 관련된 속성’으로 정의된다.

3.2. 기존성의 대상

명제의 기존성은 전제, 양태, 관계적 기존성·최신성 구분 등과 관련하여 논의돼 왔다. 실체의 기존성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제와 연관돼 논의되었다. 한정성,¹⁰⁸⁾ 확인가능성, 전제,¹⁰⁹⁾ 현저성,¹¹⁰⁾ 의식, 활성화, 접근가능성, 화제연속성, 기존성 위계, 청자구·담화구 정보 구분, 지시적·관계적 기존성 구분, 중심 등이 바로 그것이다. 명제와 실체 개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 후, 이러한 관련 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화제 논의에서 기존성이 어떤 모습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정

107) 이들 인지상태는 3.3절에서 상술된다.

108) 특정성, 충칭성, 회복가능성, 예측가능성, 친숙성(familiarity) 등도 관련돼 있다.

109) 공유배경(commom ground), 공유지식(shared knowledge)(Prince 1985, Gundel 1985) 등도 관련돼 있다.

110) ‘현저성’의 대응 번역술어로는 ‘saliency’, ‘saliency’, ‘prominence’, ‘prominency’ 등이 사용된다.

리해 본다.

3.2.1. 명제

‘명제’라는 술어는 언어학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명제를 취급하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분석철학¹¹¹⁾ 및 형식의미론과 관련돼 있는 논리학(logic)이다. 명제 간 관계를 취급하는 명제논리(propositional logic)와 명제의 내부구조를 취급하는 술어논리(predicate logic)가 대표적이며, 이 두 분야에서 명제는 ‘진리치 판단의 대상’ 혹은 ‘진리치의 담지자(bearer)’로 정의된다. 이 중 명제논리가 아닌 술어논리가 명제의 내부구조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본고의 고려 대상이 될 것이다.

술어논리의 시작점인 Aristotelis(연도미상)에게 명제(apophantikos logos)는, 진리치 판단의 대상이면서 ‘사유물을 표현한 말’이었고(김진성 역주 2008) 양화사 중심의 주술 구조를 가진다. 술어논리의 전환점인 Frege(1897)에게 명제는, 주술 구조가 아닌 ‘술어-논항(argument) 구조의 논리형식’으로 이해된다(전응주 역 2015).¹¹²⁾ 양식에 해당하는 술어가 실체¹¹³⁾에 해당하는 논항을 취함으로써, 사태와 대응되면서도 실제 표현 결과물과는 구분되는 어떤 논리형식을 생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사태(event)는 관점에 따라 실체의 일종이기도 하면서 내부구조를 가져 그 안에 실체를 포함하기도 한다. 본고는 이러한 사태를 간단히 ‘시공간 내에서의 실체의 존재양식(mode of being)’으로 이해한다.¹¹⁴⁾ 이때 ‘양식’은 사태를 발생시키는 속

111) 콰강제 역(1986)[Corrado(1975)]는 분석철학을 정의하면서 모든 분석철학자가 공통으로 신봉하는 사조나 동일하게 사용하는 방법론은 없다고 하였다. 다만 논리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 일상언어학과(ordinary language school), 실용주의(pragmatism) 등의 영향을 받은 연구들 대부분을 망라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박영태 역(1996: 632)[Munitz(1981)]에서는 철학을 논리적, 언어적인 문제로 전환한 연구 태도 전반을 분석철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였다.

112) 전응주 역(2015: 34-38)에서는 ‘술어’에 해당하는 ‘함수’의 번역술어로 ‘함항’을, ‘논항’의 번역술어로 ‘입항’을 각각 사용하였다.

113) 실체에 대해서는 3.2.2절에서 후술한다.

114) Schneider(2005), Casati & Varzi(2014),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편(2012) 등에 ‘event(사건)’에 대한 철학자들의 이론이 소개되어 있다. 예컨대 김재권(1994: 19)에서 사건은 ‘하나의 성질 혹은 관계를 구현하는 구체적 대상’이다. Davidson(1980)은 사건을 존재론의 범주 중 하나로 취급하였고, 특수자로 이해하여 동일 사건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인정했다(배식한 역 2015). 일단 사건은 정신적(mental) 사건과 물리적(physical) 사건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이는 본고의 역량과 범위를 한참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언어학적인 논의로는 Premper(2001), Reboul(2001)도 참고할 수 있다.

성(property)이나 관계로 볼 수 있다. Carlson(1977)을 부분 수용하여 ‘실체에 양식이 부여되어 형성되는 시공간적 조각(spatiotemporal slices) 및 그 합’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Premper(2001: 479)에서는 ‘두 실체 간의 최소 내부관계(a minimal internal relation between two entities)’로 정의된 바 있다.¹¹⁵⁾

명제는 ‘명제태도(propositional attitude)의 대상’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심리철학(philosophy of mind)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생각, 확신, 희망 등의 상태들은 모두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상태들을 명제태도라고 하며, 각각의 상태들이 대상으로서 담지하고 있는 것을 ‘명제내용(propositional content)’이라고 한다(석봉래 역 1992). 이때 각각의 상태는 심적표상(mental representation)과 연결되는데 명제내용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심적표상이다(Pitt 2012). 각각의 상태가 어떤 사태를 대상으로 취함으로써, 사태와 대응되는 심적표상의 내용이 명제로 취급되는 것이다.

임동훈(2003: 128-129)에서 지적했듯, 이러한 명제의 개념을 언어학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논리학의 입장에서든 심리철학의 입장에서든 논리형식과 심적표상 각각을 어떻게 언어학의 단위와 개념으로 형식화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언어학 중심의 관점에서 명제는 흔히 ‘문장의 의미(the meanings of sentences)’로 이해된다. 더 나아가 상이한 명제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나 상이한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을 동반하는 발화에서 ‘공통되는 요소’로 취급되기도 한다(Reboul 2001: 514). Fillmore(1968)에서는 ‘문장에서 양태(modality)를 제외한 부분’을 명제로 본다. ‘평서문의 의미’나 ‘that’-절의 지시체’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McGrath & Frank 2018).

그러나 공통되는 요소나 양태를 제외한 부분을 어떻게 형식화할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또한 진리치 평가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파생된 것이겠지만, 평서문의 의미만을 명제로 본다면 의문문 등 비평서문의 의미는 무엇으로 볼지 질문해볼 수 있다. 하나 이상의 논항이 공백인 ‘개방명제(open proposition)’는 명제로 취급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명제태도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파생된 문제로서, ‘that’-절의 지시체만을 명제로 간주할 경우 ‘that’-절을 가진 문장 전체의 의미는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역시 의문으로 남는다.¹¹⁶⁾ ‘that’-절을 가지지 않는 문장의 의

115) 정확히는 ‘situation(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 ‘event’는 완료적(telic), 동적(dynamic) 상황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미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진리치가 문장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논리학과 형식의미론의 입장을 취한다면 의미론과 화용론의 구분 문제에도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Levinson(2000)의 ‘문장의 미’와 Jaszczolt(2012)의 ‘의미론적 표상’ 개념이 이에 해당할 것이나, 본고는 진리치의 문제에는 천착하지 않는다. 어떻게 정의되든 명제는 사태와 대응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한다. 사태와의 대응은 논리형식의 측면에서도, 심적표상의 측면에서도 가능하다. 진리치의 문제와 더불어 명제태도, 발화수반력, 양태의 문제들도 차치한다면,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명제의 개념은 ‘사태와 대응되는 문장의 의미’로 수렴될 수 있다.

논리형식의 측면에서는 술어의 의미구조(semantic structure)를 통해 해당 의미를 형식화할 수 있다(Pietroski 2015).¹¹⁷⁾ 이미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Grimshaw 1990),¹¹⁸⁾ 생성어휘론(generative lexicon)(Pustejovsky 1995)¹¹⁹⁾ 등으로 치열하게 논의돼 온 문제이기도 하다.¹²⁰⁾ Frege(1897)의 술어-논항 구조 및 이들 논의의 기본적인 개념만을 수용하여 사태에 대응되는 ‘술어 및 술어가 취하는 논항들의 구성체’(임동훈 2003: 130)를 명제로 보고자 한다. 대개 논항은 실체의 명사구로, 술어는 양식의 용언으로 각각 실현된다.¹²¹⁾ 이는 Levinson(2000)에서 논의한 합성의미론 층위

116) 임동훈(2003)에서는 문장 전체의 의미를 명제로 보아야 하는 예로 ‘know, see, feel’ 등을 들고 있다. 이들의 ‘that’-절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주장을 취소할 수 있어 ‘believe’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고는 ‘know’, ‘believe’ 등 동사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117) Pietroski(2015)는 명제가 정말 논리형식을 가지고 있고 문장이 명제 자체가 아니라면 문장은 명제와의 연계를 통해서만 논리형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장의 의미가 명제라면 문장의 논리형식은 의미구조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118) Grimshaw(1990: 3-4)에서 논항구조는 술어에 대한 것으로 ‘논항 간의 현저관계를 표상하는 구조화된 표상(a structured representation which represents prominent relations among arguments)’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의미역 차원(thematic dimension)과 상 차원(aspectual dimension)이 포함된다.

119)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론은 논항구조, 사건구조(event structure), 특질구조(qualia structure), 어휘상속구조(lexical inherent structure)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특히 특질구조는 다음의 네 측면으로 다시 나뉜다. 한 대상과 그 부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성(constitutive), 한 대상을 상위 영역에서 다른 사물과 구분해 주는 형상(formal), 목적과 기능에 해당하는 기능(telic), 기원이나 발생요인과 관련되는 작인(agentive)이 그것이다. 어휘상속구조는 어휘부 체계 내에서의 관계와 위치를 알려준다. 공동합성(co-composition) 개념을 도입하고 명사 기술의 정밀화를 시도하였다는 의의가 있다(Jackendoff 2002: 369).

120) 한국어 논의로는 남승호(2004, 2007)을 참고할 수 있다.

121) 용어의 균형을 생각한다면 명사구가 ‘체언’으로 교체되거나 용언이 ‘동사구’쯤으로 교체되어야 하겠으나, 전자의 경우 관례에 맞지 않고 후자의 경우 동사구(VP)의 범위를 설정

의 ‘의미론적 표상’에 해당한다. 이 관점에서는 비평서문의 의미나 개방명제도 명제의 일종으로 취급될 수 있다.

심적표상의 측면에서는 개념구조(conceptual structure)(Jackendoff 1990, 2002)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일련의 논의들은 전술한 논리형식과 유사한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술어논리로 부호화될 수 있는 부분이 개념구조의 일부를 이룬다(Jackendoff 2002: 11).¹²²⁾ 다만 ‘개념(concept)’을 ‘언어표현의 의미로 기능할 수 있는 심적표상(a mental representation that can serve as the meaning of a linguistic expression)’(Jackendoff 1990: 11)의 의미로 고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를 통해 부호화된 의미도 심적표상과 연결될 수 있다.

Jackendoff(2002: 347-348)는 개념구조에 대해 엄격하게 언어적이지 않을 수는 있으나 명제적이기는 하다고 하였다. Lambrecht(1994: 43-44, 52-53)에서도 명제를 ‘사태의 심적영상(mental picture)’으로 이해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Premper(2001: 478-479)에 의하면 명제는 ‘사태의 인지표상(cognitive representation)’이다. 하지만 의미구조와 개념구조를 구분하지 않거나 두 구조가 동일하다고 간주할 경우 명제와 문장의 의미는 동일해진다.

요컨대 사태와의 대응은 의미구조와 개념구조 두 층위 모두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대응이 나타내는 바가 명제이다. 의미구조의 측면에서 명제는 ‘사태에 대응되는 술어 및 술어가 취하는 논항들의 구성체’이다. 개념구조의 측면에서는 ‘사태에 대한 심적표상’이 명제이다. 의미구조와 개념구조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면 이때 심적표상은 의미구조에서 취급하는 명제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학에서 명제는 진리치의 문제를 차지한다면, 술어의 논항구조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를 ‘문장의 의미’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사태의 표상’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명제는 사태의 심적표상이자 술어와 그 논항들의 구성체이다. 이때 논항은 보충어와 동일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언제, 누가·어떤 것이, 어디서, 무엇을·어떤 것을, 어떻게, 왜, 얼마나’에 해당하는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전술했듯 사태는 시공간 내에서의 실체의 존재양식이며, 사태를 표상하는 명제는 절 혹은 문장으로 실현되고

하는 일이 까다로운 데다 술어는 어휘범주와 더 가깝다는 점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122) 이것이 개념구조의 기술층(descriptive tier)이다. 나머지 일부는 지시층(referential tier)과 정보층(information tier)이 차지한다. 개념구조와 공간구조(spatial structure)가 의미를 이루는 양대 구조가 된다.

실체는 명사구로 실현된다. 이때 양식은 사태를 발생시키는 속성이나 관계를 가리킨다. 속성이나 관계가 고정돼 있으면 상태(state), 변화하면 행위(activity)라고 할 수 있다.

명제의 기존성 문제는 전통적으로 분열문과 관련되어 논의돼 왔다. 관계절 부분이 분열요소와 대비되어 기존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1가, 나)의 밑줄친 부분이 기존성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분열문의 관계절이다.

- (1) 가. 영희가 만난 것은 개다.
- 나. It's her that Yeonghui met.

전제 진술(statement) 즉 단언(assertion) 중에서 '영희가 누군가를 만났다'라는 명제 혹은 '영희가 X를 만났다'라는 개방명제가 기존성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분열문은 전제(presupposition)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형식으로 간주된다.

전제란 주요 명제내용이 아니면서 당연하게 취급되는 정보를 언어적으로 표시하는 데 이용되는 현상이다(Beaver & Geurts 2012). 전제에 대한 논의는 (2가)의 밑줄친 '프랑스왕'같이 비실재 실체가 포함된 문장 혹은 발화의 의미를 의미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촉발되었다.

- (2) 가. 프랑스왕(The King of France)은 현명하다.
- 나. 프랑스왕은 존재한다.

(2가)가 (2나)도 단언한다고 본 Russell(1905)와 달리, Strawson(1950)은 (2가)가 (2나)를 전제한다고 보았다. (2나)를 당연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2가)를 적절하게 발화할 수 없으며, (2나)가 참이 아니면 (2가)는 진리치를 가지지 못한다고 보았다. 즉 전제를 진리치 평가를 위한 조건으로 간주하였다. 이것이 전제에 대한 의미론적 관점이다.

이후 전제유발자(presupposition trigger)의 목록은 (2)의 한정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분열문을 비롯한 다양한 어휘와 구문으로 (3)과 같이 확장되었다(Levinson 1983, Lyons 1977, Huang 2007, Birner 2013).

- (3) 가. 영희가 개를 만난 것을 알고 있다.
- 나. 영희가 개를 만나는 것을 그만뒀다.
- 다. 개를 만나기 전에 영희는 집으로 돌아갔다.
- 라. 영희가 개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 (4) 영희가 개를 만났다.

(3가)는 사실동사, (3나)는 상동사, (3다)는 시간절, (3라)는 가정법의 경우이며 (3가-라)는 모두 (4)의 명제를 전제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 설명의문문도 전제유발자의 일종으로 간주되곤 했다(Lyons 1977: 597-598).

전제된 명제의 공통적인 속성이 과연 진리치 판단의 조건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진리치 판단은 의미론의 영역이고 만일 전제가 의미론의 영역이라면 언어형식의 의미는 맥락 독립적이고 불변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제는 취소될 수 있다.

- (3) 다. 개를 만나기 전에 영희는 집으로 돌아갔다.
- 다. 개를 만나기 전에 영희는 죽었다.

(3다)은 (3다)와 동일하게 ‘영희는 개를 만났다’를 전제한다고 해야 하나, 인간은 죽은 후에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상식이 있다(Levinson 1983: 187, 204).

이러한 사실에 바탕하여 Stalnaker(1974)는 전제에 대한 화용론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전제를 화자가 당연시하는 명제들로 간주하고, 의사소통은 ‘공유배경(common ground)’에 의존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하였다. 공유배경은 화자가 화청자 간에 공유한다고 가정하는 명제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공유배경의 일부라는 점이 전제된 명제들의 공통적인 속성으로 이해된다. 이때 문제는 전제유발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

Stalnaker(1974) 이후로 발전해 온 공유배경 관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von Stechow(2008)에 의하면 이 관점은 전제유발자에 부호화된 의미를 소홀히 하여 화용론적 규칙들로 전제 현상을 설명하려는 모호하고 순진한 태도를 취해 왔다. 반면 Abbott(2008)에 의하면 이 관점은 전제유발자에 부호화된 의미를 논의에 끌어들이므로써 과도한 ‘수용(accommodation)’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수용은 ‘언급 이전에 전제돼 있지 않던 명제가 언급되면서 자동적으로 공유배경의 일부로 취급되

는 현상'을 가리킨다(Lewis 1979: 340).

전제가 언어학의 영역이라면 표현 결과물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는 von Fintel(2008)을 수용하여 전제는 전제유발자와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수용은 '청자의 지식 상태가 화자의 전제와 조화되고자 할 때 발생하는 현상'(Beaver & Geurts 2012)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수용한다. 요컨대 전제는 '공유배경이자 전제유발자에 고정되어 있는 수용의 작용 대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경우는 한정기술을 제외하면, 모두 내포절의 형태를 띤 명제들이었다. Abbott(2000)은 이러한 구성이 전제와 단언으로 이분된다고 본다. 이처럼 단언이 전제와 상보적인 개념이라면 단언은 청자의 지식 상태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1가)에서와 같이 청자가 그 정체를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개'도 분열문의 분열요소로 실현될 수 있다. 본고는 단언을 진술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며, 전제유발자가 생성하는 전제와 전제유발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합쳐져 전체 단언을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어미, 그 중에서도 반말체 종결어미가 발달한 한국어에서는 단언 전체, '완전명제 명제(fully specified proposition)'가 기존성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표시되기도 한다. 박재연(2004)에서 일부 반말체 종결어미에 대해 기지가정, 미지가정 등의 개념을 적용하고 인식양태 범주를 부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청자기지는 '-지', 청자미지는 '-거든'으로 각각 대표된다.

- (5) A: 영희가 누구를 만났어?
B: (영희가) 개를 만났지.
B': (영희가) 개를 만났어.

박재연(2004: 147-150)은 (5A)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5B)와 (5B') 모두 가능하다고 할 때, '-지'가 사용된 (5B)에서 청자가 '영희가 개를 만났다'라는 명제에 대한 지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두드러진다고 보았다. 공유배경의 의미와 상통한다.

그러나 청자기지, 청자미지 등의 개념을 양태가 아닌 정보구조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그에 앞서 임동훈(2003)에서 제시된 바 있었다. 이를 최초로 구체

화시킨 것은 최윤지(2016)이다.

- (6) 가. 영희가 개를 만났잖아.
- 나. 영희가 개를 만났다며.
- 다. 영희가 개를 만났다고.
- 라. 영희가 개를 만났다니까.

최윤지(2016)에서는 (6)의 ‘-잖아’,¹²³⁾ ‘-다며’, ‘-다고’, ‘-다니까’ 등을 기존성 표현으로 논의하였다. ‘-거든’과 ‘-단다’는 비기존성 표현으로 분류된다. (6)은 모두 ‘영희가 개를 만났다’라는 명제 전체를 기존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6가, 나)의 어미는 담화에 미등장한 표현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6다, 라)의 어미는 담화에 기등장한 표현에 사용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최윤지 2016).

명제의 기존성에 대한 또 다른 논의로는 Gundel & Fretheim(2004)의 관계적 기존성·최신성 구분이 있다.

- (7) A: 영희가 누구를 만났어?
- B: 영희가 개를 만났어.

밑줄친 (7A)의 ‘영희가 누군가를 만났다’ 혹은 ‘영희가 X를 만났다’라는 명제는 ‘관계적 기존성(relational givenness)’의 대상이 된다. 의문사에 대한 대답이자 X에 해당하는 ‘개’는 이와 대비하여 ‘관계적 최신성(relational newness)’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는 배경-초점 분절과 일치하는 것으로, 설명의문문을 전제유발자의 일종으로 간주해 온 관점과도 직결된다.

이처럼 명제는 제 관점에서 청자의 지식 내 존재 여부에 대한 화자의 가정과 관련되어 기존성의 대상으로 간주돼 왔고 간주될 수 있다. 이는 모두 화용론적 전제의 영역이었다. 문제는 이들의 성격이 모두 동일한가 하는 점이다. 분열문의 기존성 명제와 반말체 종결어미의 기존성 명제는 형식이 상이하다. 전자에는 의문사의 대답에 해당하는 ‘개’ 부분이 제외돼 있다. 오히려 분열문의 기존성 명제와 형식이 동

123) 박재연(2004)는 ‘-잖아’에 대해 하나의 선어말어미로 문법화되었다고 간주하기에 아직 이르다고 보고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본고에서는 논의상 편의를 위해 ‘-잖아’ 전체를 반말체 종결어미로 취급하기로 한다.

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관계적 기존성 즉 배경에 해당하는 기존성 명제이다.

분열문의 기존성 명제와 배경 명제의 차이점은 Rochemont(1986), Dryer(1996)에서 논의된 바 있다.

- (8) A: 영희가 누구를 만났어?
B: ① (영희가) 개를 만났어.
② 영희가 만난 건 개야.
③ (영희가) 아무도 안 만났어.
- (9) A: 영희가 누구를 만나긴 했다면(if anyone) 누구를 만났어?
B: ① (영희가) 개를 만났어.
② #영희가 만난 건 개야.
③ #영희가 만난 건 아무도 아니야.

‘영희가 누군가를 만났다’ 혹은 ‘영희가 X를 만났다’를 배경으로 가지는 (8A)의 질문에는 (8B①-③) 모두로 대답할 수 있다. 구조까지 대응되는 (8B①)은 물론이고 분열문의 (8B②), 배경의 전제가 취소되는 (8B③)까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질문에서부터 해당 전제의 취소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9A)로 질문하면 (8B①)과 마찬가지로 (9B①)에는 문제가 없지만, (9B②-③)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분열문은 배경과 달리 해당 명제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해당 명제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질문 (9A)에 대해 (9B②)처럼 분열문으로 대답하면 의문과 확신이 충돌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실제로 영희가 누군가를 만난 것이 사실이 아닌 (9B③)의 경우 ‘영희가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라는 명제가 ‘영희가 누군가를 만났다’는 명제와 모순되게 된다.

분열문의 관계절과 배경의 관계에 대해 Dryer(1996)은 전자는 화용론적 전제의 영역이고 후자는 활성화의 영역이라는 주장을 내놓는다. 기존성을 (10)의 세 가지로 구분한 Prince(1981)을 수용한 결과이다.

- (10) Prince(1981)의 기존성
가. 예측가능성 · 회복가능성
나. 공유지식
다. 현저성

(10가)의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 회복가능성(recoverability)’은 특정 언어항목의 특정 위치 출현을 청자가 예측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다고 화자가 가정하는 경우이다(Prince 1981: 226). 예측가능성은 Kuno(1972, 1978) 등에서 논의되었고, 회복가능성은 Halliday(1967), Halliday & Hasan(1976) 등에서 논의되었다. 대개 조용 및 생략과 관련된다.¹²⁴⁾ (10나)의 ‘공유지식(shared knowledge)’은 청자의 지식에 대한 가정이고, (10다)의 ‘현저성(saliency)’은 청자의 의식에 대한 가정이다. 공유지식으로서의 기존성은 Clark & Haviland(1977)을 수용한 것이고, 현저성으로서의 기존성은 Chafe(1976)을 수용한 것이다(Prince 1985).

공유지식과 현저성의 구분 혹은 화용론적 전제와 활성화의 구분은 매우 유용하다. 중요한 것은 두 기존성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 Dryer(1996)은 화용론적 전제라는 개념을 활성화를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간주하면서, 화용론적 전제를 지식과 동일시하고 활성화를 의식과 동일시한다. 본고는 화용론적 전제는 지식과 의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이는 언어현상으로도 지지될 수 있는 구분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활성화 개념과 현저성 개념을 어떠한 관계로 볼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활성화를 순간적 시점의 문제로 볼 것인지 일정한 범위로 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후자로 볼 경우 활성화 개념은 ‘기활성(activated)’에 해당한다. Chafe(1976), Prince(1981, 1985), Dryer(1996) 등에서는 순간의 개념에 가깝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활성화를 활성, 준활성, 비활성의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한 Chafe(1987) 이후로 기활성 즉 범위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Prince(1981)의 ‘환기(evoked)’와 동일하다. 본고는 활성화와 현저성이 구분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한편 반말체 종결어미로 표시된 기존성 명제는 분열문, 배경의 경우와 달리 개방명제의 형식을 띠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배경으로 기능할 수도 없다. 현저성의 개념

124) Kuno(1972)에서는 주로 조용 즉 대명사의 선행사를 판별하는 데 ‘예측가능성’이 사용된다. 회복가능성 개념은 Halliday(1967), Halliday & Hasan(1976)은 물론이고 Kuno(1978)에서도 사용되는데, 후자에서 ‘회복가능성’은 구정보 및 ‘예측가능 정보’를 정의하는 데 이용되었다. Kuno(1978: 282-283)에서는 ‘문장 내 요소가 이전 맥락으로부터 회복 가능하면 구정보 및 예측가능 정보’라고 언급하고 있다. Halliday & Hasan(1976: 326)에서도 ‘회복가능성’은 Kuno(1972, 1978)와 유사하게 ‘이전 텍스트나 상황 등 출처를 통해 회복 가능한 정보로 화자가 청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되나, 조용이 아닌 배경-초점과 관련된다. 배경은 초점과 달리 회복 가능한 정보이고, 생략도 될 수 있다.

과는 거리가 멀다. 분열문의 기존성 명제와 형식은 상이하지만 공히 공유지식에 가까운 개념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인지상태와 기존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3.3절에서 더 고찰하기로 하고, 후절에서 기존성의 대상이 되는 실체의 문제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정립된 명제의 개념과 기존성 관련 문제들을 정리해보면 (11)과 같다.

(11) ‘명제’의 개념과 관련 기존성 문제

- 가. 개념: 사태의 심적표상인 술어와 논항들의 구성체
- 나. 관련 기존성
 - ① [개방명제] 분열문 관계절
 - ② [개방명제] 설명의문문
 - ③ [완전명제 명제] 반말체 종결어미

3.2.2. 실체

대개 언어학에서 실체라는 개념은 ‘표현의 의미를 구성하는 외부세계(external world)의 대상(object)¹²⁵⁾’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이는 언어와 세계 간 대응에 관한 의미론의 문제이지만, 이러한 대응을 위해서는 세계 내 존재양식에 대한 파악과 존재에 대한 범주화(categorization)가 선행되어야 한다. 철학의 개념이든 정보과학의 개념이든 이는 존재론적인(ontological) 문제이다.

철학에서 존재론(ontology)은 시대와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겠지만 Quine(1948: 21)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세계에 무엇이 존재하는가(what there is)’이다. 개별자(particular)와 보편자(universal)에 대해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실재론(realism)과 유명론(nominalism)의 대립도 이와 관련돼 있다.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개별자들을 망라하는 객관적이고 초월적인 보편자가 세계에 실재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여 왔다.

이후 존재론과 관련된 문제들은 실재하지 않는 대상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

125) Rettler & Bailey(2017)에 의하면 ‘대상’은 ‘모든 것(everything)’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속성(property)’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주체(subject)’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속성과 대조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물리적 존재만을 가리키게 되고, 주체와 대조되는 경우에는 객체를 가리키게 된다(Rettler & Bailey 2017). 전자는 존재론적 관점이고 후자는 인식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후 대조를 고려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비존재를 포함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데 ‘대상’을 사용한다.

인가에 집중돼 있다. 예컨대 ‘인면조(人面鳥)’와 같은 신화적 대상들은 실제로는 실재하지 않지만 실재하는 것처럼 표현되고 이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고민했다. 이는 Brentano(1867)에서 논의된 ‘지향적 비존재(intentional inexistence)’¹²⁶와도 관련돼 있는 문제이나, 특히 분석철학의 주된 관심사였다. Quine(1948)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입장은 존재는 변항치(“To be is to be the value of a variable”)이므로, 보편자나 불필요한 실재에 대한 가정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재는 Russell(1905)의 ‘한정기술 이론(the theory of definite descriptions)’을 통하여 한정기술구로 표현되며 한정기술구는 명제로 변환된다. 변환된 명제 내에는 결속변항(bound variable)이 포함되는데 이 변항의 사용을 통해 존재론에 포함될 목록들이 결정된다. 예컨대 ‘어떤 개들은 하얗다’라는 문장은 ‘어떤 것은 개이고 하얗다’로 변환되며, 이렇게 되면 ‘개’나 ‘하얗다’의 보편자를 포함하지 않고도 ‘하얀 개’는 존재론의 목록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 Quine(1948)은 이를 ‘존재론적 관여(ontological commitment)’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Russell(1905)나 Quine(1948)의 입장처럼 모든 철학자들이 실재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 Quine(1948)에서 비판된 두 개의 입장이 있다. 하나는 심적실체(mental entity)를 인정하자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비실현 가능성(unactualized possible)을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이들을 대표하는 관점으로는 Meinong(1960)의 ‘대상 이론(the theory of objects)’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병덕(2017: 28-32)에 의하면 Meinong(1960)의 존재론은 (12)의 체계를 띠고 있다.

(12) Meinong(1960)의 존재론

- 가. [+존재성]¹²⁷ - 존재
- 존립
- 나. [-존재성] - 가능
- 불가능
- 비실현

‘존재(existence)’는 물리적·구체적 대상(object)¹²⁸을 가리키고 ‘존립(subsistence)’

126) 김영진(2008)에서는 ‘내존’이라는 술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127) 기호는 본고에서 표시한 것이다.

128) Meinong(1960)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은 추상적 대상을 가리킨다. 존재와 존립 모두 (12가)의 '존재성(being)'의 범주에 속한다. 반대편에는 실재하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성립되는 '가능(possible)'과 논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 '불가능(impossible)'이 있다. 현재 인정되지는 않지만 실현될 수도 있는 '비실현(unactualized)' 역시 이들과 함께 (12나)로 묶인다.¹²⁹⁾ 모두 존재성을 결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실체의 존재론적 문제는 철학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언어학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철학자들이 고민한 바와 같이 비존재 혹은 존재성을 결여하는 대상도 언어로는 자유롭게 표현된다. 공지시되는 '담화지시체(discourse referent)'(Karttunen 1976)로 확립될 수 있다. 철학과 언어학에서 실체를 취급하는 방식이 동일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므로¹³⁰⁾ 언어학은 언어학 나름의, 표현에 대응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분류를 행해 왔다. 고전적으로는 '범주론'이 대표적으로, Aristotelis(연도미상)은 10개의 범주¹³¹⁾ 중 하나로 실체를 설정하고 이를 개별자인 제1실체와 보편자인 제2실체로 나누었다(김진성 역주 2008).

현대적으로는 정보과학에서도 활용되는 시소러스(thesaurus)¹³²⁾가 대표적이다.¹³³⁾ 이러한 관점에서 개념의 존재론적 분류와 관련하여 고려해 볼 문제는 (12)와 같다.

129) 가능에는 인면조가, 불가능에는 둥근 정사각형이, 비실현에는 평평한 지구 등이 각각 속할 수 있다.

130) 후술할 한정성과 전체의 관계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131) 10개의 범주는 실체, 양, 질, 관계, 장소, 시간, 위치, 소유, 능동, 피동이다(김진성 역주 2008).

132) 시소러스는 개념 중심으로 분류된 사전을 의미하며, 의미론적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를 구성하고자 한다(Lyons 1977: 299-301). '분류어휘집'이라고도 한다(최경봉 1998: 36). 최초이자 최고의 시소러스는 1852년에 발간된 '로제 시소러스(Roget's Thesaurus of English Words and Phrases)'이다. Lyons(1977)은 어휘의 계층적 구조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그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정보과학에서 시소러스는 검색 및 색인에 이용된다. 조현양·남영춘(2004: 29)에서는 시소러스에 대해 '정보검색의 보조도구로서 대표 어휘 선정에 기여하고 의미에 기반한 용어 간의 관계나 구조를 보여주는 사전'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133) 시소러스와 온톨로지는 정보과학에서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기는 하다. 시소러스는 상의(BT, broader term)/하의(NT, narrower term), 유의(USE/UF, use for), 연관(RT/related term) 등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 주력한다. 반면 온톨로지는 특정 분야의 지식을 인간과 컴퓨터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데 주력하며(조현양·남영춘 2004), 개념과 관계의 형식적 정의 혹은 의미제약을 기술한다(최석두 외 2006). 그러나 기존의 시소러스는 모두 온톨로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최석두 외 2006: 152). 시소러스와 온톨로지 모두 표준이 존재한다.

- (13) 가. 추상적 대상은 실체에 포함되는가?
 나. 사태는 실체에 포함되는가? 추상적 대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다. 부류와 개체¹³⁴⁾는 구분되어야 하는가?
 라. 비실체는 실체에 포함되는가? 어떻게 하위구분되어야 하는가?

(13가)는 실체가 구체적 대상으로만 한정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12가)의 '존립'과 같은 추상적 대상을 실체에 포함시키는 논의로는 Lyons(1977)이 있다. Lyons(1977: 432-452)은 실체를 (14)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 (14) Lyons(1977)의 존재론
 가. 1차실체: 물리적·객관적 대상
 나. 2차실체: 사건, 과정, 사태
 다. 3차실체: 추상적 대상

(14가)는 시공간 내 존재하는 물리적·객관적 대상을 의미한다. 인간이 대표적이다. (14나)는 시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event), 과정(process), 사태(state-of-affairs) 등을 가리킨다. (14다)는 명제와 같이 시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대상을 포함한다. (14나)와 (14다) 모두 비구체적 대상으로 실체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3나)의 첫 번째 의문과 관련된 문제로서, (14나)와 같은 사태(event)를 포함하지 않는 실체 분류도 적지 않다. 한국어의 명사를 존재론적으로 분류하고자 한 최경봉(1998: 81)은 (15)와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 (15) 최경봉(1998)의 존재론
- | | | | |
|-------|------|-------|-------|
| 가. 실체 | - 인간 | | |
| | - 사물 | - 공간물 | |
| | | - 개체물 | - 유정물 |
| | | | - 무정물 |
| 나. 양식 | - 사태 | - 사건 | - 자동 |
| | | | - 타동 |

134) Carlson(1977)의 '종류(kind)'와 '대상(object)'과 달리 본고는 '부류(class)'와 '개체(individual)'라는 술어를 사용할 것이다.

- 상태
- 현상
- 추상
- 관계
- 차원
- 시간
- 공간
- 단위

(15가)에서처럼 실체는 구체적·물리적 대상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취급되고 (14나)의 사태는 (15나)에서처럼 '양식'의 하위개념으로서 실체와 구분되고 있다.

(14다)와 같은 '추상'도 (14나)와 같은 '사태'의 하위개념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13나)의 두 번째 의문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분류는 김인균(2002), 김지은(2010) 등에서 수정된 바 있다.

(16) 최경봉(1998)에 대한 수정 I: 김인균(2002)

- 가. 실체
- 나. 비실체
 - 사태
 - 추상

(17) 최경봉(1998)에 대한 수정 II: 김지은(2010)

- 가. 실체
- 나. 비실체
 - 추상물
 - 추상
 - 사태
 - 추상관계

이들은 (16가), (17가)의 실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16나), (17나)의 '비실체'를 설정한다는 공통점을 가지나, 사태와 추상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김인균(2002)는 비실체의 하위개념으로 '사태'와 '추상'을 동등하게 두고 있다. 반면 김지은(2010)은 '추상물'과 '추상'을 둔 후 다시 추상 밑에 '사태'와 '추상관계'를 두었다.¹³⁵⁾ 모두 사태 밑에 추상을 두었던 (15)와는 상이한 관점이다.

Carlson(1977)의 분류는 조금 다르다. (13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1차실체와 2, 3차

135) 추상물에는 일반 추상물(문학, 예술 등), 시간 추상물(시간, 세월 등), 공간 추상물(장소, 자리 등)이 포함되고 추상관계에는 정도, 수량, 인과관계, 시간관계, 공간관계 등이 포함된다.

실체 간 구분은 우선시되지 않는다. (13나)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2차실체가 시공간을 더 중시하는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다.

(18) Carison(1977)의 존재론

- 가. 개체 - 대상
- 종류

나. 장면

실체는 (18가)의 개체(individual)와 (18나)의 장면(stage)으로 나뉘며, 이 개념은 이후 ‘개체층위(individual-level) 술어’와 ‘장면층위(stage-level) 술어’의 구분으로 이어진다. 개체는 다시 구체적·개별적 실체인 대상(object)¹³⁶과 대상을 망라하는 종류(kind)로 구분된다. 장면은 개체에 대한 시공간적 조각으로 취급되며, 개체는 다시 장면들을 결합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18가)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살펴볼 점은 대상과 종류¹³⁷가 구분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13다)와 관련된 문제이다.

(13라)는 언어학적으로 (12나)와 같은 비실재를 분리하는 것이 과연 효용이 있는가와 관련돼 있다. 이는 분명히 철학의 영역이고 철학에서는 대개 비실재를 거부하기 때문이다.¹³⁸ 그러나 언어학에는 비실재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문제들이 있다. 한정표현의 전제 실패(presupposition failure)(Strawson 1950), 부정 존재문(negative existential statement)(Evans 1982), ‘this’-비한정표현의 비지표성(Ionin 2006) 등이 그러하다.

예컨대 Evans(1982)는 ‘가장(pretense)’과 ‘가장 게임(make-believe game)’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상적 대상(fictional object)을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¹³⁹ 가상적 대상의 사용은 비실재에 대해 실재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연계된 기술내용이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 명제를 표현하는지 분명하기 때문에 이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가장 게임은 ‘존재적으로 보수적인 게임(existentially conservative game)’과 ‘존재

136) Carlson(1977)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137) 본고는 이후 부류(class)와 개체(individual)라는 술어를 사용할 것이다.

138) Abbott(2010: 264)은 의미론적 실재론(semantic realism)을 선택하든 의미론적 관념론(semantic idealism)을 선택하든 의미론의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139) Lewis(1978)은 ‘가능세계(possible world)’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소설의 제목 같은 것이 관련 가능세계 집합을 선택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고 본다.

적으로 창조적인 게임(existentially creative game)'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는 실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진흙으로 소꿉놀이하는 아이들을 떠올려 보면 된다. 후자는 말 그대로 실재하는 것이 없는 경우이다. 그때그때 상황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경우¹⁴⁰⁾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경우¹⁴¹⁾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든 '동일한 대상에 대한 사고(thinking about the same object)'가 보장돼 있지 않으면 게임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상의 검토를 참고하여 (13)의 의문들에 대해 본고가 내린 결론은 (19)와 같다.

- (19) 가. 추상적 대상도 실체에 포함된다.
- 나. 사태는 내부구조를 소유한 개념으로 별도 설정된다.¹⁴²⁾
- 다. 부류와 개체는 구분된다.
- 라. 비실체도 실체에 설정하며 [±합의]가 기준이다.

(19가)의 결론은 Lyons(1977)와 김지은(2010)을 수용한 것이다. (14다)의 3차실체와 (17나)의 '추상물'을 포함하여 실체 개념을 '원인, 결과, 일자, 수량, 내용' 등의 추상적 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실체'라는 술어를 Lyons(1977)의 1차실체 즉 구체적 대상에만 국한시키는 태도에 장점을 발견하기 힘들다. 모두 명사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다. (19나)는 Lyons(1977)의 2차실체를 따로 구분한 결론이다. 최경봉(1998)이 (15)에서처럼 실체와 양식으로 대별한 것과 유사하다.

140) 아이들끼리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서로 꾸며 가며 노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Evans 1982: 360-363).

141) 작가가 이야기를 전하거나 환각을 설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Evans 1982: 360-363).

142) 사태를 실체로 취급하여 추상적 대상의 일종으로 볼 것인지 아예 비실체로 취급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이며, 명제와 실체를 구분하고자 하는 본고의 입장에서는 명제를 완전히 비실체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다(박진호 2018, p.c.[personal communication]). 그러나 본고는 후술할 바와 같이 명제를 추상적 실체의 일종으로도 간주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제가 '실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사태를 시공간 내에서의 실체의 존재양식이라고 할 때, 어떤 실체에 부여되는 속성이나 관계가 명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생각하다'는 생각의 대상으로 명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명제와 실체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된다. 명제가 실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명확하다. 명제는 주체의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주체가 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생각하다'와 관련된 사태는 생각하는 주체와 생각되는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구체적 실체만이 전자를 충족시킬 수 있다. 구체적 실체와 명제는 완전히 구분되지만 명제가 추상적 실체의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류를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사태는 실체와 양식을 모두 포함하며, 그 내부구조가 강조된다.

(19다)는 Carlson(1977)을 수용한 것이나, 술어의 사용은 달리한다. '부류(class)'와 '개체(individual)'를 각각 '종류(kind)'와 '대상(object)'에 대응하는 술어로 선택한다. 엄격하게 보면 부류도 보편자로서 추상적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 대상을 가리키는 일반명사가 단칭(singular)과 총칭(generic)의 용법을 평행하게 가진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추상과 구분한다. (19라)의 경우 Meinong(1960)과 Evans(1982)의 논의를 수용하였다. 전자를 따라 비실재도 실체로 설정하며, 후자를 따라 합외의 비실재와 비합외의 비실재의 구분도 일단은 확인해 두기로 한다.¹⁴³⁾ 이를 바탕으로 실체를 분류해 보면 (20)과 같다.

- (20) 가. 구체
 - 부류
 - 개체
 - 실재
 - 비실재
 - 합의
 - 비합외

나. 추상

실체는 외부세계의 대상이자 그 대상에 대한 표상이다. 구체적 실체와 추상적 실체로 대별되며, 구체적 실체는 다시 개체와 부류로 구분되고 개체는 다시 실재와 비실재로 분류된다. 비실재의 경우 합의된 것과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실체가 참여자로서 사태를 구성하고 명제는 그 사태를 표상한다. 사태에 대한 심적표상이 명제인 것과 평행하게 '실체에 대한 심적표상'을 '논항'으로 지칭해야 하지만, '실체'¹⁴⁴⁾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고도 이러한 관례를 수용한다. 물론 이때 실체의 원형은 구체적 실체이다.

기존성의 대상 역시 주로 구체적 실체이지만 추상적 실체라고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실체'로서 '언제, 누가·어떤 것이, 어디서, 무엇을·어떤 것을, 어떻게, 왜, 얼마나'에 해당하는 대상이라면 모두 기존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원인, 결과, 일자, 수량 모두 기존성의 대상이 된다. 더 나아가 명제가 추상적 실체

143) (20가)의 구분은 언어학적으로 유의미한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항목들이다.

144) 본절에 한하여 외부세계의 실체와 구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로서 상위 명제에 대한 구성원이자 ‘실체’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다.

(21) A: 영희는 왜 안 왔어?

B: 영희는 아파서 안 왔어.

B': 영희는 아프잖아.

(21A)의 ‘왜’에 대한 대답은 (21B)처럼 명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1B')으로 대답한다면 ‘영희는 아프다’라는 명제가 ‘실체’인 동시에 ‘화용론적 전제’로서 기존성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명제는 외부세계의 사태, 언어형식으로서는 절 혹은 문장에 대응되고 ‘실체’는 외부세계의 실체, 언어형식으로서는 명사구에 대응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도 적지 않다.¹⁴⁵⁾ ‘실체’로서 ‘누가, 어디서’는 대부분 구체적 실체와 대응되어 명사구로 실현되나, ‘어떻게, 왜’는 대부분 명제와 대응되어 절 혹은 문장으로 실현된다. ‘언제, 무엇을, 얼마나’는 절 혹은 문장으로 실현되는 경우, 명사구로 실현되는 경우 모두 빈번하다.¹⁴⁶⁾ 이처럼 명제도 상위 명제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 명제와 실체는 동위로 취급될 수 없다. 명제는 ‘실체를 포함하는 구성체’로서의 지위와 ‘상위 명제 내 실체’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지만, 실체는 명제 내 일부로서의 지위만을 가진다. 명제와 실체를 구분할 근거로 충분하다.

실체의 기존성 문제는 주로 한정성 표현과 관련돼 왔다. 담화에 이미 나온 실체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고 간주되는 실체까지 망라하여, ‘지시(reference)’를 포함하는 광의의 ‘조응(anaphora)’을 취급한다. Chafe(1976: 39)은 한정성(definiteness)을 ‘화자 입장에서 청자가 그 실체를 이미 알고 있음은 물론이고 모든 실체 중에서 화자가 생각하는 실체를 선택해 낼 수 있다고 가정하는 속성’으로 정의한 바 있다. 기존성과 한정성의 영역이 동일하다.

Lambrecht(1994)는 ‘한정성’을 문법범주에 국한하고 이에 대응되는 인지범주로 확인가능성(identifiability)을 설정하지만, 이 역시 ‘청자의 입장에서 화자가 의도하는 실체를 선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속성’으로 개념상 동일하다. 본고는 ‘한정성’이라

145) 명제가 사태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 논항으로 기능하는 경우, 명사구로 실현되는 경우 모두 가능하다.

146) ‘언제, 얼마나’에 해당하는 명사구는 일자, 수량의 추상적 실체를 지시한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을’은 구체적 실체와 추상적 실체 모두 자유롭게 지시한다.

는 술어를 '확인가능성'을 포함하는 광의로 사용할 것이다. 명제의 기존성을 고찰할 때 논의했던 화용론적 전제에 한정기술이 포함된 바 있으므로, 한정성 역시 공유배경이자 기존성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실체의 기존성 문제들은 다음 몇 가지로 나뉘어 논의돼 왔다. 첫째, 실체가 주어저 있다고 가정하게 하는 출처의 문제가 있다. 기등장, 기지 및 추론가능, 활성화·준활성(semi-activated),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선행사와의 거리 문제가 있다. 이는 대개 기활성·준활성 및 접근가능성, 화제연속성과 관련된다. 셋째, 조음 시 사용되는 언어형식의 문제가 있다. 이는 해당 실체의 현저성 문제도 포함한다. 의식 및 활성화, 접근가능성, 화제연속성, 기존성 위계, 중심화 등이 이 문제를 취급한다. 넷째, 실체 자체의 기존성과 명제 일부로서의 기존성의 구분 문제가 있다. 실체의 지시적 기존성(referential givenness)과 관계적 기존성 즉 배경 간의 구분, 주의 중심의 부여 등과 관련된다.

출처의 문제는 Prince(1981, 1992), Chafe(1987, 1996), Ariel(1988, 2001) 등에서 논의되었다. Prince(1981: 232-233)은 '기존성'을 대신할 술어로 '가정 친숙성(assumed familiarity)'을 제시하면서 담화 내 실체가 청자에게 친숙한 정도와 기제를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크게 기환기(evoked), 추론가능(inferrable), 최신(new)의 세 가지 실체로 구분된다. 기환기 실체는 텍스트상(textually) 환기 실체와 상황상(situationally) 환기 실체로 나뉘고, 추론가능 실체는 비포함(noncontaining) 추론가능 실체와 포함(containing) 추론가능 실체로 나뉜다. 최신 실체에는 미사용(unused) 실체와 생소(brand-new) 실체가 있는데, 생소 실체는 다시 비고정(unanchored) 생소 실체와 고정(anchored) 생소 실체로 분류된다. 그 체계는 (22)와 같다.

(22) Prince(1981)의 가정 친숙성 체계

가. 기환기

- ① 텍스트상 환기 실체
- ② 상황상 환기 실체

나. 추론가능

- ① 포함 추론가능
- ② 비포함 추론가능

다. 최신

- ① 미사용

② 생소

- a. 고정
- b. 비고정

(22가)의 ‘기환기’는 텍스트 혹은 담화 내 기등장한 경우나 화청자처럼 담화 외부에 있어도 그 존재가 현저한 경우를 가리킨다. (22나)의 ‘추론가능’은 기환기 실체나 여타 추론가능 실체를 통해 청자가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화자가 가정하는 실체를 가리킨다. 그 중 표현 자체에 추론가능 실체가 실현돼 있는 경우를 ‘포함 추론가능’이라고 한다. (22다)의 ‘최신’은 모두 담화 내 미등장한 경우를 가리킨다. 미등장 실체라도 청자에게 기지 실체인 것으로 간주되면 ‘미사용’ 실체로 분류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면 ‘생소’ 실체로 분류된다. 생소 실체 중에서도 표현 자체에 비생소 실체가 실현돼 있는 경우를 ‘고정 생소’라고 한다.

Prince(1981)은 지시하고자 하는 실체가 청자에게 기존하는지 여부를 담화를 출처로 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존성의 출처를 담화에만 국한할 경우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실체도 미사용 실체로서 최신 실체로 간주되게 된다. Prince(1992)는 기존성의 출처를 담화 단독에서 담화와 청자의 지식으로 확장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정보’라는 술어를 선택하여 청자구 정보(hearer-old information)와 담화구 정보(discourse-old information)를 설정하고, 청자 기지 실체와 담화 기등장 실체를 각각 가리키는 데 사용하였다. ‘담화구·청자구’이면 Prince(1981)의 ‘기환기’, ‘담화신·청자구’이면 ‘미사용’, ‘담화신·청자신’이면 ‘생소’에 각각 해당한다. ‘담화구·청자신’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 체계는 (23)과 같다.

(23) Prince(1992)의 담화 실체 정보지위 체계

	담화신	담화구
청자신	생소	-
청자구	미사용	기환기

Chafe(1987, 1996) 일련의 논의는 기존성의 출처를 의식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화청자의 의식 내에서 대상, 사건, 속성 등에 대한 ‘관념(concept)’이 억양구 단위로,

휴지(pause)를 통해 활성화되거나 탈활성화되는(deactivated) 것으로 보았다. 활성화 관념은 현재 의식의 초점 및 중심에 존재하는 생각이고, 준활성 관념은 배경으로서 의식의 주변에 존재하는 생각이다. 비활성 관념은 의식 내에 진입하지 못한 채 장기 기억 내에만 존재하는 생각이다. 활성화 관념이 기존성의 구정보로, 준활성 관념이 '접근가능(accessible)' 정보로, 비활성 관념이 신정보로 각각 분류된다. 의식 내 존재하는 정보만이 기존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Chafe(1996)에서는 이러한 의식 내 활성화 정도를 '접근가능성'이라는 술어로 명명하기도 한다.

'접근가능성'이라는 술어는 Ariel(1988, 2001) 일련의 논의에서도 사용된다. 그러나 그 양상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들 논의에서는 지시 표현이 '인간 기억 내에 존재하는 실체에 대한 정보 처리 비용'을 표시해 준다고 보고 기존성의 출처를 기억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화자가 사용하는 지시 표현이 청자로 하여금 해당 실체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신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고유명사는 일반 지식(general encyclopedic knowledge)을, 지시대명사는 물리적 맥락(physical context)을, 인칭대명사는 기언급을 각각 출처로 삼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¹⁴⁷⁾ 이처럼 기존성은 그 출처를 지식, 상황, 담화 모두로 삼을 수 있고 전자에서 후자로 갈수록 장기 기억에서 단기 기억으로 이동하여 출처가 가까워지고 정보 처리 비용도 적게 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성 관련 논의들은 기존성의 출처를 담화, 지식, 의식, 기억, 상황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해 왔다. 출처는 선행사와의 거리 문제에 직결된다. 출처가 가깝고 현저하다는 것은 선행사와의 거리가 짧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사와의 거리가 짧다는 것은 언어형식이 간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출처와 거리, 언어형식 간의 관련성은 Givón(1983, 1988), Chafe(1987), Ariel(1988, 2001) 등에서 포착된 바 있다. Gundel, Hedberg & Zacharski(1993)과 Walker, Joshi & Prince(1998) 등에서도 현저성과 언어형식의 관련성이 논의되었다.

Chafe(1987: 26-28)은 의식 내 활성화(activation) 정도를 통해 기존성을 파악하면서, 활성화 관념의 기존 정보·구정보는 '하나의 억양구로 발화 예정에 있는 모든 관념'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화제 전환이나 대조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특히 실체가 화자에게는 물론이고 청자에게도 기활성된 것으로 제시될 경우 주로 약강세,

147) 고유명사, 한정기술은 저도의 접근가능성을, 지시대명사는 중도의 접근가능성을, 인칭대명사는 고도의 접근가능성을 각각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명사, 생략의 형태를 띤다고 보았다. 출처 및 거리가 중시되는 것은 준활성 관념·접근가능 정보의 경우이다. 준활성에 대한 활성화¹⁴⁸⁾는 직전이 아닌 시점에 언급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로 인해 출처가 가깝지 않고 선행사와의 거리가 길다. 대부분 완전명사구(full noun phrase)로 실현된다.

거리와 언어형식 간의 관계는 화제연속성 관점의 Givón(1983, 1988)과 접근가능성 관점의 Ariel(1988, 2001)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선행사와 언어형식 간에 실현돼 있는 문장의 수효인 ‘지시적 거리(referential distance)’(Givón 1988)가 짧을수록 언어형식도 간명해진다.¹⁴⁹⁾ 성분생략, 대명사, 강제 대명사, 완전명사구, 관계절 수식 명사구 중 성분생략이 가장 거리가 짧고 관계절 수식 명사구가 가장 거리가 길다. Ariel(1988)에서도 성분생략,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한정기술, 고유명사 중 성분생략이 가장 거리가 짧고 고유명사가 가장 거리가 긴 것으로 논의한다.¹⁵⁰⁾

Gundel, Hedberg & Zacharski(1993)은 실체의 기존성과 언어형식 간의 관계를 구체화하여 그 대응 양상을 반영하는 위계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it’의 위계가 가장 높고 비한정성 표현의 위계가 가장 낮다. 한정성 표현들이 위계를 형성한다. 전체 위계는 (24)와 같다.

(24) Gundel, Hedberg & Zacharski(1993)의 기존성 위계

가. [유형 확인가능]	‘a’ 명사
나. [지시적]	비한정 ‘this’+명사
다. [유일 확인가능]	‘the’+명사
라. [친숙]	‘that’+명사
마. [기활성]	‘that’, ‘this’, ‘this’+명사

148) 활성화 상태의 변화는 비활성에 대한 활성화, 준활성에 대한 활성화, 활성에 대한 탈활성화의 세 가지로 나뉜다. 비활성에 대한 활성화는 장기기억으로부터의 상기(recall)와 동일하다.

149) 최윤지(2016)에서는 전자를 ‘물리적 거리’로 칭한 바 있다. 이 외에 Givón(1988)은 조용 및 예측가능성, 화제연속성과 관련하여 선행사가 될 수 있는 경쟁자의 수효인 ‘잠재적 방해(potential interference)’를 설정하기도 한다. 최윤지(2016: 31)에서는 전체 담화주제와의 관련성을 중시해 ‘주제적 거리’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담화주제와 가까운 실체나 명제는 선행사와 내용적 거리 즉 주제적 거리가 가깝고 준활성 상태에 있을 가능성도 높다.

150) Reboul(1997)은 Ariel(1988)의 접근가능성은 선행사와의 거리에만 기반한 단순 개념이며 모든 지시 표현을 조용의 관점에서만 논의하여, 지시와 조용 간의 관계를 무력화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본고는 ‘광의의 조용’ 개념으로 이해한다.

(24가)의 '유형 확인가능(type identifiable)'은 청자가 실체의 표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로, 영어 부정관사 사용의 충분조건이다. (24나)의 '지시적(referential)'은 화자가 특정 실체를 지시하고자 의도한 경우를 가리킨다. (24다)의 '유일 확인가능(uniquely identifiable)'은 명사구 자체를 통해 청자가 화자가 의도하는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영어 정관사 사용의 필요조건이다. 청자가 어떤 실체에 대한 표상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가 의도하는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24라)의 '친숙(familiar)'이다. (24마)의 '기활성(activated)'은 단기기억에 실체의 표상이 존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실체가 단기기억 내에 활성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의 중심(center of attention)'에 있으면 (24바)의 '정초점(in focus)'이다.

중심화 이론도 의식의 중심에 있는 실체가 후속 문장에서 주로 주어로 실현되는 양상을 취급한다(Walker, Joshi & Prince 1998).¹⁵¹⁾ '주의 중심'을 중시하는 것은 Gundel, Hedberg & Zacharski(1993)과 동일하나, 기존성 위계는 한정성 실체에 대한 것인 반면 중심화 이론은 문장 내 성분에 대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기존성'은 실체 자체의 문제로 논의되기도 하지만 명제 및 문장의 문제로 논의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지시적·관계적 기존성의 구분이다. Gundel(1988, 1996), Gundel & Fretheim(2004)에서 (25)와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25) A: 누가 전화했어?

B: 개가 전화했어.

(26) A: 개 뭐 해?

B: 개 자.

(25A)의 의문사 '누가'에 대해 (25B)는 '개'로 대답하고 있다. '개'는 의문사에 대한 대답 즉 초점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신정보이지만, 한정성 표현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구정보이기도 하다. '개'라는 표현이 동시에 신정보이면서 구정보라면 두 층위

151) Ariel(2013)은 중심화 이론은 주어로 선택된 지시 표현에 대한 언어학적 설명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시 표현 자체의 복잡성을 다룰 능력이 없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Ariel(1988, 2001) 등에서 논의된 '접근가능성' 개념이라고 하였다.

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는 명제 및 문장 층위에서는 신정보이지만, 실체 자체의 층위에서는 구정보라고 보아야 한다. 전자를 관계적 최신성, 후자를 지시적 기존성이라고 각각 명명할 수 있다(Gundel & Fretheim 2004). 최윤지(2016)에서는 각각 ‘상대적 정보지위’와 ‘절대적 정보지위’로 분류된 바 있다.

반면 (26)에서는 질문 (26A)와 대답 (26B)에 공통적으로 ‘개’가 실현돼 있다. 이때 (26B)의 ‘개’는 한정성 표현이라는 점에서 지시적 기존성을 가진다. 동시에 ‘개 X한다’라는 개방명제의 일부로서 의문사 부분인 ‘X한다’와 관련하여 관계적 기존성을 가지기도 한다. 관계적 기존성·최신성 구분은 배경-초점 구분과 일치하며, ‘개’는 배경, ‘잔다’는 초점에 각각 대응된다. 한편 ‘개’는 개방명제 내 ‘주의 중심’ 실체로서 후향중심 혹은 ‘화제’로 논의되기도 한다(Walker, Joshi & Prince 1998).

실체 자체의 층위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실체에 대한 청자의 인지상태를 어떤 출처를 통해 판단할 것인가와 어떤 언어형식으로 표현할 것인가의 두 가지 문제였다. 반면 개방명제 분절의 층위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실체의 역할이 초점에 상보적인 것인지 아니면 주의 중심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하는 점이였다. 유사한 듯하면서도 상이한 다양한 기존성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해 줄 기준의 정립이 요구된다. 후절에서 살펴볼 문제이다. 정립된 실체의 개념과 기존성 관련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 (27)과 같다.

(27) ‘실체’의 개념과 관련 기존성 문제

가. 개념

- ① 외부세계의 대상
- ② 명제의 구성원인 실체의 심적표상

나. 관련 기존성 문제

- ① [출처] 담화, 지식, 의식, 기억, 상황, 추론
- ② [언어형식] 고유명사, 한정기술, 지시사, 대명사,¹⁵²⁾ 성분생략, 일부 비한정성 표현¹⁵³⁾
- ③ [개방명제] 배경, 화제

152) 지시사 및 대명사와 모두 연관되는 ‘직시 표현(deictic expression)’도 기존성의 언어형식에 포함될 수 있다. 시공 부사어와 밀접한 자유화제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153) Prince(1981)의 ‘고정 생소’와 Gundel, Hedberg & Zacharski(1993)의 ‘유형 확인가능’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론가능성과 관련하여 후술한다.

3.3. 기존성의 유형

화제 논의의 ‘기존성’은 명제에 대한 기존성이든 실체에 대한 기존성이든 모두 청자의 인지상태에 대한 화자의 가정과 관련돼 있다. 화자가 어떤 ‘기존성’의 언어형식을 선택할 때 그와 대응되는 대상의 심적표상이 청자에게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는 것이다. 인지상태와 화제의 속성을 밀접하게 연결시켜 파악해 볼 가치가 있다. 고찰해 보아야 할 문제는 그 심적표상이 청자의 어떤 인지상태 내에,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는가이다. 인지상태의 위치 문제는 본질적으로 출처와 관련되고, 심적표상의 형태 문제는 언어형식과 관련된다. 두 문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Prince(1992)의 ‘청자구·담화구’ 구분이 유용하다. Lambrecht & Michaelis(1998)의 지식 전제·의식 전제 구분 역시 유의미하다. 그러나 청자구·담화구 간 관계나 지식·의식 간 관계는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명제와 실체의 상이한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 명제는 언급될 때마다 전체 단언이 공유배경에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체는 기존성 실체가 아닌 실체가 공유배경에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 다만 추론을 통해 기존성 실체의 범위를 확장할 수는 있다.

3.3.1. 지시적 기존성

‘지시적 기존성’은 ‘명제나 실체에 대한 심적표상이 화청자 공유 혹은 청자의 인지상태 내에 이미 존재한다고 화자가 의도할 때의 해당 명제나 실체가 가지는 속성’을 가리킨다. Gundel(1988, 1999), Gundel & Fretheim(2004)에서 유래한 술어로 이들 논의에서는 실체에만 적용됐지만, 최윤지(2016)을 수용하여 명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다만 명제와 실체는 지위가 상이하므로 동일하게 취급될 수는 없다. 지시적 기존성은 해당 명제가 실체가 특정 표현으로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 명제에 대한 지시적 기존성은 ‘전제’ 개념으로, 실체에 대한 지시적 기존성은 ‘한정성’ 개념으로 각각 파악될 수 있다.

3.3.1.1. 지시적 기존성의 기준

지시적 기존성은 해당 명제나 실체가 화청자 공유 혹은 청자의 인지상태 내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고 화자가 의도하는가와 그러한 출처에 대응하여 어떠한 언어형식

을 화자가 선택하는가를 표시하는 개념이다. 정보의 저장, 출처 등과 관련된다. 정보의 저장은 기억의 문제이고, 정보의 출처는 해당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의 문제이다. 이와 대응되는 인지상태로는 지식과 의식(Chafe 1976, 1994), 추론 등을 들 수 있다.

3.3.1.1.1. 지식과 의식

‘정보(information)’는 ‘의사소통을 위해 화청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게 될 세계 내 사태 및 실체의 제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보는 표상되며 화청자는 정보에 대한 ‘심적표상(mental representation)’을 소유한다. ‘인지(cognition)’는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하는 각종 심적행위(mental activity)와 심적과정(mental process), 심적상태(mental state)를 의미한다.¹⁵⁴⁾ 전절에서 언급했던 ‘기억, 지식, 의식, 주의’ 등이 ‘인지상태(cognitive state)’에 해당한다.

기억(memory)은 정보를 수용하고 저장하고 회상하는 심적행위와 심적과정 및 그 대상이 되는 표상을 의미한다. 장기기억(long-term memory)은 평생 동안 보존되는 영구적 기억인 데 반해, 단기기억(short-term memory)은 잠시 동안 유지되는 감각적 기억이다. 작동기억(working memory)은 정보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단기기억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단기기억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Gage & Berliner 1984). ‘기억’은 지식, 의식, 주의를 정의하는 데도 이용된다.

인지상태의 일종으로서 지식(knowledge)은, 사태와 실체에 대해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상태 및 정보이자 주관적 진위 판단을 이미 종료한 사실들을 의미한다. 믿는 것(believe)과 아는 것(know)을 모두 망라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실체에 대한 지식은 정체를 위시하여 실체의 제 속성에 대한 사실들을 모두 포함한다. 지식은 장기기억과 관련되며, 상태로서의 지식은 장기기억에서 작용하고 정보로서의 지식은 장기기억에 저장된다고 본다.

‘지식’을 ‘소통 가능하며 선형적으로 주관적인 문제’로 간주하는 Yokoyama(1986)은 지식을 일곱 가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첫 번째 지식은 ‘서술적(predicational) 지식’이다. 이는 사태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두 번째 지식은 ‘존재적

154) 인지상태 및 인지과정이 ‘정보 담지 구조(information-bearing structure)’ 즉 ‘표상’의 발생, 변형, 저장 등을 통해 구성된다고 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지과학의 관점이므로, 정보, 인지, 심적표상 등은 인지과학의 영역이다(Pitt 2012).

(existential) 지식'으로 개방명제 내 실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가리킨다. 이 두 유형의 지식을 묶어 '기초(elementary) 지식'이라고 한다. 기초 지식이 없으면 소통이 발생할 일도 없다.

세 번째 지식은 '명제적(propositional) 지식'이다. 이는 사태에 대해 개방명제 형태로 술어만 단독 명세한 지식으로 네 번째 지식인 '명세적(specificational) 지식'과 함께 완전명제 명제를 구성한다. 명세적 지식은 명제 내 실체의 정체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즉 완전명제 명제인 '영희가 학교에 갔다'에 대해 'X가 Y에 갔다'는 명제적 지식이 되고 '영희, 학교' 각각이 X, Y에 대한 명세적 지식이 된다. 두 유형의 지식을 합하여 '특정(specific) 지식'이라고 부른다.

다섯 번째 지식은 '지시적(referential) 지식'으로 실체의 명칭과 속성을 각각 인지하고 상호 대응시킬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존재적 지식과 서술적 지식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대부분 명세적 지식의 실체 역할을 한다. 소통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는 '독립(independent) 지식'에 해당한다. 여섯 번째 지식은 '코드(code) 지식', 일곱 번째 지식은 '담화상황(discourse situation) 지식'이다. 두 지식 모두 '상위정보적(metainformational) 지식'으로 '정보적(informational) 지식'인 존재적, 서술적, 명제적, 명세적, 지시적 지식과 구분된다. 코드 지식 역시 지시적 지식과 같은 독립 지식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Yokoyama(1986)의 지식 분류에서 주목할 점은, 명제적 지식과 명세적 지식은 사태에 대한 표상과 관련되는 지식인 반면 지시적 지식은 소통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이라는 점이다. 지시적 지식은 소통 상황과 상관없이 장기기억 내에 존재하는 지식이지만, 명제적 지식·명세적 지식은 특정 사태에 대해 소통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지식이다. 즉 언어를 통한 소통에서만 필요한 지식이므로 본고에서 화제 논의의 위해 정립한 명제, 실체 개념과 매우 밀접하다.

한편 인지상태의 일종으로서 의식(consciousness)은, 표상 즉 의미에 대해 인식한 상태 및 정보이다. '취침 여부에 상관없이 항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나 '경험자만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내적 현상'(Chafe 1994: 27), '심적상태를 경험되는 것으로 만드는 자질'(Siewert 2016)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사태에 대한 의식은 사태의 내용에 대해 인식한 상태 및 정보로, 실체에 대한 의식은 최소한 표상의 존재에 대해 인식한 상태 및 정보로 각각 간주될 수 있다. 의식은 현 시점 작동기억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현재 장기기억에 저장돼 있는 것이 아닐 경우 이후 장기기억에

저장될 수도 있고 소실될 수도 있다.

명제의 입장에서든 실체의 입장에서든 기존성은 청자의 인지상태 내 정보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화자의 가정을 반영하며, 화자가 화청자 간에 공유한다고 가정하는 명제들 즉 공유배경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공유배경은 명제의 경우 화용론적 전제와, 실체의 경우 한정성과 각각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이미 논의하였다. 한정성은 화용론적 전제에 포함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명제와 실체를 구분하는 입장에서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

Prince(1981) 이래로 기존성과 관련된 인지상태는 '지식'과 '의식'으로 양분돼 논의돼 왔다.¹⁵⁵⁾ Prince(1985)에서는 각각 '지식 기존성(Clark-givenness)'과 '의식 기존성(Chafe-givenness)'으로 명명되었고, Dryer(1996)에서는 각각 '화용론적 전제'와 '활성화'로 지칭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Lambrecht & Michaelis(1998)에서도 승계되었다. 이 논의는 전제를 지식, 의식, 화제성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지식 전제'는 '청자의 지식 상태에 대한 화자의 가정'을, '의식 전제'는 '청자의 활성화 상태에 대한 화자의 가정'을 각각 의미한다. '화제성(topicality) 전제'는 '현재 관심사로서 화제 실체에 대한 인지상태 가정'과 관련된다. 이들 논의에서 '의식'이나 '활성화'는 개념상 '순간'과 가까운 의미로 사용돼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rince(1992)에서는 이를 청자구·담화구 정보의 구분으로 재정립하였다. '청자구 정보'는 청자의 지식 내에 존재한다고 화자가 가정하는 정보이고, '담화구 정보'는 담화 내에 기등장한 정보이다. 이때 청자구 정보는 개념상 지식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담화구 정보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순간 개념의 활성화라기보다는 '범위' 개념의 활성화이다. 현 시점 활성화된 정보뿐만 아니라 최근이든 그 이전이든 활성화된 정보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28)의 두 가지이다.

- (28) 가. 활성화 혹은 의식은 범위의 개념인가 순간의 개념인가?
나. 지식과 의식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범위 개념의 경우 Prince(1992)의 '담화구 정보'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가능

155) 또 하나의 기존성으로 논의된 예측가능성·회복가능성은 인지상태의 문제는 아니므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

하다. Chafe(1994)가 논의한 바와 같이 의식에 ‘활성 의식’과 ‘준활성 의식’이 존재한다면 활성·준활성 의식 전체를 ‘기활성’에 대응하는 ‘의식’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활성과 준활성 간의 구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최윤지(2016)은 ‘물리적 거리’를 논의할 때 ‘직전 문장 내 선행사’와 ‘근접 문장 내 선행사’를 구분하여 전자를 ‘활성’, 후자를 ‘준활성’으로 구분한 바 있다. 기활성 및 의식도 지시적 거리 혹은 물리적 거리에 따라 ‘최근 활성’과 ‘근접 활성’으로 분류된다고 보면 된다. 또한 상황으로 환기되는 화청자 등 역시 기활성의 일종으로 취급할 수 있다.

순간 개념의 경우 인지상태 중 주의(attention)와 대응될 수 있다. ‘주의’는 의식 내 가장 현저한 상태 및 정보로, 작동기억 중 가장 중심에 있다.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의식과 주의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며, ‘주의’는 선택을 의미한다(강봉균 역 2010). Gundel, Hedberg & Zacharski(1993)와 Walker, Joshi & Prince(1998)의 ‘주의 중심’이 의미하는 바와 동일하다. Chafe(1994)의 ‘활성 의식’이나 Dryer(1996)의 ‘활성화’도 ‘주의’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논의들은 ‘(기)활성’¹⁵⁶⁾ 혹은 ‘의식’을 ‘주의’의 의미로 사용하여 두 개념을 구분하지 않았다. 혹은 그 의미가 주의가 아닌 경우에도 굳이 용어의 구분을 하지 않았다. 기존에 논의돼 온 의식 개념이 범위의 순간의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돼 왔다면 이는 구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자구 정보’를 ‘지식’과 등치시키고 ‘답화구 정보’를 ‘기활성’의 의미로서 ‘의식’과 등치시키고자 한다면, 지식과 의식의 관계도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Prince(1992)는 청자구 정보와 답화구 정보의 관계를 포함관계로 이해하였다. 청자구 정보는 답화구 정보가 아닐 수도 있지만 답화구 정보라면 항상 청자구 정보이며, 답화구이면서 청자신인 정보는 존재할 수 없다. 의식이면 반드시 지식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청취한 모든 정보가 엄격한 의미에서 장기기억 내의 지식으로 취급될 수는 없다. 지식이 되지 못한 의식, 청자구 정보가 되지 못한 답화구 정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지식과 의식은 지식이 의식을 포함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구분되면서 교차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28)에 대해서는 (29)와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 (29) 가. 의식은 답화구로서 범위의 개념이고, 협의의 활성은 주의로서 순간의 개념이다.
나. 지식과 의식은 서로 구분되면서 교차된다.

156) 본고는 ‘기활성’은 ‘activated’와 대응되고 ‘활성’은 ‘activation’와 대응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각 술어를 사용할 것이다.

(29가)를 수용한다면 기존성은 지식·의식의 합집합에 대응되는 기존성 즉 화용론적 전제·공유배경과 의식 중 ‘주의’에 대응되는 기존성의 둘로 나뉜다. ‘주의’는 순간 개념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화한다. 승계될 수도 있고 전환될 수도 있다. 개방명제를 대상으로 하는 배경 명제가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동일한 개방명제라고 하더라도 문장으로 실현될 때에는 실체가 주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역시 별개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다. 이는 개념상 Lambrecht & Michaelis(1998)의 화제성 전제나 중심화 이론의 후향중심과 대응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Givón(1988)의 ‘주의(attention)’ 혹은 ‘예측불가능성(unpredictability)’이나 Vallduví(1992)의 연결부와도 대응될 수 있다. Choi(1999)의 ‘현저성(prominence)’과도 대응된다.¹⁵⁷⁾

(29나)와 관련하여 Birner(2006) 역시 담화구이면서 청자신인 정보의 존재를 인정한다. 다만 이때의 정보는 추론가능한 것으로 취급된다. 즉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론을 통해 확장될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킨다. 본고 역시 추론가능성을 공유배경을 확장시키는 기제 중 하나로 이해한다. 다만 추론이 청자의 지식 내 부재하는 정보만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고 본다. 청자구 정보도 추론을 통해 담화에 도입될 수 있다고 본다.

원칙상 추론은 명제와 실체에 모두 적용되지만 명제는 증가되는 것이 무표적이고 실체는 증가되는 것이 유효적이라는 점에도 주목한다. 실체와 달리 명제는 표현에 기반하여 추론을 설명하기 힘들므로 실체만을 추론가능성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인지상태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30), (31)과 같다.

(30) 인지상태의 유형 및 개념, 상호관계

가. 지식

-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상태 및 정보
- 장기기억에 저장돼 있는 정보
- 청자구 정보, 기지 정보

나. 의식

- 현 시점 경험하고 최소한 존재에 대해 인식하는 상태 및 정보
- 작동기억에서 작용하고 있는 정보

157) 이에 대해서는 3.3.2.1절에서 후술한다.

- 담화구 정보, 기활성 정보

다. 주의

- 의식 내 가장 현저한 상태 및 정보

- 작동기억에 작용하는 정보

- 배경, 화제

라. 상호관계

① [지식과 의식] 교차관계

② [의식과 주의] 포함관계

(31) 인지상태와 기존성 개념 간 대응

가. [지식·의식] 범위 개념: 화용론적 전제·공유배경의 합집합

나. [주의] 순간 개념: 수시 전환·승계

3.3.1.1.2. 추론

‘추론가능(inferrable)’이라는 개념은 Prince(1981)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추론가능성(inferrability)’ 역시 이 개념에서 파생된다.¹⁵⁸⁾ (22)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논의에서 추론가능은 ‘포함’과 ‘비포함’의 두 가지로 구분되었고, 이 중 ‘비포함 추론가능’은 ‘연결 추론(bridging)’으로 달리 지칭된다. (32)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Prince 1981).

(32) 가. 어제 버스에 탔는데 기사(the driver)가/는 취했더라.

나. 우체국에 갔는데 멍청한 직원(the stupid clerk)이/은 우표도 못 찾더라.

(32가)는 ‘버스’를 통해 추론이 발생한 경우이다. ‘버스’에는 항상 ‘기사’가 존재하므로 (32가)에 언급된 ‘기사’는 ‘어제 탄 버스의 기사’로 해석된다. (32나)도 마찬가지이다. ‘우체국’에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 ‘멍청한 직원’은 ‘내가 갔던 우체국의 직원’으로 해석된다. ‘부분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결 추론은 Haviland & Clark(1974), Clark & Haviland(1977)에서 기존성·최신성 구분에 대해 논의하면서 비중있게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158) Birner(2013: 243)은 실체에 대한 ‘추론가능성’이 존재를 함의하지 않으므로, 일상용어가 아닌 전문용어(technical term)로 취급하여 ‘r’이 두 번 들어가는 표기를 채택하고 고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문은 (33)과 같다(Haviland & Clark 1974: 515).

- (33) 가. We checked the picnic supplies. The beer was warm.
나. 우리는 소풍 도시락을 확인했다. 맥주는/가 따뜻해져 있었다.

(33나)의 '맥주' 역시 부분관계를 통해 '소풍 도시락'의 일부인 것으로 쉽게 이해된다. Clark & Haviland(1977: 4)은 '선행사의 격률(maxim of antecedence)'이 기존성·최신성 구분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기존성의 실체라면 청자는 그 실체의 유일한 선행사를 구성할 수 있고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기제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연결(bridging)이다.¹⁵⁹⁾ 연결은 직접 선행사가 부재할 때 기지의 무언가를 통해 '간접(indirect) 선행사'를 구성하는 추론이다(Clark & Haviland 1977: 6).

(32가)의 '기사'나 (32나)의 '직원'은 직접 선행사가 실현돼 있지 않지만 각각 '버스'와 '우체국'을 간접 선행사로 삼아 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었다. (33나)의 '소풍 도시락'과 '맥주'의 관계 역시 동일하다. 이처럼 연결 추론은 간접 선행사가 이전 담화에 실현돼 있는 것이 전형적이다. 그러나 '버스, 우체국, 소풍 도시락'이 자동적으로 각각 '기사, 직원, 맥주'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 '기사, 직원, 맥주'를 듣고 서야 비로소 그러한 부분관계를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32)-(33)의 연결 추론을 Birner(2006)은 '후방(backward) 추론'이라고 따로 명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추론과 대비되는 추론은 '전방(forward) 추론'이자 '윤색(elaborative) 추론'으로 불린다. 대부분 (34)와 같은 장소부사어의 전치와 관련된다(Ward & Birner 2001, Birner 2006). 간접 선행사에 대해 듣는 순간 추론이 자동적으로 형성된다고 본다(Birner 2006: 40).

- (34) 가. She got married recently and at the wedding was the mother, the stepmother and Debbie.
나. 그녀는 최근에 결혼했는데 결혼식에 어머니, 양어머니, 데비가 참석했었다.

'결혼'이라고 언급하는 순간 (34나)와 같이 '결혼식'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59) 다른 하나는 첨가(addition)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구조화(restructuring)이다. 첨가는 선행사 실체가 기억 내에 존재했던 것처럼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는 것이고, 재구조화는 명제를 후속 문장에 맞춰 기존성 부분과 최신성 부분으로 분절하는 것이다.

Birner(2006)은 (33)과 (34)의 추론을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역시 부분관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결혼’을 언급했을 때 자동적으로 상기되는 것이 ‘결혼식’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므로 연결 추론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한국어는 명사구의 형식을 통해 한정성과 비한정성을 구분하지 않지만 이상의 영어 표현은 모두 ‘the’를 포함하고 있다. 추론된 ‘부분’ 명사구나 장소부사어 속 명사구는 ‘the’와 통합되어 한정성 표현으로 실현된다. 영어의 정관사 ‘the’의 의미는 수많은 논자들에 의해 연구돼 왔다. 그 중 ‘유일성(unicqueness)’와 ‘친숙성(familiarity)’이 가장 대표적인 의미로 논의된 바 있다. 정관사가 적절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담화 내에서 친숙성을 획득한 실체이든가 청자에게 ‘유일 확인가능한 실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유일성][+친숙성]인 것은 아니어서 [+유일성][-친숙성]이거나 [-유일성][+친숙성]인 경우도 있다(Birner & Ward 1994). 이 중 [+유일성][-친숙성]의 경우가 Prince(1981)의 ‘포함’에 해당한다.

‘포함 추론가능’은 달리 ‘표현 추론’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35가)가 [+유일성][-친숙성]인 표현 추론의 경우이다. 기활성된 내용이 아니지만 표현 자체에 추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containing) 한정성 표현으로 실현될 수 있다.

- (35) 가. 악마는 거꾸로 말한다는 그 엄청난 소문(the incredible claim that the devil speaks English backwards) 들어 봤어?
나. 여기 달걀 중에 한 알(one of these eggs)이 깨졌어!
다. 내가 같이 일하는 동료 하나(a guy I work with)가 네 동생을 안다던데.

(35나, 다)는 표현 추론이면서 비한정성 표현과 관련된 경우이다. 표현 자체에 연결 실체가 실현되어 있는 ‘생소 고정(anchoring)’이며, 이정민(1992)에서 논의된 ‘한정성의 육박(approximate)’의 일종이다. Abbott(2010, 2013)에서는 관점에 따라 비한정성 표현이 한정성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논의하고 있기도 하다.¹⁶⁰⁾ (35나)와 (35다)는 전자에는 ‘전체’ 명사구가 소유관계를 통해 분명하게 실현돼 있는 반면, 후자에는 그와 달리 관계절이 실현돼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대부분의 추론은 부분관계와 관련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

160) Abbott(2010, 2013)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지시적 유일성’을 한정성의 본질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가 형성하는 집합은 ‘부분순서 집합(partially-ordered set)’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부분관계뿐 아니라 척도관계도 포함한다(Hirschberg 1985). Birner(2013: 334-336)은 ‘어휘적 동일성, 지시적 동일성, 유의어, 반의어’ 등의 관계도 추론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떤 경우든 전체에 대한 부분성(partitivity)이나 부분 간의 대조성(contrastiveness)이 추론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속성이 된다.

실체의 특성을 중시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Löbner(1985), Fraurud(1996), Low(2006) 등의 논의들은 추론을 화용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의미론적인 것으로 보고자 한다. Löbner(1985)는 한정성 표현을 ‘화용론적’인 것과 ‘의미론적’인 것으로 나누고, 전자는 상황과 맥락에 의존적인 지시사, 대명사 등을 가리키는 반면 후자는 맥락에 독립적인 고유명사, 유일명사 등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의미론적 한정성 표현 중 ‘기능적(functional)’, ‘관계적(relational)’, ‘분류적(sortal)’ 표현들이 연결 추론을 야기하는 것으로 논의된다. 예컨대 ‘무게’는 항상 ‘무언가의 무게’이며(Löbner 1985: 294), ‘클러치’는 항상 ‘차의 일부’이다(Löbner 1985: 297).

Fraurud(1996)은 Löbner(1985)에서 범위를 넓혀, 실체에 대한 존재론적 분류를 시도하였다. ‘개체(individual)’, ‘사례(instance)’, ‘기능(functional)’의 세 부류를 설정하고, 이에 대응되는 명사구 형식으로 각각 고유명사, 비한정 명사구, 한정 명사구를 제시하였다. 기능의 한정성 실체들은 연결 추론과 마찬가지로 다른 실체¹⁶¹⁾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확인 가능하다고 보았다(Fraurud 1996: 72). Low(2006)는 의미론적 한정성 표현에 집중하여 이를 ‘어휘적(lexical)’인 것과 ‘도식적(schematic)’인 것의 두 부류로 나눈 논의이다. 전자에는 고유명사, 유일명사, 기능적 표현들이 속하고 후자에는 질량, 순서, 위치 등 추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속하게 된다. 기능적 표현들과 도식적 표현들이 모두 연결 추론을 유발할 수 있다.

요컨대 추론을 화용론적인 것으로 보든 의미론적인 것으로 보든 주로 부분관계가 추론을 발생시킨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부분성과 대조성의 관계를 기반으로 연결 추론이 발생되고, 일부 표현 추론도 그러한 관계를 필요로 한다. 대개 연결 추론은 대조성으로 대표되고 표현 추론은 부분성으로 대표되는 경향이 있다.¹⁶²⁾ 이때 추론은 기활성·의식의 영역에 속하는 담화구 정보를 통해 촉발된다. 반면 그 결과는 지식의 영역에만 속할 수도 있고 그보다 확장된 영역에 속할 수도 있다. 담화구

161) Fraurud(1996)은 이러한 연결 실체를 ‘고정자(anchor)’라고 부른다.

162) 이에 대해서는 4장 이후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정보가 추론의 결과로 제시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추론의 유형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36)과 같다.

(36) 추론의 유형

- 가. 연결 추론 - 한정성 표현 [대조성]
- 나. 표현 추론 - 한정성 표현 [내용]
- 비한정성 표현 [부분성 및 고정]

3.3.1.2. 지시적 기존성의 실현

지시적 기존성은 지식·의식의 합집합에 대응되는 명제나 실체 자체의 기존성으로, 화자가 선택한 표현을 통해 드러난다. 이는 후술할 관계적 기존성 즉 의식 중 주위에 대응되는 기존성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화자는 해당 명제나 실체가 청자의 지식 및 의식 내에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러한 가정에 대응되는 표현을 선택한다. 이때 표현이라는 것은 명제와 관련해서는 어미나 구문을, 실체와 관련해서는 명사구를 각각 가리킨다.

담화 내 명제에서 기존성 명제나 실체가 언급되는 방법, 즉 ‘지시적 기존성’이 실현되는 방식은 보통 두 가지이다. 첫째는 담화 내에서 이미 등장한 것을 승계, 반복, 조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담화 내 등장한 적이 없는 것을 화청자 간에 공유된 것처럼 도입하는 것이다. 이때 기등장한 것이든 미등장한 것이든 기존성을 가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동일한 표현을 통해 그것을 지시할 수 있다.

기존의 청자구·담화구 구분은 지식·의식의 구분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은 서로 구분되면서 교차되는 개념임을 이미 논의하였다. 본고는 기존성의 출처를 인지상태와 대응시키는 관점을 취한다. 언급되었다고 모두 장기기억 내에 저장되는 것은 아니며, 화자가 표현을 선택할 때에도 분명 이에 대한 고려가 작용한다고 본다. 청자의 실제 인지상태에 따라 후속 담화의 양상도 달라진다. 지식·의식 여부에 따라 청자의 인지상태에 대한 가정은 세 유형으로 조합된다. 각 유형에 독립적으로 해당하는 표현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경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합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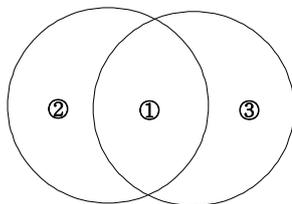
3.3.1.2.1. 전제

명제는 대개 최신성을 가지는 신정보이다. 기존성의 명제를 그대로 승계, 조응, 반복하는 경우는 반문하거나 강조할 목적이 아니면 드물게 발생된다. 명제 자체가 기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명제의 지시적 기존성 문제는 수용을 포함하는 '화용론적 전제' 및 '공유배경'의 영역이다. 화용론적 전제는 분열문 관계절, 일부 반말체 종결어미, 설명의문문 등을 통해 주로 실현된다는 사실 또한 이미 논의하였다. 그러나 인지상태와 표현 간의 대응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지식과 의식 간의 조합을 고려하면 명제의 지시적 기존성 즉 화용론적 전제는 지식·의식, 지식·비의식, 비지식·의식의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¹⁶³⁾ 명제의 경우 어떤 표현에 의해 촉발되는 추론은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제외된다. 가장 전형적으로는 화자가 기언급 명제에 대해 청자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승계, 조응, 반복하는 '지식·의식'의 경우가 있다. 언급된 바 없지만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명제를 도입하는 '지식·비의식'의 경우도 있다. 언급은 되었으나 청자가 정확히 알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명제를 승계, 조응, 반복하는 '비지식·의식' 조합도 가능하다. 이 경우 반문을 통한 수용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지식·의식 조합은 기존의 청자구·담화구 조합에 해당한다. 언급된 명제에 대한 지식이 청자에게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화자가 가정하고 표현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이미 청자가 알고 있다고 생각되고 언급도 됐으니 확인할 수 있는 명제로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청자 입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언급했거나 지금 얘기하면서 들은 것인데 진위 판단을 종료했을 때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은 일어나지 않으며 반문도 발생하지 않는다. (37)과 같은 대부분의 분열문 관계절이 이러한 조합을 표현한다.

163) 세 유형의 관계를 도형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이 지식·의식, ②가 지식·비의식, ③이 비지식·의식에 각각 해당한다.



- (37) A1: 영화는 왜 안 왔어?
 B: 영화가 안 온 건 아파서야.
 A2: *아, 영화가 안 왔어? (몰랐어.)

‘영화가 안 왔다’라는 명제가 이미 (37A1)의 화자를 통해 언급되었기 때문에 (37B)의 화자는 해당 명제가 청자의 의식 내에는 물론이고 지식 내에 있다는 사실도 쉽게 가정할 수 있다. 명제를 반문하는 (37A2)는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 분열문은 청자의 인지상태에 대한 화자의 이러한 가정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표현이다.

최윤지(2016)은 지시적 기존성의 기제로 청자구와 담화구가 있고 담화구이면 반드시 청자구라는 Prince(1992)의 구분을 그대로 수용하여 담화구, 담화신·청자구, 청자신의 세 범주를 설정한 바 있다. 담화구에는 ‘-다고’, ‘-다니까’를, 담화신·청자구에는 ‘-잖아’과 ‘-다며’를, 청자신에는 ‘-거든’과 ‘-단다’를 각각 포함시켰다. 담화구는 다시 물리적 거리에 따라 활성화와 준활성화 혹은 ‘최근 활성화’와 ‘근접 활성화’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 중 본고의 지식·의식에 해당하는 경우는 담화구인 ‘-다고’, ‘-다니까’이다. 그러나 본고의 입장에서 이들 반말체 종결어미는 ‘반문’에 특화되어 있어 가장 전형적인 지식·의식의 경우보다는 후술할 비지식·의식의 경우에 더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잖아’의 경우는 다르다. 해당 명제가 언급된 바 있고 청자도 그 명제를 이미 알고 있다고 화자가 가정하는 경우에도 (38)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 (38) A1: 영화는 왜 안 왔어?
 B: 영화는 아프잖아. (왜 모르는 것처럼 그래?)
 A2: 아, 맞다. (아까 그렇게 말했었지?)

(38B)는 (38A1)의 ‘왜’에 대한 대답으로 초점의 역할을 한다. (38B)의 화자는 ‘영화가 아프다’가 언급됐으며 해당 명제를 청자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잖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 입장에서 기지 여부를 확인하는 괄호 안의 ‘왜 모르는 것처럼 그래?’가 실현되도 자연스럽다. 청자 입장에서 기 언급 여부를 확인하는 괄호 안의 ‘아까 그렇게 말했었지?’를 포함하여 (38A2)의 반응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도 그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37)과 달리 최근 활성화인 경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잖아’는 후술할 지식·비의식에 가장 특화되어 있기도 하다.

지식·비의식 조합은 기존의 청자구·담화신 조합에 대응된다. 화자가 청자에게 해당 명제가 지식으로서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표현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거나 간주하나 담화 내 언급된 바 없는 명제를 도입한다. 현재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청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되니 확인할 수 있는 명제로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술한 반말체 종결어미 ‘-잖아’가 이 조합에 가장 적합하다(최윤지 2016). (38)은 물론이고 (39)도 가능하다. (38)과 (39)의 차이는 (38B), (39B) 각각의 괄호 안 표현이다. 전자는 기지·지식 여부를, 후자는 기언급·의식 여부를 각각 표시해 준다.

- (39) A1: 영화는 왜 안 왔어?
B: 영화는 아프잖아. (왜 모르는 것처럼 그래?)
A2: 아, 맞다. (영화 아팠었지?)

(39B)의 ‘영화는 아프다’라는 명제가 현 담화에서 언급된 바 없다는 사실은 기지 여부를 자문하는 (39A2)의 괄호 안 ‘영화 아팠었지?’가 자연스럽다는 점을 통해 확인된다. 언급된 경우에는 (38A2)처럼 ‘아까 그렇게 말했었지?’라고 반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해당 명제가 청자의 지식 내 존재한다고 본다는 사실은 기지 여부를 확인하는 괄호 안 ‘왜 모르는 것처럼 그래?’를 포함하여 (39B)가 자연스럽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청자의 인지상태가 일치할 경우 (39A2)와 같이 수용도 불필요하고 반문도 발생하지 않는다.

분열문 관계절도 사용될 수 있다. 분열문은 전제유발자로서 수용의 대상이 되고 해당 관계절 명제는 화용론적 전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설명의문문의 화자여서 이미 관계절의 명제를 알고 있던 (37B)와 달리 최근 활성화·기언급 명제가 아닌 경우에도 (40B)와 같이 분열문이 실현될 수 있다.

- (40) A1: 개는 어떤 애야?
B: 영희가 만난 게 개야. (영희가 누구 만난 거 알지?)
A2: 아, 개가 개야?
A2': 아, 영희가 누구를 만났어? (몰랐어.)

(40B)의 화자는 분열문을 사용하면서 ‘영희가 누군가를 만났다’라는 명제가 현재 담화 내에서 말해진 적은 없어도 청자의 지식에는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볼 수 있다. 괄호 안 ‘영희가 누구 만난 거 알지?’가 자연스럽다는 점도 고려된다. (40A2)의 청자 반응이 어울린다는 점도 기지 가정을 지지한다. 그러나 화자의 가정과 청자의 인지상태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40A2’)과 같이 반문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37B)와는 경우가 다르다. 청자의 인지상태에 대한 화자의 가정은 동일하지만¹⁶⁴⁾ 일치 여부가 상이해 후속 담화의 양상이 달라졌다. 반문이 일어나거나 수용이 실패할 수 있다.¹⁶⁵⁾

비지식·의식 조합도 가능하다. 이는 기존에 인정되지 않던 청자신·담화구 조합에 해당한다. 화자 입장에서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나 사실상 청자는 알고 있지 못했거나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진위 판단이 종료되지 않은 사실도 포함된다. 언급은 됐지만 청자가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는 경우로, 언급됐다는 사실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청자가 이전에 알고 있지 못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언급됐으니 확인할 수 있는 명제로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용이 발생해야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 반문과 반복을 기본으로 하는 (41)의 ‘-다고’, (42)의 ‘-다니까’가 여기에 해당한다.

- (41) A1: 영희는 왜 안 왔어?
 B: 영희는 아프다고. (몇 번을 말해야 돼?)
 A2: 아, 영희가 아파? (몰랐어.)
- (42) A1: 영희는 왜 안 왔어?
 B: 영희는 아프다니까. (몇 번을 말해야 돼?)
 A2: 아, 영희가 아파? (몰랐어.)

(41B), (42B)의 화자는 명제가 이미 언급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고’와 ‘-다니까’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괄호 안 ‘몇 번을 말해야 돼?’가 자연스럽다는 점도 그 근거가 된다. 반면 청자 입장에서는 현 담화 이전에 해당 명제에 대해 알

164) ‘것은’ 분열문과 ‘것이’ 분열문으로 형식이 상이하다는 차이점도 있다. 이 분류는 최윤지 (2016)을 따른다.

165) 이에 대해서는 3.3.2.2.1절에서 후술한다.

지 못하고 있었을 수 있고 이 경우 (41A2), (42A2)와 같은 반문이 가능하면서 자연스럽다. 만약 화자 입장에서 청자가 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43)과 같이 ‘잖아’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 (43) A: 영희는 왜 안 왔어?
 B: 영희는 아프잖아. (왜 모르는 것처럼 그래?)
 B': 영희는 아프잖아. (?몇 번을 말해야 돼?)
 B'': 영희는 아프잖아. (몇 번을 말해야 돼?)

기지 여부를 확신하는 (43B)의 괄호 안 ‘왜 모르는 것처럼 그래?’가 기언급 여부를 확신하는 (43B') 괄호 안 ‘몇 번을 말해야 돼?’보다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반면 (42B'')처럼 기언급 여부가 표시돼 있다면 ‘잖아’의 사용에 어떤 무리도 없다.

분열문 관계절이라고 이러한 비지식·의식의 조합을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화자는 기언급 명제에 대해 아직 청자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44B)와 같이 분열문을 사용할 수 있다.

- (44) A1: 개는 어떤 애야?
 B: 영희가 만난 개 개야. (영희가 누구 만났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해?)
 A2: 아, 영희가 누구를 만났어? (몰랐어.)
 A2': 아, 영희가 누구를 만났다고? (몰랐어.)

(44B)의 화자는 괄호 안 ‘영희가 누구 만났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해?’로 후속 담화를 이어갈 만큼 청자의 숙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분열문으로 해당 명제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충분히 화용론적 전제 즉 공유배경 내에 수용되지 못한 경우 청자는 (44A2, 44A2')에서와 같이 반문할 수 있고 수용이 실패할 수 있다. (44A2')처럼 ‘-다고’를 통해 기언급 여부를 강조하는 반문도 자연스럽다.

요컨대 명제의 지시적 기준성은 화자 입장에서 해당 명제가 청자의 인지상태 중 지식 및 의식 내에 있다고 가정하는 속성이며 이 속성은 청자의 지식 및 의식 내 존재하는 명제의 범위를 결정한다. 선택된 명제들은 분열문 관계절, 일부 반말체 종결어미, 설명의문문 등을 통해 실현된다. 청자의 인지상태는 지식과 의식 간 조합에 따라 지식·의식, 지식·비의식, 비지식·의식의 세 유형으로 나뉘지만, 기준성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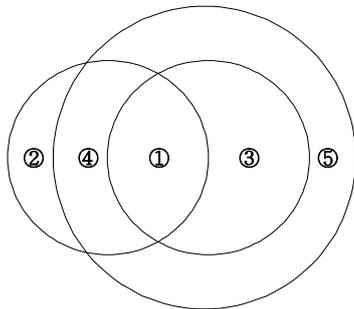
현과의 대응 양상은 절대적이지 않다. 화자가 가정한 청자의 인지상태 유형은 후속 담화 양상으로 증명되며, 이러한 가정은 청자의 실제 인지상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수용의 실패는 청자의 반문으로 나타난다.

3.3.1.2.2. 한정성

실체는 명제와 달리 대개 기존성을 가지는 정보이다. 대부분의 문장은 구정보인 실체에 신정보가 첨가되는 형상이다. 실체 자체가 기존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 역시 담화 기등장 실체를 승계, 조응, 반복하거나 담화 미등장 실체를 화청자 상호 공유된 것처럼 도입하는 작업과 관련돼 있다. 실체의 지시적 기존성은 대개 '한정성 표현'으로 구현되나, 표현 추론을 통해 도입되는 '비한정성 표현'도 '한정성 실체'에 포함될 수 있다. 명제와 달리 추론의 한계 설정이 가능하고 이와 대응되는 언어 현상도 존재하기에 추론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유의미하다. 그러나 명제와 마찬가지로 인지상태와 표현 간의 대응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지식과 의식, 추론가능성 간의 조합을 고려하면 실체의 '지시적 기존성' 즉 한정성은 지식·의식, 지식·비의식, 비지식·의식, 추론·지식, 추론·비지식의 다섯 가지 부류로 나뉜다.¹⁶⁶⁾ 화자가 기 언급 실체에 대해 청자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승계, 조응, 반복하는 '지식·의식'이 가장 전형적인 경우이다. 언급된 바 없지만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실체를 도입하는 조합은 '지식·비의식'이다. 언급은 되었으나 청자가 정확히 알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해당 실체를 승계, 조응, 반복하는 '비지식·의식' 조합도 가능하다.

166) 다섯 유형의 관계를 도형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이 지식·의식, ②가 지식·비의식, ③이 비지식·의식, ④가 추론·지식, ⑤가 추론·비지식에 각각 해당한다.



답화 내 표현을 기반으로 청자 지식 내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실체를 도입하는 ‘추론·지식’의 경우도 있다. ‘지식·비의식’과의 차이점은 ‘연결 추론’에 있다. 전자는 연결 추론을 통해서만 성립되는 반면 후자는 연결 추론 없이도 성립될 수 있다. 기언급 실체나 기지 실체를 기반으로 ‘표현 추론’이 발생되어 공유배경의 외연을 확장해 주는 ‘추론·비의식’의 경우도 있다. 화자가 가정하는 청자의 인지상태 유형과 청자의 실제 인지상태가 불일치하는 경우 명제와 마찬가지로 반문의 형태로 수용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지식·의식 조합은 기존의 청자구·답화구 조합에 해당한다. 언급된 실체에 대한 지식이 청자에게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화자가 가정하고 표현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청자 입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언급했거나 지금 얘기하면서 들은 것인데 실제 파악을 종료했을 때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용이 일어나지 않으며 반문도 발생하지 않는다. (45)의 고유명사, 한정기술, 지시사, 대명사 한정성 표현 모두로 실현될 수 있다. 성분생략도 포함된다.¹⁶⁷⁾ 다만 기언급 실체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45라)의 대명사나 성분생략이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45) 가. [고유명사] ‘영희’
 나. [한정기술] ‘니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다. [지시사] ‘그거’, ‘저 사람’
 라. [대명사] ‘개’

지식·비의식 조합은 기존의 청자구·답화신 조합에 해당한다. 화자가 청자에게 해당 실체가 지식으로서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표현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청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확신하나 답화 내에 언급된 바 없는 실체를 도입한다. (46가)의 고유명사나 (46나)의 한정기술이 대표적이나, 청자가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47가)처럼 대명사나 지시사도 사용될 수 있다. 선행사가 기언급되지 않았다는 차이만 있다.

- (46) 가. 참, 영희 왔어?

167) 이에 대해서는 5.4절에서 후술한다.

나. 근데, 니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물어봐도 돼?

(47) 가. 참, 개 왔어?

나. 근데, 저 사람이 누군지 물어봐도 돼?

비지식·의식 조합 즉 기존에 인정되지 않던 청자신·담화구 조합도 가능하다. 화자 입장에서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나 사실상 청자는 알고 있지 못했거나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재 실체’더라도 청자가 실제로 정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비실재 실체’ 중 화청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수용이 발생해야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체에 대한 반문이 이루어진다.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은 고유명사, 한정기술, 지시사, 대명사 등으로 다른 경우와 다르지 않다. 언급은 됐지만 청자가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는 경우로, 기 언급 실체라고 해도 지시사, 대명사 등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한다.

(48) A: 영희는 안 왔어. (아까 얘기했던 애 기억하지?)

B: 영희가 누구였지?

(48)은 실재 실체이면서 청자가 실제로 정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48A)의 화자는 기 언급 실체인 ‘영희’에 대해 재 언급하고 있지만 괄호 안 ‘아까 얘기했던 애 기억하지?’의 후속이 자연스럽다면, 청자가 해당 실체의 정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황을 예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용이 실패할 경우 (48B)에서처럼 청자는 해당 실체의 정체를 반문하게 된다.

비실재 실체에 대해 언급했었으나 그 존재가 합의되지 않은 (49)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9A)는 화자가 기 언급 실체이자 한정기술로 표현된 ‘프랑스왕’에 대해 재 언급하는 상황이다.

(49) A: 프랑스왕은 대머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B: 프랑스왕? 프랑스왕은 존재하질 않는데 무슨 소리야?

B': 아니야. 왜냐면 프랑스왕은 존재하질 않으니까.

그러나 ‘프랑스왕’은 실재하지 않고 언급됐다고 해도 그 존재를 ‘가장’하거나 ‘합의’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49B, B')에서처럼 청자는 반문하고 그 전제를 부정할 수 있다(Birner 2013).¹⁶⁸⁾ 수용 실패가 어색하지 않다.

‘연결 추론(bridging)’을 통해 담화 미등장 실체를 청자 지식 내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추론·지식’의 조합이 이에 해당한다. 담화 기등장 실체가 추론을 유발한다. ‘지식·비의식’ 조합과 유사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부분관계’ 등에서 비롯되는 부분성 및 대조성을 통해 한정기술을 도입한다는 점이 다르다. (33)에서 살펴본 가장 전형적인 경우를 (50)과 같이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다.

(50) A1: 소풍 도시락이 도착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B: 맥주는 여전히 차갑다.

A2: *맥주가 뭐야?

(50B)의 화자는 (50A1)의 ‘소풍 도시락’을 듣고 부분관계 설정을 통해, 언급된 바 없지만 청자의 지식 내에는 존재할 ‘맥주’를 한정성 실체로 도입하였다. 정관사가 없는 한국어에서는 명사구의 형식 자체가 이 사실을 보증하지 못한다. (50B)의 경우에는 조사 ‘는’이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는’은 비한정성 실체와는 통합되지 않기 때문이다.¹⁶⁹⁾ 한편 이 경우 (50A2)와 같은 반문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지식 내에 존재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정체에 대한 의문도 생기지 않는다.

‘표현 추론(containing·anchoring)’을 통해 현재 담화에서 언급된 적도 없고 청자가 이전에 알지도 못했던 실체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추론·비지식’ 조합이 이에 해당한다. 한정성 표현으로 실현될 수 있고 한정성 실체로 취급될 수 있는 외연은 여기까지라고 볼 수 있다. ‘추론·지식’ 조합과 상이한 점은 청자의 지식 내에 존재하지 않는 실체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언급된 바 없으나 기언급 실체나 한정성 표현을 기반으로 지식 외부에 있는 것이 추론된다. 미지 실체이기 때문에 수용되지

168) 부정은 내적 부정(internal negation)·기술적 부정(descriptive negation)과 외적 부정(external negation)·상위언어적 부정(metalinguistic negation)의 두 유형으로 나뉜다(Horn 1985). 상위언어적 부정이란, 명제 자체가 아니라 명제의 표현 방식에 대한 부정을 가리킨다. 비실재 실체에 대한 전제 취소에 대한 입장도 기술적 부정이라는 입장과 상위언어적 부정이라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는데, 전자로는 Cohen(2006) 등이 있고 후자로는 Abbott(2006) 등이 있다. 한편, McCawley(1991)은 상위언어적 부정으로 논의된 경우 역시 ‘대조 부정(contrastive negation)’의 일종이며, 대조 부정이 상위언어적 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169) 이에 대해서는 6.1절에서 후술한다.

못할 경우 존재 자체가 반문될 수 있다.

(51A)는 한정성 실체이자 표현인 ‘나’를 기반으로 청자 미지 실체인 ‘웬 남자’를 담화에 도입하는 경우이다. 비한정성 표지인 ‘웬’이 실현돼 있다는 점에서 비한정성 실체임이 증명된다(임흥빈 2007).

- (51) A: 내가 어제 만난 웬 남자는 나보다 말랐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B: 나는 그 남자가 너무 부럽다.
B': 그런 남자가 있어?

이 경우 해당 실체의 존재가 청자에게 인정된다면 (51B)와 같이 한정성 표현으로 조응될 수 있다. 반면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51B')과 같이 반문되고 수용이 실패할 수 있다.

부분성 표현도 이러한 조합의 일종으로 실현될 수 있다. (35나)에서 제시되었던 경우가 그러하다. (52A)에서는 ‘여기 달걀’이라는 한정성 실체이자 표현을 기반으로 청자 미지 실체인 ‘(달걀) 한 알’이 담화에 도입되고 있다. 비한정성 표지이자 부분성을 나타내는 ‘한’을 통해 비한정성 실체라는 점이 확인된다.

- (52) A: 여기 달걀 중에 한 알은 깨져 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B: 나는 그 달걀 좀 먹어야겠다.
B': 거기 달걀이 있어?

(51)과 마찬가지로, 해당 실체의 존재가 청자에게 인정된다면 (52B)와 같이 한정성 표현으로 조응될 것이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52B')과 같이 반문되고 수용이 실패할 것이다.

요컨대 실체의 지시적 기준성은 화자 입장에서 해당 실체가 청자의 인지상태 중 지식 및 의식 내에 있다고 가정하는 속성이며 이 속성은 청자의 지식 및 의식 내 존재하는 실체의 범위를 결정한다. 선택된 실체들은 고유명사, 한정기술, 지시사, 대명사 등을 통해 실현된다. 추론가능성을 포함하여 청자의 인지상태는 지식과 의식 간 조합에 따라 지식·의식, 지식·비의식, 비지식·의식, 추론·지식, 추론·비지식의 다섯 유형으로 나뉘지만, 기준성 표현과의 대응 양상은 절대적이지 않다. 화자가

가정한 청자의 인지상태 유형은 명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속 담화 양상으로 증명된다. 수용의 실패는 청자의 반문으로 나타난다.

3.3.2. 관계적 기존성

‘지시적 기존성’은 청자의 지식·의식 내에 있는 정보들의 합집합 즉 공유배경 내에 표현하려는 명제나 실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에 대해 화자가 전제나 한정성 표현으로 실현하게 하는 기존성이었다. 특정 어휘나 구문으로 표현되는 기존성이다. 이와 달리 어떤 사태를 표현할 때 개방명제나 실체가 주의에 이미 존재함으로써 문장의 통합 분절을 야기하는 기존성은 ‘관계적 기존성’이다. Gundel(1988)에서는 해당 개념이 화제-평언을 설명하는 데 주로 적용됐던 것과 달리 Gundel(1999)에서부터는 배경-초점을 설명하는 데 주로 적용되고 있다. 본고는 두 분절을 모두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해당 술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대표적인 두 분절인 배경-초점과 화제-평언은 구분되며, 그 구분을 주의의 대상과 관점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다. 동일한 문장은 (53)처럼 분석되기도 하고 (54)처럼 분석되기도 한다.

- (53) A: 영화는 뭐를 샀어?
B: 영화는_[배경] 책을_[초점] 샀어_[배경].
- (54) A: 영화는 뭐를 샀어?
B: 영화는_[화제] 책을 샀어_[평언].

(53B)는 배경-초점 분절로 분석된 경우로, ‘영화는 X를 샀어’가 배경이고 ‘책을’이 초점이다. 배경에 해당하는 개방명제가 청자의 주의 즉 가장 현저한 의식 내에 존재한다고 가정한 후 초점·의문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54B)는 화제-평언 분절로 분석된 경우로, ‘영화는’이 화제이고 ‘책을 샀어’가 평언이다. 화제에 해당하는 실체가 청자의 주의 내에 존재한다고 가정한 후 그 실체를 중심으로 정보를 첨가하거나 배열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두 분절을 구분하고자 했던 논의로는 Halliday(1967), Dahl(1974) 등이 있다. 그러나 Vallduví(1992)에서 카탈루냐어를 대상으로 두 분절이 통합된 삼분 구조를 제시한 이래로 그러한 관점은 분명히 쇠퇴했다. 최근의 논의로는 담화화제와 발화화제

를 구분하는 Roberts(2011) 정도를 들 수 있다.¹⁷⁰⁾ 정보구조를 분석하는 복수의 도구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거나 두 구조가 중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거나 하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돼 왔다(함병호 2018).

본고는 명제 층위의 분절과 문장 층위의 배열을 구분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두 관점이 분리되어야 할 필요성과 그 장점을 부각해 볼 것이다. ‘배경’은 ‘주의’를 부여받거나 주의에 기존하는 명제이고, ‘화제’는 ‘주의’를 부여받거나 주의에 기존하는 실체로 볼 수 있다. 어떤 명제를 문장으로 표현할 때 어순에 상관없이 개방명제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는 관점이 배경-초점이고, 어순을 중시하여 실체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는 관점이 화제-평언이다. 본고는 명제와 주의의 대응은 명제 층위의 범언어적인 현상이며, 실체와 주의의 대응은 어순이 자유롭고 표지가 다양한 언어들이 문장 층위에서 취하는 장치라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화제-평언은 반드시 명제 층위의 분절 즉 배경-초점을 전제로 한다.

3.3.2.1. 관계적 기존성의 기준: 주의

‘주의(attention)’는 복수의 대상 중 특정 대상에 의식을 초점화하여 집중하는 인지과정이자 인지상태이다(辻幸夫 편 2002). ‘현저성(salience)’이라고도 한다(Croft & Cruse 2004). Chafe(1994)의 ‘의식의 초점(focus of attention)’ 개념과 대응되며, 선택(selection)과 관련된다(Croft & Cruse 2004). 주의를 인지과정의 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입력들 간의 경쟁이다(Duncan, Humphrey & Ward 1997). 주의를 한 번에 하나의 정보만을 처리하므로,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별개의 대상(switch)이라면 별도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Garavan 1998). 동일한 대상을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경우(no-switch)에는 그보다 작업이 간단하다.

인간은 복수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고 언어도 인지과정 중 하나라면, 문장 발화의 매 순간에도 선택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매 순간 주의에 현저하게 주어진 대상을 중심으로 정보를 구성하고 배열한다. 주의에 현저하게 주어진 개방명제를 중심으로 사태에 대한 명제를 구성한다. 그렇게 구성된 명제 내 실체 중 주의에 현저하게 주어진 실체를 중심으로 성분을 배열함으로써 해당 명제

170) 화제와 초점을 분리하고자 하는 태도가 관찰되는 논의로 정희자(1996)도 있다. Ward & Birner(2001, 2011) 일련의 논의에서도 배경-초점을 명제 층위의 문제로, 화제-평언을 성분 층위의 문제로 분리하여 취급하는 태도가 관찰된다.

를 문장으로 표현한다. 그렇게 선택된 명제나 실체도 전환되거나 승계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언어가 모든 문장을 주의 실체를 중심으로 배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언어는 주의가 전환될 때에만 해당 성분을 중심으로 특수한 어순을 구현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해당 언어의 어순이 자유롭고 표지가 발달해 있다면 주의가 전환될 때든 승계될 때든 주의 실체를 중심으로 한 배열이 가능해진다. Langacker(2001, 2009)에서도 화제를 설명하는 데 주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때 화제는 모두 문두 구문에 해당한다.¹⁷¹⁾ 이 논의에서는 주의 내 선택된 대상이 화제로서 참조점(referent point)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정병철(2010)에서는 ‘는’과 ‘가’에 대해 논의할 때 주의 개념을 활용하면서, ‘는’은 비자동적인 내인성 주의 과정과 관련되고 ‘가’는 자동적인 외인성 주의 과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3.3.2.2. 관계적 기존성의 실현

명제에 대한 관계적 기존성은 배경과 대응되고 실체에 대한 지시적 기존성은 화제와 대응된다. 명제를 구성할 때 의식의 가장 현저한 부분인 주의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으로 의도되는 개방명제를 배경으로 간주한다. 화제는 명제를 문장으로 표현할 때 의식의 가장 현저한 부분인 주의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으로 의도되는 실체로 파악한다.

3.3.2.2.1. 배경

본고는 담화는 질문과 대답의 연속이며, 명시적 질문이 존재하지 않아도 그에 대응되는 암시적 질문을 설정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어떤 문장으로 어떤 발화를 하든 그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하지 않는다면 명제의 분절 양상은 물론이고 담화의 조직 및 진행 양상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이때 질문이라는 것은 개방명제(Ward & Birner 2011)와 의문사의 조합이며, 개방명제라는 것은 바로 ‘활성화’ 명제(Dryer 1996)와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171) Langacker(2009: 48)에서 제시한 예문은 (i)과 같다. 모두 좌측전위 구문에 해당한다.

- (i) a. Your uncle, he really should get married.
네 삼촌, 그는 꼭 결혼을 해야 한다.
- b. That color, I just don't like it.
저 색깔, 나는 그냥 그게 싫어.

배경-초점 분절의 본질이다.

‘화자가 청자의 의식 중 주의를 주어져 있다고 화자가 의도하는 명제’인 ‘배경’에 ‘의문사에 대한 대답’인 ‘초점’¹⁷²⁾이 보충됨으로써 하나의 사태가 표상된다.¹⁷³⁾ 청자가 명시적 질문을 한 경우, 그 질문은 설명의문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설명의문문이면 화자는 의문사가 제외된 부분이 청자 주의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해당 의문사에 대한 대답을 초점으로 보충할 것이다. 비설명의문문이면 화자는 해당 질문을 설명의문문으로 재구성한 후 설명의문문일 때와 동일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명시적 질문을 하지 않은 경우, 화자는 청자 주의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명제를 중심으로 암시적 질문·설명의를문문을 상정한 후 역시 동일한 과정을 밟을 것이다.¹⁷⁴⁾

배경은 ‘주의 명제’이며 초점은 ‘언제, 누가·어떤 것이, 어디서, 무엇을·어떤 것을, 어떻게, 왜, 얼마나’ 모두에 대응될 수 있다. 배경-초점 분절에 대한 논의는 대개 유효적인 정보인 초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명제의 배경-초점 분절은 문장으로 실현될 때 다양한 구문을 취할 수 있다. 명제 분절이 복문(complex sentence)으로 구조화되는 ‘분열문’이 배경-초점의 가장 대표적인 구문이다. 분열문과 비분열문으로 나누어 배경-초점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분열문(cleft sentence)은 명제 분절이 관계절과 분열요소로 분리되어 복문으로 실현된 문장이다.¹⁷⁵⁾ ‘분열요소와 관계절 간의 동일관계를 표현하는 구성’(Collins 1991: 2)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분열문은 언어별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실현될 수 있다. 예컨대 영어에는 (55가)의 ‘it’-분열문과 (55나)의 WH-분열문이 있다(Prince 1978: 883).¹⁷⁶⁾

172) ‘초점’에 대한 정의는 ‘명시적·암시적 설명의문문 질문에 대응되는 대답 문장 내 의문사에 대한 대답 부분’(Gundel 1999: 295)을 수용한 것이다.

173) 이때 초점만이 아닌 전체 명제에 대한 단언이 공유배경으로 갱신된다(Hole 2004: 3-4).

174) 본고는 2장에서 정립한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6장에서 언어자료 즉 ‘2007년 남북정상 회담 대화록’을 분석한다.

175) 최윤지(2008, 2016)에 의하면 이 명칭은 Jespersen(1937)에서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176) 도치 WH-분열문도 있다(최윤지 2016: 243). 관계절이 분열요소보다 후행한다.

(i) His keys were is what John lost.

- (55) 가. It was his keys that John lost.
 나. What John lost was his keys.
 다. 존이 잃어버린 것은 열쇠였다.

(55가)를 ‘분열문’, (55나)를 ‘의사분열문’으로 각각 칭하기도 하므로(Prince 1978: 883), 본고도 이러한 명칭을 사용한다. 분열문에서는 분열요소가 선행하고 관계절이 후행하는 데 반해 의사분열문에서는 관계절이 문두 실현되고 분열요소가 그에 후행한다. 노르웨이어의 분열문도 영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Gundel 2002, 2006). (56나)가 (56가)의 영어 분열문에 대응되는 노르웨이어 분열문이다.

- (56) 가. It was Nielsen who won.
 나. Det var Nielsen som vant.
 it was Nielsen who won
 다. 이긴 것은 닐센이었다.

한국어에는 (57가)의 ‘것은’ 분열문과 (57나)의 ‘것이’ 분열문이 있다(최윤지 2016).¹⁷⁷⁾ (57가, 나) 모두 관계절과 ‘것’¹⁷⁸⁾이 문두 실현돼 있고 상이한 것은 조사뿐이다.

- (57) 가. 영희가 만난 것은 개다.
 나. 영희가 만난 것이 개다.

두 분열문의 차이는 ‘상대적 정보지위’에 있다. (57가)의 문두 ‘것은’ 관계절은 항상 ‘화제’를 표시하는 반면, (57나)의 ‘것이’ 관계절은 다양한 정보지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최윤지 2016: 252-258).¹⁷⁹⁾

177) ‘것은’ 분열문은 ‘관계절+것은’ 분열요소+이다’의 구조를 가지고 ‘것이’ 분열문은 ‘관계절+것이’ 분열요소+이다’의 구조를 가진다. 최윤지(2008)에서는 ‘분열요소+’는 ‘관계절+’ 것이다’ 구조와 ‘분열요소+’가 ‘관계절+’ 것이다’ 구조도 인정했었으나, 최윤지(2016)에서는 이러한 ‘도치 분열문’은 분열문에서 제외하였다. 이때의 분열요소는 구체적 실체여야 한다는 의미론적 제약이 있다(최윤지 2016: 250-251).

178) 문숙영(2017)에서는 ‘-은 것’, ‘-을 것’을 ‘-음’, ‘-기’에 준하는 명사화소로 인정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분열문의 관계절과 ‘것’은 개념상 반드시 복문을 구성해야 하므로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179) 최윤지(2016)은 준분열문에 대해 논의하고 있기도 하다. 최윤지(2016: 196)에 제시된 것을 약간 수정하여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헝가리어와 관련해서는 영어의 분열문에 상응하는 ‘초점 위치(focus position)’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Kiss 1998). 이때 초점 위치란 ‘동사 직전 위치’를 가리킨다. (58가)는 비분열문이고 (58나)는 분열문으로(Kiss 1998: 249), 밑줄친 부분이 분열요소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든 헝가리어에서 계사는 실현되지 않는다(Wedgwood, Pethő & Cann 2006: 2).

(58) 가. Mari ki nézett magának egy kalapot.

나. Mari egy kalapot nézett ki magának.

Mary a hat(대적) picked out herself(대적)

메리가 자신을 위해 집어든 것은 모자였다.

Kiss(1998)은 (58나)의 분열요소에 대해 ‘확인초점(identificational focus)’이라고 명명하며 해당 실체가 총망라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58가)의 밑줄친 성분은 ‘정보초점(informational focus)’로 명명되며 강세와 관련된다고 본다.¹⁸⁰⁾

어떠한 형식으로 실현되든 분열문의 관계절은 화용론적 전제로, 화자와 청자의 공유배경 내에 존재한다고 화자가 가정하는 명제이다. 즉 화자가 청자의 지식과 의식 내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지시적 기준성의 명제로 개방명제의 형태를 띤다. 본고의 논의대로라면 관계절 개방명제의 인지상태는 지식·의식, 지식·비의식, 비지식·의식 중 하나에 속할 것이다. 그리고 분열문 내에서 해당 개방명제는 배경-초

- (i) a. 중요한 거는 [어떡하면 내 걸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b.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간에 한 번 바꾸세요].

각각 (ia)는 ‘중복 분열문’, (ib)는 ‘열린 분열문’이라고 한다. 이들을 ‘정규적인 분열문’(최윤지 2016)으로 바꿔 보면 다음과 같다.

- (ii) a. 중요한 거는 [어떡하면 내 걸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b.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간에 한 번 바꾸시라는 거]예요.

최윤지(2016)은 이러한 준분열문은 단순한 발화 오류가 아니므로 문법의 일부로 논의될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180) 영어의 분열문과 헝가리어의 초점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논의들도 있다. Bende-Farkas(2006)은 헝가리어의 초점 위치는 강세 초점의 특성과 총망라성이 조합된 특성을 지닌다고 본다. 한편 Wedgwood, Pethő & Cann(2006)은 미명세 의미론(underspecified semantics)의 입장에서 헝가리어의 초점 위치는 총망라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서술적 분석(predicative analysis)을 제시한다.

점 분절 중 배경에 속하거나 초점에 속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Prince(1978)은 관계절 개방명제의 인지상태에 따라 분열문의 형식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분열문은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강제 초점(stressed-focus) 분열문'과 언급되지 않은 명제를 아는 것처럼 도입할 때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적 전제(informative-presupposition) 분열문'으로 나뉜다. 본고의 분류대로라면 전자는 관계절 개방명제가 지식·의식 혹은 비지식·의식 명제, 후자는 지식·비의식 명제인 것으로 각각 볼 수 있을 것이다. 의사분열문에 대해서는 Chafe(1976)의 '의식'에 해당하는 명제를 관계절로 가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의식'을 '기활성·기언급'의 의미로 사용했는지 '주의'의 의미로 사용했는지가 분명치 못하다.

Gundel(1985: 97-98)은 Prince(1978)이 '의식'을 '기활성·기언급'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보고 그러한 분석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의사분열문은 담화 도입부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Gundel(1985)은 의식이든 비의식이든 상관없이 의사분열문의 관계절은 '배경'으로 사용된다고 보았다. '주의'의 의미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분열문에 대해서는 관계절 개방명제가 강세를 받지 않으면 배경이고 강세를 받으면 초점이라고 이해한 듯하다. 비강세 관계절을 가지는 분열문은 Prince(1978)의 강제 초점 분열문에 해당하고, 강세 관계절을 가지는 분열문은 정보적 전제 분열문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이러한 견해를 종합한다면 정보적 전제 분열문의 미언급·비의식 전제는 초점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¹⁸¹⁾

본고는 관계절로 실현되는 명제라면 당연히 화용론적 전제이고 지식·의식, 지식·비의식, 비지식·의식 중 하나에 속하는 지시적 기존성의 대상이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관점은 분열문 관계절이 가지는 지시적 기존성에 대한 Prince(1978)의 분석과도 양립된다. 해당 개방명제가 지식·의식, 비지식·의식이라면 강제 초점 분열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고 지식·비의식이라면 정보적 전제 분열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분열문 내 관계절 개방명제의 지시적 기존성에 대한 태도는 Gundel(1985)와 유사하다. 의식 여부에 상관없이 화용론적 전제에 속하는 모든 명제가 관계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81) 최윤지(2017)은 준분열문 중 '열린 분열문'이 이러한 정보적 전제 분열문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 경우 '것'은 조사 '가'와만 통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는 '가'가 주로 배경-초점의 초점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고 본다. 지시적 기존성 영역의 지식·비의식 전제 명제와 관계적 기존성 영역의 초점 간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전제’인 분열문 관계절 개방명제의 관계적 기존성에 대해서는 Gundel(1985)와 양립 가능하다. 분열문은 명제 분절이 관계절과 분열요소로 분리돼 실현된 복문이지만, 이때 보증되는 것은 분절이 있다는 사실과 관계절이 전제라는 사실뿐이며 관계절은 배경에 해당될 수도 있고 초점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고는 지시적 기존성을 가지는 전제가 반드시 배경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는 (59)와 (60)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59) A: 영희가 누구를 만났어?
 B: 영희는 개를 만났어.
 B': 영희가 만난 건 개야. [배경]
- (60) A: 개는 어떤 애야?
 B: 개는 영희가 만난 애야.
 B': 영희가 만난 게 개야. [초점]

(59A)에서 밑줄친 주의 명제·배경은 ‘영희가 누군가를 만났다’ 혹은 ‘영희가 X를 만났다’이고 초점은 의문사 ‘누구’에 대한 대답인 ‘개’이다. 즉 배경과 전제가 일치한다. 상이한 구조를 선택한 (59B)와 (59B')에서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반면 (60)에서 주의 명제·배경은 ‘개는 어떠한 애다’ 혹은 ‘개는 X한 애다’이다. 초점은 (60B)라면 밑줄친 ‘영희가 만난 애’이고, (60B')이라면 밑줄친 관계절 ‘영희가 만난 게’가 될 것이다. (59)의 경우에는 (60)과 달리 배경이 아닌 초점이 전제와 일치한다. 분열문의 관계절은 지시적 기존성의 관점에서는 항상 전제이지만 관계적 기존성의 관점에서는 배경일 수도 있고 초점일 수도 있다.

사태의 표상인 ‘명제’의 분절을 자동적으로 관계절과 분열요소를 통해 표시하는 분열문과 달리, 비분열문에는 대응 명제가 무분절인 경우도 존재한다. 문장 전체가 초점이면서 생략된 배경도 없는 ‘전체초점’ 혹은 ‘전체 문장초점’¹⁸²⁾(Lambrecht 1987, 1994)이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전체 문장초점은 매우 유표적인 경우로 (Rosengren 1997, 전영철 2013), 보통 담화 도입부에서만 발견된다고 보아야 한다. 배경이 없다는 것은 이전 문장과 의미상 연결되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고, 이전 문장과 단절된 문장들의 단순한 나열만으로는 담화를 조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담화

182) ‘전체 문장초점’이라는 술어는 ‘성분 문장초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성분 문장초점은 문장이 상위 명제 내 실체·논항으로 기능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후술된다.

는 문장들의 집합 이상의 응집성(coherence)을 가져야 한다(Brown & Yule 1983: 73-74).¹⁸³⁾

무분절의 명제를 표현하는 문장은 '제언문(thetic sentence)'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태 전체에 대해 한 단위로 제시하는 경우이다. 명제를 주술 관계로 파악한 Aristotelis(연도미상)(김진성 역주 2008) 이래로, 어떤 사태에 대한 인간의 판단은 주어와 술어가 조합된 형태를 띠는 것으로 간주됐고 이러한 전통은 계속 유지돼 왔다. 그러나 Brentano(1867)에 이르러 그러한 인식에 변화가 온다. Brentano(1867)은 인간의 판단에는 어떤 존재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만을 제시하는 '단일판단(single judgement)'도 존재하며, 더 나아가 이것이 인간 판단의 더 기본적인 형태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기존의 주술 관계는 어떤 '존재'인 '주어'에 대한 판단과 그 존재의 '속성'인 '술어'에 대한 판단이 조합된 '이중판단(double judgement)'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간주된다.¹⁸⁴⁾ 단일판단은 '제언적(thetic)'인 것으로, 이중판단은 '정언적(categorical)'인 것으로 각각 명명된다. 제언문은 단일판단·제언판단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사태를 분절하지 않고 표현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비교적 개념은 명쾌하나, 무분절의 명제가 어떤 언어형식을 통해 실현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논의돼 왔다. '제언성(theticity)'을 인지범주로 간주하느냐 문법범주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문법범주 중에서도 형태론적 요소로 논의하느냐 통사론적 요소로 논의하느냐에 따라 제언문의 범위는 달리 설정될 수 있다.

제언문의 존재 혹은 제언문과 정언문의 구분을 언어학에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은 Kuroda(1972)이다. 이 논의는 일본어에서 제언문은 (61가)와 같이 'ga'와 관련되고 정언문은 (61나)와 같이 'wa'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다. (62가, 나)는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의 경우이다.¹⁸⁵⁾

183) Brown & Yule(1983)에서 언급된 것은 '사고장애(thought disorder)' 환자의 경우로, 비환자들과 달리 이들이 나열한 문장들은 어휘적으로는 연결되지만 의미적으로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 전체 문장초점들의 나열과 동일한 경우는 아니지만 의미상 단절이라는 기본적인 상황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184) '판단'에 대한 견해는 Brentano(1867)[Rancurello, Terrell & McAlister(trans.)(1973)]의 7장과 부록에 부분적으로 기술돼 있다. 제언판단과 정언판단의 구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Kuroda(1972, 2005), Sasse(1987), Rosengren(1997), 조은영(2004), 임동훈(2005), 전영철(201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85) 한국어 논의에서는 임흥빈(1972)에서 이러한 구분이 최초로 논의되었다.

- (61) 가. Inu ga hashitte iru.
 나. Inu wa hashitte iru.
- (62) 가. 개가 뛰고 있다.
 나. 개는 뛰고 있다.

(61가), (62가)에서는 ‘개가 뛰고 있다’라는 사태가 무분절로 표상되고 있고 (61가), (62나)에서는 ‘개’의 ‘존재’와 ‘뛰고 있다’라는 ‘속성’이 분절되어 표상되고 있다고 본다. 그 구분을 형태론의 영역인 조사가 담당하는 것이다. Kuroda(2005)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관점이 강화되고 완성되어, ‘ga’가 실현된 문장은 모두 제언문으로 간주된다.¹⁸⁶⁾

제언문을 통사론의 영역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임동훈(2005)는 통사론적으로 주술 관계가 분명치 않아 서술성(predicativity)이 결여된 것으로 취급되는 (63)과 같은 ‘이다’ 구문을 제언문으로 분류하고,¹⁸⁷⁾ 이를 ‘이다’ 구문의 원형으로 간주한다.¹⁸⁸⁾ 현대 한국어에서 전형적인 ‘이다’ 구문은 2항술어이지만 (63)의 밑줄친 ‘이다’ 구문

186) ‘wa’가 실현된 문장은 정언문으로 간주된다.

187) 임동훈(2005)의 표현으로는 ‘X-이다’ 구문이다. ‘제언문’에 해당하는 술어로는 ‘제시문’을 사용하였다.

188) 원형인 ‘X-이다’ 구문에서 확장된 것이 ‘X-이 Y-이다’ 구문이라고 본다. 한편 ‘나는 냉면이다!’와 같은 ‘이다’ 구문도 제언문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이때 ‘나는’은 주어가 아니라 부사어의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현장 발화에 국한되지 않는 ‘밑져야 본전이다’와 같은 관용구 등도 X에 위치해 제언문을 구성한다고 본다. 후술할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명제 분절과 대응 질문을 중시하므로 상위 명제 내 논항·실체로 해당 구문이 실현될 경우에는 제언문으로 보지 않는다.

- (i) A: 이번 도전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B: 밑져야 본전이지.
 B': (나는 이번 도전에 대해)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해).

밑줄친 (iB와 (iB')의 형식은 분명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본고는 ‘어떻게’라는 의문사에 대한 대답 즉 초점이라는 점에서는 두 표현이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고 보고자 한다. 현장 발화만을 제언문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 (ii) A: 무슨 일이야?
 B: *밑져야 본전이야.

전체 사태에 대해 무분절로 표상할 것을 요구하는 질문 (iiA)에 대해 (iiB)로는 대답할 수 없다.

은 그렇지 않다.

(63) 야! 눈이다! 밖에 눈이 와.

(임동훈 2005: 120)

(63)에는 주어가 실현되지 않아 주술 관계가 성립될 수 없고 어떤 실체나 상황의 존재만 제시돼 있으므로, 제언문의 개념에 가장 적합하다. 실제로 날씨에 대한 표현은 가장 전형적인 제언문으로 알려져 있다.

‘존재문(existential sentence)’도 제언문의 전형이다. Sasse(1987)은 상술한 입장들과 달리 어떤 형태론적 표지나 통사론적 구문이 제언문의 실현 혹은 제언문과 정언문의 구분을 모두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제언문의 실현이나 제언문과 정언문의 구분에는 담화화용론적 개념이 작용한다고 보았다. 다만 제언문의 실현을 일곱 가지 경우로 분류하면서(Sasse 1987: 566-567), 비인칭의 날씨 표현이나 존재문¹⁸⁹⁾과 같은 통사론적 구문도 그 안에 포함시켰다. 사태 설명,¹⁹⁰⁾ 예외 사태,¹⁹¹⁾ 경구, 배경 기술, 신체 부위에 대한 표현 등도 제언문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우로 취급된다.

특히 제언문을 어떤 존재가 제시되느냐에 따라 실체의 존재를 도입하는 ‘실체 중심’ 제언문과 사태의 존재를 도입하는 ‘사태(event) 중심’ 제언문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Sasse 1987: 526-527), 전자가 존재문에 해당한다.¹⁹²⁾ (64)와 같은 존재문에서 ‘가방’은 비한정성 실체로만 해석된다.

(64) 책상에 가방이 있다.

존재문은 비한정성 표현을 선호하는 ‘한정성 제약(definiteness restriction)’을 가지는 것으로 논의된다(전영철 2002). 지시적 기준성을 가지지 못한 실체가 담화로 도입된

189) Sasse(1987: 566)은 ‘존재문(existential statement)’을 존재, 출현, 계속 등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긍정문, 부정문 모두 해당된다.

190) 후술할 ‘What happened?’에 대한 대답을 가리킨다.

191) ‘사태 설명’의 ‘사태’는 본고가 첨가한 것이고, ‘예외 사태’의 ‘사태’는 ‘event’를 번역한 것이다.

192) 러시아어의 존재문에 대해 논의한 송은지(2012)도 동일한 분류를 행하였다. Sasse(1987)의 사태 중심 제언문을 ‘사건 제시문’이라고 하면서, 사건 제시문에 대해 원형인 존재문 즉 실체 중심 제언문에서 방사법주를 형성하며 확장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다는 사실을 단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한정성 표현의 등장이 제약되는 것이다.¹⁹³⁾

한편 사태 중심 제언문은 사태 전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한 통사론적 구문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언문과 동일한 형태를 띠 수 있다.¹⁹⁴⁾ Sasse(1987)은 제언문과 정언문의 구분 문제를 정보구조의 영역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지만, '기대(expectation)'와 같은 담화화용론적인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보았다.¹⁹⁵⁾ (65)는 독일어의 경우로 (65가)는 제언문, (65나)는 정언문에 각각 해당된다(Sasse 1987: 528-529).¹⁹⁶⁾

(65) 가. Das BRAThendi ist angebrannt.

the chicken is burnt
닭고기가 다 타 버렸어.

나. Das BRAThendi ist ANgebrannt.

닭고기가/는 다 타 버렸어.

부엌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가정했을 때, (65가)의 청자는 사태 전체에 대한 설명을 기대한 것이고¹⁹⁷⁾ (65나)의 청자는 '닭고기'에 대한 정보를 기대한 것이다. 전자는 사태를 무분절로, 후자는 사태를 분절로 각각 표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언문의 실현 혹은 제언문과 정언문의 구분을 적극적으로 정보구조의 영역에 도입한 것은 Lambrecht(1987, 1994)이다. Lambrecht(1994)는 제언문과 정언문의 구분을 시도하기도 하고, '초점 구조'를 세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66), (67)은 각각 제언문과 정언문으로 제시된 경우이며(Lambrecht 1994: 137), (68)-(70)은 각각 문장 초점, 서술어 초점, 논항초점 구조로 분류된 경우이다(Lambrecht 1994: 223).¹⁹⁸⁾ (67

193) 그러나 '가방에'에 일정한 강세가 없힐 경우 그러한 한정성 제약은 중화되고, 존재문의 기능이 상실된다(전영철 2002: 89).

194) 강세의 차이는 있다. 강세는 구어에서만 실현되는 것이므로 여전히 표지나 구문의 문제는 아니다.

195) 이때 Sasse(1987)이 논의하는 정보구조는 지시적 기준성, 지시적 기준성, 절대적 정보지위와 더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196) 대문자는 강세를 의미한다. (65가)와 같은 주어 단독 강세는 제언문을 표시한다고 한다. 한국어로는 (65가)의 경우 '가'만 실현될 수 있고, (65나)의 경우 상황에 따라 '가'와 '는' 모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옮겨 보았다.

197) 제언문의 일곱 가지 유형 중 '사태 설명'에 해당한다. 사태 설명은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등에 대한 대답이라고 언급돼 있다.

나)와 (69나)는 ‘화제-평언’ 구조로 파악되기도 한다. Lambrecht(1994)는 ‘제언성’을 인지범주로 취급하여, 제언문과 정언문의 구분이 정보구조의 분절과 대응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66) 제언문

A: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이야?

B: My NECK hurts.

목이 아파.

(67) 정언문

A: How's your neck?

목은 어때?

B: My neck HURTS.

목은 아파.

(68) 문장초점 구조

A: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B: My CAR broke down.

차가 고장 났어.

(69) 서술어 초점 구조

A: What happened to your car?

차에 무슨 일이야?

B: My car/It broke DOWN.

차는/가 고장 났어.

(70) 논항초점 구조

A: I heard your motorcycle broke down.¹⁹⁹⁾

자전거가 고장 났다며.

B: My CAR broke down.

차가 고장 났어.

198) (6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문자는 강세를 의미한다.

199) (70A)는 질문의 형태가 아니지만, 본고의 관점에서라면 (70B)의 화자는 (70A)를 ‘뭐가 고장 났어?’라는 암시적 질문으로 상정한 후 대답한 것이다.

(66)과 (67)은 동일한 문장이지만, 대응 질문과 강세는 상이하다. (66B)는 (66A)의 ‘무슨 일이야?’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실현되어 제언문으로 분석되었고, 주어 명사구가 강세를 받았다. 해당 질문은 배경을 포함하지 않고 그에 대한 대답은 전체 사태를 한 단위로 표상한다. 반면 (67B)는 ‘목은 X하다’가 주의 명제·배경인 (67A)의 ‘목은 어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실현되어 정언문으로 분석되었고, 초점인 ‘아파’가 강세를 받았다. (66)은 전체 사태를 무분절의 명제로 표상하여 질문·대답한 반면, (67)은 분절된 명제로 각각 표상하여 질문·대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어에서만 실현되는 강세를 제외한다면, 명제의 분절 여부는 대응 질문을 통해 판별된다.

(68)과 (69)의 관계도 상황은 같다. (68B)는 (68A)의 ‘무슨 일이야?’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문장초점(sentence focus)으로 분석된다. 이 질문은 전체 사태를 무분절의 명제로 표상하여 대답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반해 (68B)는 ‘차는 X하다’라는 주의 명제·배경을 포함하는 (68A)에 대한 대답이고, 이때 요구·보충되는 정보 즉 초점은 술어 ‘X하다’에 해당하는 서술어 ‘고장 났어’이다. 서술어 초점(predicate focus)²⁰⁰으로 분석된다. 제언문과 문장초점, 정언문과 서술어 초점은 각각 동일한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유형을 가르는 기준은 대응 질문이 명제 분절 즉 주의 명제·배경을 포함하고 요구하는지 여부가 된다.

이러한 관점은 제언문에 대한 Kuroda(1972), Sasse(1987), 임동훈(2005)의 입장에도 양립한다.²⁰¹ Kuroda(1972), Sasse(1987)에서 제시한 정언문의 경우 역시 모두

200) 문장성분을 지시하므로 ‘predicate’에 대해 ‘서술어’라는 술어를 사용한다. ‘술어’는 의미론·논리학에서 흔히 사용된다.

201) 실제로 Kuroda(1972), 임동훈(2005)이 반드시 명시적 질문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시된 제언문의 경우 모두 ‘무슨 일이야?’라는 암시적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으로 분석해도 무리가 없다.

- (i) A: 무슨 일이야?
B: 개가 뛰고 있어.
- (ii) A: 무슨 일이야?
B: 눈이야!

이때 전체 문장초점을 요구하는 질문이 반드시 ‘무슨 일이야?’일 필요는 없다. 전체 사태를 무분절로 표상하여 대답할 것을 요구하는 ‘What happened?’나 ‘What’s the matter?’에 대응되는 한국어로서 해당 번역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무슨 일 있어?’

(67), (69)와 같이 문장의 배경은 주어틀 포함하고, 초점으로는 서술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⁰²⁾ 문제는 (70)과 같은 논항초점(argument focus)의 경우이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정형 어순(canonical word order)'이고 '정규 논항'(임흥빈·이홍식 2002)인 '주어 초점'의 경우가 논란이 된다. 조사를 가지는 한국어의 경우에는 '가' 주어인지, '는' 주어인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Lambrecht(1994)는 (68B), (69B)의 화제-평언 구조만을 정언문과 대응시키고, (70B)의 논항초점 구조 즉 주어 초점의 경우는 정언문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를 제언문으로 판단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문장초점과 논항초점 모두 주어가 강세를 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후자가 제언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Lambrecht(1987, 1994)는 제언문과 정언문의 구분이 정보구조의 분절에 대응된다는 관점을 취한다. 이러한 태도를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주어 초점이 둘 중 무엇으로 분석될지 의문을 품을 수 있다.²⁰³⁾ (71B)를 제언문으로 판단하는 논의로는 조은영(2004: 197)가 있고,²⁰⁴⁾ 정언문으로 판단하는 논의로는 전영철(2013: 122)이 있다. 본고는 후자의 관점을 따른다.

- (71) A: 누가 창문을 켜니?
 B: 영희가 창문을 켜어요.

조은영(2004)는 (71B)의 주어 초점은 '화제'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문두의 '비

'무슨 일 냐어?' 등도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Sasse(1987: 529)에는 'What the hell is this stench?'라는 명시적 질문이 언급돼 있다. '이 악취는 대체 뭐야?'로 직역될 수 있지만, 악취가 가득 퍼진 전체 사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암시적 질문 '무슨 일이야?'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202) 실제로 Kuroda(1972), Sasse(1987)이 반드시 명시적 질문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시된 정언문의 경우 모두 'X는 뭐 해?' 혹은 'X는 언제?'라는 암시적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으로 분석해도 무리가 없다.

- (i) A: 개는 뭐 하나?
 B: 개는 뛰고 있어.
 (ii) A: 닭고기는 어떻게 됐어?
 B: 닭고기는 다 타 버렸어.

203) 함병호(2016: 315-317)에도 동일한 해석이 언급돼 있다.

204) 이러한 태도를 수용하지는 않지만, Kuroda(2005)라면 'ga'를 제언문의 표지처럼 취급하므로, 'ga'에 대응되는 '가'가 실현된 (71B)도 제언문으로 분석할 것이다.

정형 어순' 비주어 성분이나 '배경(frame)' 부사어 성분은 '화제'로 취급한다. 본고의 관점과 이 부분에서 일치한다. 전영철(2013)도 주어 초점을 '화제'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본고의 관점에서 주의 명제·배경인 '창문을 켜다'를 초점과 대비되는 '화제'로 간주한다. 다만 (71B)에도 '분절'은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이 본고의 관점과 동일하다. 두 논의의 본질적인 차이는 '분절'의 층위를 어디로 파악하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다.²⁰⁵⁾

정언판단의 본질은 존재와 존재의 속성을 분절하는 데 있다. 본고의 관점에서라면 사태를 실체와 양식으로 분절하는 것이다. 이 분절은 명제 층위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태를 표상하는 것은 명제 층위에서 논의될 문제인 데다, 상이한 문장도 동일한 명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71B)와 (72B)는 모두 'X가 창문을 켜다'라는 배경을 가지지만 문장 층위에서의 실현 양상은 상이하다.

(72) A: 누가 창문을 켜니?

B: 창문을 켜 건 영희예요.

(71B)는 비분열문이고, (72B)는 문장 층위에서 필수적으로 분절을 실현시키는 분열문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71B)와 (72B)가 모두 '영희가 창문을 켜다'라고 하는 명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71나)에는 분절이 없지만 (72)에는 분절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본고는 배경-초점 분절이 정언문의 본질이라고 본다. 사태를 표상하는 명제 층위에서부터 실체와 양식의 분절 여부는 결정되며, 설명의문문 형식의 대응 질문이 그 분절을 보증한다. 화자는 청자의 주의 내에 그 분절을 반영하는 어떤 개방명제가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며, 명시적 질문으로 실현되든 되지 않든 그 개방명제를 대응 질문으로 상정하고 의문사에 대한 대답을 제공한다. 이때 주의 명제인 배경과 상보적인 관계로서 의문사에 해당하는 초점은 '언제, 누가·어떤 것이, 어디서, 무엇을·어떤 것을, 어떻게, 왜, 얼마나'에 대한 대답으로 실현된다. 이는 '성분초점'에 해당한다. 제언문과 상응하는 '전체 문장초점'과 구분된다.

배경-초점 분절의 정언문 내에 실현된 성분초점은 명사구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205) 함병호(2016)은 두 논의의 차이는 어떤 분절을 선택하고 '화제'를 무엇으로 보는지에 있다고 보았다.

분열문의 경우에서처럼 관계절 등의 절로 실현될 수도 있었다. 더욱이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한 대답인 경우 절은 물론이고 문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반말체 종결어미로 표시되었던 전체의 문장들도 대개 (73)과 같이 ‘왜’에 대한 대답으로 실현된 경우이다.²⁰⁶⁾

(73) A: 영희는 왜 개를 만났어?

B: 영희는 아프잖아.

B': 영희는 아프니까.

B'': 영희가 아파.

(73B)는 (73B')과 마찬가지로 (73A)의 ‘왜’에 대응되는 대답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은 초점되면서 문장이지만 대응 질문이 정언문이고 상위 명제에 대한 논항·실체로 기능하므로, ‘전체 문장초점’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분 문장초점’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배경이 생략된 성분초점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배경이 주의 명제라면 주의를 수시로 전환되거나 승계되므로, 승계된 경우 해당 명제는 문장으로 실현될 때 생략될 수 있다. 논의를 확장한다면 (73B'')도 성분 문장초점으로서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3.2.2. 화제

배경-초점 분절은 어순을 중시하지 않는다. 성분성도 중요시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가 분절돼 있으며, 그 명제가 실현된 문장은 정언문이라는 점이다.²⁰⁷⁾ 그러나 범언어적으로 어순은 소통과 담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고는 명제의 분절에 더해 문두와 성분성을 중시하는 관점이 화제-평언 분절이라고 본다. 문두 실체를 중심으로 문장의 분절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지시적 기준성이 어휘나 구문을 선택하는 문제였다면, 관계적 기준성은 분절을 문장으로 실현하는 문제이다.

본고에서 화제는 ‘정언문 내의 주의 실체’이자 ‘문두 배치되어 문장 분절을 야기

206) 최윤지(2016)에서는 이러한 예들을 전체초점의 일종으로 보고 전체초점 혹은 제언문이 담화에서 빈번하게 출현하는 것으로 논의한 바 있다.

207) 구어에서는 강세가 주의를 전환·승계를 표시하고 이러한 분절을 구현하는 데 사용된다. 휴지도 분절에 사용된다.

하는 주의 실체'로 정의된다. '완전명세 명제'는 주의 명제인 배경에 의문사에 대한 대답인 초점이 보충된 형태를 띤다. 주의 실체는 화자가 청자의 의식 내에서 가장 현저하다거나 혹은 현저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실체이며, 그 현저성은 문두 위치로 반영된다. 화자는 분절된 완전명세 명제에서 하나의 실체를 선택하여 문두에 배치한다. 이를 통해 어순과 관련된 분절이 형성된다. '심리주어' 개념과도 상통하여 평언이 '심리술어'에 대응된다(von Heusinger 1999, Gómez-González 2001). 발화화제(Roberts 2011), 비정형어순 성분(Ward & Birner 2011) 등도 관련된다.

명제에 주의를 부여하는 일과 실체에 주의를 부여하는 일이 구분될 수 있는지,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실현되는 양상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명제와 실체의 지위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체는 명제를 구성하는 일부이면서 명제와 분리될 수 있다. 명제는 사태의 표상에만 관여하며 어순과 성분성에 무감하다. 그러나 명제가 실현된 문장은 선조성과 계층성을 가진다. 실체에 대한 표현이 이러한 실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 배경-초점이 정보 분절의 문제라면, 화제-평언은 정보 배열의 문제이다.

분절된 완전명세 명제를 문장으로 표현할 때 어순과 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언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언어가 있다. 한 언어 내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 언어별, 상황별로 선택은 달라진다. 한국어는 이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언어라고 볼 수 있다. 발달한 표지와 문두 위치를 활발하게 이용한다. '담화형상적(discourse configurational) 언어'의 일종으로 파악될 수 있다(Kiss(ed.) 1995, Erteschik-Shir 2007).

기존 논의에서 '주의 실체'는 문두 위치에서 연결부를 표시하는 경우와 성분생략이나 대명사 'it'으로 실현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해 왔다. (74), (75)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 (74) 가. 대통령은_[화제] 초콜릿을 싫어해.
 가. 대통령은 약점이 있어. 그는_[비화제] 초콜릿을 싫어해.
 (75) 그는_[화제] 초콜릿을 싫어해.

(74)는 동일한 문두임에도 불구하고 명사구로 실현된 (74가)만 연결부·화제로 인정하고, 대명사로 실현된 (74가')은 연결부·화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다(Vallduví

& Engdahl (1996). 비정형 어순인 경우를 더 활발하게 다루기도 한다. 반대로 (75)는 비강세 대명사로 실현된 문두 성분을 가장 전형적인 화제로 파악하는 경우이다 (Lambrecht 1994).²⁰⁸⁾

어찌 보면 상반되는 두 기능 모두에 대해 주의나 현저성의 개념을 부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상반돼 보이는 두 기능 모두에 대해 해당 개념을 적용해 온 것은 미활성·비의식 실체를 도입하고 전환하는 경우와 기활성·의식 실체를 승계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주의를 순간 개념이다. 순간 개념이기 때문에 수시로 전환되고 승계된다. 전자가 '전환 화제'에, 후자가 '승계 화제'에 각각 해당할 것이다.

주의나 현저성의 본질은 문두이다. 해당 실체가 주의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은 문두 배치로 증명된다. 문장을 문두 성분과 후속 성분으로 분절한다. 전환·승계 양상과 배경·초점 여부는 조사로 표시된다. 어순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않고 표지가 발달하지 않은 언어들에 대해 '전환 화제'의 경우 즉 비정형어순 성분의 문두 배치에 대해서만 화제 논의를 집중해 왔다. 배경-초점에 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분열문과 비분열문으로 나누어 화제-평언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화제 논의는 성분의 문두 배치가 가시적인 분절을 보증한다는 사실 때문에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담화 내 모든 문장은 맥락을 필요로 한다. 대응 질문을 제공하는 배경-초점 분절은 화제-평언 분절에도 필수적이다. 분절이 없다면 화제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분열문에 대한 검토는 화제 논의에서도 중요하다. 다만 동일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상이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이 두 분절을 구분하는 근거가 된다.²⁰⁹⁾

208) 이러한 인식은 최윤지(2016)에도 잘 설명돼 있다.

209) Gundel & Fretheim(2004: 175)에서는 (i)과 같은 Chao(1968)의 논의를 가져와 '문법적 술어(grammatical predicate)'와 '논리적 술어(logical predicate)'의 차이에 대해 논의한다. (iA)가 의도한 것은 (ii)였으나, 문법적 술어와 논리적 술어가 상이한 데서 (i)과 같은 유머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iA)와 (iB)의 화자는 각각 여행안내사와 여행객이고, (iA)의 문법적 술어와 논리적 술어는 각각 '지금 최고의 포도주 양조장을 지나고 있습니다'와 '최고의 포도주 양조장'이 된다.

- (i) A: We are now passing the oldest winery.
우리는 지금 최고의 포도주 양조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B: Why?
왜요? (왜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죠?)
- (ii) The one we are passing now is the oldest winery.

- (76) A: 영희가 누구를 만났어?
 B: 영희는 개를 만났어.
 B': 영희가 만난 건 개야.
 B'': 개가 영희가 만난 애야.
- (77) A: 개는 어떤 애야?
 B: 개는 영희가 만난 애야.
 B': 영희가 만난 게 개야.

(76B)와 (76B')은 동일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므로 동일한 명제를 표현한다. 그러나 (76B)의 화제는 '영희는'으로, (76B')의 화제는 '영희가 만난 건'으로 각각 분석될 수 있다. 추가된 (76B'')도 배경-초점은 동일하나, 초점인 '개가'가 문두에 배치된 형태를 띤다. (77)의 경우에도 배경-초점에는 차이가 없다. (77B)에는 '개는'이 문두 배치되었고 (77B')에는 '영희가 만난 게'가 문두 배치되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관계절을 포함하는 성분으로서 화제인 (76B')과 초점인 (77B')이 모두 문두 배치될 수 있는 것은, Gundel(1985)에서 논의한 'WH-분열문'과 상응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주의'를 부여받는 관계절이 문두 성분으로 실현된다고 논의한 바 있다.

문제는 (76B'')의 주어 초점 '개가'이다. 본고의 논의대로라면 (76B'')은 정언문이고 '개가'는 그 정언문의 문두 성분으로 실현돼 있으므로 '개가'도 화제가 된다. (77B')의 '영희가 만난 게'도 동일하게 주어 초점인 화제로 분석될 수 있다. 분열문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비교적 명쾌할 수 있으나 비분열문에서는 상황이 복잡하다. (78)의 두 가지 문제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 (78) 가. 주어 초점이면서 화제일 수 있는가?
 나. 주어 초점의 '는'과 '가'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은 최고의 포도주 양조장입니다.

이때 '논리적 술어'가 의미하는 바는 '초점'과 같다. 본고는 이 역시 동일한 배경-초점 분절이 상이한 화제-평언 분절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한다. (iA)의 화제는 '우리는'이고 (ii)의 화제는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은'이다. (iA)와 (ii) 모두 배경은 '우리는 지금 X를 지나가고 있다'이고 초점은 '최고의 포도주 양조장'이다.

(78가)와 관련하여 본고는 배경-초점 분절과 화제-평언 분절을 서로 분리하면 문두 주어 초점을 화제로 분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78나)와 관련하여서는 두 경우는 모두 화제로 지시적 기존성과 대안집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조사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대조' 양상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화제-평언 분절은 항상 정언문을 구성한다. 제언문은 화제 논의와 관련되지 않는다. 본고는 화제-평언 분절을 '주의'와 대응되는 기존성을 문장으로 실현시키는 기제 중 하나로 파악한다. 배경-초점을 기본으로 하면서, 문두 배치를 통해 주의 실체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본고의 논리대로라면 '주어 초점'은 정언문을 구성하고 대개 문두이므로 당연히 화제로 취급되어야 한다. 게다가 주어는 흔히 '무표적 화제'로 간주돼 왔다(Lambrecht 1994, 임홍빈 2007). 그러나 주어 초점은 '화제'로 논의되지 않는다. 정언문에 대해 논의했던 조은영(2004), 전영철(2013)에서 이미 검토된 사실이다.

주어 초점을 '화제'가 아니라고 보는 관점은 Strawson(1964)에서 논의되었다. Strawson(1950)은 '프랑스왕'과 같은 '비실재 실체'가 포함된 진술의 진리치를 평가하면서, 그 존재가 '의미론적'으로 전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는 것으로 논의한 바 있다. Strawson(1964)에서 강조된 것은 이때 '프랑스왕'이 '화제'라는 점이다. (79B)의 '프랑스왕'은 (79A)에 대한 대답으로 실현되어 '화제'이지만, (80B)의 '프랑스왕'은 (80A)에 대한 대답으로 실현되어 '화제'가 아니다(Strawson 1964: 113-114).

(79) A: 프랑스왕은 언제?

B: 프랑스왕은 대머리야.

(80) A: 대머리인 유명인은 만약 있다면(if any), 누가 있어?

B: 프랑스왕이 대머리야.

(80B)의 '프랑스왕'은 질문에 포함된 '대머리' 부류의 한 예시(instance)일 뿐이다. 그러한 부류 내에 '프랑스왕'이 속해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해당 진술은 허위로 판명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진술에 대한 진리치 평가는 '화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진술은 대개 '화제'에 대한 정보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Strawson 1964: 116). (79B)는 '화제'인 '프랑스왕'이 비실재 실체이기 때문에,

즉 그 존재가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치 공백이 되는 것과 같다. 반면 (80B)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 진술이다. (79B)와 (80B)의 ‘프랑스왕’은 그 지위가 동일할 수 없다. 전자가 ‘화제’라면 후자는 ‘화제’일 수 없다.

Strawson(1964)는 언급한 바 없지만, (80B)의 ‘프랑스왕’은 결국 ‘초점’이다. 비실재 실체의 지시 표현이 ‘주어 배경’과 ‘주어 초점’으로 실현된 각 진술의 진리치가 상이하므로, 주어 배경과 주어 초점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성분의 배경·초점 여부가 진리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임동훈 2012). 그러나 화제 논의에서 반드시 진리치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리치 평가에 명제와 밀접한 배경-초점 분절이 중요한 것과 달리, 어순과 밀접한 화제-평언 분절에 진리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본고가 화제를 논의할 때 고려하고자 하는 것은 정언판단의 개념이다.

정언판단은 실체와 속성을 분절하여 사태를 표상하는 것이었다. 이때 실체의 존재는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Shibatani 1991). 실체가 전제되어야 그 속성에 해당하는 정보도 분절되어 첨가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존재의 전제를 ‘화용론적’ 전제로 파악한다. 본고의 관점에서라면 실체가 지시적 기존성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다. 한정성 표현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언어학에서 중요한 것은 실재 여부가 아니라 담화지시체로서의 기능이다. (80B)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정기술인 ‘프랑스왕’은 이미 그 자체로 지시적 기존성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화제-평언 분절은 관계적 기존성의 영역이다. 개방명제에 대한 명제를 모두 완성한 배경-초점 분절을 초월하여, 주의 실체를 중심으로 어순과 표지를 통해 정보를 배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두 배치되는 실체는 지시적 기존성을,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배경-초점 분절을 각각 가져 정언문으로 실현될 수 있다면 그 실체는 주의 실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본다. 배경-초점 분절과 화제-평언 분절을 분리하면, 주어 초점도 화제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80)은 ‘유명인’이 지시하는 범위가 너무 넓은 데다 존재를 의심하는 표현인 ‘만약 있다면(if any)’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개방집합이나 마찬가지로이다. 하지만 (80B)의 ‘프랑스왕’을 단순한 ‘예시’로 간주하지 않고 (81)처럼 ‘대안집합의 원소’로 상정한다면 그 지위도 달리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는’ 주어 초점의 경우이다.²¹⁰⁾

210) Hetland(2007)도 (81B)와 같은 ‘는’ 주어 초점을 제언문과 정언문의 구분과 함께 취급하지만, Kuroda(1972)를 좇아 제언문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인다. 본고는 후술할 바와 같

(81) A: 대머리인 유명인은 누가 있어?

A': 왕들 중에 누가 대머리야?

B: 프랑스왕은 대머리야.

(80A)에서 '만약 있다면(if any)'을 삭제하고 '프랑스왕, 중국왕, 미국왕'의 폐쇄집합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후 (81A')으로 질문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중국왕'과 '미국왕'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81B)와 같은 대답이 충분히 가능하다. (79B)와 동일한 문장이다.²¹¹⁾ 언어 소통에서 해당 실체의 존재 여부는 실제 세계가 아닌 청자의 인지상태 및 그에 대한 화자의 가정·의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프랑스왕'이 그 자체로 지시적 기준성을 획득하고 있지만 비실재 실체인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를 (82)와 같이 '영희'로 바꾸어 볼 수도 있다. '영희, 철수, 민호'의 집합을 가정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영희'가 실제로 비실재 실체라면 '프랑스왕'과 동일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은 물론이다.

(82) A: (친구 중에) 누가 안경 써?

B: 영희는 안경 써.

(82B)는 '철수'나 '민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영희'가 안경을 쓰는 것은 확실하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이때 '영희'의 존재는 두 가지 점에서 '화용론적'으로 전제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나는 지시적 기준성의 고유명사로 실현됐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대안집합의 원소로 상정됐다는 점이다.

동일한 조건을 (83)과 같이 '가' 주어 초점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역시 '영희, 철수, 민호'의 집합을 상정하는 경우이다.

(83) A: (친구 중에) 누가 안경 써?

B: 영희가 안경 써.

이 정언문으로 간주한다. '는' 주어 초점이 모든 논의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최윤지(2016)은 이를 매우 드문 경우로 판단한 바 있다.

211) 강세의 차이는 있다.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어순과 성분의 문제이다.

이때 (82B)와 (83B)의 차이는 조사뿐이다. 지시적 기존성의 고유명사인 점과 대안집합의 원소인 점은 차이가 없다. 그러나 (83B)는 (82B)와 달리 ‘철수’나 ‘민호’가 아니라 바로 ‘영희’가 안경을 쓴다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는 조사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대조’ 양상의 차이이다.²¹²⁾ ‘는’이든 ‘가’이든 정언문의 주어 초점은 화제로 파악될 수 있다.

(82), (83)의 맥락에서 ‘영희’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은 Sasse(1987)에서 논의한 실체 도입 제언문에 (84가)에서 보듯 ‘영희’와 같은 지시적 기존성 어휘가 사용되기 힘들다는 점에서도 증명된다.

- (84) 가. ??옛날에 영희가 있었다.
- 가. 옛날에 영희라는 애가 있었다.
- 가. 옛날에 어떤 애가 있었다.
- 나. *옛날에 영희는 있었다.

(84가)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도 해도 어색한 것은 사실이고, 최윤지(2016)에서 청자신 정보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고 논의된 (84나)와 같이 표현할 경우 훨씬 자연스럽기도 하다.²¹³⁾ 실제로 (84가)와 같이 비한정성 표현이 사용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비한정성 실체는 지시적 기존성을 소유하지 않는다. ‘는’을 통해 대안집합 형성과 존재의 전제가 동반되는 (84나)는 성립되지 못한다.

요컨대 본고는 정언문에 실현돼 있고 문두 성분이라는 점에서 주어 초점을 화제-평언 분절의 화제로 간주한다. (78)에서 제기했던 주어 초점 관련 문제들에 대한 본고의 결론은 (85)와 같다.

- (85) 가. 주어 초점도 화제이다.
- 나. ‘는’과 ‘가’는 대안집합과 관련한 대조의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85가)는 배경-초점 분절과 화제-평언 분절을 구분하는 것으로 정당화된다. (85나)는 기존성의 기제로서 ‘는’과 ‘가’는 배경·초점 여부를 표시하는 동시에 계열 층위의

212) 후술할 계열 분절의 문제이다.

213) 최윤지(2016)에서는 ‘X이라는 Y’ 구성으로 표기된다.

명제 분절도 발생시킨다는 논의로 연결된다.

문두 구문이나 ‘는’ 구문만을 화제-평언 분절로 보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문장에 대해서는 대응 질문을 가정해야 한다. 비분열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주의를 순간의 개념이고 수시로 전환되고 승계된다. 더욱이 승계 화제의 경우 성분생략이 빈번하므로 대응 질문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배경-초점 분절에서 성분 문장초점의 기능을 하는 (86B①-③)에 대해 어떠한 분석을 할 것인가 하는 점도 문제가 된다.

(86) A: 영희는 왜 개를 만났어?

B: ① 영희는 아프잖아.

② 영희는 아프니까.

③ 영희가 아파.

본고의 관점에서는 ‘영희는 ∅ 아프기 때문에 개를 만났다’라는 복문을 설정하고 내포문만이 대담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86B①-③)은 화제-평언 분절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성분 문장초점 내에도 화제-평언 분절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배경-초점의 분절 대상과 화제-평언의 분절 대상이 각각 사태의 표상인 명제 전체와 명제의 실현인 절·문장으로 구분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정언문을 모두 화제-평언 분절로 분석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²¹⁴⁾

3.4. 기존성 유형 간의 상호관계

화제는 발화 순간 청자의 가장 현저한 의식 상태인 주의 내 존재하거나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화자에 의해 가정되는 ‘주의 실체’이다. 기존성을 명제와 실체에 대한 지시적 기존성과 관계적 기존성으로 구분한 후 전자의 실현을 다시 전제와 한정성으로, 후자의 실현을 다시 배경과 화제로 각각 구분했던 논의의 결과이다. 전제는 청자의 지식과 의식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화자가 가정하는 명제들 즉 공유배경이었다. 한정성은 청자의 지식과 의식 및 추론가능 영역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화자가 가정하는 실체들의 속성이었다. 배경과 화제는 각각 의식 내에서 가장 현저한

214) 김일웅(1980), 이희자(1994) 등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주의 상태로 선택된 명제와 실체였다.

이렇듯 본고에서 화제는 기존성의 네 가지 유형 중 하나로 파악되었다. 화제가 기존성의 전부가 아닌 기존성 유형의 일부라면 화제의 속성을 기존성으로 파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화제의 속성은 단순하지 않다. 문 두 실체가 가지는 관계적 기존성이 화제의 본질이라면, 실체와 명제의 지시적 기존성은 화제 성분과 문장의 필요조건이다. 개방명제가 가지는 관계적 기존성이 실현된 정언문 역시 화제의 필요조건이 된다.

화제 실체는 한정성 실체에서 선택된다. (87가, 가') 모두에 비한정성 표현인 '웬'이 사용돼 있지만,²¹⁵⁾ (87가)과 같은 완전한 비한정성 표현은 화제로 실현될 수 없다. 반면 표현 추론을 통해 한정성을 획득한 (87가')은 화제로 실현 가능하다.

(87) 가. *웬 남자는 나보다 말랐었다.

가. 내가 어제 만난 웬 남자는 나보다 말랐었다.

지시적 기존성의 실체는 화자가 청자의 지식 내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는 실체와 의식 내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는 실체의 합집합이며, 표현 추론을 통해 그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화제 실체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선택된다.

화제와 한정성 간의 관계는 배경과 전제 간의 관계와 동일하다. 전제 중에서 배경이 선택된다. 전제는 배경의 필요조건이며, 전체 문장초점·제언문의 경우 한정성 표현을 포함하는 사태 도입 제언문을 제외하면 (88B')과 같이 전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성분 문장초점으로서 전제를 포함할 수 있는 (89B')과 비교해 볼 수 있다.

(88) A: 무슨 일이야?

B: 영화가 다쳤어.

B': *영화가 다쳤잖아.

(89) A: 영화는 왜 안 왔어?

B: 영화가 다쳤어.

215) '웬'은 '어찌 된'과 '어떠한'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87)의 '웬'은 '어떠한'의 의미를 가진다. '21세기 세종 말뭉치'에서 '웬'을 검색해 보면 구어에서 32개 용례, 문어에서 243개 용례가 확인된다. 구어 용례 중 대부분은 '웬 걸'이 차지한다. "웬+명사?" 형식으로 반문하는 경우이다.

B': 영화는 다쳤잖아.

'-잖아'는 지시적 기존성의 전제 명제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어미이다. 비전제 사태 전체에 대한 정보를 한 단위로 요구하는 (88A)의 질문에 대해 무표적인 (88B)는 사용될 수 있지만, (88B')은 사용될 수 없다. (89)의 경우에는 대응 질문인 (89A)가 비전제 사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태가 지시적 기존성의 대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 모두 허용된다. (89B')도 실현될 수 있다.

화제와 배경의 관계는 조금 더 특수하다. 배경-초점 분절이 존재한다는 것은 해당 문장이 정언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언문이어야만 화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화제는 배경일 수도 있고 초점일 수도 있다. 배경에 포함되거나 중첩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기는 하나, 본고의 논리에서는 초점과 배타적이지 않다. (90)에서 주의 명제·배경은 '영화는 X를 만났다'이고, (91)에서는 '개는 X한 애다'이다.

(90) A: 영화는 누구를 만났어?

B: 영화가 만난 건_{[화제][배경]} 개야.

B': 개가_{[화제][초점]} 영화가 만난 애야.

(91) A: 개는 어떤 애야?

B: 개는_{[화제][배경]} 영화가 만난 애야.

B': 영화가 만난 게_{[화제][초점]} 개야.

이 배경이 화제로 실현되는 (90B), (91B)와 같은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나 배경-초점 분절과 화제-평언 분절을 분리하고 화제와 초점을 배타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본고의 관점에서는 (90B'), (91B')처럼 주어 초점을 문두 배치해 화제로 실현시키는 경우도 가능하다.

한정성 표현 역시 배경에 속할 수도 있고 초점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배경으로 실현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전체 문장초점에도 한정성 표현은 실현될 수 있으므로 출현이 크게 제약적이지는 않다. (92)와 같이 한정성 표현은 초점으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92) A: 영화는 누구를 만났어?

B: 개.

의문사 '누구'에 대한 대답으로 한정성 표현인 대명사 '개'가 실현돼 있다. 한정성 표현과 배경의 관계는 Gundel & Fretheim(2004)에서 논의된 지시적 기존성과 관계적 기존성 간의 관계와 동일하다.

대개 한정성 표현으로 실현되는 한정성 실체라는 점에서 화제는 전제의 일종이다. 전제가 분열문으로 실현되어 화제로 기능할 수도 있다. 한정성 표현은 대개 전제의 일부를 구성하나, 주어 초점에 대한 배경은 한정성 표현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명제는 전체가 갱신되므로 비전제 명제가 한정성 표현을 포함하는 것 역시 당연하나, 실체 도입 제언문·존재문의 비전제 명제인 경우 한정성 표현조차 포함하지 않는다.

요컨대 명제는 실체든 지시적 기존성은 관계적 기존성의 필요조건이다. 반면 명제와 실체 간의 관계는 복합적이다. 지시적 기존성의 명제와 실체는 한정성 역시 전제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전자가 후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한정성 실체는 전제 명제와 비전제 명제 모두에 실현될 수도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평행하게 관계적 기존성의 명제와 실체 역시 전자가 실현된 문장에만 후자도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자가 후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화제는 배경일 때도 초점일 때도 있다. 화제와 전제, 한정성과 배경은 지시적 기존성의 입장에서 고찰해야 유의미하다. 배경인 실체는 한정성 실체여야 하나, 한정성 실체는 배경·초점 모두 가능하다. 화제인 명제는 전제여야 하나, 전제가 실현된 문장에는 화제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화제 실체는 지식·의식 및 추론의 영역 그 중에서도 주의에 기존하는 실체이며, 화제가 실현된 문장은 배경-초점 분절이 실현된 정언문이어야 한다. 화제는 배경의 일부로 실현되는 경향이 강하나, 화제를 포함하는 문장은 개방명제가 아닌 완전명제 명제에 대응되므로 화제 실체는 개방명제 내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화제와 초점은 양립된다.

4. 화제의 통사적 기제: 문두

화제는 인지상태의 관점에서 ‘주의 실체’ 즉 한정성 실체 즉 화자가 청자의 인지상태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의도하는 실체 중 가장 현저한 실체로 파악되었다. 이때 주의 혹은 현저성은 문두 배치로 표시되며, 표현으로 실현되는 속성이라기보다는 문장의 분절을 통해 실현되는 속성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화제의 대표적인 구문으로 알려져 온 문두 구문으로는 전치, 좌측전위, 중주어, 자유화제 등이 있다. 본장에서는 이들 각 구문에서 주의 실체가 실현되는 양상을 성분의 조건과 담화상·분절상 기능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4.1. 전치

전치(preposing)는 ‘한 문장 내에서 어휘적으로 지배되거나 하위범주화되는 구 성분이 정형어순에서 좌측으로 이동해 전형적으로는 문두 배치되는 것’이다(Birner & Ward 1998: 31, Ward & Birner 2004: 158). 즉 부가어 외의 비주어 성분이 문두 배치되는 것²¹⁶⁾이 바로 전치이다.²¹⁷⁾ 한국어는 환경에 따라 성분생략이 빈번하므로 기

216) 전치 구문의 문두 성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본어순이 결정돼 있어야 하고 변동어순의 한계가 확인돼 있어야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견지한다.

- ① 기본어순은 SOV, SVO, VSO 등의 어순 유형을 의미하며 한국어는 SOV 언어이다.
- ② 한국어는 어순변동이 비교적 자유로우나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주요성분 중 주어, 목적어는 비교적 자유로우나 보어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며, 서술어는 원칙상 변동 가능하나 변동되는 일은 드물고 문두로 배치될 경우 변형되는 일이 있다. 부속성분 중 부사어는 대개 자유로운 반면, 관형어는 체언과 통합돼 있고 대개 관형어 내부의 배열 순서도 결정돼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 양태부사어는 대개 용언 앞이 정해진 위치이나 자유롭게 변동될 수 있고, 문장부사어는 대개 문두가 정해진 위치이나 자유롭게 변동될 수 있다(신서인 2011). 부사어의 위치는 실현된 그 위치로 정해질 뿐 정해진 위치는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임흥빈·장소원 1995, 임흥빈 2007). 한편 감탄사와 호격어를 포함하는 독립성분은 문두가 정해진 위치이고 문미에도 배치될 수 있다.
- ③ 한국어는 성분생략이 잦아서 변동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 ④ 결국 한국어에서는 성분생략이 없는 경우 주어, 문장부사어, 독립어 등이 전형적인 문두 성분이 되나 문장부사어와 독립어는 실현이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논의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217) 본고는 다음 (ia), (ib) 중 (ib)가 전치 구문이고, 두 문장은 각각 밑줄친 성분을 화제로 가진다고 본다.

- (i) a. 너는 나에게 책을 사 줬다.
b. 나에게 너는 책을 사 줬다.

본적으로 주어가 실현돼 있는 경우만을 전치의 경우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²¹⁸⁾ 본고에서는 목적어 전치를 중심으로 전치의 조건과 기능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4.1.1. 전치 문두 성분의 조건

기존 논의에서 전치될 수 있는 명사구의 조건으로 논의돼 온 특성에는 지시성과 특정성, 한정성 등이 있다. 본절에서는 이들 각각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검토해보고 그 중 전치의 조건으로 논의될 수 있는 특성은 과연 무엇인지 확인해 본다. 특정성과 한정성의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지시성부터 살펴보고 유사한 것으로 논의돼 온 특정성과 한정성에 대해 각각의 속성 및 상호관계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4.1.1.1. 지시성

지시성(referentiality)이란 개념은 화제, 기존성 못지않게 여러 의미로 사용돼 왔다. 지시성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어 ‘지시’에 대응되는 술어나 개념은 ‘reference, denotation, demonstrative, anaphora’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 ‘demonstrative’는 ‘지시사’로 흔히 번역되며 ‘이, 그, 저’와 관련되는 지시사를 가리킨다. ‘조용’으로 흔히 번역되는

218) 다만 전환 화제, 특히 문장 간 전환 화제로서 빈번히 등장하는 (ia-c)와 같은 경우는 (iib)와 같은 전치 구문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들은 (iia)에서 화제인 주어 성분 생략 됐다고 분석할 수도 있고 목적어 전치 구문으로서 (iib)나 (iib')에서 비화제인 후행 주어 성분 생략 됐다고 분석할 수도 있다. 이때 이들이 (iia)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iib)나 (iib')에서 온 것인지, (iib)나 (iib')에서 왔다면 둘 중 무엇에서 성분생략이 이루어진 것인지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 그러나 본고는 이들을 상황에 따라 특수한 전치 구문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화제 전환의 기능은 대답보다 질문에서 부각되고 화제 승계의 기능은 무엇보다 성분생략으로 대표되기 때문이다. (iib)와 (iib') 중에서는 (i)과 (ii)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대답이 (iii)이라는 점에서 (iib)가 더 선호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i) a. 밥은?
b. 밥은 먹었어?
c. 밥은 어떻게 했어?
- (ii) a. 너 밥은 먹었어?
b. 밥은 너 먹었어?
b'. 밥은 먹었어, 너?
- (iii) (밥 나) 먹었어.

‘anahora’는 선행사와의 공지시(coreferential) 관계를 가리킨다. Halliday & Hasan(1976)에서는 지시를 상황과 관련된 외부지시와 텍스트와 관련된 내부지시로 나누는 후, 후자에 전방조응과 후방조응을 포함시킨다.

‘denotation’은 대개 ‘표의’로 번역된다. 표의는 표현에 대응하는 의미 혹은 지시체(referent)²¹⁹를 의미한다. Frege(1892)를 따라 표현의 의미가 대응되는 개체나 부류를 가리키면 지시(reference), 대응되는 속성을 가리키면 의의(sense)라고 보기도 한다.²²⁰ 그러나 표의가 표현과 지시체 간의 문제라면 의의는 표현과 표현 간의 문제에 가깝다는 점에서 서로 구분하여 취급하기도 한다.

표의는 암의(connotation)와 구분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암의는 표의가 외연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면 내포에, 외연과 내포를 모두 포괄하는 지시체의 의미로 사용되면 정서적 의미에 각각 대응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reference는 ‘지시’라는 번역술어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의도한 실체를 위한 대응 표현의 선택 문제와 관련된다. 프레게가 사용한 것과는 구분되는 것이다(Carlson 2004: 87). 성공적인 지시는 실제 세계에 대응되는 실체가 존재해야만 가능하다.

‘지시적’이라는 술어의 용법은 더 다양하다. Jakobson(1958/1960)이 언어의 기능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면서 언어가 가지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기능을 ‘지시적(referential) 기능’으로 명명한 바 있다. 언어의 기능에는 ‘directive’ 기능도 포함되는데, 이에 대해 ‘지시적’ 기능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사역적 기능’으로 번역되는 이 기능은 언어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양화적(quantificational)’과 대립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지시적이면 실제 세계의 개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양화적이면 실체의 절대량이나 상대량을 가리키는 것으로 각각 이해된다. ‘지시적’이라는 술어는 ‘특정적(generic)’과 대립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Givón 1978). ‘속성적(attribute)’이라는 술어와 대립되는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 Donnellan(1966)의 속성적 용법과 지시적 용법 간의 대립이 대표적이고, Lyons(1977)의 비지시적 한정명사구도 유사한 경우이다. ‘서술적(predicative)’과도 의미가 대립된다.

이처럼 ‘지시’와 ‘지시적’이라는 술어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고 사용되고

219) Ogden & Richards(1923)의 술어이다.

220) 이성범(1999)에서는 각각 ‘지시의’와 ‘언어의’로 번역하기도 한다.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이들을 번역술어로 가지는 개념도 많고 그 자체로도 의미하는 바가 다양하다. 지시 개념을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태도는 ‘지시’에 대해 의미론적 지시(semantic reference)와 화용론적 지시(pragmatic reference)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다. 표의가 전자에, 지시가 후자에 각각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Geach(1962), Kripke(1977), 西山(2003), Chen(2009), Abbott(2010) 등에 이러한 태도가 드러나 있다.

Geach(1962: 5-9)에서는 일찍이 표의와 지시에 대해 전자는 표현의 문제이고 후자는 화자의 문제이며 표의는 표현과 지시체 간의 관계, 지시는 술어와 진리치 판단 대상 간의 관계를 각각 다루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Kripke(1977)은 의미론적 지시는 의미상 혹은 대응상의 문제이고 화용론적 지시는 사용상 혹은 의도상의 문제인 것으로 논의한다. 西山(2003)에서도 이 문제를 취급하는데, 이 논의에서 의미론은 문장 내 기능이 지시적인지 비지시적인지 파악하는 분야로 이해된다. 이때 지시적 기능은 실제 세계 내 실체를 지시하는 기능을 가리킨다. 이와 달리 화용론은 실체의 결정이나 실체의 존재 여부를 다룬다.

Chen(2009)에서는 의미론적 지시성은 언어표현에 부호화되어 있는 속성인데 반해 화용론적 지시성은 맥락의존성, 화자의도, 인지상태를 통해 정의되는 속성으로 파악하였다. 본유적으로 의미론적 비지시성을 가지는 표현에는 양화사가 포함된다. Abbott(2010: 2-3)은 의미론적 현상으로서의 지시는 지시하거나 지시체를 가지는 언어표현 자체에 대한 것이고, 화용론적 현상으로서의 지시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언어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화용론적 지시는 화자, 실체, 언어표현 간의 3항 관계이다. Bach(2006)에서는 청자까지 포함시켜 4항 관계로 파악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든 지시는 언어표현이 그 표현과 대응되는 무엇과 맺는 관계와 관련돼 있다. 그 대응이 체계나 기호상의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나 사용상의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화제 논의에서는 표의보다는 지시가, 의미론보다는 화용론이 주된 역할을 한다. Chen(2009)에서는 화용론적 지시성에 대해 단일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담화 내 존재의 전제, 특정 지시체의 유일성, 화자의 지시 의도라는 세 요소가 복합된 개념이라고 보았다. 앞의 두 속성은 각각 (비)실재, (비)개체의 경우에 대응된다.

(1)과 같은 표현들이 지시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구분되는데,²²¹⁾ 이들 표현들

221) Chen(2004: 1133)에서는 비지시적 표현을 “담화 내에서 표현 자체의 의미에 내재적인

은 세 가지 속성 중 최소한 하나의 속성을 결여한다.222)

- (1) 가. [속성/서술] 영희는 선생님이다.
 나. [총칭] 선생님은 힘든 직업이다.
 다. [불특정 1] 영희는 선생님과 결혼하려고 한다.
 라. [불특정 2]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이 올 거라고 믿는다.
 ① 선생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그와 결혼하려고 할 것이다.
 ② 선생님들이 누군지 알게 되면 그들과 결혼하려고 할 것이다.
 마. [불특정 3] 친구 한 명이 선물을 보내 왔다.
 바. [불특정 4] 친구 한 명이 커닝을 했다.
 사. [비실물 1] 영희의 선생님은 미친놈이다.
 아. [비실물 2] 나는 선생님 한 분한테 소식을 들었다.

(1가)는 Givón(1978)에서 총칭적 서술, 西山(2003)에서 서술명사구 등으로 구분돼 왔던 경우들이다. 한국어에서는 ‘이다’, ‘아니다’, ‘되다’ 구문에 해당한다. (2B)와 달리 (2B’)은 전치가 성립하기 매우 어렵다.

(2) A: 너는 뭐가 되고 싶어?

속성이 아닌 속성에 의해 독립적으로 구분가능한 실체 혹은 실체의 집합”으로 정의하였다. 이 논의에서 비지시적 표현은 속성을 표의하는 비개체화(non-individuated), 특정 실체를 가리키지 않는 불특정, 부류를 지시하는 총칭의 세 부류로 분류되었다.

222) 한국어로 옮기면서 변화를 가하였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Chen 2009: 1661-1662). 관용 표현은 제외하였다.

- (1) 가. [속성/서술] John is a math teacher.
 He was promoted captain.
 Laura is the class presentative this year.
 나. [총칭] A/the tiger is a large, fierce animal.
Tigers are large, fierce animals.
 다. [불특정 1] John would like to marry a girl his parents don't approve of.
 라. [불특정 2] Everyone believes that a witch blighted their mares.
 ① If they ever find out who she is they'll try to catch her.
 ② If they ever find out who they are they'll try to catch them.
 마. [불특정 3] A friend just sent me a lovely Valentine card.
 바. [불특정 4] A student in the syntax class cheated on the final exam.
 사. [비실물 1] The murderer of Smith is insane.
 아. [비실물 2] I heard that from a doctor.

B: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B': *선생님이 나는 되고 싶어.

이처럼 속성적, 서술적으로 사용되는 명사구가 전치되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지시성을 전치의 조건으로 들 수도 있겠으나, 비지시적 명사구의 일종으로 분류된 (3B-B')과 같은 총칭명사구는 전치가 가능하다.

(3) A: 너는 어떤 동물을 좋아해?

B: 호랑이를 나는 좋아해.

B': 호랑이는 나는 좋아해.

(3B)에는 조사 '를'이, (3B')에는 조사 '는'이 통합돼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²²³⁾ 맥락이 상세하게 주어져 있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전치가 (2B')만큼 어색하지는 않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시성이 전치의 조건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이고, 지시성을 달리 정의한 후 재고찰해 보는 것이 두 번째이다. 본고는 두 번째 입장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Chen(2009)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면 (3)의 총칭명사구는 'a tiger'로 실현되든 'the tiger'로 실현되든 지시성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총칭명사구는 한정성 표현의 일종으로 취급돼 왔고, 한정성 표현은 늘 지시성 표현으로 분류돼 왔다(Lyons 1977). (1나)는 총칭명사구이다. 총칭명사구는 실체를 지시하기는 하지만 개체가 아닌 부류가 그 대상이다.

지시성을 좀 더 넓게 이해하여 속성성(attributivity), 서술성(predicativity)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편이 옳을 것으로 본다. 지시성은 해당 표현에 대응되는 실체를 가지고 있을 때의 명사구의 특성이며, 특정성과 한정성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실체는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체와 부류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Lyons 1977). 하위 개념인 특정성과 한정성이 전치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23) 통합하는 조사에 따라 배경-초점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4.1.1.2. 특정성과 한정성

흔히 목적어 전치의 조건으로 특정성과 한정성이 지목되곤 한다. 특정성과 한정성의 명사구가 제 담화요인의 영향을 받아 전치된다는 것이다(Choi 1996/1999). 한정성 표현뿐만 아니라 특정 비한정성 표현도 전치가 가능하며, 어떤 경우에도 불특정성 표현은 전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논의된다. 이러한 태도에는 특정성과 한정성을 구분하지 않거나 특정성을 한정성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개입되어 있다. 이렇듯 특정성과 한정성은 혼용되거나 혼동되는 일이 빈번하므로 함께 취급되는 일도 빈번하다(전영철 2013).

(4)는 Lee & Cho(2003)에서 제시한 예문으로, 비한정성 표현이 실현돼 있다. (4)만이 전치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 필요조건이 바로 특정성인 것으로 설명된다.²²⁴⁾

- (4) 가. 사과 세 개를 나는 먹었다.
나. *사과 세 개 나는 먹었다.

해당 목적어가 특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격표지 ‘를’을 통해 드러난다고 본다. ‘를’이 실현된 (4가)의 목적어만이 특정성을 소유했고 특정성을 소유했기 때문에 전치될 수 있다. 그러나 대격조사와 특정성의 관계가 절대적인지는 더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5)는 Choi(1996/1999)의 예문이다. 여기에서도 전치는 특정성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4)와의 차이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배경-초점 여부를 논의에 포함시킨다. 둘째, 특정성을 논의하면서 한정성 표현을 사용한다.²²⁵⁾

- (5) 가. 책을_[배경] 순희가 어제 읽었어.
가. 책을 순희가 언제 읽었어?
나. 책을_[초점] 순희가 어제 읽었어.
나. 뭐를 순희가 어제 읽었어?

224) Lee & Cho(2003) 자체는 전치가 아닌 ‘목적어 전이’에 대한 논의이다. 목적어 전이를 ‘논항 재배치(argument scrambling)’의 중간 단계로 파악하였다.

225) 이는 영어에 특정성 표지가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5가)과 (5나)는 배경-초점 구분을 위해 본고에서 보충한 것이다. 전치된 목적어가 (5가)처럼 배경에 포함되면 특정성으로만 해석될 수 있고, 초점인 (5나)의 목적어는 맥락에 따라 특정성 소유 여부가 달라진다고 본다. 이때 (5가)의 ‘책’은 ‘the book’으로 해석된다. (5나)의 ‘책’도 특정성일 땐 ‘the book’으로, 불특정성일 땐 ‘a book’으로 각각 해석된다고 논의하고 있다.

(4)와 (5)의 경우를 보면, 특정성이 어떤 개념인지 매우 불분명하게 느껴진다. (4)에서처럼 특정성 개념이 주로 비한정성 표현 즉 부정관사와 관련하여 논의돼 왔다는 사실은 전영철(2013)에도 지적되어 있다. 그러나 (5)에서 볼 수 있듯 특정성은 주로 비한정성 표현과 관련하여 논의되면서도 실제로 한정성과 적극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특정성을 전치의 필요조건으로 간주하는 논의들은 한정성 표현뿐만 아니라 비한정성 표현 중 특정성을 가지는 경우도 전치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다. (4가)나 (5나)와 같은 경우이다. 인도유럽어에서 목적어가 동사 앞에 배치되는 목적어전이(object shift) 현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Thráinsson 2001, Lee & Cho 2003). 특정성을 정확히 어떠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한정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전치의 필요조건으로 특정성을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특정성 개념의 정체는 Chen(2009)의 (1다-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대부분 기존의 불특정성(non-specificity)과 관련하여 제시돼 왔던 예문들이다.

- | | |
|----------------|---|
| (1) 다. [불특정 1] | 영희는 <u>선생님</u> 과 결혼하려고 한다. |
| 라. [불특정 2] | 모든 사람들이 <u>선생님</u> 이 올 거라고 믿는다.
① 선생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그와 결혼하려고 할 것이다.
② 선생님들이 누군지 알게 되면 그들과 결혼하려고 할 것이다. |
| 마. [불특정 3] | <u>친구 한 명</u> 이 선물을 보내 왔다. |
| 바. [불특정 4] | <u>친구 한 명</u> 이 커닝을 했다. |
| 사. [비실물 1] | <u>영희의 선생님</u> 은 미친놈이다. |
| 아. [비실물 2] | 나는 <u>선생님 한 분</u> 한테 소식을 들었다. |

(1다)는 Partee(1970)의 예문을 변형한 것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불투명 맥락(opaque context)의 작용역하에서 비한정성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를

취급한다. 'a teacher'가 불특정성을 가진다는 것은 대응되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해도 해당 실체에 대해 화자가 인지하고 있지 않거나, 인지했다고 해도 부각시켜 지시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반대로 화자에게 정해져 있는 한 인물이 존재할 경우 특정적이라고 해석된다. 이때 지시 의도와 관련된 문제는 달리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1라)는 Ioup(1977)에서 제시된 것의 변형이다. (1라①)은 운용자 '모든 사람들'과 관련하여 '선생님'이 광역의 작용역으로 해석되는 경우이고, (1라②)는 협역의 작용역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어느 경우든 화자가 해당 실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주의를 집중시켜 지시할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특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차이점이 있다면 광역의 (1라①)에서는 해당 실체의 존재가 전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1다, 라)처럼 작용역을 특정성 파악에 도입하는 논의들의 문제점은 전영철(2013)에서 논의된 바 있다. 대부분 특정성 표현은 광역의 작용역을 가진다고 보는데 (1라②)처럼 '모든 사람들'에 비해 특정성 표현 '선생님'의 작용역이 좁은 경우가 존재한다. 후술할 (1마, 1바)처럼 운용자 없이도 특정성·불특정성 간 중의성의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논의들이 특정성을 단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그에 대해 유형화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Lyons 1999, Farkas 2002, Ionin 2009, von Heusinger 2011, Falco 2012). 그러한 태도에서 (1다, 라)의 특정성은 작용역(scopal) 특정성의 일종이다.

(1마)는 Lyons(1977)에서 가져온 것이며, 대개 화자에게 정해져 있는 한 인물이 존재할 경우 특정적이라고 해석된다. (1바)는 Fodor & Sag(1982)의 것이다. 지시적인 것과 양화적인 것의 대립으로 설명되는 경우이지만, (1마)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실체가 존재한다고 해도 화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부각시켜 지시할 의도도 없다는 점에서 불특정성의 경우로 파악된다. 이러한 특정성은 인식적(epistemic) 특정성으로 분류된다. 전영철(2013)에서 수용하는 정의이기도 하다.

(1사)와 (1아)는 비실물(non-ostensive)의 경우로 제시되었다. Donnellan(1966)이 지시적 용법과 속성적 용법의 대립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예문을 변형한 것이 (1사)이다. 여타 예문과 다른 점은 'the teacher'라는 한정성 표현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Partee(1970)에서는 'a teacher'의 (1아)도 (1사)와 평행하게 지시적인 것과 비지시적 혹은 속성적인 것이 대비되는 유사한 경우로 분류돼 있다. Chen(2009)에서는 두 경

우 모두 해당 실체에 대한 인지 여부를 차치하고 특정 실체에 대해 주의를 집중시켜 지시할 의도가 없다고 해석된다는 점에서 불특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논의한다.

Donnellan(1966)은 한정기술이 지시적 용법과 속성적 용법을 모두 가지며 (1사)는 각각 (6가, 나)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6) 가. 그 선생님이 누군지 아는데, 그놈은 원래 미친놈이었어.

나. 그 선생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놈은 미친놈인 게 분명해.

(6가)는 화자가 해당 실체에 대해 정체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이고 (6나)는 그렇지 못한 경우이다. Partee(1970)은 평행한 구분이 비한정성 표현에도 존재한다고 보았고, 대명사의 공지시 문제를 다루는 데 이를 활용하고자 했다. 이들은 특정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지만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띤다. (1사, 아)에서 발견되는 특정성은 자유선택에 가까워 존재를 담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1가)의 비지시성, (1다, 라)의 작용역 특정성과 닮아 있다. 존재하더라도 그 정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1마, 바)의 인식적 특정성과 닮아 있다.

요컨대 어떠한 명사구가 특정성을 가진다는 것은, 실체가 존재하고 그 실체에 대해 화자가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확실하게 지시할 의도를 가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속성은 (1가), (1다, 라), (1사, 아)와 관련된다. 두 번째 속성은 (1마, 바), (1사, 아)와 관련된다.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세 번째 속성과 (1나)의 총칭성, 그리고 (4)에서 논의되는 특정성이다.

특정성의 세 번째 속성인 화자의 지시 의도는 Ionin(2003, 2006)에서 자세하게 논의된 바 있다. 이 논의에서 특정성은 Fodor & Sag(1982)의 지시성을 기반으로 하는 논의가치성(noteworthiness)이다. 논의가치성이란 더 언급할 만한 것이나 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표시로, 화자가 어떤 실체에 대해 정보를 더 제공할 의사가 있을 때 해당 명사구가 가지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비한정 'this'라고 한다. 이러한 특정성은 두 번째 속성인 인식적 특정성과 직결된다. von Heusinger(2011)에서는 Givón(1983, 1988)의 화제연속성과 함께 분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특성이 특정성과 한정성을 유사하게 취급하는 원인이 된다고 본다.

총칭성과 특정성의 관계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Chen(2009)에서 (1나)의 총칭명사구는 개체가 아닌 부류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비지시성으로 구분된 바 있다.

Givón(1978)에서도 지시성은 일반적인 특정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비지시성은 총칭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총칭성은 한정성의 일종이다. 이러한 혼란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본고는 특정성은 개체를 지시하고 총칭성은 부류를 지시한다는 그 차이점이 이러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본다. 특정성의 예문들은 모두 개체만을 취급하고 있고, 지시성·비지시성 구분을 특정성·총칭성 구분과 동일시한 Givón(1978)의 경우도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정성 개념은 실체 중 개체와만 관련된 것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질로서의 개체 지시를 제외하면 이상에서 정립된 제 유형의 특정성은 (4)의 특정성과는 또 성격이 다르다. (4)에서 차용한 특정성 개념은 부분성(partitivity) 혹은 전제성(presuppositionality)으로, 각각 Enç(1991)과 Diesing(1992)에서 논의된 것이다. Enç(1991)은 부분성 표현은 반드시 특정적이라고 보아 특정성을 부분성에 기반하여 파악하고자 하며, 이 경우 대격표지의 실현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Lee & Cho(2003)에는 이러한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Diesing(1992)는 VP 외부의 위치의 비한정 주어 존재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때의 전제성이 바로 특정성이다. 전영철(2013)에서는 부분성이 특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러한 개념의 특정성을 수용하지 않는다.

Enç(1991)에서는 특정성과 한정성은 모두 기확립 담화지시체와 연결돼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연결 방식은 다르다고 보았다. 전자는 선행사와 포함관계를 이루지만 후자는 동일관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특정성을 부분성으로 파악한 결과이다. 그러나 부분성이 특정성을 담보하지 않는 문제와 별개로 부분성은 한정성과 관련된 특성이라는 문제도 있다.

Farkas(2002)에 의하면, 부분성은 비한정성 표현으로 실현되지만 기확립 담화지시체 혹은 상위 집합은 한정성 표현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양가성을 가진다. 실제로 루마니아어의 부분관사는 무표적 남성 단수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결합된 형태이다. 특정비한정이나 부분 명사구는 불특정 명사구보다 그 속성이 한정성에 가깝다(Farkas 2002: 214). 그러므로 부분성은 특정성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한정성이 확장된 형태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특성이 특정성과 한정성을 유사하게 취급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

특정성은 개체화 및 개체 존재, 그에 대한 화자의 인식, 현저한 지시에 대한 화자의 의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매우 복합적인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이들 특성들은

모두 개별적인 것인가, 상호 연관돼 있는 것인가? Ionin(2006)은 이미 인식적 특정성을 논의가치성과 관련시킨 바 있다. 이와 유사한 태도를 취하는 논의들로 von Heusinger(2011) 등이 있으며, 의미화용론적 개념과 소통적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그러한 논의들의 핵심을 이룬다.

특정성은 한정성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 동일한 개념인가, 포함의 관계에 있는가, 교차의 관계에 있는가? Donnellan(1966), Partee(1970)에서 논의되었듯 속성적 한정성 표현과 비지시적 비한정성 표현이 존재하고 이들을 이상에서 검토한 특정성의 개념 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 포함관계를 설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불특정 한정성이 존재하고, 특정성과 한정성 간에는 교차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Lyons(1999), Ionin(2003), von Heusinger & Kornfilt(2005)는 특정성과 한정성 개념이 서로 교차될 수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불특정 한정성만을 위한 표지를 소유한 언어는 없으며, 특정성 자체가 한정성보다는 비한정성과 더 밀접한 개념임을 확실히 한다. 불특정 한정성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한정기술의 속성적 용법과 총칭명사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전치의 필요조건은 과연 특정성인가? 만약 불특정 한정성 표현이 전치될 수 있거나 특정성으로 설명되어 왔던 것이 사실은 한정성이었다면 이러한 주장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1나, 나)에서 이미 확인했듯 총칭명사구는 전치될 수 있다. 또 특정성의 경우로 이해됐던 (4나)는 한정성이 확장된 형태였다. 그러므로 특정성이 전치의 조건으로 보인 경우도 사실은 한정성과 관련된 경우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정성이 전치의 조건이다.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전치 성분²²⁶⁾의 한정성이 3장에서 고찰한 한정성의 유형 중 어느 경우에 주로 해당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본고는 한정성 유형을 청자의 인지상태에 대한 화자의 가정 양상에 따라 세분하여 지식·의식, 지식·비의식, 비지식·의식, 추론·지식, 추론·비지식의 다섯 가지로 파악한 바 있다. 전치 성분은 주로 연결 추론과 관련되면서 지식·의식, 비지식·의식의 한정성과 추론·지식의 한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치는 부분관계의 집합 즉 '부분집합' 혹은 '하위집합'과 관련된 추론을 촉발한다(Birner & Ward 1998, Prince 1998).²²⁷⁾

226) 엄격하게는 성분이 지시하는 실체를 의미하므로 '실체'라고 해야 할 것이나 편의상 '성분'이라는 술어를 계속해서 사용한다.

227) 다음 중 주로 ①, ③, ④에 해당한다.

동일한 관찰은 Ward, Birner & Huddleston(2002: 1372-1373)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전치 성분에 대해 기언급·기활성·담화구 실체들에 대한 연결부로 작용할 수 있는 담화구 실체여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 논의에서 ‘담화구(discourse-old)’ 개념은 의식의 한정성과 추론·지식의 한정성을 모두 포함한다. ‘연결부(link)’란 ‘부분관계’ 즉 대조로 이전 담화와 연결되는 실체를 가리킨다. (7)이 명백하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연접 대조이다.

Ward, Birner & Huddleston(2002: 1381)은 (8) 즉 (9)와 같은 예도 제시한다. (9)에서도 (9A)에 실현된 의식의 한정성 성분 ‘차’와 (9B)에 실현된 전치 성분 ‘커피’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때 ‘커피’는 의식의 한정성 성분에 해당한다.

- (8) A: Did you want tea?
 B: Coffee ordered.
- (9) A: 손님께서 차를 시키셨습니까?
 B: 커피를 저는 시켰는데요. (차를 시킨 게 아니구요.)

(7)과 상이한 또 다른 점은 (8), (9)는 이접 대조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이접 대조를 통해 (8B)의 전치 성분은 ‘주의 개방명제’인 ‘배경’의 공백 즉 ‘초점’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논의된다.²²⁹⁾ 전치 구문의 문두 성분은 초점으로도 기능한다.

대조는 좀 더 다양한 양상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10)의 문두 성분들도 의식 내의 어떤 실체들과 연결 추론 즉 부분관계의 집합을 이루고 ‘대조성’을 표시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 (10) 가. 영화는 선생님들을 만났다. 1번 선생님을 영화는 제일 좋아한다.
 나. 영화는 선생님들을 만났다. 밥은 영화가 샀다.

(10가)의 ‘1번 선생님을’은 기언급 실체인 ‘선생님들’의 부분집합·하위집합에 해당하고, (10나)의 ‘밥은’은 영화가 선생님들을 만나서 했던 행위들 중 하나가 된다. 이때 전치 성분이 가리키는 실체는 의식의 한정성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고 추론·지식의 한정성만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²²⁹⁾ 이접 대조의 경우 ‘를’이 실현되는 경향을 보인다. (12)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초점으로 기능한다.

요컨대 특정성은 화자 지식 내에 해당 표현에 대응되는 개체가 존재할 때의 명사구의 속성이고, 한정성은 청자 지식과 의식 내에 해당 표현에 대응되는 개체나 부류의 표상이 존재한다고 화자가 가정할 때의 명사구의 속성이다. 이러한 특정성과 한정성은 서로 구분되면서 교차되는 개념이다. 결국 전치 성분들은 한정성이 필수이며 특정성이 필수라고 논의돼 온 성분들도 한정성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한정성은 3장에서 검토한 한정성의 유형 중 주로 의식, 지식·추론의 한정성과 ‘대조성’을 통해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4.1.2. 전치 구문의 기능

전치 구문의 기능은 두 가지 관점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담화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문장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이다. 전치 성분은 담화의 일부이면서 문장의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치 성분은 분절된 명제를 기반으로 할 경우 태생적인 주의 실체로서 문장의 분절을 야기하는 화제의 일종이므로, 담화상 기능과 분절상 기능을 모두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담화상으로는 주의를 전환하고 분절상으로는 화제 성분의 문두 배치를 통해 정보의 분절과 배열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4.1.2.1. 담화의 조직과 관련되는 기능

담화상에서 전치는 해당 실체를 주의의 대상으로 제시하여 청자를 주목하게 한다. Choi(1996/1999)는 ‘현저성(prominence)’이라는 술어를 사용하여 해당 현상을 설명한다. 현저성이란 더 많은 주의나 강조(emphasis)를 얻는 것, 혹은 예외성(unexpectedness)이나 의외성(surprise)을 나타내는 것을 일컫는다.

- (11) A: 철수가 뭘 샀어?
 B: 철수가 게임CD를 샀어.
- (12) A: 철수가 뭘 샀어?
 B: 책을 철수가 샀어.

(11)과 달리 (12)에서는 ‘책’을 문두 배치함으로써 ‘다른 게 아니고 책을 샀다’는 사실이나 ‘책을 살 아이가 아닌데 책을 샀다’는 사실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

게 된다고 본다. 이집 대조의 경우이다. 문두 배치되는 성분은 화자에 의해 이러한 현저성을 획득하게 되고 역으로 현저성을 표시하기 위해 문두 배치되기도 한다. Choi(2004)에서는 목적어 의문사구의 전치도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본다.

이는 달리 담화 내 문장 간에서 주의가 전환되는 양상을 표시해 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13)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1차 회의 대화록’의 한 장면이다. 남북 정상이 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가볍게 소감을 나눈 뒤 북한의 수해에 대해 언급한다. 괄호 안은 본고에서 상정한 암시적 질문이거나 생략된 화제 성분이다. 암시적 질문들은 2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어떻게, 어떻게, 어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한다.²³⁰⁾

- (13) A1: (당신은 북쪽의 수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B1: ① (나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② (나는)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웠는데.
 A2: (그런데 상황이 어땠습니까?)
 B2: 이번에 오면서 보니까 그래도 흔적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A3: (당신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B3: (나는) 그동안 땀 흘려서 잘 복구하게 된 것을 매우...
 A4: (당신은 우리가 수해를 위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B4: ① 내 어제 상임위원장 동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② (나는) 먼저 만나시게 되면 수해 피해 때 많이 위문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A5: (당신은 이 반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B5: (나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합니다.
 A6: (당신은 이 반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B6: ① (나는) 감사합니다.
 ② (당신은) 많이 도움이 됐고.
 ③ **혈육의 정을** 우리부터도 감사하게 됐고.
 ④ (나는) 느낀 바가 많습니다.
 A7: (당신은 이 반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B7: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우리도 기쁜 일입니다.

230) 대화록에 대한 분석은 6장에서 집중한다.

첨가된 암시적 질문을 포함하여 (13A1, A2, A3, B4, A5, B6, A7)이 북측 정상의 발언이고 (13B1, B2, B3, A4, B5, A6, B7)이 남측 정상의 발언이다.²³¹⁾ 대부분 발화된 문장의 화제는 ‘나는’으로 설정될 수 있다. (13B6②)에서 설정된 ‘당신은’을 제외하면 (13B6③)만이 전치를 통해 굵은 글씨로 표시된 밑줄친 ‘혈육의 정’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²³²⁾ ‘당신’은 청자이므로 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3B6③)은 앞서 남측이 북측에 보인 위로를 ‘혈육의 정’이라는 표현을 통해 지시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 (14) A1: (당신은 NLL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B1: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A2: (NLL문제는/평화협력지대는 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B2: 헌법 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평화협력지대는) 헌법 문제 절대 아닙니다.
 A3: 당신은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B3: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A4: (당신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B4: (나는)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 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A5: (내가 무엇을 했길래 그렇습니까?)
 A6: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거죠.

(14)는 NLL문제에 대해 상호 합의하는 부분이다. (14B2)와 (14A1) 사이에 다소 생략된 내용이 있으나 담화 진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부분은 화청자를 승계 화제로 삼고 있다. ‘평화협력지대’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는 (14A2)만이 예외이다. 전치가 실현돼 있는 (14A6)의 경우 ‘어째서’ 혹은 ‘왜’에 대해 하나의 문장으로 대답하면서 ‘평화협력지대’나 ‘큰 비전’을 지시하는 해당 성분을 강조하고 있다. 전치를 통해 주의가 전환된다. 이때 (14A6)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231) 이후 해당 발화의 화자가 남측 정상인지, 북측 정상인지는 명세하지 않는다.

232) 이후 대화록에서 발췌한 예문의 화제 성분은 밑줄뿐만 아니라 굵은 글씨로도 강조하기로 한다.

혹은 '다른 문제도 아니고 바로 이 문제를'이라는 의미도 표시한다. 이 역시 '를'로 실현된 이접 대조의 의미이자 초점에 해당한다.

4.1.2.2. 문장의 분절과 관련되는 기능

분절상으로 전치 구문은 해당 실체를 중심으로 정보가 배열될 것을 예고하는 기능을 한다. 다만 성분의 문두 배치가 정보의 분절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화제-평언 분절은 분절된 명제를 기반으로 문장의 정보 배열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5), (16)처럼 정보 자체에 분절이 없더라도 문두 배치는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분절 즉 제언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가 분절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15) A: 무슨 일이야?
B: 철수를 영희가 차로 치었어.
- (16) A: 무슨 일이야?
B: 어떤 애를 영희가 차로 치었어.

이와 달리 전술한 (14)의 경우처럼 개방명제가 배경으로 설정될 수 있다면, 전치는 언제든지 분절을 보증하게 된다. (14가)의 전치 구문은 (14가')에 대한 대답으로 설정될 수 있고, 이는 명백한 개방명제이다. (14나)도 평행하게 개방명제 (14나')에 대한 대답으로 설정될 수 있다.

- (14) 가. 영희는 선생님들을 만났다. 1번 선생님을 영희는 제일 좋아한다.
가. 영희는 그 선생님들 중 누구를 제일 좋아하나?
나. 영희는 선생님들을 만났다. 밝은 영희가 샀다.
나. 누가 모임 비용을 지불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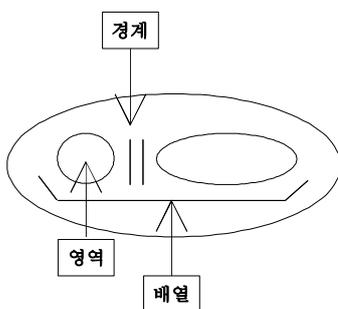
이러한 경우 전치 성분은 화제-평언 분절을 보증하며, 이 경우 단순한 강조에서 벗어나 해당 실체에 대해 정보를 첨가하는 형태로 문장을 조직하게 된다. 정보가 첨가되는 영역이 문두 성분으로 한정되고, 그 경계는 문두 배치로 표시된다.²³³⁾

233) 도형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문장은 정보 배열을 표시하고, 문두 성분은 영역 한정을 표시하며, 문두 성분과 후속 성분의 경계는 분명한 분절을 표시한다.

한편 배경-초점 분절은 맥락에 따라 달리 형성될 수 있다. 조사별로 상이한 분절 양상을 표시한다. 대개 연결 대조인 경우에는 배경·초점 모두 가능하지만, 이접 대조인 경우에는 초점만 가능하다. ‘는’은 한정성 및 배경 모두와 관련되며, ‘을’은 주로 초점과 관련된다. 무조사는 제시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주로 배경과 관련된다.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후술한다.

4.2. 좌측전위

좌측전위(left-dislocation)는 정형 위치에 문두 성분의 공지시 성분이 주로 대명사로 온전하게 실현돼 있는 구문이다.²³⁴⁾ 주어도 문두 성분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공지시 성분은 대명사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 대개 표지 즉 조사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시어로도 이해되나,²³⁵⁾ 좌측전위의 핵심을 무조사로 볼 수는 없다. 공지시 성분이 좌측전위 구문의 핵심이다. 문두 배치된 성분 뒤에 휴지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있잖아’ 혹은 ‘말이야’와 통합한다고 보기도 한다.²³⁶⁾ 좌측전위 구문은 범언어적으로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문두 구문, 화제 구문으로 알려져 있다.



234) 박철우(2007)은 좌측전위 구문이 담화에서 낮은 빈도로 출현한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로 공지시 성분의 존재를 들었다. 박철우(2007)에서 좌측전위 구문은 ‘좌분리’로 지칭된다.

235) 좌측전위와 제시어의 관계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좌측전위 구문과 무조사 구문이 제시어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인가 하는 점을 고찰해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좌측전위 구문과 무조사 구문의 기능을 취급할 때 살펴보기로 한다.

236) 이에 대해서는 좌측전위 구문의 기능을 논의할 때 다루기로 한다.

4.2.1. 좌측전위 문두 성분의 조건

전치가 연결 추론의 한정성 표현까지를 성분의 조건으로 허락했다면, 좌측전위는 표현 추론의 비한정성 표현까지 성분의 조건으로 허락할 수 있다.²³⁷⁾ (17)은 Ward & Birner(2011: 1940)에서 제시된 것이다.

- (17) 가. 내 동료 중 한 명, 그는 파워볼 사는 데 100달러 이상 썼다고 한다.
 나. 내 동료 중 한 명, 그가 파워볼 사는 데 100달러 이상 썼다고 한다.

문두 성분과 후속 부분의 밑줄친 ‘그’가 공지시돼 있다. 이때 문두 성분 ‘내 동료 중 한 명’은 ‘나’를 통해 한정성을 획득한 표현 추론의 경우이면서, ‘동료들’ 집합에 대해 부분관계를 형성한 연결 추론의 경우에 해당한다. 부분성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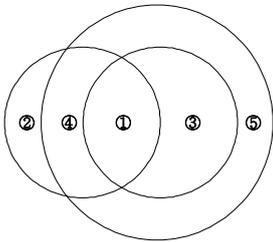
그러나 표현 추론이든 연결 추론이든 한정성을 획득하지 못한 비한정성 표현은 (18)과 같이 좌측전위로 실현되는 것이 어색하다.

- (18) 가. *웬 남자, 그는 파워볼 사는 데 100달러 이상을 썼다고 한다.
 나. *웬 남자, 그가 파워볼 사는 데 100달러 이상을 썼다고 한다.

(18가)의 문두 성분 ‘웬 남자’는 ‘그는’의 ‘그’와 공지시된다. 그러나 청자의 지식과 의식 내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가정하기 힘들다. 좌측전위를 통한 도입은 뜬금없는 느낌을 준다. ‘그가’의 ‘그’와 공지시되는 (18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19)처럼 ‘나’라는 표현을 통한 표현 추론이 가능해지면 성립이 크게 어색하지는 않다. (19가-나) 모두가 가능한 데서 알 수 있듯 문두 성분은 맥락에 따라 후

237) 다음 중 주로 ②, ④, ⑤에 해당한다.



속 문장에서 ‘는’으로 받을 수도 있고 ‘가’로 받을 수도 있다.²³⁸⁾

- (19) 가. 내가 마주친 웬 남자, 그는 파워볼 사는 데 100달러 이상을 썼다고 한다.
나. 내가 마주친 웬 남자, 그가 파워볼 사는 데 100달러 이상을 썼다고 한다.

만약 (20)과 같이 문장초점으로 실현된다면 비한정성 실체를 도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가지지 않는다. 전체가 새로운 사태를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0) 웬 남자가 파워볼 사는 데 100달러 이상을 썼다고 한다.

즉 좌측전위의 문두 성분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표현 추론으로 촉발되는 추론·비지식의 한정성을 획득하고 있어야 한다.

4.2.2. 좌측전위 구문의 기능

좌측전위 구문은 후속 성분이 하나의 독립적인 문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문두 성분과 공지시 성분이 실현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체를 도입하거나 화제를 전환하는 데, 즉 주의를 전환을 표시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논의돼 왔다. 문두 성분과 후속 문장 간의 경계가 분명한 데다 문두 성분이 무조사로 실현되는 경우가 잦아 ‘제시어’와 함께 논의되기도 한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담화상에서의 화제의 기능과 정보를 분절하고 배열하는 분절상에서의 화제의 기능이 좌측전위 구문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 고찰하기로 한다. 배경-초점 분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4.2.2.1. 담화의 조직과 관련되는 기능

담화 내 모든 실체가 문장화제의 형태를 띠고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만이 문장화제로 실현된다. 좌측전위 구문은 이러한 기능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논의돼 왔다. (21)은 미언급·미활성·담화신 즉 비의식 한정성의 실체가 좌측전위를 통해 주어 위치에서 도입되는 경우를 보여준다(Birner & Ward 2001).

238) 조사별 차이는 5장에서 주로 논의된다.

(21) 그는 내 동생과 투닥거리기 시작했고 내 동생은 소리치기 시작했다. 집주인, 그녀가 들어섰고 그는 그녀를 쫓았다.

이처럼 좌측전위 구문은 비의식 한정성의 실체를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전치와 마찬가지로 해당 실체를 주의의 대상으로 제시하여 청자를 주목하게 한다.

이를 기반으로 좌측전위는 담화 단위 사이에서 화제를 전환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이러한 양상은 ‘있잖아’ 혹은 ‘말이야’와의 통합을 통해 강조돼 왔다(임동훈 2012, 최윤지 2016). 좌측전위와 ‘있잖아, 말이야’는 모두 유사한 문제와 연계돼 오기도 했다. ‘제시어’(이선웅 2005, 임흥빈 2007, 최윤지 2016, 함병호 2018), ‘비인가 화제’(Oh 2007, 박진호 2015, 함병호 2016), ‘화제 확립 절(topic establishment clause)’(Jun 2015)²³⁹⁾ 등이 그러하다. 문제는 이들 관계가 분명치 못하다는 점이다. ‘있잖아, 말이야’를 중심으로 좌측전위와 제시어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²⁴⁰⁾

본절에서 확인하고 싶은 문제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제시어의 표지 문제이다. 제시어는 표지를 가질 수 있는가? ‘있잖아’ 혹은 ‘말이야’는 제시어의 표지인가? 둘째, 대응 구문의 문제이다. 좌측전위만 ‘있잖아, 말이야’를 허가하거나 제시어로 취급되는가? 셋째, 구문과 표지의 담화상 기능 문제이다. 좌측전위는 담화 간 화제 전환만을 담당하고 그럴 때만 ‘있잖아, 말이야’와 통합하는가? 넷째, 표지의 기능과 의미 문제이다. 표지로서 ‘있잖아’와 ‘말이야’의 기능은 무엇이며 두 표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첫 번째 문제는 제시어의 정의와 관련된다. ‘제시어’는 흔히 ‘독립어 성분인 명사구 혹은 명사구 상당어가 무표지로 사용되고 그에 관여적인 서술이 후속 성분으로 등장하는 경우’를 가리킨다(이선웅 2005, 임흥빈 2007).²⁴¹⁾ (22가)나 (23가)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의 후속 문장은 각각 전치와 정형어순 구문이고²⁴²⁾ 모두 ‘영회’에 관여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239) Jun(2015)에는 ‘알지’도 제시돼 있다.

240) 제시어는 문장의 분절과 더 밀접한 문제이지만, ‘있잖아, 말이야’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담화의 조직에서 언급한다.

241) 최윤지(2016), 함병호(2016, 2018)에서는 ‘가’가 실현된 문두 성분도 제시어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중주어 구문을 논의할 때 언급하기로 한다.

242) 이는 좌측전위 구문의 후속 부분이 독립적인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한해 제시한 것이다.

- (22) 가. 영희, 개는 누가 좋아하나?
 나. 영희 있잖아, 개는 누가 좋아하나?
 다. 영희 말이야, 개는 누가 좋아하나?
 (23) 가. 영희, 누가 개를 좋아하나?
 나. 영희 있잖아, 누가 개를 좋아하나?
 다. 영희 말이야, 누가 개를 좋아하나?

만약 제시어에 대한 정의에서 ‘표지’가 의미하는 바가 ‘조사’에 국한된다면, 좌측전위 문두 성분이 단독으로 실현된 (22가), (23가)와 ‘있잖아’, ‘말이야’가 각각 통합된 (22나) · (23나), (22다) · (23다)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표지’가 ‘있잖아, 말이야’ 등도 포함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제시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최윤지(2016)은 (22나-다), (23나-다)처럼 ‘있잖아, 말이야’가 통합된 성분을 제시어로 취급하지 않고 (22가), (23가)와 같은 무조사 제시어와 원칙적으로 구분하면서도, 두 표현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도 한다(최윤지 2016: 202 각주 50).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제시어’를 정의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정의에서 표지를 배제할 것인가, 배제한다면 표지 중에서도 조사만 배제할 것인가 아니면 ‘있잖아, 말이야’ 등도 배제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²⁴³⁾

두 번째 문제는 대답이 비교적 쉽다. 좌측전위 문두 성분은 ‘있잖아’로 실현될 수 있고(임동훈 2012) 이는 관점에 따라 제시어와 대응될 수 있다. 그러나 (24), (25)에서 볼 수 있듯, 공지시 성분이 실현된 좌측전위 구문만 해당 표현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 전치 구문으로 파악될 수 있는 (24나, 다)와 (25나, 다)에도 ‘있잖아’ 혹은 ‘말이야’는 통합된다.²⁴⁴⁾ Oh(2007), Jun(2015), 박진호(2015) 등에서 제시된 ‘있잖아’의 경우도 좌측전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24) 가. 영희는 누가 좋아하나?
 나. 영희는 있잖아, 누가 좋아하나?
 다. 영희는 말이야, 누가 좋아하나?

243) 이에 대해서는 중주어 구문과 자유화제 구문을 다룰 때 또 후술하기로 한다.

244) (25)는 ‘영희 (너) 어쩔 거냐?’에서 ‘너’가 성분생략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보아 전치 구문으로 포함시키고자 했다.

- (25) 가. 영희 어쩔 거냐?
 나. 영희 있잖아, 어쩔 거냐?
 다. 영희 말이야, 어쩔 거냐?

좌측전위 문두 성분과 제시어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제시어를 무조사에 국한시킨다고 해도 (25가)와 같이 좌측전위가 아닌 제시어가 존재한다. 이선웅(2005), 최윤지(2016), 함병호(2016, 2018) 등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공지시 성분이 실현된 좌측전위 제시어가 잘 발견되지도 않는다. 더 나아가 제시어에 대한 정의에 표지는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다면 (24나, 다)까지도 제시어로 인정하게 된다.²⁴⁵⁾ 좌측전위 구문의 문두 성분만 ‘있잖아, 말이야’와 통합되거나 제시어와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문제는 좌측전위의 기능이 문장 간 화제 전환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그 경우에도 ‘있잖아, 말이야’가 통합될 수 있는가와 관계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좌측전위 문두 성분만 ‘있잖아, 말이야’와 통합된다고 보는 경우는 없다. Oh(2007), 박진호(2015), 함병호(2016, 2018) 등에서 해당 성분은 좌측전위 구문과 직결되지 않은 채, 미언급·미활성·담화신 정보의 실체 즉 비의식 한정성의 실체를 도입하는 전환 화제이자 ‘비인가 화제’로 분류된다. Jun(2015)에서는 ‘화제 확립 절’로 명명된다.²⁴⁶⁾ 이때 이들 논의들이 해당 성분의 기능을 담화 간 화제 전환에만 국한시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러한 경향은 있다고 본다. 최윤지(2016)에서는 문장화제가 아닌 담화화제로만 취급하고 있기도 하다.²⁴⁷⁾

본고는 좌측전위 문두 성분이 (22), (23)과 같은 담화 간 화제 전환 외에 (26), (27)과 같은 문장 간 화제 전환의 기능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전자는 담화 단위가 전환되는 경계에서 담화화제를 도입하는 기능으로, 주로 질문으로 실현된다고 본다. 후자는 하나의 담화 단위 내에서 문장화제만을 전환하는 기능으로, 질문에서부터 좌측전위가 등장할 수도 있고 대답에서만 등장할 수도 있다.

245) 그러나 조사가 통합된 제시어를 인정하는 논의들도 ‘는’을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가’만 허가한다(최윤지 2016, 함병호 2016).

246) Oh(2007)에서는 ‘있잖아’가 아닌 ‘말이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Jun(2015)에서도 ‘있잖아’가 아닌 ‘말이야’와 ‘알지’가 언급되고 있다.

247) 최윤지(2016)에서도 Oh(2007), 박진호(2015), 함병호(2016, 2018) 등과 마찬가지로 ‘있잖아, 말이야’는 미언급·미활성·담화신 정보의 실체 즉 비의식 한정성의 실체를 도입하는 것으로 본다.

- (26) 가. 영희, 개는?
 나. 영희, 누가 개냐?
 (27) A: 너는 누구를 좋아하냐?
 B: 영희, 나는 개를 좋아해.

(26가)에는 ‘어떻게 됐냐?’ 정도로 복원해 볼 수 있을 ‘개는’의 후속 성분이 생략되어 있다. 생략은 승계를 의미하고 담화 단위가 전환되는 경계는 승계를 의미한다고 보기 힘들므로, (26가)는 문장 간의 주의 전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26나)에서 좌측전위 문두 성분 ‘영희’는 비지식·의식의 한정성 실체로서 그 정체가 의문시되고 있다. ‘영희’에 대한 담화 단위 중간에 화제 실체의 정체를 확인하고자 발화하는 경우로 간주된다. (27)은 질문으로 화제를 전환했던 (26)을 비롯한 이전의 경우들과 달리 대담으로 화제를 전환하는 경우이다. (27A)의 화제는 ‘너는’이고, 좌측전위 구문인 (27B)의 화제는 ‘영희’이다. 해당 문두 성분은 의문사에 대한 대답 즉 초점이므로 담화 단위 중간에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담화 간 화제 전환 시에만 ‘있잖아, 말이야’가 통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문장 간 화제 전환을 담당했던 (26나)도 (28)에서 볼 수 있듯 ‘말이야’와 통합한다. (29)에서처럼 문장 간 화제 승계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잖아, 말이야’와 통합하는 경우가 있다. (29A)의 ‘영희는’이 (29B)에서처럼 승계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때, 이 승계 화제는 (29B①)에서처럼 ‘있잖아’와 통합하는 경우, (29B②)처럼 ‘말이야’와 통합하는 경우 모두 가능하다.

- (28) 영희 말이야, 누가 개냐?
 (29) A: 영희는 누구를 좋아하냐?
 B: ① 영희는 있잖아, 개는 나를 좋아해.
 ② 영희는 말이야, 개는 나를 좋아해.

좌측전위의 주된 기능이 비지식의 한정성 실체 도입을 통한 담화 간 화제 전환인 것은 분명하나 꼭 그러한 기능만 가지는 것은 아니며, 담화 간 화제 전환의 경우에 만 ‘있잖아, 말이야’가 통합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문제는 ‘있잖아’와 ‘말이야’가 의미나 기능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

고자 하는 것이다. 대부분 두 표현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나, (26나)에 ‘있잖아’가 통합된 (30)의 경우 ‘말이야’가 통합된 (28)과 달리 다소 어색함을 보이는 듯하다. 이러한 직관이 수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비지식·의식 한정성의 실체여서 표상만 인지됐을 뿐 정체는 확인돼 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30) ?영희 있잖아, 누가 개나?

두 표현에 대한 논의로는 김주미(2004), 김민국(2011), 최윤지(2016), 함병호(2018) 등이 있다. 김주미(2004)는 ‘있잖아’가 담화 시작, 화제 도입, 상황 전환, 강조 등의 기능을 가진다고 보았다. 김민국(2011)은 ‘말이야’²⁴⁸⁾가 활성화·초점화의 기능을 가진다고 보았는데, 이는 본고의 ‘주의’에 해당한다. 이선웅(2005)에서 논의된 제시어의 기능 역시 ‘주의 집중’이다. 두 표현은 공히 ‘주의 실체’와 통합하여 문두 성분과 후속 성분 사이의 경계를 강화하면서 화제 성분을 표시해 주는 것으로 논의돼 왔고, 이는 제시어의 기능과도 밀접한 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차이점에 주목한 것은 함병호(2018)이다. 함병호(2018: 145-146)은 (31)과 같이 두 표현 간에 순서상 제약이 있어 ‘있잖아’가 ‘말이야’에 후행하는 (31나)보다 선행하는 (31가)가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파악하였다.

(31) 가. 저기 있잖아, 그게 말이야.
나. ??저기 말이야, 그게 있잖아.

(26)에 대응되었던 (28), (30)의 경우까지 감안해 보았을 때 두 표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있잖아’가 표상이 아닌 존재의 도입에 더 특화돼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²⁴⁹⁾

요컨대 좌측전위 구문의 대표적인 담화상 기능은 비의식의 한정성 실체 도입을 통한 담화 간의 화제 전환이다. 이는 대표적인 담화상 기능이 대조의 한정성 실체를 통한 문장 간 화제 전환이었던 전치 구문과 구분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좌측전위가 문장 간 화제 전환이나 화제 승계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한편 좌측

248) 김민국(2011)에서는 ‘말이다-3’으로 표기되었다.

249) 그러나 이렇게 파악하려면 (31나)의 어순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표상이 존재에 앞서기 때문이다.

전위 구문은 제시어나 ‘있잖아, 말이야’ 등과 연계돼 논의돼 왔으나 이 역시 좌측전위에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다. 제시어의 ‘있잖아, 말이야’에 대한 관계나 조사에 대한 관계도 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리 파악될 수 있다.

4.2.2.2. 문장의 분절과 관련되는 기능

분절상에서 좌측전위는 전치와 마찬가지로 문두 실체 중심의 정보 배열을 예고한다. 다만 전치보다 정보의 분절을 더 확실하게 보증하는 면이 있다. 후속 부분이 문두 성분에 대한 공지시 성분을 포함하는 독립적인 문장인 데다, 경계를 표시해 주는 ‘있잖아, 말이야’ 등과의 통합도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휴지가 놓이는 경우도 빈번하며 이를 통해 분절 여부가 증명되기도 한다. 정보가 첨가되는 영역이 문두 성분으로 한정되고 그 경계가 문두 배치로 표시됨으로써 문두 실체에 대해 정보를 첨가하는 형태로 문장이 조직된다.

배경일 수도 있었고 초점일 수도 있었던 전치 문두 성분과 마찬가지로 좌측전위도 배경과 초점 모두로 실현될 수 있었다. 이는 (31)을 통해서도 드러난다.²⁵⁰⁾

- (31) 가. 내 동료 중 한 명, 그는 파워볼 사는 데 100달러 이상 썼다고 한다.
 가. 너의 동료들은 어때?
 나. 내 동료 중 한 명, 그가 파워볼 사는 데 100달러 이상 썼다고 한다.
 나. 누가 복권 사는 데 거금을 썼대?

(31가)를 (31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을 때, 좌측전위 문두 성분 ‘내 동료 중 한 명’은 ‘동료들’에 대한 부분성을 통해 배경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31나)는 (31나')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고, 초점이 된다. 담화 간 화제 전환의 기능을 가질 때에는 배경만 가능하고, 문장 간 화제 전환의 기능을 가질 때에는 배경과 초점 모두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4.3. 중주어

중주어는 한국어에서 화제 논의를 촉발시킨 특수 구문이다. 이는 인도유럽어에서 논의되는 자유화제 구문과 구분되는 부분도 있고 구분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본고

²⁵⁰⁾ 다만 조사의 차이는 있다.

에서는 두 구문을 구분한다. 문두 성분을 제외한 부분이 온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즉 제1주어와 제2주어 간에 일정한 의미론적 관계가 성립될 경우만을 중주어 구문으로 취급하고자 한다.

4.3.1. 중주어 문두 성분의 조건

한국어에서 기존에 중주어 구문으로 논의돼 온 구문들 중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비분리·분리 소유’ 혹은 ‘전체-부분’ 구문이다. 두임림(2010)에서 논의한 네 부류 중 ‘전체-부분’과 ‘친족’의 두 부류가 이에 속한다.²⁵¹⁾

- (32) 가. 영화는/가 얼굴이 예쁘다.
- 나. 영화는/가 동생이 예쁘다.
- 다. 이 꽃은/이 잎이 예쁘다.

(32가)에서는 제2주어 ‘얼굴’의 소유자가 제1주어 ‘영화’이고, (32나)에서는 제2주어 ‘동생’과 친족관계에 있는 것이 제1주어 ‘영화’이며, (32다)에서는 제2주어 ‘잎’을 부분으로 가지는 전체가 제1주어 ‘이 꽃’이다.

(33)에서처럼 제1주어를 생략하면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 제1주어와 제2주어가 소유관계나 부분관계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무엇’의 ‘얼굴, 동생, 잎’이 예쁘지 충족되어야만 의미가 제대로 전달된다.

- (33) 가. *얼굴이 예쁘다.
- 나. ?동생이 예쁘다.
- 다. ?잎이 예쁘다.

이는 (34)에서와 같이 제1주어와 제2주어가 ‘의’로 통합될 수 있다는 점으로도 증명된다.

- (34) 가. 영화의 얼굴이 예쁘다.

251) 본고에서는 ‘총계-수량’ 구문은 다루지 않는다. 두임림(2010)에서는 후술할 ‘부류-성원’ 구문까지 포함하여 총 네 가지 유형을 중주어 구문으로 파악하였다.

나. 영희의 동생이 예쁘다.

다. 이 꽃의 잎이 예쁘다.

제1주어의 명사구는 모두 고유명사와 지시사가 실현돼 있는 한정성 표현들이다. 제1주어를 (35)처럼 비한정성 표현으로 바꿔 보면 성립이 어색하다.

(35) 가. ?한 여자가 얼굴이 예쁘다.

나. ?어떤 여자가 동생이 예쁘다.

다. ?웬 꽃이 줄기가 예쁘다.

부분성을 포함한 연결 추론이 설정될 만한 맥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예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어에서 기존에 중주어 구문으로 논의돼 온 구문들 중 다음으로 전형적인 경우는 (36)의 '부류-성원' 구문이다. 두임림(2010)의 '부류-성원'과 동일하다.

(36) 가. 꽃이/은 장미가 예쁘다.

나. *장미가 예쁘다.

다. *한/어떤/웬 꽃이 장미가 예쁘다.

라. *꽃의 장미가 예쁘다.

(36가)에서는 '꽃'이 부류를 가리키고 '장미'가 그 성원을 가리킨다. 제1주어·문두 성분은 부류를 지시하여 총칭성을 가진다. 역시 이를 생략하면 (36나)처럼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36다)와 같이 비한정성 표현으로 실현되면 총칭성을 상실하고 개체만을 지시하게 되므로 성립이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34)와 달리 (36라)처럼 제1주어와 제2주어를 '의'로 통합하면 비문이 된다.

요컨대 앞서 살펴본 전치 구문, 좌측전위 구문과 마찬가지로 중주어 구문의 제1주어는 한정성 실체이다. 살펴볼 것은 이때 한정성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살펴본 제1주어·문두 성분은 모두 고유명사로 실현돼 있거나 지시사를 포함하고 있거나 총칭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식의 한정성과 깊이 관련된다.²⁵² 기언급·기활성·담화구 실체 즉 의식의 한정성 실체가 아닌 경우에도 적절한 맥락이 주어질 경우 중주어 구문의 화제로 실현될 수 있다.

4.3.2. 중주어 구문의 기능

중주어 구문 역시 답화상·분절상 기능을 살펴볼 수 있다. 중주어 구문의 답화상 기능 역시 주로 화제 전환에 해당될 것이나, 담화 간의 전환인지 문장 간의 전환인지를 더 언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장 간의 전환인 경우 해당 화제가 질문에서부터 실현되는지, 대답으로만 실현돼 있는지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승계 화제로서 사용되는지도 고찰해 볼 수 있다. 분절상 기능은 문장에서 문두 성분이 후속 부분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배경·초점 중 무엇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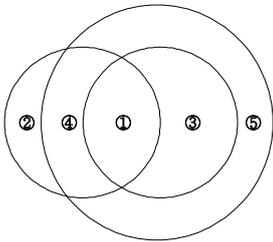
4.3.2.1. 담화의 조직과 관련되는 기능

담화상에서 중주어는 여타 문두 구문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실체를 주의의 대상으로 제시하여 청자를 주목하게 한다. 제2주어와의 의미론적 관계로 인해 생략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승계 화제보다는 전환 화제로 기능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전환은 주로 담화 간에서 발생한다. 전치, 좌측전위도 그랬듯 담화 간 화제 전환은 (37)처럼 질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7) 가. 철수는 누가 아프시니?
나. 철수는 아버지가 어떠시니?

(37가, 나) 모두 ‘철수는’을 화제로 가지고 각각 철수의 친족 ‘누가’ 아프지, 철수의 아버지가 ‘어떠신지’ 묻고 있다. 중주어 구문을 통한 담화 간 화제 전환은 제1주

252) 다음 중 주로 ①, ②, ④에 해당한다. 지시사는 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어·문두 성분을 화제로 삼고 제2주어나 서술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형태로 이해된다.

(38)과 같이 중주어 구문을 통한 문장 간 화제 전환도 가능하다. (37)과의 차이는 조사에 있다. (38나, 다)에는 ‘는’이 아닌 ‘가’가 실현돼 있고 ‘가’가 실현돼 있다는 것은 이접 대조가 발생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 (38) 가. 철수가 누가 아프시니?
나. 철수가 아버지가 어떠시니?
다. 누가 아버지가 아프시니?

후술할 바와 같이 이접 대조는 대안집합이 형성될 만한 맥락이 주어지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 제1주어는 담화 단위 경계가 아니라 중간에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장 간 화제 전환은 (38다)와 같이 제1주어·문두 성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여타 문두 구문과 마찬가지로 중주어 구문 역시 화제 전환을 주된 담화상 기능으로 가지지만, 문장 간 화제 승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39A)와 같은 질문에 (39B①-②)와 같은 대답으로 화제를 승계하는 경우도 있다.

- (39) A: 철수는 어머니?
B: ① 철수는/∅ 아버지가 아프셔.
② 철수가/∅ 아버지가 아프셔.

이때 ‘는’, ‘가’, 무조사 모두 실현될 수 있다. 조사의 선택은 후술할 바와 같이 대조를 의식하느냐, 의식한다면 연접 대조를 형성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접 대조를 형성한다고 생각하느냐와 관련된다.

더 고찰해 볼 문제는 바로 ‘제시어’에 대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시어에 대한 논의는 어떤 정의를 사용하는지에 좌우된다. 본고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표지의 문제이다. 이선웅(2005), 임홍빈(2007)에서 제시된 ‘무조사’ 정의를 채택하지 않고 중주어 구문의 ‘가’ 제1주어도 제시어이자 화제로 인정하는 최윤지(2016), 함병호(2016, 2018)도 있어 주목된다. 이는 중주어 구문이 제1주어와 제2주어 사이

에 분명한 휴지와 경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김민국(2016: 125-133)처럼 ‘가’ 제1주어는 화제가 될 수 없다고 보는 논의도 있다.

검토한 내용과 같이 ‘있잖아, 말이야’가 문두에서 휴지와 경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면서 주의 전환을 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제1주어도 화제로 간주될 것이다. 주의와 경계는 화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39B①-②)는 각각 (40)처럼 이들 표현들과 통합할 수 있다.²⁵³⁾

- (40) 가. 철수가/는/∅ 있잖아, 아버지가 아프셔.
- 나. 철수가/는/∅ 말이야, 아버지가 아프셔.

제시어가 무조사에만 국한되지도 않고 특정 구문에만 한정되지도 않으며 담화 간 화제 전환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라면,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제시어를 인정한다면, 화제 중 어떤 유형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후절에서 자유화제 구문에 대해 논의하면서 ‘있잖아, 말이야’, 후속 성분, 실체, 기능, 조사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4.3.2.2. 문장의 분절과 관련되는 기능

중주어 구문은 제2주어와 서술어가 통합되어 정적 사태(static event)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체층위 술어의 역할과 유사하다. 개체층위 술어는 제언문에 실현될 수 없다. 즉 분절을 보증한다. 중주어 구문 역시 전치, 좌측전위와 동일하게 제1주어에 정보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문장이 분절되고 조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1주어가 문두 성분으로서 정보가 첨가되는 영역으로 한정되고, 제1주어와 제2주어 사이에 경계가 설정된다.

배경·초점 여부는 살펴본 바와 같이 맥락이 결정한다. 맥락에 따라 배경일 수도 있었고 초점일 수도 있었다. 제1주어는 (38다)와 같이 의문사에 대한 대답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점으로 분석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39A)와 같이 질문에서부터 배경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초점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문장 간의 화제 전환에만 국한되고, 담화 간 화제 전환일 때에는 제1주어가 배경으로만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53) ‘는’ 통합 화제는 제시어 논의에서 제외되는 경향을 보인다.

4.4. 자유화제

기존에 중주어 구문으로 취급되었던 예들 중 일부는 자유화제로 구분될 수 있다. 문두 성분을 제외했을 때 완전히 독립적인 문장이 이루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자유화제 구문은 중국어 논의에서 ‘dangling topic’(Shi 2000, Pan & Hu 2002, Huang & Ting 2006, Pan & Hu 2008, Shyu 2014)으로 논의돼 왔다. 이 중 일부는 본고의 중주어 구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일본어에서도 조사 ‘wa’와 관련하여 한국어와 유사한 예문들을 대상으로 논의돼 왔다(野田 1996). 독일어와 이탈리아어에서도 ‘hanging topic’으로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Nolda 2004, Frascarelli & Hinterhölzl 2007).

4.4.1. 자유화제 문두 성분의 조건

임동훈(1997)에서 중주어 구문이 아닌 것으로 논의되었던 구문들 중 일부를 자유화제 구문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자유화제는 ‘배경 설정’과 관련된다. 자유화제 성분이 후행 명사구와 의미론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서 후속 문장에 대한 추상적 상황 혹은 물리적 시공의 범위를 한정하기 때문이다. (41)은 임동훈(1997)에서 가져온 것이다.

- (41) 가. 내일 날씨가/는 비가 온다.
나. 국어학이/은 취직이 어렵다.

(41)은 추상적 상황에 해당한다. (41가)처럼 후행 문장이 자유화제 성분의 내용을 기술하는 경우와 (41나)처럼 상황을 기술하는 경우로 구분된다고 본다.²⁵⁴ (41가)의 자유화제 ‘내일 날씨’는 직시 표현을 포함한 한정기술이고, (41나)의 ‘국어학’은 총칭성을 가진다. 모두 한정성 표현이다. ‘가’와 ‘는’ 모두 통합되는 모습을 보인다.

(42)와 같이 물리적 시공에 해당하는 경우도 배경 설정 화제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은 부가어로서 부사어와 동일하게 기능한다. (42가)는 시간 배경이고 (42나)는 공간 배경이다. 후속 부분인 ‘영희가 밥을 산다’는 완전히 독립적인 문장을 구성한

254) 다만 (41가)는 시공 부사어와 유사하게 취급되고 (41나)는 ‘어렵다’의 논항구조로 설명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

다. (41)과 비교했을 때 그 독립성이 훨씬 높다.

- (42) 가. 내일은 영희가 밥을 산다.
- 가. ?내일이 영희가 밥을 산다.
- 나. 여기는 영희가 밥을 산다.
- 나. ?여기가 영희가 밥을 산다.

자유화제 성분 ‘내일’과 ‘여기’는 시공의 직시 표현이므로 역시 한정성 표현에 해당한다. 이들 경우에는 ‘는’만 통합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부사어와 ‘가’간의 통합이 자연스럽지 않은 점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42가, 나)은 어색하다.

한편 (41)과 유사하게 비부사어이면서 추상적 상황을 표시하지만 후속 부분이 (41)은 물론이고 (42)보다도 더 독립적인 문장을 구성하는 (43)과 같은 경우도 자유화제 구문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독립적인 문장이 후속 성분으로 실현되어 전체 문장이 비문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최윤지(2016)에서 논의된 ‘준분열문’과 유사한 면도 있다.

- (43) 가. (지금 상황~~이~~/은 영희가 철수를 때릴 것 같아.
- 나. 내 생각은/이 영희가 철수한테 이겨.

(43)의 경우 문두 성분이 생략된 후속 문장만으로도 완전한 의미가 전달된다. ‘(지금) 상황’과 ‘내 생각’은 모두 직시 표현을 포함하는 한정기술이다. 화제는 한정성을 가진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43가)는 ‘가’가 좀 더 자연스럽고 (43나)는 ‘는’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각각 ‘는’과 ‘가’와의 통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유화제 구문은 영어의 ‘as for’로 환언되는 것으로 논의돼 왔다. (44)-(46)에서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말하자면’, ‘어쩌냐면’, ‘뭐냐면’ 등이 이 표현을 대신한다.

- (44) 가. 내일 날씨에 대해 말하자면, 비가 온다.
- 나. 국어학에 대해 말하자면, 취직이 어렵다.
- (45) 가. 내일로 말하자면, 영희가 밥을 산다.
- 나. 여기로 말하자면, 영희가 밥을 산다.

- (46) 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영희가 철수를 때릴 것 같아.
 나. 내 생각은 뭐냐면, 영희가 철수한테 이겨.

다만 영어 'as for' 구문의 대부분은 한국어 '는'으로 실현되도 무방하므로(임동훈 2012), 이들 표현이 'as for'와 엄격한 대응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자유화제는 구문의 문제이지 표지의 문제가 아니다. 주목할 점은 실제로 좌측전위는 환언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Prince 1998). (21)을 (47)처럼 환언해 보면 매우 어색해진다. 승계 화제도 아니고 의식의 한정성 실체도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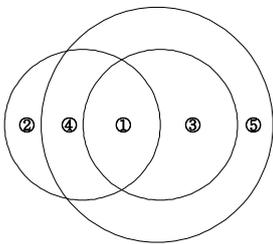
- (21) 그는 내 동생과 투닥거리기 시작했고 내 동생은 소리치기 시작했다. 집주인, 그녀가 들어섰고 그는 그녀를 쫓았다.
 (47) #그는 내 동생과 투닥거리기 시작했고 내 동생은 소리치기 시작했다. 집주인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가 들어섰고 그는 그녀를 쫓았다.

자유화제 성분이 비한정성 표현일 경우에는 당연히 성립이 어렵다. (42)에 대해 부분성조차 확보되기 힘든 비한정성 표현 '웬'으로 바꿔 보면 매우 어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8) 가. *웬 날은 영희가 밥을 산다.
 나. *웬 곳은 영희가 밥을 산다.

자유화제 구문에도 여타 문두 구문과 마찬가지로 한정성 표현이 필수적이다. 주로 물리적·추상적 배경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의식의 한정성 실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⁵⁵⁾

255) 다음 중 주로 ①, ③에 해당한다.



4.4.2. 자유화제 구문의 기능

자유화제 구문에 대해서도 역시 담화상·분절상 기능을 검토해 본다. 전자는 화제 전환과 관련되고 후자는 정보 배열과 관련된다. 담화상 기능과 관련해서는 담화간의 전환인지 문장 간의 전환인지 혹은 이전 문장 화제에 대한 승계인지 고찰해 볼 수 있다. 분절상 기능과 관련해서는 문장에서 문두 성분이 후속 부분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배경·초점 중 무엇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4.4.2.1. 담화의 조직과 관련되는 기능

담화상에서 자유화제는 여타 어순 구문과 마찬가지로 해당 실체를 주의의 대상으로 제시하여 청자를 주목하게 한다. 문두 구문이므로 승계가 아닌 전환이 자유화제의 본질일 것이다. 다만 후속 부분이 완전히 독립적인 문장을 이루기 때문에 실현돼 있지 않으면 해당 성분이 화제라는 점을 인지할 수 없다. 동일한 이유로 자유화제 구문이 질문으로서 설명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주의를 전환하는 일은 없다. 여타 문두 구문과 완전히 다른데, 이는 자유화제와 후속 문장 사이의 경계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유화제 구문은 문답을 (44)-(46)와 같이 ‘자문자답’의 형태로 체화하고 있다.

이들 자유화제도 역시 화제이므로 제시어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다. 주의와 경계라는 속성을 고려한다면 자유화제는 가장 완벽한 제시어가 될 것이다. 이들은 제시어인가?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제시어’는 후속 문장이 독립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었고(함병호 2016, 2018), 조사도 무조사에만 국한되어야 하거나 ‘가’만 통합되어야 할 이유도 없었다. 자유화제도 제시어에 해당한다.

‘있잖아, 말이야’는 제시어의 표지일 수 있는가? ‘있잖아, 말이야’와 통합되어 도입되는 실체는 비의식의 한정성 실체일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었고, 해당 성분이 담화 간 화제 전환의 기능만 가지는 것도 아니었다. 본고는 제시어를 설정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속성은 경계에 대한 분명한 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²⁵⁶⁾ 문두 성분에 ‘있잖아, 말이야’가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은 경계가 매우

256) 문두 성분과 분명한 경계의 조합은 화제의 속성 그 자체이다. 제시어를 설정해야 한다

분명하다는 방증이 된다. 제시어는 '경계가 상대적으로 분명한 화제'이다. 본고는 제시어에 대해 '있잖아, 말이야'가 통합될 수 없는 화제 성분은 배제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자 한다.

4.4.2.2. 문장의 분절과 관련되는 기능

분절상에서 자유화제는 여타 문두 구문과 마찬가지로 해당 실체를 중심으로 정보가 배열될 것을 예고하고 그 실체에 정보를 첨가하는 모습을 띤다. 자유화제 성분이 정보가 첨가되는 영역으로 한정된다. 배경·초점 여부는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배경에 해당된다. 전술했듯 자유화제 구문은 설명의문문인 질문의 형태로 화제 전환을 할 수도 없었다. 자유화제 성분이 초점이 되는 암시적 질문은 상정하기 어렵다.

(49) 가. 내일은 영희가 밥을 산다.

가. (오늘은 철수가 사고) 내일은 누가 밥을 사나?

가. 앞으로는 누가 밥을 사나?

나. 여기는 영희가 밥을 산다.

나. (저기는 철수가 사고) 여기는 누가 밥을 사나?

나. 다른 데는 누가 밥을 사나?

면 제시어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화제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분명한 경계는 휴지로도 표시되나, 이는 구어의 영역이다. 임홍빈(2007)에서는 강한 휴지를 동반하는 무조사 문두 성분을 '강한 제시어'로 파악하기도 한다. 본고는 '있잖아, 말이야' 등의 삽입이 강한 휴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본다.

5. 화제의 형태적 기제: 조사

화제는 인지상태의 관점에서는 ‘주의 실체’ 즉 문장 발화 순간 주의 내 기존성을 실현함으로써 문장의 분절을 야기하는 실체로, 언어형식의 관점에서는 ‘정언문의 명사구 상당 문두 성분’으로 정의될 수 있었다. 명제를 문장으로 표현할 때, 청자의 주의 즉 가장 현저한 의식 상태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으로 의도된 실체를 문두 배치함으로써, 해당 실체의 현저성이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화제의 실현에 조사가 어떤 기여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한국어에서 조사는 다방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지만, 본고에서 화제의 실현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양상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조사는 비문두 성분의 화제화와 관련된다. 즉 조사는 문두 배치를 용이하게 한다. 어떤 언어가 어순이 자유롭고 표지가 다양하다면, 정형어순의 비문두 성분도 항상 문두 성분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어순이 고정적이고 표지가 발달하지 못했다면 비문두 성분의 문두 배치는 매우 제약적일 것이다. 한국어는 전자의 언어이다. 한국어는 조사라는 표지의 보유를 통해, 비문두 성분을 간단하게 문두 성분의 화제로 실현시킬 수 있다.

둘째, 조사는 화제의 전환·승계와 관련된다. 즉 조사는 어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4장에서 살펴보았듯 비문두 성분의 문두 배치는 주로 화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해당 언어가 어순이 고정적이고 표지가 제한적이라면 전환 화제는 후속 문장에서 정형어순을 찾아가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화제는 조사의 발달로 인해 전환되든 승계되든 항상 문두 성분으로 실현될 수 있다. 비정형어순의 전환 화제도 해당 어순을 고수하면서 승계할 수 있다. 화제의 전환·승계 여부는 맥락을 통해 식별되지만, 통합되는 조사 혹은 조사의 통합 여부에 따라 더 확실히 표시되기도 한다.

셋째, 조사는 화제의 배경·초점 여부 표시와 관련된다. 즉 조사는 명제의 관계적 기존성에 대한 표시도 담당한다. 문장으로 실현되는 명제는 주의에 이미 주어져 있는 개방명제 즉 배경과 그 명제에서 누락돼 있는 의문사 부분에 대한 대답 즉 초점으로 구성됨으로써 분절된다. 이때 조사를 통해 화제가 배경인지 초점인지 판별할 수 있다. 조사와 배경·초점 여부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관련성은 매우 높다.

넷째, 조사는 대조 및 한정성 표시와 관련된다. 즉 통합되는 조사 혹은 조사의 통

합 여부에 따라 대안집합이 형성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며, 연결 대조가 형성되는 경우 다양한 관계가 구현될 수 있다. 본고는 대조가 조사의 의미 자체이며, 이를 통해 통합 성분의 한정성 유형도 결정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한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 대조는 추론의 한정성과 매우 밀접하다. 또한 대조는 전환을 담보하므로, 조사를 통해 전환 화제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조사는 화제화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화제의 전환·승계와 배경·초점 여부를 표시해 준다. 대조 여부와 대조 유형을 통해 화제 성분의 한정성 유형은 물론 전환 여부도 식별하게 해 준다. 화제의 문두 성분에 이러한 양상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는’, ‘가’, 무조사, 성분생략의 각 경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네 번째 양상을 파악한 후,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양상을 확인하는 순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전자는 의미, 후자는 기능과 각각 대응된다. 두 번째 양상은 담화상 기능으로, 세 번째 양상은 분절상 기능으로 각각 이해된다. 첫 번째 양상은 두 기능 모두와 관련될 수 있다. 성분생략은 조사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무조사의 연장선인 것으로 취급하고자 한다.²⁵⁷⁾

5.1. ‘는’

‘는’은 한국어의 대표적인 보조사이다. 한국어 화제 논의는 ‘는’에 대한 논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는’은 화제 논의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분절에서는 ‘는’의 의미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고 계열 분절 즉 대조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 본 후, 통합하는 화제 성분의 한정성 유형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대조는 한정성을 실현하는 연결 추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문두의 화제 성분과 관련하여 ‘는’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는지도 검토해 본다. 주로 화제의 전환·승계를 포함하는 담화상 기능과 배경·초점을 비롯한 통합 분절에 관련되는 분절상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5.1.1. ‘는’의 의미와 문두 ‘는’ 성분의 조건

기존 논의에서 ‘는’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은 ‘화제’와 ‘대조’의 관계를 설명하는

257) 이기동(1981)에서도 조사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는’, ‘가’, 무조사, 성분생략의 네 경우를 함께 검토한 바 있다.

것으로 대표된다. 이때 두 의미 간의 관계는 화제와 대조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세부적인 면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이므로, 실제로 두 술어 모두를 사용하지 않고 ‘는’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춘숙(1999), 이필영(2006) 등이 그러하다.²⁵⁸⁾ 잠정적으로 ‘화제’를 ‘문두 성분’, ‘대조’를 ‘대안집합’으로 각각 이해하고 기존 견해들을 정리해 보면 (1)과 같다.

- (1) ‘화제’와 ‘대조’의 관계에 대한 제 견해
- 가. 문두 화제 · 문중 대조
 - 나. 화제 기본 · 대조 도출
 - 다. 대조 기본 · 화제 도출
 - 라. 대조 · 화제 무관

(1가)는 채완(1976)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환경에 따라 의미가 달리 발현되는 것으로 본다. (1나)는 박철우(2003, 2015), 최동주(2012)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견해다. ‘는’은 원래 화제 표지인데 대조 대상이 한정되는(박철우 2015: 281) 등 특정한 맥락이 주어졌을 때 대조의 의미가 도출되는 것으로 본다. (1다)는 홍용철(2005),²⁵⁹⁾

258) 이춘숙(1999)는 ‘영역 설정’이라는 술어를 사용하고, 이필영(2006)은 ‘X-로 한정하여 말함(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필영(2006: 275 각주 3)에 이춘숙(1999)와 견해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 언급돼 있기도 하다. 한편 화제를 ‘는’의 의미로 선택하는 박철우(2015)는 이춘숙(1999)의 ‘영역 설정’이 ‘논의대상 한정’이라는 화제 혹은 ‘는’의 의미와 교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문두의 ‘는’과 화제는 ‘영역 설정’이나 ‘논의대상 한정’이라는 의미 혹은 기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본고는 이를 ‘는’의 의미가 아닌 화제의 기능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실제로 이춘숙(1999)는 화제는 ‘는’의 의미가 아니며 문두와 휴지를 통해 표시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259) 홍용철(2005)의 술어로는 ‘주제’이다. 홍용철(2005)는 대조의 ‘는’에 강세가 부여됐을 때 초점의 의미가 나타나고, 주술관계가 형성됐을 때 ‘화제’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조합하면 [대조+초점], [대조+화제], [대조+초점+화제]의 세 가지 의미가 실현될 수 있다. ‘는’이 MP의 지정어 위치에서 기저생성된다고 보는 생성문법의 관점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i)과 같은 경우 목적어인 문중 성분 ‘영희는’이 아니라 주어 ‘철수가’가 이동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 본고의 관점과 큰 차이가 있기는 하다.

(i) 철수가(i) [MP 영희는(j)] [IP t(i)] [VP [e](j) 좋아한다]]

그러나 (ii)과 같은 경우 문두 성분 ‘책은’에 ‘초점’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홍용철 2005: 410) 이를 [대조+초점+화제]의 조합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본고의 관점과 유사한 면도 있다.

임흥빈(2007), 임동훈(2007, 2012, 2015), 박진호(2015) 등에서 발견된다.

(1라)는 전영철(2006)에서 제시되었다. 대조는 (2)처럼 화제에도 실현될 수 있고 (3)처럼 초점에도 실현될 수 있는 독립적 개념이므로 굳이 화제와 연결시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²⁶⁰⁾

(2) A: 애들은 뭐 해?

B: 큰 애는 자.

B': 큰 애는 뭐 해? 작은 애는 뭐 해? 막내는 뭐 해?

(3) A: 누가 왔어?

B: 큰 애는 왔어.

(2B)의 '큰 애는'은 (2B')와 같은 '연접 질문(conjunctive question)'에서 한 질문만 선택해서 부분화제로 만든 '대조화제(contrastive topic)'이다. (3B)의 '큰 애는'은 '누가'라는 의문사에 대한 대답으로 초점이면서 '는'으로 인해 대조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대조초점(contrastive focus)'으로 일컬어진다.

본고는 이 중 (1다)의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1가)의 구분이 무색하게 문두의 '는'이 제약되는 환경에서는 문중의 '는'도 제약되는 경우가 많다(임흥빈 2007). 둘째, (1가)가 옳다면 두 개의 '는'이 상보적 분포를 이루는 것이 되어 오히려 한 형태소라는 사실을 강화하게 된다(임흥빈 2007). 셋째, (1나)가 옳다면 화제에는 대조가 실현될 수 없어야 한다(임동훈 2012). 넷째, (1라)처럼 별개의 의미로 보기에 두 의미 간에 관련성이 있으며 그 관련성은 (1나)와 반대로 문두에서 대조가 약화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임흥빈 2007, 임동훈 2012).

'는'은 대조 혹은 '대조성(contrastiveness)'의 의미를 지닌다. 대조는 대안집합의 생성과 관련된다. '는'이 실현됨으로써 '는' 통합 성분의 실체나 그것을 포함하는 명제가 원소인 대안집합이 생성된다. 명제의 계열 분절을 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는'만이 아닌 보조사 부류 전체의 특성이다. 이는 이미 Yang(1973), 이남순(1996), 임흥빈(2007), 임동훈(2007, 2012, 2015), 박진호(2015) 등에서 '자매항(sister member)', '대안집합'²⁶¹⁾ 등의 술어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²⁶²⁾ 보조사가 생성하는 대안집합의

(ii) 책은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260) Vermeulen(2009)에도 동일한 관찰이 기술돼 있다.

원소들 간에는 (2다)와 같은 연접의 관계가 형성되며, 각 원소는 다른 원소의 존재를 유인하고 전제한다. 보조사는 연접 대조를 형성하며, 다른 존재를 전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대조 혹은 대조성은 물론이고 연접 대조도 ‘는’만의 의미는 아니다.

‘는’의 의미를 구명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것은 ‘는’과 여타 보조사와의 차이점이다. 일반적으로 ‘도’는 ‘첨가성’을, ‘만’은 ‘제한성’ 혹은 ‘총망라성’, ‘강배타성’을 각각 그 의미로 가진다고 논의된다. ‘는’은 가장 무표적이고 중립적인 보조사이며 (임흥빈 2007), (3나)에서 드러나듯 대안집합 내 여타 원소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지를 함축한다. ‘는’은 연접 대조 중 ‘약배타성(weak exclusiveness)’의 의미를 가진다 (임동훈 2015).²⁶³

이때 관심을 둘 만하다거나 알고 있다거나 하는 존재가 부각되지 않을 때, 그 선택이 당연할 때 이러한 대조성이 부각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조의 의미는 문두에서 대조성이 발휘될 만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때²⁶⁴ 약화된다. 그러한 대조성의 약화가 ‘대조성이 배제된’ 화제의 의미를 낳는다.²⁶⁵ 화제에 대한 선택 자체가 대조성의 의미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4) 가. 개는 손이 크다.
 나. 개는 손이 크고, 애는 발이 크다.
 (5) A: 누가 손이 크냐?
 B: 개는 손이 크다.

(4가)에는 별다른 대조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관심을 가질 만하다거나 알고 있다거나 하는 다른 존재가 부각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일한 형식의 대등절이 후행한 (4나)에서는 ‘애’라는 존재가 부각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조성이 발현되었다.²⁶⁶ (5B)는 (4가)와 형태상 동일하다. 그럼에도 대조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261) Jun(2015)에서는 ‘대조집합(contrast set)’이라는 술어를 사용한다. ‘대안집합(alternative set)’은 이접 대조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262) 이남순(1996)은 ‘는’, ‘도’ 등에 대해 ‘의미해석상 관련 있는 문장을 단문의 구조로 끌어들이는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263) 임동훈(2015)의 술어로는 ‘소극적 배제’이다.
 264) 임흥빈(2007)의 술어로 이야기하면 ‘비대조적 환경’에서 그러하다. 비대조적 환경이란 진술이 유일대상을 지향하거나 진술대상이 무자매항인 대상일 때를 가리킨다.
 265) (4나)와 같은 대조화제도 있기 때문이다.
 266) 그러나 이를 ‘는’만이 이룰 수 있는 성격의 대조라고 할 수는 없다. 대등절 고유의 특성

이는 (5A)의 의문사 ‘누가’에 대한 대답이 됨으로써 (3나)의 경우와 같이 대조초점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만약 ‘개가’라고 대답하였다면 연결 대조와 관련된 대조성은 유발되지 않았을 것이다.

환경 혹은 맥락의 부재로 인한 의미의 약화도 ‘는’만 겪는 것이 아니다. (6)의 ‘도’도 마찬가지이다(임동훈 2007: 5).

(6) (참) 달도 밝구나.

문두 성분이라고 해서 모두 대조성을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며 문중에서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대조성이 부각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는’의 의미에 대해 연결 대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약배타성 이외의 것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문두 성분은 대조성의 의미를 실현하든 하지 않든 화제인 반면, 그 위치를 벗어나기만 하면 대조성이 발현된다. 또한 문두에서라도 맥락만 주어지면 대조배경과 대조초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요컨대 ‘는’이 통합되면 해당 성분의 실체나 그것을 포함하는 명제가 원소인 대안 집합이 생성된다. 대안집합 내 원소 중 ‘는’과 통합된 성분의 실체가 선택되고 여타 원소에 대해서는 완전한 배제가 아닌 무지나 무관심의 태도를 취하게 되어, 원소 간 연결의 관계가 형성된다. 대안집합이 폐쇄돼 있을수록 대조의 의미가 강해져, 대안집합이 순서를 가지면 척도²⁶⁷⁾의 의미가 생성되고 B강세가 자주 동반된다. 대안집합이 개방돼 있으면 대조의 의미가 약해져 문두에서 화제의 의미가 강해진다.

보조사의 연결 대조가 관련 대안집합의 원소들의 존재를 유인하고 전제한다는 사실은 통합 성분의 조건을 통해서도 증명될 수 있다. 보조사는 한정성 성분과만 통합할 수 있다.²⁶⁸⁾ ‘는’은 문두뿐 아니라 문중에서도 대안집합의 존재를 환기함으로

이라고 할 수도 있다. ‘개도 손이 크고, 애도 발이 크다’나 ‘개가 손이 크고, 애가 발이 크다’에서도 대조의 의미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흥빈(2007: 330-332)는 이러한 맥락을 ‘대조적 맥락’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1나)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나 ‘는’의 경우가 가장 자연스럽게 때문에 예문으로 포함시켰다. ‘는’이 나타내는 대조의 의미가 이러한 구문에서 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본고는 ‘는’ 자체의 대조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문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267) 전영철(2006), Hara(2006), Lee(2003, 2017), 임동훈(2012, 2015), 박철우(2015)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68) 이필영(2006)은 ‘는’의 출현 조건으로 ‘존재의 전제’를 들고 있다.

써 연결 추론을 야기하고 한정성의 범위를 확장해 준다. 기언급된 실체가 집합으로서 자연스럽게 추론을 발생시킬 경우, 부분관계에 있는 원소 성분이 '는'과 통합됨으로써 담화에 한정성 실체처럼 도입될 수 있다.

기언급·기활성 실체 즉 의식의 한정성 실체가 자연스럽게 추론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후속 성분이 '는'과 통합되어 실현되면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대응 실체에 따라 상위, 동위, 하위의 어떤 부분관계든 형성함으로써 담화에 한정성 실체처럼 도입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는'은 한정성과 직결되기에 통합될 수 없거나 통합이 어색한 비한정성 표현도 존재한다. 비한정성 실체를 도입하는 존재문에는 한정성 표현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이 대표적이다.

5.1.2. 문두 '는' 구문의 기능

문두 구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담화상 기능과 분절상 기능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다. 전자는 화제가 전환·승계되는 양상과 관련되고, 후자는 배경·초점은 물론이고 문두 성분과 후속 성분으로 나뉘는 통합 분절과 관련된다. 연접 대조나 보조사가 계열 분절과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는'은 통합 분절과 계열 분절 모두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담화상 기능에서는 담화 간·문장 간에서 문두 '는' 화제가 실현되는 양상을, 분절상 기능에서는 문장 내에서 배경·초점이 표시되는 양상과 문두 성분이 후속 성분과 연계되는 양상을 각각 살펴볼 수 있다.²⁶⁹⁾

5.1.2.1. 담화의 조직과 관련되는 기능

'는'의 약배타성은 문두 '는' 성분이 화제가 담당하는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이때 '는' 통합 성분은 비문두 성분이나 비주어 성분일 수도 있고 정형어순의 성분일 수도 있다. 질문이라면 후속 성분이 생략된 채 '는' 화제만 실현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는' 화제는 담화 간 화제를 전환하는 데 사용된다. 대조화제로서 화제를 전환하기도 하고, 대조성이 약화되는 환경에서는 비대조화제로서 화제를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문장 간에서도 대조화제·비대조화제로서 화제를 전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이전 문장의 화제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이는 문어에서 빈번하

269) 실제 양상은 6장을 참고할 수 있다.

다. 생성된 연접의 대안집합에서 한 원소를 선택할 때 동반되는 약배타성이 화제 전환 자체의 특성이며, 약화된 대조성이 비대조의 전환 화제는 물론 승계 화제의 실현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두 구문의 ‘는’ 화제든 정형어순의 ‘는’ 화제든 강한 휴지가 주어진다면 제시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문두 구문처럼 후속 부분이 완전한 문장일 가능성이 높을수록 제시어로 기능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때 제시어를 포함하는 문장이 질문일 경우 답화 간 전환 화제로 파악될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답화는 문답의 연속이고 화제의 전환은 질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5.1.2.2. 문장의 분절과 관련되는 기능

‘는’은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두 구문을 통해 비문두 성분이나 비주어 성분이 화제로 실현될 때나, 정형어순의 주어가 화제로 실현될 때 모두 광범위하게 통합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는’ 화제는 배경일 수도 있고 초점일 수도 있다. 다만 답화 간 화제 전환이나 문장 간 화제 승계일 때에는 배경만이 가능하다. 문장 간 화제 전환일 때 ‘는’ 화제에는 초점인 경우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는’ 통합 성분의 실체는 연접 대조 중 약배타성을 의미하는 ‘는’의 존재로 인해 명제를 계열 분절한다. ‘는’ 통합 성분의 실체든 그 실체를 포함하는 명제든 그와 관련된 대안집합을 형성함으로써, 해당 실체 부분이 공백인 개방명제를 구성한다. ‘는’이 실현되면 그 문장의 명제는 통합 분절도 포함한다. ‘는’이 실현된 문장은 정언문이다. 계열 분절은 통합 분절을 담보하고, 계열 분절된 명제를 표현하는 문장은 항상 정언문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는’ 화제는 ‘는’을 경계로 문장을 분절하고 ‘는’은 해당 문장이 통합 분절됐음을 확실하게 표시해 준다. 평언의 후속 부분이 가리키는 정보가 첨가될 수 있는 실체의 영역을 한정해 준다. 이는 이춘숙(1999), 이필영(2006), 박철우(2015) 등에서 ‘는’ 혹은 화제의 의미로 논의한 ‘영역 설정’이나 ‘논의대상 한정’과 일치하는 기능이다. 다만 본고는 이춘숙(1999)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는’의 고유한 기능은 아니며 이러한 기능은 문두와 그와 높은 확률로 동반되는 휴지를 통해 일차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라는 태도를 취한다. ‘는’의 약배타성이 이러한 기능을 가장 무표적으로 표시해 준다고 본다. 제시어가 이러한 기능을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한다.

5.2. '가'

'가'는 한국어의 주격조사이다. '는'과 비교되며 한국어 화제 논의에서 그에 버금가는 관심을 얻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절에서는 '가'의 의미에 대한 기존 논의를 주로 '는'과의 관계에서 살펴보고 계열 분절 즉 대조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 본 후, 통합하는 화제 성분의 한정성 여부와 한정성 유형에 대해 고찰한다. '가'는 '는'과 달리 비한정성 표현과 빈번하게 통합하므로 한정성 표지로 간주할 수는 없다. 본고는 '가' 통합 실체의 한정성 문제를 대조와 관련시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편 '가'는 배경은 표시할 수 없고 초점만 표시하는 것으로 논의돼 온 바 있다. 의문사에는 보조사가 통합될 수 없고 의문사에 대한 대답에는 격조사가 통합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본고는 화제와 초점을 분리하는 입장을 취하므로 '가' 화제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다만 '가'와 배경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그 환경이 질문인 경우와 답변인 경우를 구별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두의 화제 성분과 관련하여 '가'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는지도 검토해 본다. '는' 화제와 마찬가지로 주로 화제의 전환·승계를 포함하는 담화상 기능과 배경·초점을 비롯한 통합 분절에 관련되는 분절상 기능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5.2.1. '가'의 의미와 문두 '가' 성분의 조건

'가'는 주격조사이면서 '선택 지정(selectional listing)'(고석주 2002, 2004) 등의 의미를 가지는 양태조사인 것으로도 논의돼 왔다. 대부분 '는'과 비교된다. '가'와 '는'은 한국어 문법에서 격조사와 보조사로 각각 분리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분포상 중첩되는 부분이 많고²⁷⁰⁾ '가'에 보조사적인 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비교대상이 돼 왔다. '가'와 '는'을 평행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관점은 목정수(1998)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이 논의는 '가'와 '는'의 분포를 중시하여 두 조사를 공히 한정사 혹은 관사로 규정한다. '가'가 목적어에 통합할 수 없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두 조사의 지위에는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생성문법의 논의에서는 주어와 화제의 위치가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주로 '가'로 표시되는 구조격의 주어는 주로 '는'으로 표시되는 화제보다 항상

270) '는'의 전체 분포 중 주격조사 위치에 분포하는 경우가 90.65%에 달한다(신서인 2006: 51).

그 위치가 낮은 것으로 파악한다(홍용철 2005, 최기용 2007). 화제와 초점이 통사적 위치를 차지하며 그 위치들이 위계를 이룬다는 발상은 Rizzi(1997)을 중심으로 큰 힘을 발휘해 왔다. 본고는 ‘가’가 지니는 주격조사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지도 않지만 통사적 위계를 설정하는 입장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가’의 의미에만 집중해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가’와 ‘는’은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돼 왔다. 지시적 기존성 즉 한정성과 비한정성의 관점에서 논의되기도 하고, 관계적 기존성 즉 통합 분절과 지시적 기존성과 관계적 기존성이 혼합된 계열 분절의 관점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통합 분절의 관점에서는 ‘가’ 통합 성분과 후속 성분 간의 관계, ‘가’ 통합 성분의 조건, 전체 문장의 성격 등을, 계열 분절의 관점에서는 대조의 유형을 각각 구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어 ‘ga’와 ‘wa’에 대한 논의들도 ‘가’와 ‘는’의 비교에 유용하다. 한정성과 계열 분절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열 분절은 통합 분절을 함의하므로, 그 경계가 분명히 그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고는 일본어 논의들을 참고하고 최근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가’와 ‘는’이 보이는 대조 양상의 차이점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일본어의 ‘ga’와 ‘wa’나 한국어의 ‘가’와 ‘는’을 비교하는 논의들에는 Kuno(1972, 1973)의 관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돼 있다. Kuno(1972)는 영어의 ‘John kissed Mary’는 (7)의 네 가지 해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일본어에서는 그 의미가 (7가-라)에 서처럼 ‘ga’와 ‘wa’를 통해 체계적으로 표시된다고 하였다. 한국어의 경우도 이 관점을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어와 한국어에서 (7가)의 ‘총망라(exhaustive listing)’와 (7나)의 ‘중립 기술(neutral description)’은 ‘ga’와 ‘가’를 통해, (7다)의 ‘화제(theme)’와 (7라)의 ‘대조’는 ‘wa’와 ‘는’을 통해 각각 표시되는 것으로 논의돼 왔다.

- | | |
|--------------|---------------------------|
| (7) 가. [총망라] | 존이 (그리고 존만) 메리에게 키스했다. |
| 나. [중립 기술] | 무슨 일이나?
존이 메리에게 키스했다. |
| 다. [화제] | 존은(존에 대해 말하자면) 메리에게 키스했다. |
| 라. [대조] | 존은 메리에게 키스했다. (빌은 안 했고.) |

‘가’와 ‘는’을 비교하는 이후의 논의들은, 대개 ‘가’는 초점 표지이고 ‘는’은 화제

표지나 대조 표지²⁷¹⁾인 것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관점의 변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용되는 술어나 이론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김미형(2011)은 ‘가’는 ‘주어 자매항·서술어 고정’의 전제를, ‘는’은 ‘주어 고정·술어 자매항’의 전제를 각각 가진다고 보았다.²⁷²⁾ 주어로 실현되는 대조화제나 대조초점에 대해서는 서술어 자매항 중 하나가 선택되면 선택되지 않은 여타 서술어가 자신만의 고유한 주어틀 다시 선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초점이건 화제건 대조건 대안집합 내에서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7가, 다, 라)와 연결되는 기술이다.

홍정하(2011)은 ‘시점(point of view)’을 통해 ‘가’와 ‘는’의 의미를 비교한다. ‘가’는 화자 비중심적·객관적인 것과 관련되고 ‘는’은 화자 중심적·주관적인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다. (7나)처럼 사태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할 때 ‘가가’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최석재(2013)은 ‘가’는 ‘묘사’의 기능을 가지고 ‘는’은 ‘설명’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논의한다. 묘사는 화자의 견해를 배제한 채 사태를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것이고, 설명은 대상에 대해 지적하고 화자의 견해를 포함시킨 채 대상에 대해 해설하는 것이다. 역시 ‘가’를 (7나)와 연계시키고 ‘는’을 (7다)와 연계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변주를 가하든 그대로 수용하든 ‘가’와 ‘는’의 의미를 (7)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면, ‘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다음 두 가지 문제이다. 첫 번째는 (7가)와 (7나)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는’의 관계를 ‘ga’·‘wa’의 관계와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는 (7가-나)에 걸쳐 모두 통합 분절의 주어 초점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7가)는 주어만 초점이고 (7나)는 전체 문장이 초점이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8)처럼 질문 내에 여타 의문사가 존재하는 경우 초점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김민국 2016).

(8) 화장실이 어디야?

271) 연결 대조 중 약배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72) 일본어 ‘wa’에 대한 논의인 Fiengo & McClure(2002)에도 유사한 관찰이 기술돼 있다.

본고는 '가'가 기본적으로 주격조사로서 '개방명제 내 주어 실체 공백에 대한 명세 (specification)'를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단순히 명세가 목적이기 때문에 (9가)처럼 비한정성 표현 '웬 사람'과도 통합할 수 있다. (9나)에서와 같이 '는'의 통합이 부자연스러운 것과 대비된다. '는'이 존재의 전제와 관계됐다면, '가'는 존재의 도입과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9) 가. 웬 사람이 찾아왔다.
나. *웬 사람은 찾아왔다.

문제는 (7나)와 대비되는 (7가)의 '총망라성'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점이다. 본고는 이를 계열 분절을 통해 성립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맥락을 통해 대안집합이 생성됐을 때 원소들 간에 이접의 관계가 형성되면 '가'가 실현된다. '툭은 모르겠고 존은'이나 '툭은 아니고 존은'이 아닌 '툭이 아니라 존이'라는 의미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연결의 관계와 대비된다.²⁷³⁾ 이러한 의미가 초점과 직결된다(김민국 2016). 계열 분절 즉 이접 대조가 형성되면 통합 분절도 담보되므로 이때의 주어 초점은 본고의 의미에서 화제가 된다. 그러나 (9가)와 같은 경우에는 대조가 형성되지 못하므로 화제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조가 형성되지 않으면 'who'에, 대조가 형성돼 있으면 'which'에 각각 대응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Pesetsky 1987).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7가)의 의미가 과연 총망라성인가 하는 점이다. 총망라성은 'only'와 연계되어 설명돼 왔고 한국어에서는 보조사 '만'의 의미인 것으로 취급돼 왔다. '만'의 통합 성분을 선택하고 나면 그 원소만이 의문사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 되고 대안집합의 여타 원소들은 완전히 제외된다. '가'는 어떠한가? Kim(2000)은 초점과 관련하여 배타성(exclusiveness), 대조성(contrastiveness), 총망라성(exhaustivity)을 모두 구분한 바 있다. 배타성은 '가'로, 대조성은 '는'로, 총망라성은 '만'로 각각 표시된다고 보고 '가'와 '만'의 차이를 (10)과 같은 예문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Kim 2000: 531-533).

- (10) A: 민호랑 수미가 제격이지.

273) 이기동(1981), 최수영(1984, 1993)에서도 '가'와 '는'이 상이한 대조를 표현한다는 관찰이 기술돼 있다.

B: *아냐, 민호가 제격이야.

B': 아냐, 민호만 제격이야.

‘민호’와 ‘수미’ 중 유일하게 민호만 선택되고 수미는 제외되는 상황이라면 ‘만’이 실현된 (10B')만 성립되고 ‘가’가 실현된 (10B)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고는 총망라성의 의미 자체는 (10B)보다 약하지만 (10B')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한다. 다만 (10B)와 (10B')의 의미를 각각 ‘수미가 아니라’와 ‘수미는 아니고’로 파악하여, ‘가’에는 이접 대조의 의미가 있고 ‘만’에는 연접 대조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때 ‘만’은 ‘는’과 대비되는 ‘강배타성(strong exclusiveness)’이나 ‘가’와 대비되는 ‘강총망라성(strong exhaustivity)’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의 의미는 ‘약총망라성(weak exhaustivity)’으로 간주된다.²⁷⁴⁾

‘가’가 일본어의 ‘ga’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는’과 ‘wa’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Choi & Shimojo(2001), 송남선(2006), Heycock(2008), Vermeulen(2009), 임동훈(2012), 박진호(2015) 등에는 그 관계가 평행하지 않음이 잘 기술돼 있다. ‘가’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wa’가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8)에 대해 일본어는 (8')처럼 ‘wa’를 사용한다. ‘wa’는 ‘는’보다 대조의 의미가 약하다.

(8') トイレはどこ?

한국어는 (11)에서 보듯 동일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 ‘가’와 ‘는’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일본어는 ‘wa’만 사용할 수 있다(송남선 2006).

(11) A: 재는 누구야?

B: 재가 요번에 1등한 애야.

B': 재는 요번에 1등한 애야.

274) 강총망라성과 약총망라성은 Guerzoni(2007) 등에서 간접의문문과 관련된 추론의 강도를 논의하면서 언급된 바 있다. 강총망라성은 대안집합의 원소들에 대해 전부 완전하게 파악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약총망라성은 단순히 해당 원소에 대해서만 파악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일본어에서 'ga'는 배경에 잘 사용되지 않고 한국어에서 '는'은 비한정성 표현과 통합할 수 없다. 'wa'는 배경을 표시하고 '가'는 비한정성 표현과 통합한다.

요컨대 '는'은 연결 대조를 형성하지만, '가'는 이접 대조를 형성한다. 주격조사 '가'는 이접의 대안집합 생성과 약총망라성을 기반으로 하는 대조를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성된 이접의 대안집합에서 한 원소를 선택할 때 동반되는 약총망라성은 초점 자체의 특성이다. '는'은 명제가 원소인 대안집합도 형성할 수 있지만, '가'는 실체가 원소인 대안집합만 형성할 수 있다. 대안집합이 폐쇄돼 있을수록 약총망라성의 의미가 강해지고 대안집합이 개방돼 있으면 집합의 의미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²⁷⁵⁾

5.2.2. 문두 '가' 구문의 기능

'는'과 마찬가지로 담화상 기능과 분절상 기능을 가진다. 전자는 화제가 전환되는 양상과 관련되고, 후자는 배경·초점은 물론이고 문두 성분과 후속 성분으로 나뉘는 통합 분절과 관련된다. 이접 대조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에서만 계열 분절이 발생하므로 그러한 맥락이 주어질 때에만 '가'가 통합 분절과 계열 분절 모두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담화상 기능에는 담화 간·문장 간에서 문두 '가' 화제를 통해 주의가 전환되거나 승계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분절상 기능에서는 이접 대조와 배경·초점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²⁷⁶⁾

5.2.2.1. 담화의 조직과 관련되는 기능

'가' 화제가 실현되는 경우는 주로 '가'는 문장 간에서 이접 대조를 통해 화제를 전환하는 경우와 이전 문장의 화제를 승계하는 경우 모두에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는'이 담화 간·문장 간에서 연결 대조를 통해 화제를 전환하는 데는 물론이고 해당 대조가 약화된 상태로 비대조화제로서 주의를 전환할 수 있는 것과 구분된다. '가' 문두 성분의 주된 담화상 기능은 문장 간의 화제 전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75) 대안집합이 폐쇄적이면 Kiss(1998)의 '확인초점(identificational focus)'이 되고 개방적이면 '정보초점(informational focus)'이 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전술한 'which'와 'who'의 관계로도 이해된다.

276) 실제 양상은 6장을 참고할 수 있다.

5.2.2.2. 문장의 분절과 관련되는 기능

‘는’은 대안집합이 자동적으로 생성되지만, ‘가’는 대안집합이 생성될 수 있을 때에만 계열 분절을 논의할 수 있다. ‘는’은 대조배경과 대조초점 모두 가능하지만, ‘가’는 대조초점만 가능하다. ‘는’은 배경-초점 분절에서 배경·초점 모두로 기능할 수 있지만, ‘가’는 질문에 실현돼 있고 다른 의문사가 없는 이상 초점으로만 기능할 수 있다. ‘는’은 정언문만 형성할 수 있지만, ‘가’는 정언문과 제언문 모두 형성할 수 있고 대안집합이 개방돼 있는 경우에 제언문을 형성할 수 있다.

5.3. 무조사

무조사는 해당 성분에 조사가 통합돼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무조사는 부정격, 무표격, 격조사 생략, 격조사 비실현 등과 함께 연구돼 왔다.²⁷⁷⁾ 무조사의 문법을 다룬다면 마땅히 격도 함께 고찰되어야 할 것이나, 문법적인 부분은 본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무조사가 전절에서 살펴본 ‘는’, ‘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한다.²⁷⁸⁾

5.3.1. 무조사의 의미와 문두 무조사 성분의 조건

무조사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활성화와 관련되어 논의되기도 하고(임홍빈 2007), 화용론적 유효성과 관련되어 논의되기도 했다(이성범 2006, 이나라 2014). 본고는 무조사가 ‘는’, ‘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존중하여 무조사의 의미 역시 대조의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무조사는 대안집합을 대개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대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은 김미형(2012)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김미형(2012: 14-15)은 (12)와 같이 목적어에 통합하는 무조사, ‘를’, ‘는’을 대립시키면서 각 조사의 의미를 ‘자매항’이라는 술어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자매항은 본고의 대조에 해당한다.

- (12) 가. 이 현재 결정문 ∅ 아까 꼼꼼히 읽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 이 현재 결정문을 아까 꼼꼼히 읽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277) 자세한 논의는 임홍빈(2007)을 참고할 수 있다.

278) 임홍빈(2007: 70)에서는 무조사구는 어떤 조사도 가지지 않으며 격조사를 가지는 논항과 대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무조사구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다. 이 현재 결정문은 아까 꼼꼼히 읽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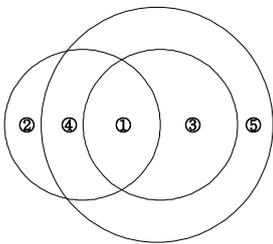
본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를’이 실현된 (12나)는 이접 대조로서 ‘다른 것이 아니라’의 의미를 가지고 ‘는’이 실현된 (12다)는 연접 대조로서 ‘다른 것은 아니지만’의 의미를 가지는 데 반해, 무조사 (12가)는 어떤 대조도 형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김미형(2012)의 술어로는 어떤 ‘자매항’도 상정되지 않는 것이다.

대조를 통해 무조사를 파악하는 관점이 수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조사로 실현되는 명사구는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혹은 어떤 조건의 명사구가 무조사로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조사가 격을 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때, 무조사여도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맥락이 제공되고 있다는 뜻이다. 무조사는 화청자 간에 공유된 맥락이 풍부한 구어 상황에 지배적으로 출현하고, 이는 ‘활성화’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임흥빈 2007: 88-89).²⁷⁹⁾ 기언급·기활성·담화구의 실제, 본고의 한정성 유형 중 의식의 한정성 실제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근접 활성화’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²⁸⁰⁾

그러나 무조사라고 모두 의식의 한정성 실제인 것은 아니다. 좌측전위 구문에서 살펴보았듯 좌측전위 문두 성분은 대개 무조사로 실현되는데, 이는 표현 추론의 실제까지 포괄할 수 있다. 대조와 연계해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사로 어떤 성분의 실체를 제시한다는 것은 여타 실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거나 그들과 혼동할 가능성이 없을 만큼 해당 실체가 자명하다는 뜻이 된다. 이는 꼭 해당 실체가 의식 내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좌측전위 문두 성분처럼 구문의 영향일 수도 있고, 지식 내에 존재하던 것이 급작스럽게 상기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279) 김지현(2007)은 이러한 무조사의 의미를 ‘현장성’으로 설명한다.

280) 이 경우는 ①, ③에 해당한다.



5.3.2. 문두 무조사 구문의 기능

문두 구문들의 경우와 ‘는’, ‘가’의 경우처럼 담화상 기능과 분절상 기능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다. 문두 배치된 무조사 성분은 문장이 표시하는 명제가 배경-초점 분절을 가질 경우, 즉 정언문일 경우 큰 무리 없이 화제로 해석된다. 문두 성분의 실체의 한정성이 보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조사 화제는 담화상에서 전환 화제로도 사용될 수 있고 승계 화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 분절상에서는 통합 분절과만 관련된다. 대조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맥락에 따라 배경·초점 모두로 실현된다.

5.3.2.1. 담화의 조직과 관련되는 기능

무조사도 ‘는’처럼 화제의 전환·승계의 기능을 모두 가질 수 있다. 대조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승계에 더 적합한 부분은 있다. 그러나 무조사 화제는 (13)에서처럼 담화 간에서나 문장 간에서나 비대조 전환 화제로 빈번하게 사용된다. (14)와 같은 좌측전위 구문이라면 이러한 기능은 더 부각될 수 있다.

- (13) 가. (참.) 영희 왔어?
나. 이거 나 가져도 돼?
(14) 영희, 개 요즘 어떻게 지내?

승계 화제로 기능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화제는 승계될 때 자연스럽게 무조사로 승계된다. 대조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15A)의 화제 ‘영희는’은 (15B)에서 무조사로 승계되었다.

- (15) A: 영희는 뭐 해?
B: 영희 자.

5.3.2.2. 문장의 분절과 관련되는 기능

화제 실체를 정보 첨가 영역으로 한정하고 해당 실체 중심의 정보 배열을 하고자 하는 것 역시 무조사 문두 구문의 기능 중 하나이다. 이때 경계는 무조사에 동반되

는 휴지가 담당한다. 경계가 분명할수록 ‘있잖아, 말이야’가 삽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주의와 경계의 강화가 무조사 문두 성분의 제시어 논의를 촉발시킨다.

‘는’은 계열 분절과 통합 분절 모두를 보증한다. ‘가’는 ‘는’과 또 달라 대안집합의 형성될 수 있을 때만 계열 분절을 발생시키고, (16가)처럼 통합 분절도 부재하는 제언문에 출현하기도 한다. 이때 제언문은 실체 도입 제언문과 사태 도입 제언문 모두를 포함한다. 비한정성 표현과도 통합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무조사는 ‘는’, ‘가’ 모두와 다르게 계열 분절을 발생시키는 일이 없다. (16나)처럼 실체 도입 제언문에 실현되는 일도 없다. 이는 (16다)의 ‘는’과도 동일하다.²⁸¹⁾ 무조사와 ‘는’은 모두 한정성과 밀접한데, 실체 도입 제언문은 비한정성 실체만 도입하기 때문이다.

- (16) 가. 옛날 옛날에 한 나무꾼이 서울에 살았습니다.
 나. *옛날 옛날에 한 나무꾼 서울에 살았습니다.
 다. *옛날 옛날에 한 나무꾼은 서울에 살았습니다.

‘는’과 다른 점은 (17B’)처럼 사태 도입 제언문에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는’이 실현된 (17B”)은 완전한 비문이다.

- (17) A: 무슨 일이야?
 B: 영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B’: 영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B”: *영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17B’)에 대한 직관이 수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무조사는 대응 질문의 제언문·정언문 여부에 따른 통합 분절 여부와만 관계될 뿐 ‘는’처럼 계열 분절을 발생시키는 일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17B’)의 대응 질문은 제언문을 대상으로 요구하는 (17A) ‘무슨 일이야?’이다.

한편 무조사 화제는 초점으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 (17B’)에서도 전체 문장초점의 일부로 실현돼 있기도 하다. (18)과 같이 좌측전위 구문을 통해 문장 간 화제 전

281) (16)은 임흥빈(2007: 89)를 변형해서 가져온 것이다. 원문은 ‘옛날 옛날에 한 나무꾼이 서울에 살았습니다’이다. ‘서울’도 무조사이다.

환이 이루어질 때가 무조사 화제가 초점으로 실현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18) A: 누가 왔어?
B: 집때 만난 애, 개가 왔어.

(18B)의 무조사 화제 ‘집때 만난 애’는 (18A)의 의문사 ‘누가’에 대한 대답 즉 초점으로 좌측전위 구문을 통해 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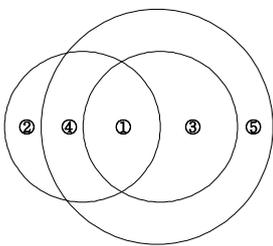
5.4. 성분생략

어순이 자유롭고 표지가 다양한 한국어는 성분생략도 자유로운 편이다. ‘영대명사(zero pronoun)’, ‘영조응사(zero anaphora)’ 등으로도 지칭된다. 명칭에 ‘조응’이 포함돼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 선행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략은 ‘언어적 생략(linguistic ellipsis)’과 ‘맥락적 생략(contextual ellipsis)’의 두 가지로 나뉜다(이성범·홍승진 2009). 전자는 선행사가 이전 문장에 명시적으로 출현해 있는 경우이고, 후자는 명시적으로 출현해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화제의 경우 언어적 생략과 더 밀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4.1. 문두 성분생략의 조건

화제로서는 이전 문장의 화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가장 무표적이다. 선행사가 되는 화제 성분에 어떤 조사가 실현돼 있었든 성분생략의 화제에서는 그 대조의 의미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해당 실체의 의식 내 활성화 정도가 매우 높음을 표시한다.²⁸²⁾ 의식의 한정성 실체 중 ‘최근 활성화’의 실체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82) 이 경우 역시 ①, ③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식·기활성 개념은 지시적 기존성의 영역이어서 화제가 아닌 실체도 생략될 수 있다. 관계적 기존성의 영역인 화제만 생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4.2. 문두 성분생략 구문의 기능

성분생략은 가장 원형적인 화제로 취급되기도 한다. 성분생략이 자유로운 언어에서 이미 화청자에게 공유된 화제를 계속해서 언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²⁸³⁾ 조사가 실현된 경우, 실현되지 않은 경우와 성분생략 화제도 담화상 기능과 분절상 기능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다. 담화상으로는 해당 화제가 전환 화제인지 승계 화제인지 따져볼 수 있고, 분절상으로는 정보 배열 측면과 배경·초점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5.4.2.1. 담화의 조직과 관련되는 기능

성분생략 화제는 전환의 기능을 가질 수 없다. 이전 문장에서 논의되던 것을 그대로 받는 승계의 기능만을 가질 뿐이다. 이는 언어형식 없이 화제가 도입·전환·복귀되는 일은 혼치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화제는 무엇보다 언어학의 영역이다. 승계 화제이므로 대조와도 무관하다. 전술했듯 이전 화제에 통합했던 조사와도 무관하다. (19)-(21)에서 확인된다.

- (19) A1: 영희는 누가 멋있대?
B: 영희는 철수가 멋있대.
A2: ∅ 미쳤나 봐.
- (20) A1: 누가 철수를 때렸어?
B: 영희가 철수를 때렸대.
A2: ∅ 미쳤나 봐.
- (21) A1: 영희∅ 어디 갔어?
B: 영희∅ 학원 갔어.
A2: ∅ 미쳤나 봐.

(19-21B)는 각각 ‘는’ 화제, ‘가’ 화제, 무조사 화제이다. 이들은 모두 (19-21A2)에서

283) 김미경(1999)에서도 이전 맥락과의 동일 기능 여부가 생략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전 문장과 후속 문장에서 동일한 기능을 가지므로 성분생략 화제도 생략된다.

처럼 성분생략으로 승계될 수 있다. 승계 화제이므로 담화 간에는 적용될 수 없고 문장 간에만 적용된다.

5.4.2.2. 문장의 분절과 관련되는 기능

실현돼 있지는 않지만 성분생략 화제 역시 생략된 화제 실체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해당 실체를 정보 첨가의 영역으로 삼아 정보를 배열하는 데 사용된다. 화제와 후속 부분 간의 경계가 매우 분명하지만 실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시어와는 무관하다. 승계 화제이기 때문에 배경으로만 기능할 수 있다. 이는 (19)-(21)에서도 확인된다. 의문사에 대답인 초점이 생략될 수는 없다.

‘는’은 계열 분절과 통합 분절 모두를 보증하지만, 성분생략은 대안집합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합 분절만을 형성한다. 무조사의 경우와 같다. ‘가’는 맥락에 따라 계열 분절도 발생시킬 수 있고 통합 분절을 아예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분생략은 계열 분절과는 무관하고 통합 분절은 보증한다. 이는 무조사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6. 분석의 실제

문두 구문과 조사 구문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어의 화제는 담화 간·문장 간에서 주의를 전환·승계하는 역할을 하며, 전환하는 경우 대조될 수도 있고 대조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즉 전환 화제는 대조화제로 실현될 수도, 비대조화제로 실현될 수도 있었다. 문장 간 전환 화제의 경우에는 화제가 배경에 해당할 수도 있었고 초점에 해당할 수도 있었지만, 담화 간 전환 화제나 문장 간 승계 화제인 경우에는 화제는 배경에만 해당될 수 있음도 관찰하였다.

본장에서는 2013년 공개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통해 이러한 관찰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 자료에는 구어체와 문어체가 공존하고 다양한 문제가 논의돼 있다. 담화 간·문장 간에서 화제의 전환·승계가 대조·비대조, 배경·초점과 어떤 체계를 이루며 문두 구문·조사 구문은 물론이고 정형어순의 화제 구문을 통해 실현되는지 검토한다. 예문을 발췌할 때에는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명의문문의 명시적 질문이 부재하는 경우 해당 문장과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한 암시적 질문을 설정하고자 한다.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6.1. 전환 화제

담화 간·문장 간에서 전환 화제는 문두 구문으로 실현될 수 있고 실현되는 경향도 있다. 이때 해당 전환 화제의 대조화제·비대조화제 여부와 배경·초점 여부는 조사가 표시한다. 문두 구문 중에서도 전치 구문은 주로 담화 간 전환 화제가 아닌 문장 간 전환 화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이때 화제는 항상 배경인 문장 간 전환 화제와 달리 초점일 수 있다.

6.1.1. 담화 단위 간

담화 간 전환 화제로 관찰된 경우를 대조화제와 비대조화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대조화제는 화제 실체가 대안집합을 생성하여 대안집합 내 원소들과 연결 대조나 이접 대조를 이루는 경우를 가리키고, 비대조화제는 어떤 대안집합도 생성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전자는 '는'이나 '가'와 통합하여 실현되는 경향이 있고, 후자는 무조사나 '는'으로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

6.1.1.1. 대조화제

담화 간 대조 전환 화제는 문장초점의 성분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문두 성분에 '는'이나 '가'가 통합하여 실현되는 경향을 보인다. '는' 통합 성분은 연결 대조를 형성하고 '가' 통합 성분은 이접 대조를 형성한다. 전자는 배경인 경우와 초점인 경우 모두 가능하나, 후자는 초점인 경우만 가능하다. 이때 문두 성분은 문두 구문의 일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1)-(3)은 '는'으로 실현된 경우이고 (4)-(5)는 '가'로 실현된 경우이다. 모두 담화화제가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1) A1: 이걸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꺾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변화가 있는가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6자 틀걸이 내에서 풀며, 6자 틀걸이가 아주 좋다. 이런 데서는 점점 일맥상통하는 점을 갖고 있습니다.
B: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2: 북남경제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총리급 회담이나 상급회담에서 실무적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A1-B)까지는 '6자 회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가 (1A2)에서 '경제 협력'으로 담화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한참 앞에 '평화 정착'과 '경제 협력'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를 대안집합으로 삼은 후 전치 구문을 통해 화제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는 (2A)까지는 '인프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가 (2B)에서 '는'을 통해 '조선업'으로 화제를 전환하는 경우이다. '인프라'와 '조선업'이 대안집합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전치 구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 어느 경우든 '는'을 통해 담화 간 화제가 전환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2) A: 이런 방식으로 수익이 생기는 목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오게 되고 투자가 들어와야 인프라가 급해서 따라가게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대개 내가 금액을 말씀드리면.
B: 조선업은 (당신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3)은 전환 화제가 두 번 등장하는 경우이다. (3A1)은 상위화제로, (3B3)은 하위화제로 볼 수 있다. (3A1)에서 자유화제 구문 일부와 ‘는’을 통해 ‘역사’로 화제를 전환한 후, (3B1-3A3)까지 미국·일본과의 ‘과거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3B3)에서 일본과의 ‘미래 역사’로 또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상위화제인 ‘역사’는 이전의 ‘관련법’과 대안집합을 형성하고, ‘과거 역사’와 ‘미래 역사’는 하위화제들로서 그 ‘역사’에 대한 대안집합을 형성한다. (3B1, B2)는 괄호 안에 넣음으로써 암시적 질문임을 표시하였다. (3B3) 역시 (2B)와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전치 구문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3) A1: 그런데 이것 우리 역사들에 관해서는...

B1: (북측 과거 역사는 어떻습니까?)

A2: 우리 지금 앞으로 서면호 사건부터 계산하거나 3.1운동 사건부터 이런 것 계산하면 미국하고도 영원히 만날 수 없고... 3.1운동 보면 영원히 뭐 상대하고 상종 안 하게 돼 있고...

B2: (남측 과거 역사는 어떻습니까?)

A3: 광주 사건도 그렇지 광주 사건도 광주의 여인들이 민족적 그 수치와 모욕당한 것 가지고 광주 사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사람들하고 모두 다 편안하죠? 그런데 이 무슨 문서 놀음하게 되면 서로... 깔아 부술려고 하고...

B3: 참 일본 문제는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4), (5)는 ‘가’로 담화 간 화제가 전환되는 경우이다. (4)에서는 (4A)까지는 ‘자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4B)에서 ‘NLL’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NLL’이 앞서 논의되고 있던 ‘자주’, ‘경제’와 이접의 대안집합을 형성하였고 ‘자주 문제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라는 의미를 띠고 ‘NLL 문제’가 화제로 선택된 것으로 이해된다. (4B) 역시 문두 구문으로 볼 수 있다.

(4) A: 남측의 이익만을 얘기를 하더라도 북측이 해로울 것이 없잖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자주 문제와 눈치를 보는 문제 이런 문제도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B: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는 북측 발언에 대한 남측 발언 중 ‘자주’에 대한 부분이다. (5A)까지는 ‘자주’ 중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가 (5B)에서부터 ‘자주’ 중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화제를 전환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 (5) A: 난 그렇게 우선 자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점진적 시간적 개념으로 보고...
B: 그다음에 이제 내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을 조금 더 속도를 내자 아니면 조금 늦추자 뭐 이런 것이, 하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끼리 결단을 내고 속도를 빨리 내자... 그것이 미국하고 사실은 조율을 어느 정도 합니다.

앞서 논의된 바 있는 ‘군사적 자주’와 (5B)의 ‘경제적 자주’가 대비되고 있다. 북측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군사적 자주’는 이행이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와 ‘경제적 자주’는 그것보다 더 제약이 많다는 의미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자주가 아니라’라는 이접 대조의 의미가 드러나 있다.

6.1.1.2. 비대조화제

담화 간의 비대조 전환 화제는 ‘는’과 무조사를 통해 실현되는 경향을 보인다. 문두 구문이든 일반 구문이든 문장초점을 통해 도입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두 성분으로 실현된다. (6)-(7)은 무조사를 통해, (8)-(9)는 ‘는’을 통해 각각 대조 없이 담화 화제가 전환된 경우이다.

- (6) A: 하여튼 뭐 이런 상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면 더 좋고...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진전할 수 있는 밑 토대를 하나... 디딤돌을 하나 또 위원장께서 이 기회에 만들어 주시면 그 디딤돌 가지고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 서해 군사분계선의 문제 있습니다.

(6A)까지는 ‘종전 선언’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6B)에서 무조사로 ‘서해 군사분계선의 문제’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다른 문제들과 대조되지 않고 단독으로 해당 화제가 언급되고 있다.²⁸⁴⁾

(7)은 (7A1)까지 ‘자주’의 문제, 그 중에서도 ‘경제적 자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284) 엄격하게 보면 이는 ‘있잖아’와 무관하다. 유관하다면 ‘있잖습니까’ 정도로 실현됐어야 한다. 일반적인 ‘있다’ 구문으로도 볼 수 있다(최윤지 2016). 그러나 화제가 도입·전환된 것은 분명하고 특히 비대조 전환의 기능을 가지는 특수한 경우라고 판단하여 논의에 포함시켰다.

(7A2)에서 ‘중전 선언’으로 화제를 전환하는 경우이다. (7A3)에서도 동일하게 무조사로 한 번 더 실현되어 이 문제가 전환된 화제이며 단독으로 논의될 문제임이 확인된다. (7A2)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 문제’로 공지시되고도 있어 좌측전위 구문으로 볼 여지가 있다. (7B1, B2)는 본고에서 상정한 암시적 질문이다.

- (7) A1: 그래서 비위를 살피고 눈치를 보는 이유가 사대주의 정신보다는 먹고사는 현실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B1: (어떤 이야기가 남았습니까?)
 A2: 부시 대통령 중전 선언 이 문제에 있어서 (당신이) 정말 한번 성사시켜 보라고 하셨는데?
 B2: (당신은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A3: 이 부분 좀 시간을 두고 위원장님하고 뭐 하나 말씀을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8)은 ‘는’으로 담화 간에서 비대조화제로서 전환한 경우이다. ‘는’으로 실현됐지만 대조되고 있는 문제는 없다. (8A)에서 이전 발언에 대해 답변하고 평가한 후 (8B)에서 자신의 발언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최윤지(2016, 2017)에서 논의된 준분열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 (8) A: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많은 걸 생각하시고 당면하게 풀어야 할 문제와 전반적으로 이제 국제정세 흐름에 따라서 또 국내 정세에 따라서 약간은 단계가 설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다른 건 크게 없고...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문제를 메모했습니다.

(9)의 경우 전체가 ‘6자 회담 보고’에 대한 내용이다. (9A1)부터 (9B2)까지 보고의 배경이 논의된 후, (9B3)에서 본격적으로 화제를 전환하여 ‘회담’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문두 구문은 아니지만 ‘는’을 통해 화제가 전환되었고 ‘는’이 실현되었지만 약배타성이 맥락에 의해 더 약해짐으로써 대안집합이 형성되지 않았다. 비대조화제로 이해된다.

- (9) A1: 좋은 문건이 나왔는데 문건 나온 걸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라우.
 B1: 예,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A2: 앉아서 얘기하라우.

B2: 말씀 올리겠습니다.

A3: 어떤 문건이 좋은 거, 미국 사람들이랑 좋은 문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서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걸...

B3: 예, 이번 회담은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에 전체회의, 단장회의, 쌍무 측 형식을 가지고.

6.1.2. 담화 단위 내 문장 간

동일한 화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하나의 담화 안에서, 각 문장들의 화제는 문장 간에 전환되기도 하고 승계되기도 한다. 각 문장들은 상이한 문두 성분을 가지기도 하지만 동일한 문두 성분을 가지기도 한다. 전자는 전환 화제, 후자는 승계 화제가 된다. 문장 간 전환 화제 역시 담화 간 전환 화제와 마찬가지로 대조화제·비대조화제 모두 가능하다. 다만 배경으로만 기능하는 담화 간 전환 화제와 달리 문장 간 전환 화제는 맥락에 따라 초점으로도 실현되는 모습을 보인다.

6.1.2.1. 대조화제

담화 간 전환 화제처럼 문장 간 전환 화제도 대조화제인 경우 문두 구문이든 아니든 ‘는’과 ‘가’와 통합되어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 ‘는’ 대조화제인 경우에는 연결 대조를 형성하고, ‘가’ 대조화제인 경우에는 이접 대조를 형성한다. ‘는’ 대조화제인 경우에는 배경으로도 실현되고 초점으로도 실현될 수 있으나, ‘가’가 대조화제인 경우에는 ‘는’과 달리 초점으로도 실현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접 대조는 초점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6.1.2.1.1. 배경

(10B)는 ‘는’을 통해 문장 간 화제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10)은 ‘일정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담화의 일부이다.

(10) A: 대통령께서 결심 못 하십니까? (당신은 일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B: 큰 것은 내가 결심을 하고, 일부 작은 것은 의전, 경호실과 상의해야 합니다.

(10A)의 질문은 명시적 질문이기는 하지만 설명의문문은 아니다. 설명의문문이 아

니면 배경·초점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 (10A)를 병렬된 괄호 속 암시적 질문처럼 환언하여 보면, ‘큰 것’과 ‘일부 작은 것’이 ‘일정’의 대안집합을 형성하면서 배경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0B)에서 대등접속의 선행절은 완전한 전치구문으로 실현되어 있기도 하다.

(11)은 ‘일본’ 문제 중 ‘일본 수상들’에 대한 부분이다. (11A1)에서 ‘일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후 화청자를 화제로 하는 문장들을 거쳐 (11A3)부터 ‘아베’와 ‘후쿠다’가 등장하는데, (11A4)에 이르러 각 수상이 화제인 문장들이 출현한다. (11A4)에서 ‘아베 수상’과 ‘후쿠다 수상’은 각 문장에서 화제이며, ‘일본 수상들’의 대안집합을 형성하면서 그 원소로서 대조되고 있다. 괄호로 표시된 암시적 질문이나 생략된 성분들을 고려해 보면, 두 화제 모두 해당 문장의 분절에서 배경으로 기능한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 (11) A1: **일본은** 아베 요 바로... 조 위치에 아베가 왔었습니다. 고이즈미가 오고...
 B1: (**당신은** 아베한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A2: (**나는**) 아베한테 당신네 조상들을 봐서... 조상들이 아주 그 자기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이란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신도 앞으로 우리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앞으로... (중략)
 B2: (**당신은** 일본 수상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A3: (**나는**) 만나 보니까 두 분이 아주 다릅니다. 후쿠다 수상하고 아베 수상하고 완전히 다르구요.
 B3: (**들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A4: **아베 수상은** 뭐 납치 문제를 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이고 초강경이구요. **후쿠다 수상은** 아베수상 되기 전부터 만나서 얘기 해 봤는데... 그 양반 상당히 유연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6.1.2.1.2. 초점

(12)는 ‘는’이 전치 구문을 통해 실현된 경우이고, (13)은 ‘가’가 실현된 경우이다. 괄호로 표시된 것은 맥락을 통해 상정된 암시적 질문이다. (12B3)은 뒤에 언급되는 ‘우리 주장이 어떻게 관철됐는가’와 대안집합을 이루면서 ‘무엇’에 대한 대답으로 등장하였다. 대조초점이다.

- (12) A1: (또 보고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B1: 6자회담에 대해서도 어젯밤에 보고받았습니다.

- A2: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B2: 좋은 문건이 하나 채택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에 보고받게 돼 있는데...
- A3: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B3: 이번에 어떤 문건이 나왔는가 하는 건 아마 남쪽에서도 흥미있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도 우리 주장이 어떻게 관철됐는가 이런 거 내가 흥미있어서 6자 회담에 참가했던 우리 단장을 불러냈습니다.

(13A2)의 경우 (13B)와 같은 암시적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대안집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이 아니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접 대조로서 선택되었다. '어떤 대통령'에 대한 대답 즉 초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중주어 구문으로 볼 수 있기도 하다.

- (13) A1: 지금까지는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시기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실제로 자주란 말씀을 자주 하진 않으셨지마는 6.15 회담부터 자주적인 행보... 일부입니다. 그때...
- B: (어떤 대통령이 또 자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까?)
- A2: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라는 구호가 나오지 않았소?

6.1.2.2. 비대조화제

담화 간 전환 화제와 마찬가지로 문장 간 전환 화제도 문두 구문이든 아니든 비대조화제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무조사와 '는'을 통해 실현된다. 대조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무조사인 경우 조사의 부재가 낳은 결과로 이해할 수 있고 '는'인 경우 약배타성 의미의 완전한 약화가 낳은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담화 간 전환 화제와 달리 문장 간 전환 화제는 무조사와 '는' 모두 배경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초점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6.1.2.2.1. 배경

(14) 전체는 '경제 협력' 부분의 일부이다. (14A1)까지 '개성공단'에 대해 논의하다가 (14A2)에서 잠시 '경수로'에 대해 언급하고는 (14A3)에서 바로 '경제 협력'에 대한 담화 자체를 종결하는 모습을 보인다. 개성공단이건 경수로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완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14A2)에 '경수로'가 담화 간 전환 화제

로 실현되어 있고, 여기에서 언급된 '35% 공정 후 중단'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14A3)에 '미회수 투자 비용' 관련 언급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A3)의 '그 투자한 돈'은 문장 간 전환 화제로, 대안집합이 형성돼 있지 않으므로 비대조화제로 이해된다. (14B2)의 암시적 질문이 타당하다면, 배경인 것으로도 이해된다.

(14) A1: 우리가 인천특구, 말하자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금 만드는데 아직 황량한 별판입니다. 2002년에 기획해 가지고 넘겨준 것인데 5년 동안 죽을 등 살 등 해도 아직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자유구역답게 되려면 앞으로 5년, 10년은 더 가야 되는 것입니다.

B1: (경수로 건설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A2: 그래서 지금 경수로 하나 하는 것도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겠지만, 94년에 합의 돼가지고 98년에 첫 삽 뜨고 2003년 초에 중단이 됐는데, 그 중단될 때까지 35% 공정밖에 안 됐습니다.

B2: (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A3: 그 투자한 돈 13억 달러 안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15)는 회답 초반에 북측이 발언을 시작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15A1)에서 '정상회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민족끼리'라는 언급을 한 후, 이를 (15A2)에서 화제로 실현시키고 있다. 대안집합이 형성될 맥락이 존재하지 않고, (15A2)를 도출하기 위해 상정된 (15B)의 암시적 질문에서 '우리 민족이란 건' 부분은 배경에 해당한다. 문장 간 전환 화제 중 배경으로 기능하는 비대조화제인 것으로 이해된다.

(15) A1: 우리가 지금 최근에 와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최근에 와서 그 무슨 다른 어떤 충격적인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6.15선언 나올 당시부터 김대중 대통령께서 모처럼 찾아와주셔서 훌륭한 민족끼리라는 정신을 해서 6.15 선언이 아주 훌륭한 기치다운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B: (우리 민족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A2: 우리 민족이란 건 북과 남이 100년 전에 보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비할 바 없이 강해져 있는데, 북과 남이 갈라져 있는 것이 한 개 큰 약점으로 세계 면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6.1.2.2.2. 초점

비대조화제이자 초점이므로 무조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비대조화제이자

배경 혹은 대조화제이자 초점인 문장 간 전환 화제는 ‘는’으로도 실현될 수 있었던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전자는 배경이기 때문에 비대조화제임에도 ‘는’ 통합이 가능했다. 후자가 가능했던 것은 ‘는’ 화제가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는 대조되는 경우 뿐이기 때문이다. 문두 구문 중 좌측전위 구문을 통해 실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좌측전위 구문은 주로 담화 간 화제를 전환하는 데 사용되나, 그 경우에는 화제 성분이 초점일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16)은 ‘경제적 자주’ 중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16가)에서 ‘BDA(방코델타아시아 은행)’으로 화제를 전환한 후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단독으로 경제적 자주를 행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이때 (16A4)의 화제 성분 ‘원자로... 경수로’는 ‘하기 어려운 경제적 자주’에 대한 대답으로, 초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것’이라는 공지시 성분이 실현돼 있으므로 좌측전위 구문으로 이해되고, 대안집합이 형성돼 있지 않으므로 비대조화제로 간주된다.

(16) A1: 지난번에 BDA때... **BDA는** 뭐.. 그건 미국의 실책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실책인데... 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돈을 받으라 하니까 어느 은행도 안 받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B1: (은행들은 왜 그러니까?)

A2: 미측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힘이고 그 돈 받았다가 은행 거래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하면 은행을 못 해먹을 판이 되니까 전부 다 중국도... 발 빼고 다 발 빼고... 심지어 미국을 거친 것조차도 미국 중앙은행을 거친 돈조차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경제에서의 현실이거든요..

B2: (당신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A3: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점에서 자주하고 싶어도 자주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B3: (어떤 문제가 자주하기 어렵습니까? 어떻게 어렵습니까?)

A4: 원자로... 경수로 그것 좀 (우리가) 중국에 하고 인도 뭐 이런 데 좀 팔아먹을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이 오케이하지 않으면 기술은 다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권리증을 그쪽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6.2. 승계 화제

승계 화제는 문장 간에서만 고려되며, 대개 성분생략을 통해 실현된다. ‘는’과 무조사를 통해 실현되기도 하며, ‘가’ 화제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 승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조도 형성되지 않고 초점에는 해당될 수 없다. 배경만 가능하다. (17),

(18)이 성분생략으로 실현되는 승계 화제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대부분 무조사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고, 승계할 때 전체가 성분생략된다. (17)의 화제는 ‘현정은 여사’이고 (18)의 화제는 ‘임동원 선생’이다. 이 밖에 성분생략의 승계 화제는 화칭자일 때 가장 흔하다.

(17) A: 현정은 여사 요번에 오셨나?

B: 예, **(현정은 여사)** 왔습니다.

(18) A: 임동원 선생 건강하지요?

B: 예, **(임동원 선생)** 건강합니다.

화제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성분생략으로 승계되고 있는 (19) 같은 경우도 관찰되었다.

(19) A1: 어제 회담에서 이야기 다...

B1: **(이야기)** 기본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A2: **(이야기)** 어제 상임위원장 동지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그대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 (중략)

B2: **(이야기)** 다 아시는 것이고, 다 우리 충분히 논의된 문제입니다.

(20)은 ‘는’으로 문장 간 화제가 승계된 경우이다. (20A1)부터 (20B2)까지 네 개의 문장을 연속하여 동일 화제 ‘해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모든 문장이 ‘는’으로 화제 ‘해주’를 승계하였다. 성분생략으로 실현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복적 언급을 통해 화제의 승계를 강조하거나 화제의 비전환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

(20) A1: 참 **해주**는 원체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어렵습니다만...

B1: **해주 문제는** 내가 오늘 점심에 가서... 정몽헌 선생하고 정주영 선생이 부탁해서 정몽헌 선생하고 토론할 때 이야기 드렸습니다.

A2: **해주**는 그 내가 이런 입장을 그때도 취했으니까.

B2: 정몽헌 선생이 뭘 제기했나 하면 **해주**는 해주시를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해주항만 이용권 달라.

(21)은 무조사로 승계 화제가 실현된 경우이다. 전환 화제 (21A)의 ‘평화협력체제’를 (21B)에서 대명사 ‘그거’로 조응하여 승계한 것이 확인된다.

- (21) A: 평화협력 체제, 앞으로 평화협력 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B: 그거 해야 합니다.

(22)에서는 '가'를 통해 화제가 승계되고 있다. 중주어 구문인 (22A)를 통해 화제가 전환되고 이 화제가 (22B)에서는 다시 '가'와 통합되어 승계 화제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2) A: 공동위원회가 우리와 같이하고 있는 나라들이 부총리급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B: 중국,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인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제가 의장이 돼서 같이 참석을 하는데 한 해 동안 양국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전부 처리를 합니다.

7. 결론

본고의 목적은 화제는 인지상태와 언어형식 간의 대응 문제이고 담화 실체인 동시에 문장성분이라는 인식을 분석에 반영하여, 한국어 화제의 특성을 구명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어 화제의 기능과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언어 연구에서 모호하고 복잡하게 사용돼 온 ‘화제’의 속성과 실현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구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한 작업과 그 결과를 정리하고, 미진하고 부족한 점을 반성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본고에서 취하고자 하는 관점을 구체화하였다. ‘화제’에 대한 기존의 사용을 검토한 후, 논의대상을 어순 관련 ‘문두 구문’과 표지 관련 ‘조사 구문’으로 한정하였다. 이들 구문들은 모두 문장화제인 문두 성분이 후속 성분과 분절되고 이때 소위 ‘대상성’이 포착된다는 점을 그 근거로 하였다. 화제의 특성은 속성과 실현 기제로 구분하였다. 화제 논의는 속성이 기제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범언어적으로 대상성과 기존성이 화제의 의미화용적 속성으로 논의돼 왔고 이러한 속성이 음운적 기제인 강세와 휴지, 통사적 기제인 어순, 형태적 기제인 표지 등을 통해 실현돼 왔음을 확인하였다. 이 또한 논의대상을 문두 구문과 조사 구문으로 한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문두 구문과 조사 구문을 일관되게 분석하기 위해 담화와 문장의 문제를 모두 고려하고자 하였다. 화제 논의와 관련된 담화의 문제는 화제 실체가 전환·승계되는 양상과 문답이 구성되는 양상임을 확인하였다. 담화를 문답의 연속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고, 명시적 질문이 부재하는 경우 실체의 문제도 고려하여 암시적 설명의문문을 상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장의 분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역시 알 수 있었다.

화제 논의와 관련된 문장의 문제는 분절의 양상이고, 문장의 분절은 통합 분절과 계열 분절 모두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통합 분절의 본질은 정언문이며, 이 또한 문답을 통해 판단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대표적인 통합 분절로 배경-초점과 화제-평언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두 분절은 분리될 수 있으며 화제의 분석에 두 분절이 모두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계열 분절은 대안집합 생성과 관련되는 대조 문제와 관련되며 계열 분절은 통합 분절을 보증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대조에는 연접 대조와 이접 대조가 있으며 전자는 보조사를 통해, 후자는 일부 격조사를

통해 각각 실현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두 대조 모두 화제의 전환·승계와 관련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화제의 의미화용적 속성인 기존성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였다. 이미 대상성을 포괄하고 있고 인지상태와도 연계돼 온 기존성이 화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존성은 ‘청자의 인지상태 내에 이미 존재한다고 간주하고자 하는 화자의 가정과 관련된 속성’으로 정의되었다. 기존성의 대상으로 명제와 실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각각의 개념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명제는 ‘사태의 심적 표상인 술어와 논항들의 구성체’로, 실체는 ‘외부세계의 대상’이자 ‘명제의 구성원인 실체의 심적표상’으로 각각 파악되었다.

명제와 관련된 기존성의 문제로는 분열문의 관계절, 설명의문문, 반말체 종결어미 등을 검토하였다. 개방명제와 완전명제 명제가 혼합돼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체와 관련된 기존성 문제는 더 다양하고 복잡하였다. 실체의 기존성은 담화, 지식, 의식, 기억, 상황, 추론 등 출처는 물론이고 고유명사, 한정기술, 지시사, 대명사, 성분생략, 일부 비한정성 표현 등 한정성의 언어형식과도 연계돼 왔다. 개방명제 내 실체가 배경이나 화제인 경우도 함께 논의돼 왔다. 실체가 명제의 구성원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두 대상의 지위가 동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고는 기존성에 대한 기존의 지시적 기존성과 관계적 기존성 구분을 확대 수용하였다. 화제 논의에서 기존성은 명제와 실체를 대상으로 하고 인지상태인 지식, 의식, 의식 내 주의 등을 기준으로 한다. 지식은 장기기억과 관련되고 의식은 단기기억과 관련된다. 주의를 가장 현저한 의식 상태를 가리킨다. 지식, 의식에 기존하면 지시적 기존성이 되고 주의에 기존하면 관계적 기존성이 된다. 지시적 기존성을 가지면 명제는 전제가 되고 실체는 한정성 실체가 된다. 관계적 기존성을 가지면 명제는 배경이 되고 실체는 화제가 된다.

전제와 관련해서는 대응되는 인지상태에 따라 지식·의식, 지식·비의식, 비지식·의식의 세 유형으로 구분한 후, 유형별로 언어형식이나 후속 담화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정성은 전제와 달리 연결 추론이나 표현 추론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고, 지식·의식, 지식·비의식, 비지식·의식, 추론·지식, 추론·비지식의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역시 유형별로 언어형식이나 후속 담화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배경-초점 분절이 상이한 화제-평언 분절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 정언문

의 문두 성분이 의문사에 대한 대답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두 분절의 분리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때 화제는 '주의 실체'로 확립되어, 자신을 중심으로 정보를 배열하고 매 순간 전환·승계되면서 이동하는 '주의'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 받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주의의 현저성이 반영되어 명제나 문장의 분절을 야기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전제, 한정성, 배경은 모두 화제의 필요조건으로 간주되었다.

주의 실체로서의 화제의 속성이 통사적 기제인 문두로 실현되는 양상은 4장에서 살펴보았다. 목적어 전치, 좌측전위, 중주어, 자유화제의 문두 구문을 대상으로 문두가 주의의 실현이고 한정성이 문두 성분의 조건이라는 점을 피력하였다. 담화 간·문장 간 화제의 전환을 담화상 기능으로, 문두 성분 중심의 정보 배열을 분절상 기능으로 각각 파악하였다. 구문에 따라 문두 성분은 배경일 수도 있고 초점일 수도 있으며, 대조될 수도 있고 대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담화 간 화제 전환은 배경과 밀접하였다. 문장 간 화제 전환은 전치와 가장 밀접하였다.

주의 실체로서의 화제의 속성이 형태적 기제인 조사로 실현되는 양상은 5장에서 살펴보았다. 문두의 보조사 '는', 격조사 '가', 무조사, 성분생략을 대상으로 역시 문두는 주의의 실현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는'은 연결 대조, '가'는 이접 대조와 관련되는 반면 무조사는 무대조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대조가 전환을 담보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문두 성분의 한정성 역시 당연시되었다. 담화 간·문장 간 화제의 전환·승계를 담화상 기능으로, 문두 성분 중심의 정보 배열과 배경·초점 표시를 분절상 기능으로 각각 이해하였다. 역시 구문에 따라 문두 성분의 기능은 상이하다고 보았다. 문장 간 화제 승계는 성분생략과 가장 밀접하였다.

6장에서는 2013년에 공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어 화제는 전환 화제와 승계 화제로 구분되고 전환 화제는 다시 대조화제와 비대조화제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때 문장 간 전환 화제는 특히 이접 대조를 통해 초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문두와 조사를 통한 화제의 실현이 비교적 잘 관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분석을 위해 암시적 설명의문문을 남발하거나 생략된 성분을 억지로 복원하고 화제-평언으로 분절되지 않는 문장들의 존재를 무시한 점은 극복되거나 반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봉균 역(2010). 인지, 뇌, 의식: 인지신경과학 입문서. 파주: 교보문고. [Baars & N. M. Gage(2007). *Cognition, Brain, and Consciousness: Introduction to Cognitive Neuroscience*. Amsterdam: Academic Press.]
- 강소영(2006). “우측 어순 변동 구문의 실현양상과 의미기능 연구.” *한국어 의미학* 20. 서울: 한국어의미학회. 281-303.
- 강소영(2008). “어순도치구문의 담화 기능 분석.” *한국어 의미학* 26. 서울: 한국어의미학회. 1-20.
- 강소영(2014). “화제 첫머리에 분포하는 담화표지의 실제.” *어문연구* 79. 대전: 어문연구학회. 5-30.
- 고석주(2002). “조사 ‘가’의 의미.” *국어학* 40. 서울: 국어학회. 221-246.
- 고석주(2004). *현대 한국어 조사의 연구 I: ‘격 개념’과 조사 ‘-가’와 ‘-를’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사.
- 곽광재 역(1986). *분석철학: 그 전통과 쟁점들*. 서울: 서광사. [Corrado(1975). *The Analytic Tradition in Philosophy: Background and Issue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김미경(1999). “정보구조화 관점에서 본 생략의 의미와 조건.” *담화와 인지* 6(2). 서울: 담화·인지언어학회. 61-88.
- 김미경(2003). “중심화이론에서 본 한국어 논항의 생략.” *언어* 28(1). 서울: 한국언어학회. 29-49.
- 김미형(2011). “조사 ‘이/가’와 ‘은/는’의 기본 전제와 기능 분석.” *담화와 인지* 18(3). 서울: 담화·인지언어학회. 21-64.
- 김미형(2012). “목적어 자리 ‘을/를’, ‘은/는’, 무표지 ‘∅’의 대립적 특성 분석.” *담화와 인지* 19(2). 서울: 담화·인지언어학회. 1-18.
- 김민국(2011). “‘말이다’ 구성의 문법화와 화용화.” *국어학* 62. 서울: 국어학회. 73-106.
- 김민국(2016). “한국어의 격조사와 초점: 주격과 대격을 중심으로.” *국어학* 78. 서울: 국어학회. 165-219.
- 김민국(2016). “한국어 주어의 격표지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국어국문학과).
- 김민국·하영우(2017). “초점의 유형에 따른 운율 실현 양상: ‘은/는’과 ‘이/가’ 초점 성분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58. 서울: 한국어의미학회. 57-88.
- 김영진(2008). “지향성 이론 정초의 시각에서 보는 브렌타노.” *철학탐구* 23. 서울: 중앙철학연구소. 39-61.

- 김용범(2004). “초점과 주제의 음성학적 관련성.” 언어와 정보 8(1). 서울: 한국언어정보학회. 27-52.
- 김인균(2002). “국어 명사의 의미 특성과 분류.” 시학과 언어학 4. 대전: 시학과언어학회. 268-293.
- 김일웅(1980). “국어의 ‘주제-설명’ 구조.” 언어연구 3. 부산: 부산대학교 어학연구소. 95-118.
- 김재권(1994). 수반과 심리철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 김정선·이필영(2008). “질문의 주제 전개 기능.” 한국언어문화 35. 서울: 한국언어문화학회. 118-141.
- 김중호(2006). “현대 중국어 화제어순의 무표성에 관하여.” 중국학연구 36. 서울: 중국학연구회. 95-112.
- 김주미(2004). “담화 표지 ‘있잖아’에 대하여.” 한말연구 14. 원주: 한말연구학회. 93-116.
- 김지은(2010). “의미-통사적 특성에 따른 국어 명사의 분류 시도.” 동서인문학 43. 대구: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91-109.
- 김지현(2007). “한국어 주어의 무조사 현상 연구: 담화·화용 층위의 정보성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8. 세종: 우리어문학회. 7-31.
- 김진성 역주(2008). 범주들·명제에 관하여. 서울: 이제이북스. [Minio-Paluello(ed.)(1949). *Aristotelis: Categoriae et Liber de Interpretatione*. Oxonii: Clarendoniano.] [Aristotelis(연도미상)]
- 남승호(2004).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상적 의미.” 인문논총 52. 서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75-124.
- 남승호(2007).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두임림(2010). “주격 중출 구문의 정보구조적 분석.” 한국어 의미학 31. 서울: 한국어의미학회. 1-22.
- 목정수(1998). “한국어 격조사와 특수조사의 지위와 그 의미: 유형론적 접근.” 언어학 23. 서울: 한국언어학회. 47-78.
- 문숙영(2017). “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것’ 명사질.” 국어학 84. 서울: 국어학회. 33-88.
- 박승윤(1986). “담화의 기능상으로 본 국어의 주제.” 언어 11(1). 서울: 한국언어학회. 1-15.
- 박영순(2004). 한국어 담화·텍스트론. 서울: 한국문화사.
- 박영태 역(1996). 현대 분석 철학. 서울: 서광사. [Munitz(1981). *Contemporary Analytic Philosophy*. NY: Macmillan Publishing Co..]
- 박정구(2006). “중국어 어순 유형론 연구의 성과와 전망.” 중국학보 54. 서울: 한국중국학회. 37-64.

- 박종갑(1987). “국어 의문문의 의미기능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산: 영남대학교(국어국문학
과).
- 박진호(2015).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국어학 73. 서울: 국어학회. 375-435.
- 박철우(2003).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서울: 역락.
- 박철우(2007). “국어 분리 구성의 형식과 기능.” 언어학 49. 서울: 한국언어학회. 203-225.
- 박철우(2015). “보조사의 기능과 정보구조.” 국어학 73. 서울: 국어학회. 269-307.
- 배식한 역(2012). 행위와 사건. 파주: 한길사. [Davidson(1980).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Clarendon Press.]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편(2012). 마음과 철학: 서양편 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석봉래 역(1992). 물질과 의식: 현대심리철학입문. 서울: 서광사. [Churchland(1988). *Matter
and Consciousness: A Contemporary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Mind*. Cambridge:
The MIT Press.]
- 성기철(1985). “국어의 주제 문제.” 한글 188. 서울: 한글학회. 65-90.
- 송남선(2006). “한국어와 일본어의 주제문과 무제문: {는}, {가}와 {wa}, {ga}에 대한 비교연
구.” 제3회 세계한국학대회.
(http://congress.aks.ac.kr/korean/files/2_1358496796.pdf)
- 송은지(2012). “러시아어 존재문의 어순: 소위 “주관적 어순”과 “객관적 어순”의 의미, 화용
적 기능에 대하여.” 노어노문학 24(3). 청주: 한국노어노문학회. 33-73.
- 신서인(2006). “구문 분석 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문형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
교(국어국문학과).
- 신서인(2011). “문장부사의 위치에 대한 고찰.” 국어학 61. 서울: 국어학회. 207-238.
- 오미라(2008). “운율과 정보구조: 한국어 초점과 주제의 음성적 실현.” 음성과학 15(2). 서울:
한국음성학회. 7-19.
- 이기갑(1996). “한국어 첨가 구문의 담화론적 해석.” 국어학 27. 서울: 국어학회. 1-27.
- 이기동(1981). “언어와 의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 서울: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9-50.
- 이나라(2014). “한국어의 1·2인칭 주어 생략 현상에 대한 제고: 명시적 주어 표현의 화용적
의미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21(3). 서울: 담화·인지언어학회. 145-163.
- 이남순(1996). “특수조사의 통사기능.” 진단학보 82. 서울: 진단학회. 217-235.
- 이병덕(2017). 표상의 언어에서 추론의 언어로: 언어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울: 성
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선웅(2005). “국어의 문장 제시어에 대하여.” 어문연구 33(1). 서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9-84.

-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서울: 월인.
- 이성범(1999). 언어와 의미: 현대의미론의 이해. 서울: 태학사.
- 이성범(2006). “대격 조사 생략의 화용적 분석.” 담화와 인지 13(1). 서울: 담화·인지언어학회. 69-89.
- 이성범·홍승진(2009). “생략적 발화의 화용적 기능.” 담화와 인지 16(1). 서울: 담화·인지언어학회. 63-82.
- 이인영(1996). ““주제”와 “화제”: 기존 화제개념에 대한 재고.” 어학연구 32-1. 서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61-99.
- 이정민(1992). “(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topic)/초점: 개체 층위/단계 층위 술어와도 관련하여.” 국어학 22. 서울: 국어학회. 397-424.
- 이필영(2006). “조사 ‘는’의 의미와 출현 조건.” 어문학 연구의 넓이와 깊이. 서울: 역락. 273-286.
- 이희자(1994). “국어의 ‘주제부/설명부’ 구조 연구: ‘텍스트’의 구성 성분으로서의 ‘발화문’과 ‘발화문’의 구성 성분으로서의 ‘주제부/설명부.’” 국어학 24. 서울: 국어학회. 319-351.
- 임동훈(1997). “이중 주어문의 통사 구조.” 한국문화 19. 서울: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32-66.
- 임동훈(2003). “국어 양태 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 의미학 12. 서울: 한국어의미학회. 127-153.
- 임동훈(2005). “‘이다’ 구문의 제시문적 성격.” 국어학 45. 서울: 국어학회. 119-127.
- 임동훈(2007). “한국어 조사 ‘만’과 ‘도’의 의미론.” 朝鮮學報 205. 奈良: 朝鮮學會. 1-20.
- 임동훈(2012). “‘은/는’과 중형의 의미 관계.” 국어학 64. 서울: 국어학회. 217-269.
- 임동훈(2015). “보조사의 의미론.” 국어학 73. 서울: 국어학회. 335-373.
- 임지룡·요시모토 하지메·이은미·오카 도모유키 역(2004). 인지언어학 키워드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辻幸夫[쓰지 유키오] 編(2002). 認知言語學キ-ワ-ド事典. 東京: 研究社.]
- 임흥빈(1972). “국어의 주제화 문제.” 국어연구 28. 서울: 국어연구회.
- 임흥빈·장소원(1995). 국어 문법론 I.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임흥빈(2007). “한국어 무조사 명사구의 통사와 의미.” 국어학 49. 서울: 국어학회. 69-106.
- 임흥빈(2007).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주제 개념의 새로운 전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임흥빈(2007). “어순에 관한 언어 유형적 접근과 한국어의 기본 어순.” 서강인문논총 22. 서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53-120.
- 임흥빈·이홍식 외(2002). 한국어 구문 분석 방법론. 서울: 한국문화사.
- 전영철(2002). “한정성 효과: 한정성 제약과 비한정성 제약.” 언어와 정보 6(2). 서울: 한국언

- 어정보학회. 83-104.
- 전영철(2005). “한국어의 대조초점.” 언어학 43. 서울: 한국언어학회. 215-237.
- 전영철(2006).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의 표지 ‘는.’” 한글 274. 서울: 한글학회. 171-274.
- 전영철(2009). “‘이/가’ 주제설에 대하여.” 담화와 인지 16(3). 서울: 담화인지언어학회. 217-238.
- 전영철(2013). “한국어의 제언문/정언문 구별과 정보구조.” 국어학 68. 서울: 국어학회. 99-132.
- 전영철(2013). 한국어 명사구의 의미론: 한정성/특정성, 총칭성, 복수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전응주 역(2015). 개념표기: 수리학의 공식 언어를 본뜬 순수 사유의 공식 언어. 서울: 이제이북스. [Frege(1897). *Begriffsschrift: Eine Der Arithmetischen Nachgebildete Formelsprache Des Reinen Denkens*. Halle: Louis Nebert.]
- 정병철(2010). “주의 이론에 기초한 한국어의 주어 연구.” 담화와 인지 17(2). 서울: 담화·인지언어학회. 119-146.
- 정희자(1994). “주제의 담화 기능에 관하여.” 언어 19(2). 서울: 한국언어학회. 563-598.
- 정희자(1996). “영어 담화에서 담화전략과 어순변화.” 담화와 인지 2. 서울: 담화·인지언어학회. 21-45.
- 조은영(2000). “기존 ‘화제’ 개념에 대한 재고.” 스페인어문학 16. 서울: 한국스페인어학회. 237-265.
- 조은영(2004).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에 나타난 초점구조와 정보분질성.” 현대문법연구 37. 대구: 현대문법학회. 181-202.
- 조현양·남영춘(2004). “시소러스와 온톨로지의 상호 호환성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4). 서울: 한국정보관리학회. 27-47.
- 채완(1976). “조사 ‘는’의 의미.” 국어학 4. 서울: 국어학회. 93-113.
- 채완(1979). “화제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4. 서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5-227.
- 최경봉(1998). 국어 명사의 의미 연구. 서울: 태학사.
- 최기용(2007). “구조격 조사의 비출현: 구조격의 형태적 비실현.” 생성문법연구 17(2). 서울: 한국생성문법학회. 199-232.
- 최동주(2012). “‘은/는’과 ‘이/가’의 출현 양상.” 인문연구 65. 경산: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5-58.
- 최석두 외(2006). “대단위 우리말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시소러스의 개발.” 정보관리학회지 23(4). 서울: 한국정보관리학회. 147-164.
- 최석재(2013). “조사 ‘은/는’과 ‘이/가’의 의미.” 우리말연구 35. 부산: 우리말학회. 82-111.

- 최수영(1984), “주제화와 주격조사: 조사 ‘-는’과 ‘-가’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20(3), 서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233-250.
- 최수영(1993) “한국어 주제/주어 조사 ‘는’, ‘가’의 패러다임: 수학적 모형과 교재분석을 중심으로.” *어학연구* 29(1). 서울: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49-73.
- 최윤지(2008). “한국어 분열문의 의미 연구: 정보구조를 중심으로.” *국어연구* 202. 서울: 국어연구회.
- 최윤지(2016). “한국어 정보구조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
- 최윤지(2016). “구어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어떤 통사구성에 대하여: 준분열문.” *국어학* 79. 서울: 국어학회. 187-237.
- 최윤지(2017). “관형사절이 단어를 나타내는 열린 분열문에 대하여.” *언어사실과 관점* 42. 서울: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99-134.
- 함병호(2016). “정보구조의 분절 방법.” *동악어문학* 67. 서울: 동악어문학회. 311-338.
- 함병호(2016). “제시어와 화제.” *언어와 정보 사회* 28. 서울: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351-380.
- 함병호(2018). “한국어 정보구조의 화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동국대학교(국어국문학과).
- 홍용철(2005). “특수조사 ‘는’에 대한 통합적 분석.” *생성문법연구* 15(3). 서울: 한국생성문법학회. 397-413.
- 홍정하(2011). “담화 표지 ‘-는’/‘-가’와 화자 시점.” *한국어 의미학* 34. 서울: 한국어의미학회. 451-477.
- 황순문(2002). “한국어 화제구문의 운율적 고찰.” *음성과학* 9(2). 서울: 한국음성학회. 59-68.
- 西山佑司[니시아마 유지](2003). *日本語名詞句の意味論と語用論: 指示的名詞句と非指示的名詞句*. 東京: ひつじ書房.
- 野田尙史[노다 히사시](1996). ‘は’と‘が’. 東京: くろしお出版.
- Abbott(2000). “Presuppositions as nonassertions.” *Journal of Pragmatics* 32(10).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 1419-1437.
- Abbott(2006). “Where have some of the presuppositions gone?” Birner & G. Ward(eds.)(2006). *Drawing the Boundaries of Meaning*.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20.
- Abbott(2008). “Presupposition and common ground.” *Linguistics and Philosophy* 31(5).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mpany. 523-538.
- Abbott(2010). *Reference*. NY: Oxford University Press.
- Abbott(2013). “The indefiniteness of definiteness.” Gamerschlag, Gerland, Osswald &

- Petersen(eds.)(2013). *Frames and Concept Types: Applications in Language and Philosophy*. Boston: Springer. 323-341.
- Ariel(1988). "Referring and accessibility." *Journal of Linguistics* 24(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65-87.
- Ariel(2001). "Accessibility theory: an overview." Sanders, Schilperoord & Spooren(eds.)(2001). *Text Representation: Linguistic and Psycholinguistic Aspect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9-87.
- Ariel(2013). "Centering, accessibility and the next mention." *Theoretical Linguistics* 39. Berlin: De Gruyter Mouton. 39-58.
- Asher(2004). "Discourse topic." *Theoretical Linguistics* 30. Berlin: De Gruyter Mouton. 163-201.
- Bach, K.(2006). "What does it take to refer?" Lepore & Smith(eds.)(2006). *The Oxford Handbook of Philosophy of Language*. Oxford: Clarendon Press. 516-554.
- Beaver & Geurts(2012). "Presupposition." von Heusinger, Maienborn & Portner(eds.)(2012). *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Natural Language Meaning* 3. Berlin: De Gruyter Mouton. 2432-2460.
- Bende-Farkas(2006). "Comparing English and Hungarian focus."
(<http://semarch.linguistics.fas.nyu.edu/Archive/jNkNzYzO/hunfocus.pdf>)
- Birner(2006). "Inferential relations and noncanonical word order." Birner & G. Ward(eds.)(2006). *Drawing the Boundaries of Meaning*.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31-51.
- Birner(2013). *Introduction to Pragmatics*. Chichester: Wiley-Blackwell.
- Birner & G. Ward(1994). "Uniqueness, familiarity, and the definite article in English."
(<http://faculty.wcas.northwestern.edu/~ward/BLS94.pdf>)
- Birner & G. Ward(1996). "A crosslinguistic study of postposing in discourse." *Language and Speech: Special Issue on Discourse, Syntax, and Information* 39. LA: Sage Publications. 113-142.
- Birner & G. Ward(1998). *Information Status and Noncanonical Word Order in English*.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lack(trans.)(1952). "On sense and reference." Geach & Black(eds.)(1952). *Translations from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Gottlob Frege*. Oxford: Basil Blackwell. 56-78.
[Frege(1892). "Über sinn und bedeutung."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und Philosophische Kritik* 100. Leipzig: R. Voigtländers Verlag. 25-50.]

- Bolinger(1958). "A theory of pitch accent in English." *Word* 14(2-3). NY: S. F. Vanni. 109-149.
- Brentano(1867). *Psychologie vom Empirischen Standpunkte*. Leipzig: Dunker & Humbolt. [Rancurello, Terrell & McAlister(trans.)(1973). *Psychology from an Empirical Standpoint*. NY: Routledge.]
- Brown & Yule(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üring(1997). *The Meaning of Topic and Focus: 59th Street Bridge Accent*. London: Routledge.
- Büring(2003). "On D-Trees, Beans, and B-Accent." *Linguistic Philosophy* 26. Dordrecht: Springer. 511-545.
- Carlson, L.(1983). *Dialogue Games: An Approach to Discourse Analysis*.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mpany.
- Carlson, G.(1977). "Reference to kinds in English." PhD Dissertation.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Carlson, G.(2004). "Reference." Horn & G. Ward(eds.)(2004). *The Handbook of Pragmatics*. Malden: Blackwell Publishing. 76-96.
- Casati & Varzi(2014). "Event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tanford: CSLI Publications. (<https://plato.stanford.edu/entries/events/>)
- Chafe(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Li(ed.)(1976). *Subject and Topic*. NY: Academic Press. 25-55.
- Chafe(1987). "Cognitive constraints on information flow." Tomlin(ed.)(1987). *Coherence and Grounding in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1-51.
- Chafe(1994). *Discourse, Consciousness, and Tim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fe(1996). "Inferring identifiability and accessibility." Fretheim & Gundel(eds.)(1996). *Reference and Referent Accessibility*.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37-46.
- Chafe(2001). "The analysis of discourse flow." Schiffrin, Tannen & Hamilton(eds.)(2001). *The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673-687.
- Chao(1968). *Grammar of Spoken Chines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undel & Fretheim(2004) 참고]
- Chen(2004). "Identifiability and definiteness in Chinese." *Linguistics* 42(6). Berlin: Walter de Gruyter. 1129-1184.
- Chen(2009). "Aspects of referentiality." *Journal of Pragmatics* 41(8). Amsterdam:

- North-Holland Publishing Co.. 1657-1674.
- Choi, H.-W.[최혜원](1996/1999). *Optimizing Structure in Context: Scrambling and Information Structure*. Stanford: CSLI Publications.
- Choi, H.-W.[최혜원](2004). "Focus and specificity in *wh*-scrambling: an OT account." *언어* 29(2). 서울: 한국언어학회. 137-166.
- Choi, H.-W.[최혜원] & Shimojo(2001). "The topic marking of Korean: a comparative study with Japanese." *Comparative Korean Studies* 8. 인천: 국제비교한국학회. 1-17.
- Chomsky(1971). "Deep structure, surface structure, and semantic interpretation." Steinberg & Jakobovits(eds.)(1971). *Semantic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3-216.
- Clark & Haviland(1977). "Comprehension and the given-new contract." Freedle(ed.)(1977). *Discourse Comprehension and Comprehension*. Hillsdale: Erlbaum. 1-40.
- Cohen(2006). "How to deny a presupposition." von Stechow & Turner(eds.)(2006). *Where Semantics Meets Pragmatics*. Amsterdam: Elsevier Ltd. 95-110.
- Collins(1991). *Cleft and Pseudo-Cleft Constructions in English*. NY: Routledge.
- Comrie(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roft & Cruse(2004).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hl(1970). "Topic-comment structure in a generative grammar with a semantic base." *The Symposium on FSP*. [채완(1976) 참고]
- Dahl(1974). "Topic-comment structure revisited." Dahl(ed.)(1974). *Topic and Comment, Contextual Boundness and Focus*. Hamburg: Helmut Buske. 1-24.
- Daneš(1974).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and the organization of the text." Daneš(ed.)(1974). *Papers on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Prague: Academia. 106-128.
- Di Eugenio(1998). "Centering in Italian." Walker, Joshi & Prince(eds.)(1998). *Centering Theory in Discourse*. NY: Oxford University Press. 115-137.
- Diesing(1992). *Indefinites*. Cambridge: The MIT Press.
- Duncan, Humphrey & R. Ward(1997). "Competitive brain activity in visual attention." *Current Opinion in Neurobiology* 7(2). NY: Elsevier Science Ltd. 255-261.
- van Dijk(1976). "Sentence topic and discourse topic."
<http://www.discourses.org/OldArticles/Sentence%20topic%20and%20discourse%20to%20pic.pdf>
- Donnellan(1966). "Reference and definite descriptions." *Philosophical Review* 75(3).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81-304.

- Dryer(1996). "Focus, pragmatic presupposition, and activated propositions." *Journal of Pragmatics* 26(4).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 475-523.
- Enç(1991). "The semantics of specificity." *Linguistic Inquiry* 22(1). Cambridge: The MIT Press. 1-25.
- Erteschik-Shir(2007). *Information Structure: The Syntax-Discourse Interface*. NY: Oxford University Press.
- Evans(1982). *The Varieties of Reference*. Oxford: Clarendon Press.
- Falco(2012). "Specificity: the syntax/semantics mapping."
(<http://www.ciscl.unisi.it/gg60/papers/falco.pdf>)
- Farkas(2002). "Specificity distinctions." *Journal of Semantics* 1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13-243.
- Féry(2007). "Information structural notions and the fallacy of invariant correlates."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Information Structure* 6. Postdam: University of Potsdam Press. 161-184.
- Fiengo & McClure(2002). "On how to use *-wa*."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1.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 5-41.
- Fife & King(1991). "Focus and the Welsh 'abnormal sentence':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Fife & Poppe(eds.)(1991). *Studies in Brythonic Word Order*.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81-153.
- von Fintel(2008). "What is presupposition accommodation, again?" *Philosophical Perspectives* 22(1). Malden: John Wiley & Sons. 137-170.
- Firbas(1974). "Some aspects of the Czechoslovak approach to problems of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Daněš(ed.)(1974). *Papers on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Prague: Mouton. 11-37.
- Fillmore(1968). "The case for Case." Bach, E. & Harms(eds.)(1968).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London: Holt, Rinehart and Winston. 1-25.
- Fodor, J. D. & Sag(1982). "Referential and quantificational indefinit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5(3).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mpany. 355-398.
- Frascarelli & Hinterhölzl(2007). "Types of topics in German and Italian." Schwabe & Winkler(eds.)(2007). *On Information Structure, Meaning and Form: Generalization across Language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87-116.
- Frascarelli & Puglielli(2009). "Position, function and interpretation of topics in Somali." Mereu(ed.)(2009). *Information Structure and Its Interfaces*. Berlin: Mouton de Gruyter.

325-348.

- Fraurud(1996). "Cognitive ontology and NP form." Fretheim & Gundel(eds.)(1996). *Reference and Referent Accessibility*.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65-87.
- von der Gabelentz(1868). "Ideen zur einer vergleichenden syntax: wort- und satzstellung." *Zeitschrift für Völkerpsychologie und Sprachwissenschaft* 6. 376-384. [Gundel & Fretheim(2004) 참고]
- Gage, N. L. & Berliner(1984). *Educational Psychology*. Boston: Houghton Mifflin.
- Garavan(1998). "Serial attention within working memory." *Memory and Cognition* 26(2). Austin: Psychonomic Society. 263-276.
- Geach(1962). *Reference and General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Gebert(2009). "Information structure in Slavic languages." Mereu(ed.)(2009). *Information Structure and Its Interfaces*. Berlin: Mouton de Gruyter. 307-324.
- Givón(1978). "Definiteness and referentiality." Greenberg, Ferguson & Moravcsik(eds.)(1978).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4.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91-330.
- Givón(1983). "Introduction." Givón(ed.)(1983).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 Quantitative Cross-Language Study*.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41.
- Givón(1988). "The pragmatics of word-order: predictability, importance and attention." Hammond, Moravcsik & Wirth(eds.)(1988). *Studies in Syntactic Typology*.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43-284.
- Gómez-González(2001). *The Theme-Topic Interface: Evidence from English*.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Grice(1975). "Logic and conversation." Cole & Morgan(eds.)(1975). *Syntax and Semantics* 3. NY: Academic Press. 41-58.
- Grimshaw(1990).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IT Press.
- Guerzoni(2007). "Weak exhaustivity and *whether*: a pragmatic approach." *Proceedings of the 17th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conference*. Washington: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112-129.
- Gundel(1974). "The role of topic and comment in linguistic theory." PhD Dissertation. Austin: University of Texas.
- Gundel(1985). "'Shared knowledge' and topicality." *Journal of Pragmatics* 9(1).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83-107.

- Gundel(1988). "Universals of topic-comment structure." Hammond, Moravcsik & Wirth(eds.)(1988). *Studies in Syntactic Typology*.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9-239.
- Gundel(1998). "Centering theory and the givenness hierarchy: towards a synthesis." Walker, Joshi & Prince(eds.)(1998). *Centering Theory in Discourse*. NY: Oxford University Press. 183-198.
- Gundel(1999). "Topic, focus, and the grammar-pragmatics interfa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6. Pennsylvan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93-305.
- Gundel(1999). "On different kinds of focus." Bosch & van der Sandt(eds.)(1999). *Focus: Linguistic, Cognitive, and Computational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3-127.
- Gundel(2002). "Information structure and the use of cleft sentences in English and Norwegian." Hasselgård, Johansson, Behrens & Fabricius-Hansen(eds.)(2002). *Information Structure in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Amsterdam: Rodopi. 113-128.
- Gundel(2006). "Clefts in English and Norwegian: implications for the grammar-pragmatics interface." Molnár & Winkler(eds.)(2006). *The Architecture of Focus*. Berlin: Mouton de Gruyter. 517-548.
- Gundel & Fretheim(2004). "Topic and focus." Horn & G. Ward(eds.)(2004). *The Handbook of Pragmatics*. Malden: Blackwell Publishing. 175-196.
- Gundel, Hedberg & Zacharski(1993). "Cognitive status and the form of referring expressions in discourse." *Language* 69(2). Washington: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274-307.
- Halliday(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II." *Journal of Linguistics* 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44.
- Halliday(1985).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Baltimore: Edward Arnold.
- Halliday & Hasan(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 Han, C.-H.[한정혜](1998). "Asymmetry in the interpretation of *-(n)un* in Korean." Akatsuka, Hoji, Iwasaki, Sohn & Strauss(eds.)(1998). *Japanese/Korean Linguistics* 7. Stanford: CSLI Publications. 1-15.
- Hara(2006). "Implicature unsuspendable: Japanese contrastive *wa*." *Proceedings of Texas Linguistics Society* 8. Somerville: Cascadilla Press. 35-45.
- Haviland & Clark(1974). "What's new?: acquiring new information as a process in

- comprehension."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3. NY: Academic Press. 512-521.
- Hetland(2002). "Accent and the notion of contrast: a cross-linguistic approach." Hasselgård, Johansson, Behrens & Fabricius-Hansen(eds.)(2002). *Information Structure in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Amsterdam: Rodopi. 163-178.
- Hetland(2007). "The Korean particle *nun*, the English fall-rise accent, and thetic/categorical judgements." Schwabe & Winkler(eds.)(2007). *On Information Structure, Meaning and Form: Generalization across Language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17-127.
- von Heusinger(1999). "Intonation and information structure." Habilitationsschrift. Konstanz: University of Konstanz.
- von Heusinger(2011). "Specificity." von Heusinger, Maienborn & Portner(eds.)(2011). *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Natural Language Meaning* 2. Berlin: De Gruyter Mouton. 1025-1058.
- von Heusinger(2011). "Specificity, referentiality and discourse prominence: German indefinite demonstratives." *Proceedings of Sinn & Bedeutung* 15. Saarbrücken: Saarland University Press. 9-30.
- von Heusinger & Kornfilt(2005). "The case of the direct object in Turkish: semantics, syntax and morphology." *Turkic Language* 9.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3-44.
- Heycock(2008). "Japanese *-wa*, *-ga*, and information structure." Miyagawa & Saito(eds.)(2008). *The Oxford Handbook of Japanese Linguis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54-83.
- Hirschberg(1985). "A theory of scalar implicature." PhD Dissertat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 Hockett(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Y: MacMillan Company.
- Hole(2004). *Focus and Background Marking in Mandarin Chinese*. NY: Routledge.
- Horn(1985). "Metalinguistic negation and pragmatic ambiguity." *Language* 61(1). Washington: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121-174.
- Huang, Y.(2007). *Pragmatics*. NY: Oxford University Press.
- Huang, R. & Ting(2006). "Are there dangling topics in Mandarin Chinese?" *Concentric: Studies in Linguistics* 32(1). Taipei: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119-146.
- Hutchins(1977). "On the problem of 'aboutness' in document analysis." *Journal of Informatics* 1(1). 17-35.

- (<http://www.hutchinsweb.me.uk/JInformatics-1977.pdf>)
- Hutchins(1978). "The concept of 'aboutness' in subject indexing." *Aslib Proceedings* 30(5). Bingley: Emerald Publishing Limited. 172-181.
- Iida(1998). "Discourse coherence and shifting centers in Japanese texts." Walker, Joshi & Prince(eds.)(1998). *Centering Theory in Discourse*. NY: Oxford University Press. 161-180.
- Ionin(2003). "Article semantic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hD Dissertation. Cambridge: MIT.
- Ionin(2006). "This is definitely specific: specificity and definite in article systems." *Natural Language Semantics* 14. Dordrecht: Springer. 175-234.
- Ionin(2009). "Specificity." *The Routledge Pragmatics Encyclopedia*. NY: Routledge. 449-452.
- Ioup(1977). "Specificity and the interpretation of quantifier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mpany. 233-245.
- Jackendoff(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IT Press.
- Jackendoff(1990). *Semantic Structures*. Cambridge: MIT Press.
- Jackendoff(2002). *Foundations of Language: Brain, Meaning, Grammar, Evolu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 Jacobs(2001). "The dimensions of topic-comment." *Linguistics* 39(4). Hague: De Gruyter Mouton. 641-681.
- Jakobson(1958/1960). "Closing statement: Linguistics and poetics." Sebeok(ed.)(1960). *Styles in Language*. Cambridge: The MIT Press. 350-377.
- Jaszczolt(2012). "Semantics/pragmatics boundary disputes." von Heusinger, Maienborn & Portner(eds.)(2011). *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Natural Language Meaning* 3. Berlin: De Gruyter Mouton. 2333-2360.
- Jespersen(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Allen & Unwin. [임홍빈(2007) 참고]
- Jespersen(1937). *Analytic Syntax*. London: Allen & Unwin. [최윤지(2008) 참고]
- Jun, Y.-C.[전영철](2015). "Focus, topic, and contrast." Brown & Yeon(eds.)(2015). *The Handbook of Korean Linguistics*. Oxford: Wiley Blackwell. 179-195.
- Karagjosova(2013). "Aboutness topic, discourse topic and the structure of discourse." Fernández & Isard(eds.)(2013). *Proceedings of the 17th Workshop on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Dialogue*. Amsterdam: University of Amsterdam. 199-201.
- Karttunen(1976). "Discourse referents." McCawley(ed.)(1976). *Syntax and Semantics* 7. NY: Academic Press. 363-386.

- Kim, Y.-B.[김용범](2000). "Exclusiveness, contrastiveness, and exhaustivity." 언어 25(4). 서울: 한국언어학회. 521-543.
- Kiss(ed.)(1995). *Discourse Configurational Languag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27.
- Kiss(1998). "Identificational focus versus informational focus." *Language* 74(2). Washington: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245-273.
- Krifka(2006). "The origin of topic/comment structure, of predication, and of focusation in asymmetric bimanual coordination." Nascent Language Conference.
(<http://amor.cms.hu-berlin.de/~h2816i3x/Talks/BimanualCoordination.pdf>)
- Krifka(2007). "Basic notions of information structure."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Information Structure* 6. Postdam: University of Potsdam Press. 13-56.
- Krifka(2008). "What do contrastive topics and frame setters have in common?: the role of addressing and delimitation in information structures."
(https://amor.cms.hu-berlin.de/~h2816i3x/Talks/Contrast_Wuppertal_2.pdf)
- Kripke(1977). "Speaker's reference and semantic reference."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2. Malden: Blackwell Publishing. 255-276.
- Kroeger(2004). *Analyzing Syntax: A Lexical-Functional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no(1972).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a case study from Japanese and English." *Linguistic Inquiry* 3(3). Cambridge: The MIT Press. 269-320.
- Kuno(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Cambridge: The MIT Press.
- Kuno(1978). "Generative discourse analysis in America." Dressler(ed.)(1978). *Current Trends in Textlinguistics*. Berlin: De Gruyter. 275-294.
- van Kuppevelt(1995). "Main structure and side structure in discourse." *Linguistics* 33(4). Hague: De Gruyter Mouton. 809-833.
- Kuroda(1972). "The categorial and the thetic judgement: evidence from Japanese syntax." *Foundations of Language* 9(2). Boston: Springer. 153-185.
- Kuroda(2005). "Focusing on the matter of topic: a study of WA and GA in Japanes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4. Boston: Springer. 1-58.
- Lambrecht(1987). "Sentence focus, information structure, and the thetic-categorial distinction." *Berkeley Linguistic Society* 13.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Press. 366-382.
- Lambrecht(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mbrecht & Michaelis(1998). "Sentence accent in information questions: default and projection." *Linguistics and Philosophy* 21(5).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mpany. 477-544.
- Langacker(2001). "Discourse in cognitive grammar." *Cognitive Linguistics* 12(2). Berlin: Walter de Gruyter. 143-188.
- Langacker(2009). *Investigations in Cognitive Grammar*. Berlin: Mouton de Gruyter.
- Law(2007). "Topicalization in Malagasy, Tagalog and Tsou." Schwabe & Winkler(eds.)(2007). *On Information Structure, Meaning and Form: Generalization across Language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29-154.
- Lee, C.-M.[이정민](1999). "Contrastive topic: a locus of the Interface." Turner (ed.)(1999) *The Semantics/Pragmatics Interface from Different Points of View*. Oxford: Elsevier Science. 317-342.
- Lee, C.-M.[이정민](2000). "Topic, contrastive topic and focus: what's on our minds." *인지과학작업* 1(1-2). 서울: 서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21-38.
- Lee, C.-M.[이정민](2003). "Contrastive topic and/or contrastive focus." McClure(ed.)(2003). *Japanese/Korean Linguistics* 12. Stanford: CSLI Publications. 352-364.
- Lee, C.-M.[이정민](2017). "Contrastive topic, contrastive focus, alternatives, and scalar implicatures." Lee & Krifka(eds.)(2017). *Contrastiveness in Information Structure, Alternatives and Scalar Implicature*. Boston: Springer. 3-21.
- Lee, W.-B. & S.-E. Cho[이원빈 · 조성은](2003). "Argument scrambling and object shift." *생성문법연구* 13(1). 서울: 한국생성문법학회. 39-59.
- Levinson(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inson(2000). *Presumptive Meanings: The Theory of 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Cambridge: The MIT Press.
- Lewis(1979). "Scorekeeping in a language game."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8(3). Boston: Springer. 339-359.
- Li & Thompson(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Li(ed.)(1976). *Subject and Topic*. NY: Academic Press. 457-489.
- Low(2006). "The hidden path of semantic content within pragmatic context: a frequency study of the definite article *the*." von Heusinger & Turner(eds.)(2006). *Where Semantics Meets Pragmatics*. Amsterdam: Elsevier Ltd. 129-155.
- Löbner(1985). "Definites." *Journal of Semantics* 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79-326.
- Lyons, J.(1977). *Semantics* 1 ·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C.(1999). *Definite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thesius(1928). "On linguistic characterology with illustrations from English." *Actes du Premier Congrès International des Linguistes à la Haye*. 56-63. [임홍빈(2007) 참고]
- McCawley(1991). "Contrastive negation and metalinguistic negation." *The Proceedings of the 27th Annu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89-206.
- McGrath & Frank(2018). "Proposition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tanford: CSLI Publications.
(<https://plato.stanford.edu/entries/propositions/>)
- Meinong(1960). "The theory of objects." Chisholm(ed.)(1960). *Realism and the Background of Phenomenology*. NY: The Free Press. [이병덕(2017) 참고]
- Molnár(2002). "Contrast: from a contrastive perspective." Hasselgård, Johansson, Behrens & Fabricius-Hansen(eds.)(2002). *Information Structure in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Amsterdam: Rodopi. 147-161.
- Molnár(2006). "On different kinds of contrast." Molnár & Winkler(eds.)(2006). *The Architecture of Focus*. Berlin: Mouton de Gruyter. 197-233.
- Nolda(2004). "Topics detached to the left: on 'left dislocation', 'hanging topic', and related constructions in German." *ZAS Papers in Linguistics* 35. Berlin: ZAS. 423-448.
- Oh, C.-S.[오치성](2007). "Topic and focus constructions in spoken Korean." PhD Dissertation. Austin: University of Texas.
- Oh, C.-S.[오치성](2008). "Ratified and unratified topics in spoken Korean." *언어학* 16(3). 광주: 대한언어학회. 25-41.
- Oh, C.-S.[오치성](2009). "-*Un/Nun* as an unratified topic marker in Korean." *언어* 34(3). 서울: 한국언어학회. 603-624.
- Pan & Hu(2002). "Representing topic-comment structure in Chinese." Lee, Kim, Choi & Lee(eds.)(2002). *Proceedings of the 16th Pacific Asia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 Seoul: The Korean Society for Language and Information. 382-390.
- Pan & Hu(2008). "A semantic-pragmatic interface account of (dangling) topics in Mandarin Chinese." *Journal of Pragmatics* 40.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1966-1981.
- Paul(1880).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 Tübingen: Niemeyer. [Gundel & Fretheim(2004) 참고]
- Partee(1970). "Opacity, coreference, and pronouns." *Synthese* 21(3). Dordrecht: D. Reidel

- Publishing Company. 359-385.
- Pesetsky(1987). "Wh-in-situ: movement and unselective binding." Reuland & ter Meulen (eds.)(1987). *The Representation of (In)definiteness*. Cambridge: MIT Press. 98-129.
- Pierrehumbert & Hirschberg(1990). "The meaning of intonational contours in the interpretation of discourse." Cohen, Morgan & Pollack(eds.)(1990). *Intentions in Communication*. Cambridge: MIT Press. 271-311.
- Pietroski(2015). "Logical form."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tanford: CSLI Publications.
(<https://plato.stanford.edu/entries/logical-form/>)
- Pitt(2012). "Mental representatio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tanford: CSLI Publications.
(<https://plato.stanford.edu/entries/mental-representation/>)
- Portner & Yabushita(1998).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topic phras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1.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mpany. 117-157.
- Premper(2001). "Universals of the linguistic representation of situations('participation')." Burkhardt, Steger & Wiegand(eds.)(2001).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I*. Berlin: Walter de Gruyter. 477-495.
- Prince(1978). "A comparison of WH-clefts and *it*-clefts in discourse." *Language* 54(4). Washington: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883-906.
- Prince(1981). "Toward a taxonomy of given/new information." Cole(ed.)(1981). *Radical Pragmatics*. NY: Academic Press. 223-255.
- Prince(1985). "Fancy syntax and 'shared knowledge'." *Journal of Pragmatics* 9(1).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65-81.
- Prince(1992). "The ZPG Letter: subjects, definiteness, and information-status." Thompson & Mann(eds.)(1992). *Discourse Description: Diverse Analyses of a Fundraising Text*.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95-325.
- Prince(1998). "On the limits of syntax, with reference to left-dislocation and topicalization." Culicover & McNally(eds.)(1998). *Syntax and Semantics* 29. NY: Academic Press. 281-302.
- Pustejovsky(1995).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MIT Press.
- Quine(1948). "On what there is." *Review of Metaphysics* 2(5). Washington: Philosophy Education Society. 21-38.
- Reboul(1997). "What (if anything) is accessibility?: a relevance-oriented criticism of Ariel's

- Accessibility Theory of referring expressions." Connolly et al.(eds.)(1997). *Discourse and Pragmatics in Functional Grammar*. Berlin: de Gruyter. 91-108.
- Reboul(2001). "Foundations of reference and predication." Burkhardt, Steger & Wiegand(eds.)(2001).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I*. Berlin: Walter de Gruyter. 509-522.
- Reinhart(1981). "Pragmatics and linguistics: an analysis of sentence topics." *Philosophica* 27(1). Ghent: Ghent University Press. 53-94.
- Reinhart(2004). "Topics and the conceptual interfaces." *Context-Dependence in the Analysis of Linguistic Meaning* 11. Oxford: Elsevier Ltd. 275-305.
- Rettler & Bailey(2017). "Object."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tanford: CSLI Publications.
(<https://plato.stanford.edu/entries/object/>)
- Rizzi(1997). "The fine structure of the left periphery." Haegeman(ed.)(1997). *Elements of Grammar: Handbook of Generative Syntax*.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281-337.
- Roberts(2011). "Topics." von Heusinger, Maienborn & Portner(eds.)(2011). *The 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Natural Language Meaning* 2. Berlin: De Gruyter Mouton. 1908-1934.
- Rochemont(1986). *Focus in Generative Grammar*.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Rooth(1992). "A theory of focus interpretation." *Natural Language Semantics* 1. Dordrecht: Springer. 75-116.
- Rosengren(1997). "The thetic/categorical distinction revisited once again." *Linguistics* 35. Hague: De Gruyter Mouton. 439-479.
- Russell(1905). "On denoting." *Mind* 1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479-493.
- Sasse(1987). "The thetic/categorical distinction revisited." *Linguistics* 25. Hague: De Gruyter Mouton. 511-580.
- Schiffrin, Tannen & Hamilton(2001). "Introduction." Schiffrin, Tannen & Hamilton(eds.) (2001). *The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1-10.
- Schneider(2005). "Events."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DOI: 2161-0002.
(<https://www.iep.utm.edu/events/>)
- Shi(2000). "Topic and topic-comment constructions in Mandarin Chinese." *Language* 76(2). Washington: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383-408.

- Shibatani(1991). "Grammaticalization of topic into subject." Traugott & Heine(eds.)(1991).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93-133.
- Siewert(2016). "Consciousness and intentionality."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tanford: CSLI Publications.
(<https://plato.stanford.edu/entries/consciousness-intentionality/>)
- Strawson(1950). "On referring." *Mind* 5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20-344.
- Strawson(1964). "Identifying reference and truth-values." *Theoria* 30(2). Arlöv: Berlings. 96-118.
- Stubbs(1983). *Discourse Analysis: The Sociolinguistic Analysis of Natural Language*. Oxford: Basil Blackwell Publisher Limited.
- Svolacchia, Mereu & Puglielli(1995). "Aspects of discourse configurationality in Somali." Kiss(ed.)(1995). *Discourse Configurational Languag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65-98.
- Thurgood(1978). "Thematicization and aspects of the verbal morphology in Burmese: the principles of organization." *Proceedings of the 4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Berkeley: UC Berkeley Linguistics. 254-267.
- Thráinsson(2001). "Object shift and scrambling." Baltin & Collins(eds.)(2001).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yntactic Theory*. Malden: Blackwell Publishing. 148-202.
- Timm(1991). "The discourse pragmatics of NP-initial sentences in Breton." Fife & Poppe(eds.)(1991). *Studies in Brythonic Word Order*.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75-310.
- Vallduví(1992). *The Information Component*. NY: Garland.
- Vallduví & Engdahl(1996). "The linguistic realization of information packaging." *Linguistics* 34(3). Hague: De Gruyter Mouton. 459-519.
- Vermeulen(2009). "On the syntactic typology of topic marking: a comparative study of Japanese and Korean." *UC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1. Dallas: SIL International. 335-363.
- Walker, Joshi & Prince(1998). "Centering in naturally occurring discourse: an overview." Walker, Joshi & Prince(eds.)(1998). *Centering Theory in Discourse*. NY: Oxford University Press. 1-28.
- Ward, G. & Birner(2001). "Discourse and information structure." Tannen, Hamilton & Schiffrin(eds.)(2001). *The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Malden: Blackwell

- Publishing. 119-137.
- Ward, G. & Birner(2004). "Information structure and non-canonical syntax." Horn & G. Ward (eds.)(2004). *The Handbook of Pragmatics*. Malden: Blackwell Publishing.
- Ward, G. & Birner(2011). "Discourse effects of word order variation." von Heusinger, Maienborn & Portner(eds.)(2011). *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Natural Language Meaning* 3. Berlin: De Gruyter Mouton. 1934-1963.
- Ward, G. & Birner, Huddleston(2002). "Information packaging." Huddleston & Pullum(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63-1447.
- Wedgwood, Pethő & Cann(2006). "Hungarian 'focus position' and English *it*-clefts: the semantic underspecified of 'focus' readings."
(http://www.lel.ed.ac.uk/~ronnie/JoS-paper_forESRC.pdf)
- Wee, H.-K.[위혜경](1998). "Semantics and pragmatics of contrastive topic in Korean and English." Akatsuka, Hoji, Iwasaki, Sohn & Strauss(eds.)(1998). *Japanese/Korean Linguistics* 7. Stanford: CSLI Publications. 549-565.
- Yablo(2014). *Aboutnes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 Yang, D.-W.[양동휘](1974). "On the Notion of Topic I."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23.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469-510.
- Yang, I.-S.[양인석](1973). "Semantics of Delimiters." 어학연구 9(2), 서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84-122.
- Yokoyama(1986). *Discourse and Word Order*.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Zeevat(2004). "Asher on discourse topic." *Theoretical Linguistics* 30. Berlin: De Gruyter Mouton. 203-211.

부록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1.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일시, 장소, 배석자는 아래와 같다.

[일시]

- 1차: 2007년 10월 3일(목) 09:34-11:45(131분)
- 2차: 2007년 10월 3일(목) 14:30-16:25(115분)

[장소] 백화원 영빈관

[배석자]

- 南: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기록)
- 北: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2. 2013년 공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후 '대화록')'은 2008년 1월 3일에 최초 작성되었고, 전체 분량은 A4 64쪽 정도이다. 전문은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 제공되어 있다.
3. 본고는 대화록이 19개의 하위 담화 단위로 조직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부록에 포함된 부분은 남측에서 주요 의제를 제시하고 있는 4번째 담화 단위의 일부로, 이는 다시 4개의 하위 담화 단위로 구성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들도 하위 담화 단위들로 구성된다.
4. 화제를 분석하기 위해 원문을 문답으로 구성하였고, 명시적·암시적 질문 모두 설명의문 문으로 변환하였다. 본고가 추가한 부분은 괄호로 표시하였고, 각 문장 혹은 절의 화제로 분석된 부분은 밑줄과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특히 성분생략의 화제는 괄호 안에 밑줄과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5. 발췌된 원문과 본고의 분석 순서로 배치한다.

6. 원문

대통령: 내가 상당히 긴장한 모양입니다. 내가 서류를 바꾸어 가지고...(웃음) 옛날에 우리 변호사가 다른 사건 서류를 가지고 나와서 변론을 하다가 실수를 하는 걸 봤는데 내가 오늘 바뀌 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반목과 대결에서 벗어나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해 남북을 왕래한 인원이 10만2000명 정도 됩니다. 이 숫자는 2000년에 비해서 13배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쌍방간 교역액을 보면 작년도가 13억5000만 달러 정도인데 이것은 역시 2000년에 비해 3.1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획기적인 사건은 없었지만 큰 진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7년의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성과는 남북 간에 신뢰가 많이 증진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속도를 높여서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김 위원장과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북측에서 볼 때는 많은 한계도 보였을 것입니다. 핵 문제가 불거졌고, 정치적 화해와 군사적 신뢰 구축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전이 아주 미흡했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과거에는 부각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새롭게 제기되어서 새로운 진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난 7년간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남북 관계에 걸맞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 신뢰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전향적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를 본격화하고 남북경협도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진전은 역사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분단과 함께 시작된 통일의 노력이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부여한 시대적 요청은 앞으로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남북 관계를 확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힘을 합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하면 백 년 전의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합의하고 또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고 또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평화 정착, 두 번째는 경제 협력의

확대, 세 번째로는 통일과 화해하는 세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내가 김정일 위원장과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 주고 책임자들이 협의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는 큰 테두리를 그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협력방안들을 협의하고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남북의 공동번영을 앞당기기 위해서 남북간 경협외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며, 남북간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큰 틀에 있어서 실무자들과 국민들에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의 공동 번영, 남북의 화해와 통일 이 세 가지 의제 문제를 놓고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이전에 한반도에 평화가 공고하게 정착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토대위에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다가 보면 통일은 점차적으로 저절로 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평화의 토대 위에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주도하에 통일지향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냉전체제 종식과 핵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큰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핵문제는 관련 각 측의 노력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았으며, 이는 김 위원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55년간 지속되는 현 상황은 청산되어야 하며 이런 면에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김 위원장께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문만 열어놓는다면 미국이 이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를 속도를 내서 취하도록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해서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출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협상 개시에 도움이 된다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방식대로 3국 정상회담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 분야의 협력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여타 분야의 교류협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진한 군사 분야의 협력에서도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대부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11월 중 2차 국방 장관 회담을 개최해서 상호 합의 이행이 용이한 사안부터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남북 간에 공동번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남북 간에 경제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제는 체제·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협력이 가능한 영역으로 동북아시아 새로운 질서의 중심도 경제가 될 것입니다. 남북 경험은 남북 모두가 경제적 활로를 찾고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그동안 남북 관계를 이끌어온 중심축입니다. 지난 7년간 3대 경험이 중심이 되어서 남북관계 진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앞으로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철도·도로 개통, 금강산 관광 특구 확대 등을 우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공단 이외의 지역은 통행, 통신 및 군사적 보장 등 여러 장애 요인으로 인해서 경험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성공단의 성공을 발판으로 남북이 함께하는 경제특구를 추가로 개발해나가는 것이 장애요인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특히 해주 지역에 기계·중화학 공업 위주의 서해 남북 공동경제 특구를 설치하게 되면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세계적인 공단, 나아가서는 경제지역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해의 평화적 이용과도 연결이 돼서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농업·임업 분야 협력과 보건의료분야 협력, 지하자원 개발협력을 추진해나가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이 함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발전 구상을 협의하고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씩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남북 간에 이러한 제반 경제협력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상시적 협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는 신뢰에 바탕한 화해에서 출발합니다. 그 첫 단계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미래를 언제까지나 과거의 굴레에 가두어둘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자체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만큼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과거 전쟁시기와 그 이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불행한 과거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큰 틀에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의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화해를 제도화하기 위해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어도 연 1회 정도는 남북이 정상 간에 만남을 만들어야 하며, 당국 간 상설 협의기구도 기구로서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상호개설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통일문제는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정리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서로의 통일 방안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우선 평화를 정착시키고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그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한반도 평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남북화해의 세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남북 정상이

자주 만나다 보면 결국 통일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몇 가지 추가 의제로서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보다 높은 단계의 포괄적인 경제 협력 강화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협이 확대되었을 때 국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 경협이 확대되면, 국제시장에서는 WTO 규정을 들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광협력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우리 측이 보기엔 큰 성공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개성과 백두산 등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경제시찰단을 상호교환하는 문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경제시찰단의 상호교환이 있었습지만, 여러 사정으로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제협력을 위해서 준비단계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 전쟁 시 사망한 쌍방 군인들의 유해 발굴 송환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대화를 시작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북측이 IMF라든지 그 밖에 세계은행 또는 ADB 이런 국제기구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회담과 정부 당국자 간 회담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회 간의 회담,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 간에 교류와 회담이 있는 것이 남북 간에 교류협력을 좀 장애가 되고 있는 법적·제도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심을 부린다면 이미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북경 올림픽에 남북단일팀 참가를 성사하기 위해 정상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큰 주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말씀을 드렸습지만, 나머지 문제는 앞으로 추가적인 의제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딱딱하게 말씀드렸습지만...

김정일: 감사합니다. 어제 회담에서 이야기 다...

김양건: 기본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장 동지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그대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

김정일: 밤에 보고 받다 보니까 잘...

김양건: 다 아시는 것이고, 다 우리 충분히 논의된 문제입니다.

7. 분석

[4주요의제 제시]

- (Q: **(당신은)** 왜 그러십니까?)
A: 내가 상당히 긴장한 모양입니다.
(Q: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A: 내가 서류를 바꾸어 가지고...(웃음)
(Q: **(당신은)** 왜 웃습니까?)
A: 옛날에 우리 변호사가 다른 사건 서류를 가지고 나와서 변론을 하다가 실수를 하는 걸 봤는데 내가 오늘 바꿔 들고 말씀드렸습니다(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4-0기존 남북 관계 상황]

- (Q: **(당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A: **(나는)** 그동안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반목과 대결에서 벗어나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Q: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A: 지난해 남북을 왕래한 인원이 10만2000명 정도 됩니다(되기 때문입니다).
(Q: **그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A: **이 숫자는** 2000년에 비해서 13배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Q: **(당신은)** 또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A: 그리고 쌍방간 교역액을 보면 작년도가 13억5000만 달러 정도인데(정도이기 때문입니다)
(Q: **그 교역액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A: **이것은** 역시 2000년에 비해 3.1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Q: **(당신은)**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A: **(나는)** 획기적인 사건은 없었지만 큰 진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Q: **(당신은)** **큰 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7년의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성과는** 남북 간에 신뢰가 많이 증진된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Q: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A: 그동안 국내외에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속도를 높여서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노

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Q: **(당신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A: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Q: **(당신은)** 왜 그랬습니까?)

A: **(나는)** 하나하나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김 위원장과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Q: **(당신은)** 우리는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A: 그러나 **북측에서 볼 때는** 많은 한계도 보였을 것입니다.

(Q: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A: 핵 문제가 불거졌고, 정치적 화해와 군사적 신뢰 구축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전이 아주 미흡했습니다(미흡했기 때문입니다).

(Q: **(당신은)** 또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A: 아울러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과거에는 부각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새롭게 제기되어서 새로운 진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했기 때문입니다).

(Q: **(당신은)** 앞으로 **(남북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A: **(나는)** 이제 **(남북이)** 지난 7년간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남북 관계에 걸맞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당신은)** 또 앞으로 **(남북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A: **(남북이)** 남북 간에 신뢰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전향적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를 본격화하고 남북 경험도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Q: **(당신은)**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A: **(나는)** **남북 관계 진전은** 역사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Q: **(당신은)** **이 회담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A: **(나는)** **이번 정상회담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분단과 함께 시작된 통일의 노력이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Q: **(당신은)** **(이 회담은)** 또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A: **(나는)** **이번 정상회담에 부여한 시대적 요청은** 앞으로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남북 관계를 확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Q: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A: **(나는)** 남북이 힘을 합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하면 백 년 전의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있기 때문입니다).
- (Q: **(당신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A: **(나는)**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합의하고 또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고(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Q: **(당신은)** 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A: 또 **(나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4-1향후 남북 관계 기본 과제]

- (Q: **(당신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A: **(나는)** 남북 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평화 정착, 두 번째는 경제 협력의 확대, 세 번째로는 통일과 화해라는 세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Q: **(당신은)** 두 정상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A: **(나는)** 이번 회담에서 내가 김정일 위원장과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남북 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고 책임자들이 협의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는 큰 테두리를 그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Q: **(당신은)** 두 정상이 또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A: **(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협력방안들을 합의하고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남북의 공동번영을 앞당기기 위해서 남북 간 경험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며, 남북 간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큰 틀에 있어서 실무자들과 국민들에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1-1평화 정착]

- (Q: **(당신은)** 어떤 식으로 발언합니까?)
 A: **(나는)**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의 공동 번영, 남북의 화해와 통일 이 세 가지 의제 문제를 놓고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Q: **(당신은)** 왜 그런 순서로 발언합니까?)
 A: **(나는)** 통일 이전에 한반도에 평화가 공고하게 정착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Q: **(당신은)** 왜 그런 순서로 발언합니까?)
 A: **(나는)** 평화의 토대 위에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다가 보면 **통일은** 점차적으로 저절로 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Q: **(당신은)** 입장이 무엇입니까?)
 A: **확고한 평화의 토대 위에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 (Q: **(당신은)** 원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 (Q: **(당신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A: **(나는)** **남북 주도하에 통일지향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 (Q: **(남북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A: **(남북은)** 이를 위해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냉전 체제 종식과 핵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큰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4-1-1-1핵문제]

- (Q: **핵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A: 현재 **핵문제는** 관련 각 측의 노력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았으며
- (Q: **(당신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A: **이는** 김 위원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결과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 (Q: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A: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55년간 지속되는 현 상황은** 청산되어야 하며
- (Q: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A: **이런 면에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4-1-1-2냉전 체제 종식]

[4-1-1-2-1북미 관계]

- (Q: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A: **(나는)** 김 위원장께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문만 열어놓는다면 미국이 이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를 속도를 내서 취하도록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
- (Q: **(당신은)** 무엇을 바랍니까?)
 A: **(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해서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될 수 있

으면 좋겠습니다.

(Q: **(당신은)** 또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A: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출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협상 개시에 도움이 된다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방식대로 3국 정상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4-1-1-2-2군사 협력]

(Q: **군사 협력**은 어떻습니까?)

A: **군사 분야의 협력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Q: **(군사 협력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A: **여타 분야의 교류협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진한 군사 분야의 협력에서도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Q: **(군사 협력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A: **무엇을 할 것인지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대부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Q: **(당신은)**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다?)

A: **(나는)** 11월 중 2차 국방 장관 회담을 개최해서 상호 합의 이행이 용이한 사안부터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4-1-2경제 협력]

(Q: **다음은 (당신은)** 무엇을 이야기할 것입니까?)

A: **다음은 (나는)** 남북 간의 공동 번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Q: 남북 간의 공동 번영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남북 간에 경제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시급합니다(시급하기 때문입니다).

(Q: **경제 협력은** 왜 중요합니까?)

A: 특히 **경제는** 체제·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협력이 가능한 영역으로 **동북아시아 새로운 질서의 중심도** 경제가 될 것입니다(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Q: **경제 협력은** 어떤 의미입니까?)

A: **남북경협은** 남북 모두가 경제적 활로를 찾고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그동안 남북 관계를 이끌어온 중심축입니다.

(Q: **(남북 경협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A: **(남북 경협은)** 지난 7년간 3대 경협이 중심이 되어서 남북 관계 진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Q: **(남북 경험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A: **(남북 경험은)** 앞으로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철도·도로 개통, 금강산 관광 특구 확대 등을 우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4-1-2-1개성공단]

(Q: **개성공단은** 어떻습니까?)

A: 그러나 **개성공단은** 공단 이외의 지역은 통행, 통신 및 군사적 보장 등 여러 장애요인으로 인해서 경험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4-1-2-2추가 경제특구]

(Q: **한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무엇이 한계의 해결책입니까?)

A: **개성공단의 성공을 발판으로 남북이 함께하는 경제특구를 추가로 개발해나가는 것이** 장애요인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Q: **경제특구 추가 개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A: **경제특구는 특히 해주 지역에 기계·중화학 공업 위주의 서해 남북 공동 경제특구를 설치하게 되면**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세계적인 공단, 나아가서는 경제지역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Q: **경제특구는**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A: **경제특구는** 아울러 서해의 평화적 이용과도 연결이 돼서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1-2-3기합의 기타 과제]

(Q: **또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무엇이 또 시급한 과제입니까?)

A: **아울러 남북 간에 이미 합의한 농업·임업 분야 협력과 보건의료분야 협력, 지하자원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Q: **협력 추진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A: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이 함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발전 구상을 협의하고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씩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당신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A: **(나는)** 남북 간에 이러한 제반 경제협력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상시적 협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1-3 화해와 통일]

- (Q: 다음은 (당신은) 무엇을 이야기할 것입니까?)
A: 다음은 (나는)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3-1 화해]

- (Q: 평화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A: 평화는 신뢰에 바탕한 화해에서 출발합니다.
(Q: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A: 그 첫 단계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Q: 왜 그렇습니까?)
A: 미래를 언제까지나 과거의 굴레에 가두어둘 수는 없습니다(없기 때문입니다).

[4-1-3-1-1 이산가족]

- (Q: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무엇이 가장 시급합니까?)
A: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 자체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Q: (당신은) 무엇을 바랍니다?)
A: (나는) 최소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만큼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당신은) 또 무엇을 바랍니다?)
A: 아울러 (나는) 과거 전쟁시기와 그 이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불행한 과거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큰 틀에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바랍니다?)
A: (나는) 위원장의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4-1-3-1-2 기타 제도화]

- (Q: 또 (남북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A: (남북은) 이와 함께 남북 간 화해를 제도화하기 위해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어도 연 1회 정도는 남북이 정상 간에 만남을 만들어야 하며, 당국 간 상설 협의 기구도 기구로서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상호개설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4-1-3-2 통일]

- (Q: **통일문제**는 어떻습니까?)
 A: **통일문제**는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정리가 잘 되었다고 봅니다.
 (Q: **(당신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A: **(나는)** 서로의 통일 방안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우선 평화를 정착시키고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Q: **(당신은)** 또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A: 또한 그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Q: **(당신은)** 또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A: 앞서 언급한 한반도 평화,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남북 화해의 세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남북 정상들이 자주 만나다 보면 결국 통일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4-2향후 남북관계 추가 과제]

[4-2-1경제협력 강화 합의서]

- (Q: **(당신은)**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그 밖에 몇 가지 추가 의제로서 **(나는)**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보다 높은 단계의 포괄적인 경제협력 강화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A: 이것이 경험이 확대되었을 때 국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것이기 때문입니다).
 (Q: **(당신은)** 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A: 앞으로 남북 경험이 확대되면, 국제시장에서는 WTO 규정을 들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Q: **(당신은)** 어떤 것을 논의해 보고 싶습니까?)
 A: **이것은** 앞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로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2-2관광 협력 확대]

- (Q: **(당신은)** 또 무엇을 이야기할 것입니까?)
 A: 그리고 **(나는)** 관광 협력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2-1금강산 관광]

- (Q: **성공 사례**는 무엇이라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어떤 것이 성공 사례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A: **금강산 관광사업은** 우리 측이 보기엔 큰 성공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4-2-2-1개성 및 백두산 관광]

(Q: 또 **성공 사례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어떤 것이 또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A: 나아가서는 **개성과 백두산 등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4-2-3경제시찰단 교환]

(Q: **(당신은)** 또 무엇을 이야기할 것입니까?)

A: 다음에 **(나는)** 경제시찰단을 상호교환하는 문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A: 그동안 몇 차례 경제시찰단의 상호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사정으로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제협력을 위해서 준비 단계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2-4유해 발굴 송환]

(Q: **(당신은)** 또 무엇을 이야기할 것입니까?)

A: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 전쟁 시 사망한 쌍방 군인들의 유해 발굴 송환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대화를 시작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생각하구요.

(Q: **(당신은)** 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A: 그 다음에 **우리는** 북측이 IMF라든지 그 밖에 세계은행 또는 ADB 이런 국제기구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Q: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A: **(나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당신은)** 무엇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A: **(나는)** 정상회담과 정부 당국자 간 회담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회 간의 회담,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 간에 교류와 회담이 있는 것이** 남북 간에 교류협력을 좀 장애가 되고 있는 법적·제도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4-2-5남북단일팀]

(Q: **(당신은)** 또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A: 욕심을 부린다면 이미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나는) 북경 올림픽에 남북단일팀 참가를 성사하기 위해 정상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3발언 정리]

(Q: **이야기들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A: **세 가지 큰 주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나머지 문제는** 앞으로 추가적인 의제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딱딱하게 말씀드렸습시다만...

(Q: **(당신은)**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A: **(나는)** 감사합니다.

(Q: **당신은** 또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A: 어제 회담에서 **이야기** 다...

(Q: **(이야기)** 어떻게 됐습니까?)

A: **(이야기)** 기본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Q: **(이야기)**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A: **(이야기)** 어제 상임위원장 동지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그대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

(Q: **(당신은)** 어떻게 보고 받았습니까?)

A: **(나는)** 밤에 보고 받다 보니까 잘...

(Q: **(이야기)** 어떤 문제입니까?)

A: **(이야기)** 다 아시는 것이고, 다 우리 충분히 논의된 문제입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properties and the realization devices of Korean topic

Kim, Minsun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determine the nature of Korean topic, and to ultimately establish its functions and system. The analysis reflects the cognition that topic is the matter of correspondence between cognitive states and linguistic forms, and is not only a sentence constituent but also a discourse entity. The property of topic is comprehended as givenness in attention, and its realization devices as sentence-initials and particles, which result from free word orders and various markers in Korean. The prominence of attention is realized as sentence articulation with sentence-initials, and its shift and continuation as sentence-initial constructions and particles. Korean topics consist of shifted and continued ones, the former of which consist of contrastive and non-contrastive ones.

Givenness is defined as the property relative to the assumptions of speakers that the intended propositions and entities are already given in hearers' cognitive states, and is constituted of referential and relational one. The former is of knowledge and consciousness, and the latter is of attention. Presupposition and definiteness form the former, and background and topic form the latter. The other three givenness realizations are considered as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opics. Background-focus articulation can be treated as propositional, and topic-comment articulation as sentential.

Sentence-initial constructions cover preposings, left-dislocations, double-subjects and free topics. These mostly function as shifted topics. Particles determine whether they are contrastive or not. Topics are shifted between discourse units,

or between sentences in a discourse unit. Some shifted topics between sentences can be analyzed as focus, which is marked by particles. Particle constructions cover 'nun', 'ga', null particle and constituent ellipsis. Particles determine whether they are contrastive or not, and shifted or continued. Continued topics occur only between sentences. Eventually, topic is established as 'an entity in attention' from an aspect of cognitive states, 'the sentence-initial constituent in a categorical sentence' from an aspect of linguistic form, and 'the delimited domain for the information expressed by the following part' from an aspect of information management.

Key words: topic, givenness, sentence-initial constructions, particle constructions, discourse, articulation, knowledge, consciousness, attention, definiteness, presupposition, background, focus, shifted topic, continued topic, contrastive topic, non-contrastive topic

Student ID: 2005-30896